

D.H.로오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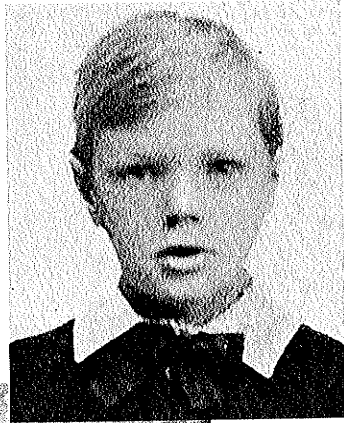
걸작 중·단편선

두 쌍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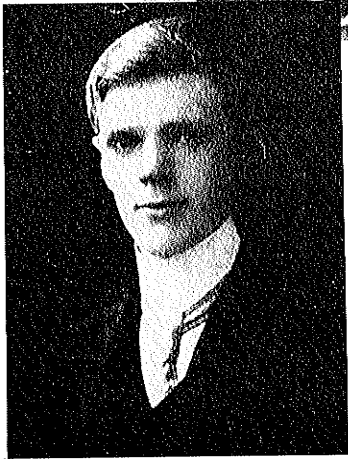
현광식 옮김

한림대학교 출판부

유년기의
로오렌스



로오렌스의 생가



청년시절의
로오렌스



아내 프리이다



로오렌스가 그린 그림

목 차

1. 두 쌍의 결혼	7
2. 섬을 사랑한 사나이	86
3. 지미와 절망에 빠진 여자	122
4. 차표를 사겠어요	158
5. 장미원 속의 그림자	177
6. 두번 째 신랑감	196
7. 프러시아 장교	210
8. 병든 광부	241
9. 가 구	251
10. 거위 시장	265

작품해설/281

작가연보/290

1. 두 쌍의 결혼

I

런들리 씨는 알데크로스의 첫번째 목사였다. 옛날부터 이 작은 마을의 오두막들은 줄곧 평화롭게 줄지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쾌청한 일요일 아침이면 2, 3 마일이나 오솔길과 농장들을 가로질러 그레이트이미드의 교구 교회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 곳에 탄갱이 생기게 되자 큰길가에 주택들이 행하니 줄지어 들어서고 떠돌이 노동자들을 모아 놓은 듯한 이주민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두막이나 토박이 사람들은 거의 다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렇게 나타난 새 탄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알데크로스에 교회가 세워져야 했지만 건축 비용이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작은 교회의 건물 — 돌과 모르타르로 된 생쥐 곶사 등 같은 — 이 이 곳에 웅크리고 있게 된 것이다. 그 건물에는 서쪽 모퉁이에 두 개의 작은 탑이 마치 두 개의 귀처럼 달려 있었다. 그 교회는 큰 길가의 주택 지대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두막과 사과나무가 서 있는 인접한 들판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교회 건물은 어쩐지 불안하고 소심한 인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건물의 모습 — 신축한 것이지만 움추린 듯한 — 을 감추기 위해 잎이 넓은 담쟁이덩

굴을 심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마치 좌초된 배가 들판에서 잠자는 것 같았고, 푸른 나뭇잎들에 의해 깊숙이 덮여 있었다. 얼마 후 여기까지 벽돌집들이 속속들이 들어서자 교회는 이 집들 때문에 더욱 더 왜소해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은 이제 폐가가 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 어니스트·린들리 목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스물일곱 살의 젊은 사람으로 세포크에서는 부목사로 일했었다. 그는 평범한 젊은이였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목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캠브리지 주(뉴잉글랜드 동부의 주) 목사의 딸로서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연간 목사의 생활비 1천 파운드를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린들리 부인에겐 수종의 돈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 신혼 부부는 이곳에서 약 120파운드의 생활비로 살아가야 했고 그러면서도 사회 상류계급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 목사 부부는 새로 이 곳에 온 불평 많고 거칠은 탄쟁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농장 노동자들에게 익숙해 있던 린들리 씨는 자기가 의심의 여지없이 상류 혹은 지배계급에 속한다고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지방의 명문 가정에는 겸손한 태소를 취해야 했지만 그 자신도 그들과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데크로스의 서민들은 목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 린들리 목사는 자신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 회의를 품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목사는 탄쟁 주민들이 이와같은 신분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차차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 생활에서 목사가 필요치 않았으며, 또 그런 뜻을 직접 목사 앞에서 냉정하게 말해 주었다. 이 곳의 여자들은 린들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 사람들은 아주 바쁘죠.” 또는 “이 곳에 오셔도 아무 쓸모없어요. 우리는 비국교도들이니까요.” 남자들은 린들리 목사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한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린들리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멸감을 선입견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장난스럽게 혹은 좀 거만한 태도로 대했다.

드디어 그는 화가 나서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자기의 대다수의 신도에 대한 의식적인 증오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오를 느끼게 되었다(이 사실을 그도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회활동을 협소하게 몇 명의 마을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켰고 스스로 굴복하고 말았다. 린들리 목사는 그들 사이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언제나 의지했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평판은 얻지 못했다. 그는 몹시 가난해졌고 그 지방의 저속한 상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사회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목사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위를 맞춰 줄 의욕도 생각도 없었으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곳에 자신을 밀어넣을 힘도 없었다. 이제 목사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 목사 부인은 울분을 느끼고 분개했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고자세를 취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수입은 너무나 보잘것 없었고 상인들이 내미는 청구서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은 보기에 민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녀가 잘난 체 해봐도 대체로 냉정한 조롱만 받을 뿐이었다.

자존심까지 깊이 상처를 받은 채 그녀는 무관심하고 냉정한 주민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집 밖에서도 안에서도 곧잘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집 밖에서 화를 내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는 집안에서만 화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 그녀의 분노의 정도는 너무 심하여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을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을 파괴시키고 자기와 남편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들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두려운 나머지 울분을 가라앉히고 말았다. 공포에 굴복한 괴로운 심정으로 그녀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피난처 —바로 그 우울하고 가난한 목사 사택—로 숨어 버린 것이다.

그녀는 매년 거의 기계적으로 아이를 하나씩 낳았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였다. 하지만 심한 분노와 비참한 느낌, 혐오감 등을 억제해 온 결과 그녀는 점점 몸이 쇠약해졌고 드디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지만 성격상 따스한 맛은 없었고 좀 딱딱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들을 집에서 가르쳤고 자존심을 한껏 키워주었으며, 엄전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여 분명히 그리고 강압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하게 했다. 그 결과 딸들은 주위의 서민들과 떨어져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목사의 딸들은 모두 예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점잖은 빈민들에게 흔히 보는, 청초하고 반투명한 —이상할 정도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점차로 린들리 부부는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언제나 가게의 수지를 맞추려고 물건 값을 깎고, 딸들을 숙녀의 틀에 맞추기 위해 언행을 엄하게 다스리고 조심시키는 한편, 야심을 갖도록 잔소리를 하고 여러가지 일을 맡기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 아침이면 어머니를 제외하고 온 가족들이 오솔길을 따라 교회로 갔다. 다리가 긴 딸은 좀 짧은 듯한 드레스를 입었고, 아들은 검은 상의에 긴 회색 바지를 입었는데 몸에 맞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교구민 곁을 말없이 지나갔다 —말쑥한 얼굴에 ‘숙명’처럼 타고난 자존심으로 어린 티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두 눈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제일 나이 많은 메어리 양이 선두에 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키가 크고 가냘팠고, 예쁜 옆 모습에 좀 뽀내는 듯한 순결한 용모— 고결한 운명에 순종하려는 —였다. 그 아래의 루이자 양은 작은 키에 포동포동 살찐으며 고집센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상(理想)보다 적이 더 많았다. 루이자 양은 작은 아이들을 돌보고 언니인 메어리 양은 더 큰 아이들을 돌보았다. 탄쟁촌 아이들은 창백한 얼굴의 목사 가족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말없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목사 가족들의 초연한 태도와 점잖은 기품에 감명을 받았지만, 어린 남자 아이들의 맞지않는 바지를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성직자의 가족에게

서 열등감을 느꼈고 마음속에 증오심이 솟아남을 금할 수 없었다.

메어리 양은 한가한 때엔 가정 교사로 상인의 어린 딸들을 몇 명 가르쳤다. 루이자 양은 집안 살림을 하면서 교회 신도들과 다정하게 사귀었고, 26 렛슨에 13 실링을 받고 광부의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II

큰딸 메어리가 스무 살 쯤 되었을 무렵의 어느 겨울날 아침, 린들리 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깡라픈 몸에 검은 외투를 입고 창넓은 중절모를 쓰고, 겨드랑이에 흰종이를 한 묶음 끼고서 울터크로스로 내려갔다. 그는 교구의 달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목사는 이제 세상사에 좀 무관심한, 창백한 안색의 중년 남자가 되었다. 그는 기차가 건널목을 덜커덩거리며 지나서 탄갱—선로를 따라 바쁜듯이 씹씩거리는데—으로 지나가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목제 의족을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걸어와서 차단기를 열자 목사는 건널목을 건넜다. 바로 그의 왼쪽 도로와 철도 밑에, 오두막의 붉은 지붕이, 잎이 떨어진 사과나무가지 사이로 보였다. 린들리 목사는 낮은 담을 돌아서, 큰 길에서 오두막에 이르는 닳아빠진 계단을 내려갔다. 그 집은 작고도 고요한 지하 세계에 희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기차의 굉음과 석탄차의 철컹거리는 소음 밑에서, 꼭 다문 봉오리를 지닌 눈꽃이 잎없는 까치밤나무 숲 속에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목사가 막 노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짹짹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그의 바로 뒤 검은 오두막의 열린 문을 통해 까만 레이스 모자를 쓴 중년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불그스레한 큰 양철통 사이에 몸을 구부려 아주 번쩍이는 액체를 깔때기 속에 붓고 있었다. 파라핀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양철통을 내려놓고 깔때기를 집어 선반에 얹어 놓고, 양철병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두 눈이 목사의

눈과 마주쳤다.

“아, 목사님이군요, 린리씨!”

그녀는 좀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목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부엌에는 회색 수염을 더북이 기른 덩치큰 중년 남자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목사가 들어서자 투덜대는 듯한 굵은 목소리로 앉으라고 말하고는 더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남자는 멍하니 석탄불만 쳐다보았고 목사는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부인은 까만 색으로 된 레이스모자인지 또는 보네트(턱밑에서 끈을 매는 챙없는 여자 모자)인지 모를 리본을 쇼울 위에 늘어뜨리고 들어왔다. 키는 중키였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그녀는 파라핀통을 들고 한 계단 올라가서 부엌 밖으로 나갔다. 계단 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발자욱 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은 자그마한 방물 가게였다. 벽 선반에는 보따리가 놓여 있고, 방안에는 큰 구식 재봉틀이 한 대 있었고, 그 둘레엔 바느질거리가 쌓여 있었다. 부인은 카운터 뒤로 가서 가게에 온 아이에게 파라핀병을 건네 주고는 아이에게서 주전자를 건네받았다.

“엄마가 외상으로 달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부인은 장부에 기입한 후 주전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몸집이 몹시 큰 그녀의 남편은 일어나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위에 석탄을 더 집어 넣었다. 그는 느릿느릿 몸을 움직였으며 이제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엔 재단사였지만 지금은 그 큰 덩치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다. 젊어서는 한때 댄스와 권투선수로 활약했지만 이제는 말수도 적고 기력도 없었다. 목사는 할말이 없어서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었지만 이 존·듀란트라는 중년남자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듀란트 부인은 테이블에 상보를 폈다. 남자는 컵에 맥주를 따라 마

시고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한 잔 드시겠어요?”

그는 이 말을 겨우 생각해내고, 시선을 목사로부터 컵으로 서서히 옮겨가며 더부룩한 수염이 난 입으로 크게 말했다.

“아니, 좋습니다.”

목사도 한잔 마시고 싶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술고래가 많은 교구에서 그는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일을 해나가는데 한잔 할 필요가 있죠.”

부인은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녀는 좀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목사는 그녀가 열반의 점심을 식탁에 차리는 동안 거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자는 식사를 하기 위해 의자를 잡아 당겼고, 부인은 불가의 작은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부인은 평안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여자였다. 그러나 못된 운명의 장난으로 거칠고 난폭한 가족과 게으른 남편—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녀의 약간 예쁘장한 네모진 얼굴은 늘 시무룩했고, 일생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나서고 싶지 않은 곳에 나가 일해야 할 때 흔히 보는, 언짢은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또 그녀에겐 아이들을 기르고 다스린—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지만—여자의 좀 오만한 듯한 침착성이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방물가게를 경영하는데 재미를 붙였고 운수업자의 마차를 타고 노탕점으로 가서, 큰 창고 사이를 지나며 물건을 사들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스릴 때 느끼는 초조한 기분을 그녀는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막내 아들만은 몹시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있어 마지막 아들이고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 집은 목사가 이따금 찾아오는 집 중의 하나였다. 듀란트 부인은 모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어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집안 규칙의 하나로 삼았다. 마음 속에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듀란티 씨 역시 신앙이 없었다.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한 「존·웨슬레(1703~91, 영국의 신학자로 감리교회 창시자)의 생애」를 이상한 기쁨을 느끼며 읽었고, 그 책에서 따뜻한 불을 쬔 때나 브랜드 한잔을 마실때 느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존·밀튼(1608~74, 영국의 시인, 「실락원」의 작자)에 대해 무관심했듯이 존·웨슬레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듀란트 부인은 의자를 식탁으로 잡아 당겼다.

“전 별로 먹고 싶지 않군요.”

그녀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몸이 편찮으신가요?”

목사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부인은 한숨을 쉬고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있었다.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세상에 오래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쉽사리 동정하지 않았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걱정이 있느냐구요! 전 구빈원에서 생애를 마칠 것만 같아요.”

충년의 부인은 큰소리로 대꾸했다.

목사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작지만 부유한 이 집 안에서 그녀가 ‘빈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일이야 있겠어요?”

목사가 말했다.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 아이가 글썄...” 그녀는 한탄하는 어조로 말했다.

목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 아무런 동정도 내보이지 않고 듣고 있었다.

“늙으면 절 도와주리라 기대했던 그 아이가 글썄! 우린 앞으로 어

떻게 하죠?”

부인은 신음 소리를 냈다.

목사는 물론 그녀의 가난하다는 말은 믿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이 되었다.

“알프레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가 물었다.

“영국 해군에 지원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녀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알프레드가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고요?”

린들리 씨가 외쳤다.

“그 아이는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없었겠죠. 바다에서 여왕과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으니…”

“그 아이는 절 위해 일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집에 남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알프레드는 그녀의 막내둥이였고, 그녀는 알프레드를 몹시 버릇없게 길러왔었다.

“물론 아들을 보고 싶겠죠.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입대한 것은 절대로 잘못 택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목사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쉬운 일이죠, 린들리 목사님.”

그녀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제 아들이 타인의 명령을 받고 원숭이처럼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걸 제가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해군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안그래요?”

“이것 저것 모두 다 불명예스러워요.”

화가 난 그녀가 소리쳤다.

“그 아이는 입대해서 노예가 되는거죠. 앞으로 후회할 겁니다.”

성이 나서 경멸적인 태도로 안달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도 화가 났

지만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여왕에 대한 봉사가 탄갱에서의 일보다 더 노예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군요.”

드디어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대꾸했다.

“집에서는 평안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죠. 이젠 그 애도 자기의 처지가 달라진 걸 깨닫게 되겠죠.”

“군대 생활을 하면 사람이 될 겁니다. 나쁜 친구와 술에서도 떨어지게 되고요.”

목사는 말했다.

듀란트 부부의 몇몇 아들은 이름난 술고래였고 알프레드도 생활 태도가 단정한 편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술잔을 들어서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 애는 소매치기를 해서 술값을 지불해 온 건 아니죠.”

그녀는 소리쳤다.

목사는 자기의 직업과 아직도 지불못한 외상값에 대해 그녀가 빚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알프레드가 입대한 것을 듣게 되어 전 기뻐합니다.”

목사가 점잖게 말했다.

“전 점점 늙어가고 남편은 거의 일도 못하고! 저는 다른 일로 기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목사님.”

부인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고기가 든 파이로 점심을 마치고 맥주를 약간 마셨다. 그는 방안에 자기 이외에 아무도 없는 듯이 불쪽으로 몸을 돌렸다.

“듀란트 부인, 저는 바다에서 신을 섬기고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모두 존경합니다.

목사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예, 그러시겠죠. 그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점이 다른거죠.”

부인은 매섭게 대꾸했다.

“만약 제 자식 중의 하나가 해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전 자랑으로 여길 겁니다.”

“아, 그래요? 사람은 제각기 생각이 다르니까요...”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넓적하게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목사가 말했다.

듀란트 부인은 그 종이를 쭈욱 폈다.

“약간 색깔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녀는 까다롭게 이유를 붙였다.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르간 연주자에게 줄 사례금 봉투를 드리죠.”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로 선반에서 봉투를 꺼내 가게로 들어가서 봉을 한 후 다시 나왔다.

“제가 낼 수 있는 것은 이것 뿐이에요.”

부인이 말했다.

목사는 그 오두막을 나왔다. 호주머니에는 루이자 양의 렛슨에 대한 듀란트 부인의 사례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목사는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달력 돌리는 지루한 일을 계속했다. 그 단조로운 일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인사하는 반복되는 행위에 지쳐버려 좀 허무하고 성가신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목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당에는 불이 약하게 피워져 있었다. 병자인 린들리 부인은 건강을 회복한 듯이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목사는 차디찬 양고기를 나이프로 잘랐다. 작은 키에 포동포동 살찐 루이자가 얼굴에 살며시 홍조를 띄고 부엌에서 들어왔다. 약간 검은 피부에 아름다운 흰 이마와 회색 눈을 한 메어리는 야채를 고루 나누었다. 아이들은 속삭이듯 재잘거렸지만 몹시 흥이 난 것은 아니었다. 방의 분위기 자체가 메말라 있었다.

“듀란트 씨 댁에 들렀더니 알프레드는 집을 나가 해군에 입대했다고 하더군.”

목사는 양고기 조각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알프레드에게는 잘 된 일이죠.”

병자의 거친 말이 들려왔다.

루이자는 막내아이를 돌보며 불만에 가득찬 눈을 들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요?”

메어리는 낮은 음악이 흐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언가 자극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구나.”

목사가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으며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들은 얼굴을 들고 이 재미있는 화제로 되돌아갔다.

“이번엔 올바른 일을 했군요. 입대한 덕분에 다른 형제들처럼 주정뱅이가 되지는 않겠죠.”

어머니는 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 모두가 주정뱅이는 아니에요, 엄마.”

루이자가 똑똑히 말했다.

“주정뱅이가 아니라도 가정 교육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월터·듀란트는 정말 언제나 망신거리예요.”

“듀란트 부인에게도 말했지만 알프레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말야. 몇살이지? 열아홉인가?”

목사는 허기진 듯이 밥을 먹으며 물었다.

“스물이에요.”

루이자가 대답했다.

“스물이라고?”

목사는 반복했다.

“군대 생활에서 건전한 훈련을 받으면 의무와 명예에 관한 어떤

가치관을 얻게 되겠지. 알프레드에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거야. 하지만...”

“성가대에 그가 없어서 쓸쓸하겠네요.”

루이자는 부모님의 의견에 반대하듯이 말했다.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알프레드가 여기서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기 보다 해군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편이 낫지.”

목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나쁜 길로 들어갈 위험이라도 있었나요?”

고집 센 루이자가 물었다.

“루이자, 너도 알다시피 그는 옛날의 알프레드가 아니었어.”

메어리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루이자는 기분나쁜 듯이 좀 단단해 보이는 턱을 다물었다. 그녀는 메어리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다.

루이자에게 알프레드는 어딘지 친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잘 웃는 따스한 젊은이였다. 그는 루이자에게 아늑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알프레드가 가버린 뒤엔 하루하루가 더 쓸쓸해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그 애가 이제껏 한 일 중에서 제일 잘 한 것이야.”

어머니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알프레드의 어머니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자 나를 거의 몰아붙이는 말투였지.”

목사의 말.

그는 감정이 상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의 앞 날에 대해 관심이나 있겠어요? 벌어오는 돈만이 관심의 대상이겠죠.”

병자가 말했다.

“알프레드의 어머니는 그가 집에 있어 주길 원했던 모양이에요.”

루이자가 말했다.

“그렇지. 다른 아이들처럼 주정뱅이가 되어도 상관없겠지.”

어머니가 받아 넘겼다.

“조지 듀란트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녀의 딸이 변호했다.

“열아홉 살 때 탄갱에서 몹시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 일로 무서워진거예요. 적어도 해군은 그것보다는 나은 치료법이겠죠.”

“그래 맞아. 그 말아 맞아.”

목사가 말했다.

이 말에 루이자도 동의했다. 하지만 알프레드가 그토록 오랫동안 떠나간 일 때문에 껄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겨우 열아홉 살이었다.

III

메어리가 스물 셋이 되었을 때 린들리 목사는 중병에 걸렸다. 하지만 그때 집안은 더욱 가난했고,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들어올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다. 메어나 루이자에게 구혼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들에게 도대체 무슨 기회가 있겠는가? 그녀들은 알더크로스에서 쓸만한 젊은이를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버는 돈은 구명난 독에 물퍼붓기였다. 딸들의 마음은 끝없는 냉혹한 빈궁, 아슬아슬한 생활고, 그 생활의 무서운 공허감에 기인된 공포 때문에 냉랭해지고 굳어져 갔다.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새 목사가 필요했다. 때마침 린들리 목사의 옛친구의 아들이 목사직에 취임하기 전에 삼개월간 대기하고 있었다. 부탁하면 와서 무료로 일을 해줄 것 같았다. 이 젊은 목사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아직 스물 일곱도 되지 않았고 옥스포드대학의 문학석사였으며, 석사 논문은 로마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캠브리지 주의 전통있는 가문 출신으로 약간의 재산도 있었고, 높은 연봉을 받고 노담프톤 주의 교회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아직 미혼이었다. 린들리 부인은 다시 빛을 지게 되었지

만 남편의 병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젊은 목사 마시 씨가 왔을 때 린들리 목사의 집안 사람들은 몹시 실망하고 말았다. 그들은 파이프를 물고 굵직한 목소리를 지닌 남자로서 린들리 목사의 장남 시드니보다 더 예의바른 젊은이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사람을 보니 열두 살 난 소년보다 별로 크지 않은 발육이 불완전한 왜소해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썼고 게다가 몹시 수줍어하여 자신이 먼저 말을 걸지도 못했다. 그러나 어떤 비인간적인 자신감만은 지니고 있었다.

단추를 깨끗이 채운 목사 예복 차림의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린들리 부인이 한 첫 마디는 “형편없는 병신 같으니!”였다. 그리하여 부인은 여러날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아이들이 모두 쓸만한 체격임을 신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각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철학적인 두뇌가 있었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곧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육체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지성의 면에서는 분명 두두러진 것이 있었다. 그가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의 대화는 곧 균형잡힌 추상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자연 발생적인 외침이나 격렬한 주장 또는 개인적인 신념의 표현 등이 사라지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주장만이 나타났다. 이것은 린들리 부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작은 남자는 그녀를 응시하고 자기의 머리 속에서 한참 생각한 의견을 그 가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부인은 자기가 마치 그들 대화의 기반이 된 알박한 마루 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희박한 공기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바보스럽다고 느꼈으며 이내 무뚝뚝한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도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미혼 신사이고 얼마 후에 연간 6,700파운드의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입면에서 안정되어 있다면 생김새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남자는 생각지도 않게 굴러들어온 존재다.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그녀와 그녀의 감상적인 면은 닳아 없어지고, ‘빈곤’이라는 무거운 짐만이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린들리 부인은 이 작은 남자를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의 가장 좋지 못한 버릇은 냉소적으로 약간 낱낱 웃는 것이었으며, 그사람만의 독특한 버릇이었다. 타인의 어떤 비논리적인 어리석음을 깨달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언급할 때 이 못된 버릇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지닌 유일한 유머였다. 우매하게 사고하는 것이 그에게는 몹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에게도 소설책만은 어느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고 지루했다. 하지만 아일랜드식 유머는 몹시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고 수학처럼 그 내용을 음미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 유머를 전혀 듣지 않을 때도 있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집 주위를 말없이 돌아다니거나 식당에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여기저기 바라보고 있었다. 요컨대 언제나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차가운, 회박하고 작은 세계에 틀어 박혀 있었다. 이따금 그는 비상식적인 비꼬는 말을 했고 냉소하듯이 약간 웃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몸 때문에 지닌 열등감을 방어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이었기 때문에, 묻는 말에 그저 “예” “아니오” 하고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었다. 루이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나 메어리의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다(자기를 알지 못하게 자극하는 어떤 접촉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그 왜소한 남자는 가장 칭찬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는 언제나 몹시 수줍어 했지만 사명감만은 투철했다. 그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는 완벽한 기독교인이었다. 그가 누군가를 위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몹시

서툴러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적도 없진 않았지만. 그는 열심히 병자를 돌보고, 린들리 목사가 관리하던 교구나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수입 지출 관계를 정리하고,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일람표를 만들고, 순회하며 도움을 베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는 린들리 부인의 아들에 대한 걱정을 듣고 그들을 캠브리지 대학에 보낼 방도를 강구해 보기도 했다. 그의 친절한 행위는 메어리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메어리는 그의 친절을 고맙게 여겼지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행동엔 인간에 대한 의식, 그가 도와 주려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일종의 수학적 해결,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 처리, 깊이 생각한 선행에 대한 인식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의 교의(敎義)를 공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종교는 자기자신만의 양심적이고 관념적인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그의 행동을 보고 메어리는 차츰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그에게 성의껏 대해주어야 했다. 떨면서도 열성을 내어 스스로를 강제하여 도와주어야 했지만 정작 그는 이런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었다. 그가 교구내의 신자를 방문할 때면 메어리는 그 임시 목사를 따라가야 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보고 냉정하게 감탄하는 한편, 턱까지 외투의 단추를 채우고 어깨를 구부린 채 걷는 그의 모습에서 종종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메어리는 아름답고 온화한 여성으로 키도 컸으며 우아한 몸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입은 옷은 보잘것 없었고, 털목도리가 없어서 검은 비단 스카프를 매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숙녀다웠다. 사람들은 메어리가 그 작은 남자와 동반하여 알더크로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속삭였다.

“저런, 메어리 양도 멋진 남자를 얻었군! 저런 허약한 난쟁이를 본 적이 있어?”

메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곤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격렬한 분노가 가슴 속에 솟아 올랐다. 그리하여 메어리는 그 작은 남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듯이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어쨌든 메어리는 그 남자의 순수한 ‘착함’을 보고 그 미덕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빨리 걸어갈 수도 없었고 멀리 갈 수도 없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점잖은 어조로 물어 보았다.

“저는 내장이 좋지 않아요.”

그는 메어리가 가냘프게 떠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메어리는 몸을 굽혀 침착을 되찾았고 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그는 메어리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가 교구내의 신자들 —별로 많지도 않았지만— 을 심방할 때면 언제나 메어리와 또는 그녀의 동생인 루이자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침에 메어리가 다른 일로 바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엔 루이자가 대신 가서 일을 거들어야 했다. 루이자는 맛사 씨에 대해 우아한 봉사의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 목사를 볼 때마다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야위고 어깨가 굽은 그 남자 —열세 살난 병든 아이 같은— 를 뒤에서 쳐다볼 땐 질색을 했고, 심지어 그가 사라졌으면 하는 충동이 끓어 올랐다. 하지만 메어리의 깊은 ‘정의감’ 때문에 루이자는 언니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듀란트 씨 댁을 심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마비되어서 살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루이자는 그 작은 목사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나 듀란트 부인은 끔찍한 우환에도 불구하고 몹시 침착했다.

“듀란트 씨는 요즘 어떠세요?”

루이자가 물었다.

“차도가 없어요. 우린 기대하지도 않지만요.”

듀란트 부인은 간단히 대답했고 작은 목사는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잠시 침대를 지켜보았다. 베개 위의 노인의 백발과 시트 위의 흰 수염도. 루이자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는 무서워졌다.

“아주 무섭군요.”

그녀는 떨며 말했다.

“나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듀란트 부인이 말했다.

게다가 루이자는 듀란트 부인도 무서웠다. 두 여자는 불안한 심정으로 맞서 씨가 무언가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목사는 등을 구부리고 서 있어서 더욱 작아 보였으며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이 분은 우릴 알아볼 수 있나요?”

드디어 목사가 입을 열었다.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듀란트 부인이 대답했다.

“존, 들려요?”

듀란트 부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맥빠진 노인의 흐릿한 푸른 눈이 그녀를 힘없이 쳐다보았다.

“예, 알아보는군요.”

듀란트 부인이 맞서 씨에게 말했다. 눈이 흐릿한 시선을 제외하면 누워 있는 병자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루이자는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뿔뿔이 서 있었지만 마음은 몹시 우울했다.

루이자를 규율로 거기에 매어 놓고 있는 것은 작은 목사였다. 그의 비인간적인 의지가 그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아래층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사람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2층에 계세요, 어머니?”

듀란트 부인은 놀라서 문쪽으로 얼른 갔다. 그러나 벌써 빠르고 분

명한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방금전에 왔어요, 어머니.”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그들은 층계참에 수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다가가서 그를 안고 매달렸다. 듀란트 부인은 자기가 매달려야 할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고, 그런 어머니를 그는 두 팔을 돌려서 머리를 숙여 키스했다.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죠, 어머니?”

그는 자기의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애쓰며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루이자는 층계참 어두운 곳에 함께 서 있는 모자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자기와 이 작은 목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맞서 씌는 두 모자의 정이 넘치는 곳에 있는 것이 겹연쩍은 듯이 불안스레 서 있었다. 마치 냉정한 목격자처럼 —내키지도 않고 침착하지도 못했지만. 루이자의 뜨거운 가슴엔 자기와 목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다.

듀란트 부인은 얼굴의 눈물도 닦지 않고 침실로 들어왔다.

“애야, 루이자 양과 목사님이 오셨단다.”

부인은 잘 나오지 않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아들 —불그레한 얼굴에 날씬한 체격의— 이 곳곳이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하지만 루이자는 그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의 담갈색 눈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알아본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작은 이가 인사하기 위해 순간 번쩍었다. 그런 인사를 그녀는 항상 좋아했었다. 그녀는 좀 당황했다. 그는 침대에 다가갔고 그의 장화가 석고를 바른 바닥에 덜컥거렸다. 그는 짐작게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는 한 손을 시트 위에 놓으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침대 위의 노인은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듯 했다. 아들은 그 자세로 몇 분간 가만히 있다가 뒤로 서서히 물러섰다. 루이자는 그의 가

숨에 시선이 멎었을 때, 청색 수병 상의 아래, 멎진 남자 가슴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절 몰라 보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그의 얼굴 빛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래, 네 말이 옳아.”

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처량하게 말했다. 갑자기 듀란트 부인은 자기의 얼굴을 아들의 어깨에 갖다댔고 그는 몸을 구부려 어머니를 안았다. 부인은 잠시 소리를 내어 울었다. 루이자는 그의 옆구리가 부푸는 것을 보았고, 그의 “쉴, 쉴”하는 날카로운 숨소리를 들었다. 루이자는 얼굴을 돌렸다. 눈물이 얼굴에 흘러 내리고 있었다. 병자는 힘없이 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맞시 씨는 햇볕에 탄 수병이 방에 들어서자 낯선 존재로 보였다. 그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몹시 작아 보였다. 맞시 씨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루이자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이제 심방은 그만 두었으면 싶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쳐다볼 기력도 나지 않았다.

“기도를 드릴까요?”

목사의 가냘픈 소리가 들렸고 모두 무릎을 꿇었다.

루이자는 침대에 누운 힘없는 병자가 두려웠고, 목사의 가는 초연한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에 대한 순간적인 공포심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떠 보니 침대 저쪽에 어머니와 아들의 머리가 보였다. 하나는 검은 레이스 모자를 쓰고 그 밑에 흰 작은 목덜미가 보였고, 또 하나는 햇볕에 탄 갈색 머리털이 너무 숭이 많고 뽀뽀해서 양쪽으로 가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 밑으로 보이는 목은 햇볕에 타고 단단했으며 억지로 구부리고 있는 것 같았다. 병자 노인의 큼직한 회색 수염은 움직이지 않았고 기도는 줄곧 계속되고 있었다. 맞시 씨는 거룩한 신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을 맑고 또렷한 어조로 기도했다. 그는 마치 숙인 머리를 지배하는 ‘존재’, 그것들을 용서없이 다스리는 냉정한 어떤 ‘존재’ 같이 느껴졌다. 루이자

는 그가 두려워졌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목사를 어느 정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도는 마치 순수한 정의, 즉 가치없는 냉혹한 죽음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루이자는 메어리에게 그날의 심방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그녀의 마음과 혈관은 자기의 어머니를 두 팔로 안고 있던 알프레드·듀란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회상할 때마다 도중에 끊겼던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불꽃처럼 뚫고 지나갔다. 그녀는 햇볕에 탄 불그레한 얼굴을 머리 속에 더 똑똑히 바라보고 싶었다. 다정하고 태평한,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긴장된 그 금갈색 눈, 햇볕에 몹시 탄 멧진 코, 그녀에게 미소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입술을. 생명의 순수한 멧진 분출 같은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느낌이 루이자의 가슴에 웅숭음치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멧진 젊은이야.”

그가 자기보다 한 살도 연상이 아닌듯이 그녀는 메어리에게 말했다. 그 밑에는 맞시 씨의 비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더 깊은 공포, 거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루이자는 목사로부터 자신과 알프레드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거기서 맞시 씨를 마음 속에 느꼈을 때 난 거의 증오할 정도였어. 그 목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권리라도 있나요?”

루이자가 물었다.

“물론이지. 권리가 있고 말고.”

한참을 있다가 메어리가 대답했다.

“난 그 사람이 거의 백치처럼 느껴져.”

루이자가 말했다.

침착하고 아름다운 메어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니, 아니. 백치가 아니야—.”

메어리는 부인했다.

“정말이지 언니, 난 그를 보면 6개월 난 아이, 아니 5개월 난 아이가 생각나. 마치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발육할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지. 하지만 그에게 또 놀라운 ‘무엇’이 있어. 그리고 그는 진짜 선량한...”

메어리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긴 해도 그 목사가 선량하게 보이진 않아. 언니, 그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선량하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그건 선한 거야.”

메어리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넌 그걸 부인할 수 없을거야.”

메어리의 목소리엔 끈질긴 데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심해서 행동하고 있었고, 마음 속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맞시 목사가 자기보다 강함을, 그리고 자신이 그의 인품에 ‘복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메어리의 육체적 자아는 맞시 목사보다 오만하고 강했으며 그를 싫어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목사의 도덕적·정신적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는 자기의 일생이 이미 정해진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린들리 가족들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IV

며칠 후 늙은 듀란트 씨는 세상을 떠났다. 루이자는 알프레드를 한 번 더 만났다. 그러나 이제 알프레드는 그녀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의지로서, 그리고 자기는 그녀의 앞에서 대기하는 어떤 분리된 의지처럼 대했다. 그녀는 이제껏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런 완전한 —강철판 같은— ‘괴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당황했고 두려움을 느꼈다. 알프레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루이자는 군대식 훈련을 중오했고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제 그는 예전의 알프레드가 아니었다. 그는 명령하는 의지에 대해서 그저 복종하는 의지에 불과했다. 루이자는 이런 사실

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자기 자신을 그녀와 동떨어지게 했고, 또 그녀보다 열등한, 종속된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었다. 그것은 알프레드가 대조적인 입장에서 지극히 사무적으로 그녀를 대하고, 또 관념적인 열등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녀와 떨어져서 그녀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려는 수단이었다.

루이자는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우울한 기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녀의 격렬하고 완고한 마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다. 루이자는 그렇게 집착하다가도 이따금 알프레드를 마음 속에서 몰아내 버렸다. 자기보다 낮은 그 남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다가 다시 알프레드를 생각하게 되었고 거의 증오하다시피 되었다. 알프레드의 태도는 루이자를 피하는 수단이었고, 그런 태도를 비겁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를 자기보다 우월한 계급에 두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듯이 대하고, 자기를 열등한 접근하기 힘든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집념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루이자는 알프레드를 결코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V

6개월 후에 메어리는 맛시 씨와 결혼했다. 연애도 없었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대했기 때문에 긴장한 탓인지 쌀쌀한 태도였다.

어느날 맛시 씨가 청혼했을 때, 린들리 목사는 그 왜소한 남자의 가는 관념적인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몸을 떨었다. 맛시 씨는 아주 흥분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한 태도였다.

“나로서는 대단히 기쁘지만 그 결정은 물론 메어리가 해야겠지.”

린들리 목사는 대답했다. 그가 책상 위의 성경을 옮겨 놓았을 때 그의 약한 손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 작은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메어리를 찾으러 방을 나갔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결심할 때까지 그는 메어리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메어리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메어리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무서웠으며 근심스러워서 몸을 꼳꼳이 하고 기다렸다. 그녀는 자기의 육체가 일어나서 그를 던져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메어리는 그가 할말을 거의 기대하고 그를 원하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고백할 것을 이미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 이미 린들리 목사님께 제 청혼을 승락하실지 여쭙어 보았죠.”

작은 목사는 입을 열었다. 메어리는 갑자기 목사의 작은 무릎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 물론 그는 자기의 불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메어리는 앉아 있는 사이에 감각을 잃어 싸늘해지고 거의 돌처럼 굳어지는성 싶었다. 순간 그는 불안하게 기다렸다. 그녀를 설득할 생각은 없었으며 그런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 자기에 대해선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의 없어서 그는 메어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메어리,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메어리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있었지만 그래도 짐작게 앉아 있었다.

“저는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맛시 씨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내 방에서 나갔다.

메어리는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는 냉정하고 말이 적었다.

“어머니, 맛시 씨가 저에게 구혼했어요.”

메어리가 말했다. 린들리 부인은 가만히 책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정은 경련을 일으킨 것 같았다.

“그래 너는 뭐라고 말했니?”

두 사람 다 침착하고 냉정했다.

“전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메어리의 대답은 어머니의 질문과 같은 것이었다. 린들리 부인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긴 의자 위에서 육중한 몸을 좀 불편한 듯이 움직였다. 메어리양은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똑바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부적당한 결혼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으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다 냉정하리 만큼 침착했고 말이 없었다. 메어리는 루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네스트·린들리 목사는 눈에 띄지도 않았다.

저녁때 메어리는 맛시 씨의 구혼을 승락했다.

“예, 결혼하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사에게 약간의 애정을 보이게 까지 하며 말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만족했다. 그녀는 작은 목사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사안에 들어있는 ‘남성다움’—냉정하고도 승리감에 도취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메어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루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메어리에 대해서까지도 격심한 분노를 느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루이자는 자기의 신념이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다. 자기에 대한 진실한 것들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을까? 루이자는 거기서 달아나고 싶었다. 작은 목사에게 대하여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그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힘, 무언가 반박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의지였다. 갑자기 루이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만약 맛시 씨가 자기에게 구혼하러 왔다면 당장 방 밖으로 던져 버렸을 것이다. 자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자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의

판단력이 작은 목사에게 의해 아무리 마비된다 해도, 그가 아무리 관념적인 ‘선(善)’ 안에서 움직인다 해도, 그가 가까이 오면 붉은 피가 끓어 올라 난쟁이를 없애버릴 상상만 해도 기뻐했다. 루이자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성미가 비뚤어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그 놈을 방에서 던져 버려야지’ 이렇게 혼자 말했고, 이처럼 공공연히 말하는 것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어리는 그녀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보다 더 고상한 인간임을 루이자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메어리는 메어리고 자신은 루이자였으며,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메어리는 그와 결혼함으로써 그와 같은 순수한 이성(理性)이 되려고 힘썼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폐쇄해 버렸다. 처음에 나타날 수치의 고민과 능욕의 공포에 대해 자신을 굳게 닫아 버렸다. ‘느끼지 않으리라, 느끼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했다. 메어리는 작은 목사에게 복종하는 순수한 의지에 불과했다. 그녀 스스로가 어떤 운명을 선택한 것이다. 자기는 선하게 되고 진실로 외롭게 되며, 이제껏 알았던 이상으로 더 높은 자유 안에서 살아 가리라. 세속적인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리라. 그녀는 도리에 대한 순수한 의지다. 그녀는 자기를 팔았지만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육체를 버린 것이다. 더 높은 것, 즉 물질적 문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낮은 것, 즉 자기의 육체를 판 것이다. 자신은 남편에게서 얻은 모든 것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종의 독립을 얻은 기분으로 궁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했다. 메어리는 자기의 육체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한 것이며 앞으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다 지불한 사실이 그녀는 기뻐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를 산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선과 고상한 삶을 지향하는 그녀의 활동의 방향만이 남아 있는 문제였다.

메어리는 자기와 남편이 있는 곳에 타인이 동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수치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비밀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철도에서 몇 마일 떨어진 마을의 목사 주

택에서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갔다. 어떤 사람이 남편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이나, 남편을 ‘특이한’ 사람으로 대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면 그녀는 마치 자기의 육체에 대한 모욕처럼 느끼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앞에서 불안스러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면 그녀는 긍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만약 메어리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다면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증오했으리라. 집 주위를 터벅 터벅 걸어다니는 모습, 인간적인 이해성이 없는 그 가는 목소리, 굽은 작은 어깨, 병신을 연상케 하는 약간 불완전한 얼굴... 하지만 메어리는 자신의 입장을 엄격히 지켜 나갔다. 그녀는 남편을 보살피고 공정하게 대했다. 물론 그녀는 남편에 대한 깊은 공포심도 지니고 있었다 — 노예의 주인에 대한 공포심과 비슷한...

남편의 행동에 흠잡을 데는 별로 없었다. 그는 자기의 지성에 따라 몹시 공정했고 친절했다. 그 사람 내부에 들어있는 ‘남성다운 점’은 냉정하고 자신만만했고 완전히 위압적이었다. 약하고 불완전한 직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점’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게다가 그런 점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면이었다. 그건 그녀를 오만하게 하고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막연하게 자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육체는 그렇게 쉽사리 제거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아, 그녀는 이따금 일어나서 죽음을 불러내야 하고, 모든 파괴에 의해 손을 들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남편은 자기 주위의 형편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 일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집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사실상 그녀는 남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지냈다. 남편은 몇 시간씩 눈에 띄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때엔 친절하고 아주 인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면 냉혹한 기계 같은, 맹목적인 남성의 의지 그 자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점에서 그는 논리적으로 정당했고, 때로는 두

사람이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당한 신조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그 신조는 건전했고 그녀가 반대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메어리는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색다른 공포심이 일어나 신과 인간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가 겪어야 할 일이고 일종의 권리이기도 했다. 태어난 아기는 귀엽고 아주 건강했다. 두 손으로 갇힌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의 육체 안에서 마음은 괴로웠다. 자기 안에서 짓밟히고 말이 없던 그 육체가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말을 해야 했다. 어쨌든 그녀는 살아가야 했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완전히 끝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쳐다보았으며 거의 미워할 지경이었다.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의 고민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신은 육체 속에서 살 수 없는데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육체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를 미워했다. 자기의 육체를 짓밟고 밟아 죽여서 정신 속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기를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적은 다시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형체도 목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단편적인 저속한 존재에 불과했다. 맞시 씨는 인간적인 감정의 면에서는 모든 점에서 맹목적이었지만 자기의 아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가 그의 감정의 모든 세계를 차지해 버렸다. 그 아기에게 그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고 아기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 아이는 마치 그 자신이 벌거벗은 아기로 태어나고, 자기의 벌거벗은 사실을 의식하고, 근심에 가득 찬 새로운 어떤 존재 같았다. 이제껏 살아오며 아무도 의식한 적이 없는 맞시 씨가 이제는 그 아이만 의식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놀고 키스하고 아이를 돌본다는 뜻은 아니며 그런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를 지배했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동시에 비워 놓았다. 그에게 이 세계는 그 아이만이 존재했다.

그의 아내는 이런 질문도 참아야 했다.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뭐지?” 울음 소리가 나자마자 참견하듯 물었다.

“메어리, 저건 아이의 소리야.” 젖줄 시간이 5분만 늦으면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IV

루이자는 음침한 목사 주택에서 자기 언니의 결혼에 대해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약혼 중에 그녀는 한번 언니의 약혼에 반대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메어리의 점잖은 답변에 입을 다문 적이 있었다.

“루이자, 나는 그 분에 대해 너와 같은 의견이 아니야. 나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그때부터 루이자는 마음 속 깊이 분노를 느꼈고 그 때문에 말이 없었다. 이와같은 위험한 상태로 인해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 때문에 이제껏 의심한 적이 없는 메어리에게서 물러서게 되었다.

“나라면 맨발로 거리에서 구걸할거야.”

맛시 씨의 일을 생각하며 루이자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메어리는 종류가 다른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실적인 루이자는 ‘그녀의 이상’인 메어리도 결국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 갑자기 느껴졌다. 그녀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겠는가? 실제 행동은 더러운데 존재의 면에서 정신적일 수는 없다. 루이자는 메어리의 높은 정신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의 정신성은 이제 순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메어리가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아버지는 왜 그녀를 지켜주지 않을까? 돈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결혼문제를 혐오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딸들은 그

들이 하고 싶은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메어리는 평생 안전해.”

그토록 명백하고 천박한 계산은 루이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저라면 차라리 구빈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겠어요.”

린들리 부인이 소리쳤다.

“그래, 아버지가 널 그렇게 지내도록 해줄거야.”

어머니가 냉혹하게 대꾸했다. 간접적이긴 하나 이 말은 루이자에게 지독한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어머니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자기 자신마저 증오하게 되었다. 이 증오가 사라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중요성은 그녀의 마음에 계속 작용하여 드디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모두들 잘못된 것야. 모두들 다 잘못하고 있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어. 그들에겐 정말 눈썹만큼도 사랑이 없어. 하지만 나는 사랑을 갖고 싶어.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정하기를 원하고 있지. 그들은 사랑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나는 사랑을 찾고 싶어. 나는 사랑하겠어.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야. 나는 나와 결혼할 남자를 사랑하겠어. 이게 바로 내 관심의 전부야.”

그리하여 루이자는 모든 사람들과 고립되어 살게 되었다. 루이자와 메어리는 맞시 씨의 일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루이자의 관점에서는 메어리는 맞시 씨와 결혼한 탓으로 타락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고상하고 정신적인 언니가 이처럼 육체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차마 머리 속에 생각할 수 없었다. ‘언니는 틀렸어. 틀리고 말고. 언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결점이 있고 완전치 못해.’ 두 자매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둘은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이미 갈라지고 말았다. 새로운 고독감이 완고한 루이자에게 엄습해 왔다. 그녀의 두툼한 턱은 밑으로 숙여져 있었다. 루이자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갈 결심이었다. 그러나 어떤 길일까? 루이자는 정말 외로웠고 그녀의 앞에는 공허한 세계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 길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루이자는 사랑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자를 가져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VII.

메어리의 사내 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때 그녀는 또 딸을 낳았다. 삼 년은 아무 일없이 단조롭게 지나갔다. 영원처럼 길기도 하고 한숨 잔 것처럼 짧기도 했다. 그녀는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위에는 항상 어떤 짐, 그녀의 생활을 짓누르는 ‘무엇’이 있었다. 한 가지 실제로 일어난 것은 남편이 수술을 받은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너무 허약했던 것이다. 메어리는 이내 자기의 의무의 일부로서 기계적으로 그를 돌보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삼 년 채 되던 해 딸이 태어난 후에는 메어리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크리스마스 —우울하고 변함없는 목사 주택에서의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주택에서의 매일매일은 똑같이 어두운 요인으로 구성된 나날이었고 메어리는 차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마치 암흑이 그녀를 엄습해 올 듯한 느낌이었다.

“에드워드, 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집에 가고 싶어요.”

메어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 어떤 무서운 느낌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야 없지.”

남편은 눈을 깜박거리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면 돼요.”

맛시 씨는 생각하고 나서 아내의 얼굴을 주의깊게 응시했다.

“왜 당신은 가고 싶지?”

남편이 물었다.

“전지(轉地)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전지는 제 몸에도 좋고 아기

에게 줄 짓에도 좋아요.”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 들어있는 ‘의지’를 알아챘고 당황하고 말았다. 아내의 말의 뜻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동안이나, 그녀가 아이를 가지려 하거나 돌보고 있을 때 그녀를 특별한 종류의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아기를 데려가면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해로울 까닭이 있겠어요?”

메어리는 단호했다.

드디어 그들은 출발했다. 그들이 기차를 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등차의 창문을 통해 작은 목사는 시골을 가로질러 내리는 덧문처럼 큰 눈송이가 휩쓸고 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기의 생각으로 머리가 꼭 차 있었으며 찻간의 외풍을 두려워했다.

“구석에 똑바로 앉아요. 아기를 몸에 부쳐 꼭 안으세요.”

메어리는 남편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고 창 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의 ‘영원한’ 존재는 마치 그녀의 머리에 놓인 쇠 문진(文鎭)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간이라도 이 압력에서 일부나마 피해 보고 싶었다.

“책크, 반대편에 앉아라. 바람이 덜 들어오니 이쪽 창문으로 오너라.”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사내 아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였다.

“봐요, 엄마! 봐요! 저것들이 얼굴에 똑바로 날라와요.”

사내 아이가 외쳤다. 눈송이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이쪽 구석으로 오너라.”

아버지는 다른 세계에서 반복했다.

“눈송이가 이 사람의 등에 뛰어 올랐어요, 엄마. 밑바닥으로 날라가요!”

아이는 기뻐서 뛰며 소리쳤다.

“이쪽으로 오게끔 일러요.”

작은 목사가 아내에게 명했다.

“잭크, 이 방석 위에 무릎을 대라.”

어머니는 흰 손을 그 자리에 갖다대고 말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 미끄러지듯이 가서 잠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내 일부러 하듯이 귀에 거슬리게 소리 쳤다.

“저 구석에 쌓인 것 좀 봐, 엄마!”

사내 아이는 창문에 눈부시게 쌓인 눈송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어머니를 좀 여봐란 듯이 되돌아 보았다.

“정말로 쌓였네!”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사내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약간 안심 이 되었다. 막연히 불안해 하면서 자기가 어머니의 주의를 끌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그들은 점심도 먹지 않고 두시 반에 린들리 목사집에 도착했다.

“그동안 잘 지냈소, 에드워드?”

린들리 씨는 자기판에 아버지처럼 행세하려고 하면서 물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사위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한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린들리 목사는 야위고 창백했으며, 영양부족인 듯이 보였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거만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래 언젠간 쓰러져서 가난하고 가련한 신세가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교만이였다. 린들리 부인은 자기의 딸과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사위는 무시해 버렸다. 루이자는 아기를 보고 꼬꼬 우는 시늉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몹시 좋아하고 있었다. 고집센 작은 모습의 맞씨네 등을 굽힌 채 그들에게서 좀 떨어져 서 있었다.

“아, 이쁜이! 작은 귀염둥이! 추운 어린 귀염둥이, 기차를 타고 왔지!”

루이자는 난로 앞 깔개 위에 쪼그리고 앉아, 흰 모직 싸개를 열어 아기를 난롯불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정답게 말을 걸었다.

“메어리, 아기에게 따뜻한 목욕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감기들지도 모르니.”

작은 목사가 말했다.

“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춥지 않아요.”

메어리는 다가와서 아기의 장미색 수족을 조심스레 만져보며 말했다.

“조금도 춥지 않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루이자가 소리쳤다.

“내가 가서 아기의 프란넬 옷을 가져오지.”

맛시 씨는 오직 한가지 아기일에만 신경을 쓰며 말했다.

“그럼 제가 부엌에서 목욕을 시켜주죠.”

메어리는 아까와는 다른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은 안돼요. 하녀들이 바닥을 문지르고 있어요. 게다가 아기도 이런 시간엔 목욕을 원치 않을 거예요.”

루이자가 말했다.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

메어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에서 조용히 말했다. 루이자는 불쾌해져서 입을 다물었다. 작은 목사가 팔에 프란넬 옷을 들고 터벅 터벅 내려오자 린들리 부인이 물었다.

“에드워드, 뜨거운 목욕을 하지 그래?”

그러나 이런 비꼬는 말은 작은 목사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 주위에서 목욕 준비에 바빠다.

방은 음침하고 넓었으나, 바깥 흰 눈은 대조를 이루어 요정같이 환희에 넘쳐 보였다. 눈은 잔디 위에서 몹시 희게 빛났고 관목에 술을 달아 놓은 느낌이었다. 방안엔 육중한 그림이 벽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난롯불이 타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우울하고 더러워 보였다.

난로 위에 목욕물을 올려 놓았다. 검은 머리가 부드럽게 물결치는, 여왕같이 우아한 맛시 부인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발질하는 아기를 안고 목욕물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남편은 수건과 프란넬 옷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기분이 상한 루이자는 아기를 목욕시키는 재미를 보려고도 않고 식탁을 차려놓기 시작했다. 사내 아이는 문 손잡이에 매달려서 그걸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맛시 씨가 돌아보았다.

“잭크, 문에서 떨어져.”

왜소한 아버지는 이렇게 명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잭크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아 당겼다. 아버지는 보고도 못본체 했다.

“메어리, 잭크가 문에서 떨어져야지.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잭크, 어서 문에서 떨어져요. 착하지.”

어머니는 물에 젖은 반짝이는 아기를 자기 무릎에 숨씨있게 옮겨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아이를 쳐다보고 다시 말했다.

“가서, 루이자 이모에게 기차 이야기를 해드려, 이쁘지.”

루이자도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워서 난로 옆 광경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맛시 씨는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처럼 아기의 프란넬 옷을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좀 불쾌한 기분이 아니었다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창 밖을 보고 싶어.”

잭크가 말했다. 아버지가 얼른 돌아보았다.

“루이자, 저 아이를 의자에 올려 놓아줘.”

메어리가 급히 말했다. 아기 아버지는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프란넬 옷이 입혀지자 맛시 씨는 2층으로 올라가서, 베개 네 개를 가지고 돌아와 난로 위에 놓고 따뜻하게 했다. 그는 아기에게

대한 생각에만 집착하여 어머니가 젖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루이자는 식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왜 그렇게 뻔뻔하게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린들리 부인은 어느 때처럼 말없이 누워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메어리는 아기를 2층에 데려갔고 남편은 베개를 들고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메어리는 무얼 하고 있어? 왜 내려와서 식사를 하지 않지?”

린들리 부인이 물었다.

“아기와 함께 있어요. 방이 조금 춥군요. 하녀에게 불을 좀 넣으라고 이르겠어요.”

맛시 씨는 열중한 듯이 문쪽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메어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아기보다 메어리가 잠기에 걸리겠어.”

린들리 부인은 화난듯이 말했다.

맛시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장모를 보고 대답했다.

“제가 뭐좀 갖다 주도록 하죠.”

그는 밖으로 나갔다. 린들리 부인은 화가 나서 긴 의자 위에서 몸을 움직였고, 루이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맛시 씨로부터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돈 때문이었다.

루이자는 2층으로 올라갔다. 메어리는 침대 옆에 앉아 종이 쪽지를 읽고 있었다.

“내려와서 식사하지 않겠어?”

동생이 물었다.

“곧 내려가지.”

메어리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루이자를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어조였다. 그녀는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 밖으로 나갔다 오겠어요. 차를 마시러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몰라요.”

VIII.

아무도 루이자의 외출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모피 모자를 쓰고 낡은 노포크 자켓을 입었다. 루이자는 살찌고 키가 작았으며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 목직한 턱은 어머니를, 높은 이마는 아버지를 닮았으며, 미소를 지을 때 특히 아름다운 그 특징있는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회색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녀가 뽀로통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다. 루이자의 주요한 매력은 번들거리고 술많은 진한 금발 머리였고, 그 머리는 그 생김새에 어울리게 풍요로운 느낌을 주며 반짝 반짝 빛났다.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려는 거지?”

루이자는 눈내리는 거리로 나갔을 때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옛 알더크로스 쪽을 향해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숲이 검게 우거진 계곡에서 탄쟁은 높은 원추형 기둥 같은 증기를 내뿜으며 코골듯이 험뻑이며 숨쉬고 있었다. 그 증기는 기둥처럼 곧 바로 솟아 올라 언덕의 눈보다 더 희게 보였지만, 생기없는 탁한 공기 속에 그림자 같이 느껴졌다. 루이자는 철도 건널목에 이를 때까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자기도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방벽쪽으로 기운 사과나무 가지위 눈송이가 듀란트 부인을 찾아가라고 일러주는듯이 느껴졌다. 그 나무는 듀란트 부인의 정원에 있었다.

알프레드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도로 밑의 오두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철도 건널목 옆 큰 길 담장에서, 눈에 덮인 정원이 구멍의 측면처럼 가파르게 구부러져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담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폭파인 곳에 그 집은 아늑하게 자리를 잡

왔고 그 연통은 도로와 같은 높이였다. 루이자는 들계단을 내려가서 작은 후원 —접근하기 힘든 어둡하고 비밀스런 분위기— 에 이르렀다. 큰 나무 한 그루가 파라핀 오두막 위에 기울어져 있었다. 루이자는 그곳에 이르자 주위의 세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열린 문을 노크하고 주위를 둘러 보았다. 채석장에서부터 좁혀져 들어온 혀 모양의 정원이 흰 눈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한달 후에 까치밥나무 숲 밑에 나타날 아네모네의 두툼한 술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의 뒤 정원 가장자리에 고개를 숙인 패랭이꽃 —여름에 흰 꽃을 루이자의 얼굴에 내밀게 될— 의 누덕누덕한 술은 눈송이에 덮여 흰 빛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얼굴에 몸을 굽힌 꽃들을 따는 것은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루이자는 다시 노크했다. 안을 들여다 보니, 벽돌 바닥과 화사한 사라사 무명방석 위에 비치는 붉은 불빛 —부엌의 진홍색 불빛— 이 보였다. 그것은 펄·쇼우(들여다보는 구경거리)처럼 생생하고 화려했다. 그녀는 아직도 달력이 걸려 있는 부엌을 가로질렀다.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루이자는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듀란트 아주머니, 듀란트 아주머니.”

루이자는 벽돌계단을 올라가서 앞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아직도 작은 계산대와 상품 꾸러미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계단 밑에서 다시 불러 보았고, 그제서야 듀란트 부인이 외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루이자는 정원으로 들어가서 그 늙은 부인의 발자국을 따라 정원의 오솔길로 올라갔다.

그녀가 숲과 나무떨기의 줄기를 헤치며 걸어가자 모든 채석장의 바닥이 나타났다. 그건 넓은 희미한 백색 정원이었고, 어두운 숲으로 얼룩지고 반쯤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왼쪽 머리 위를 소형 탄갱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바로 그 뒤에 숲이 보였다.

루이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근심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늙은 듀란트 부인이 누덕누덕

한 눈썹인 양배추 사이에 앉아 가냘프게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이자는 부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낯나간 듯한 작은 소리를 내며 훌쩍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루이자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나는, 양배추 줄기를 잡아당기려고 했어. 그런데, 아, 내 몸 속의 무언가가 터져 버렸어, 몹시 아팠지.”

늙은 부인은 충격과 고통으로 울먹이며 헐떡이고 있었다.

“거기가 계속 아팠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아아.”

부인은 헐떡였고 옆구리에 손을 대고 기절할 듯이 몸을 구부렸다. 얼굴빛은 흰 눈을 배경으로 샛노랗게 질려 있었다. 루이자는 부인이 쓰러지지 않게 얼른 붙잡았다.

“이제 걸을 수 있겠어요?”

루이자가 물었다.

“아, 그래요.”

부인이 대답했다.

루이자는 그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양배추를 집어줘. 알프레드에게 저녁을 해줘야 해.”

듀란트 부인은 헐떡이며 말했다. 루이자는 양배추 줄기를 주웠으며, 노파를 겨우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다. 루이자는 부인에게 브랜디를 따라주고 소파에 눕혔다.

“의사를 불러 오겠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루이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수야드 떨어진 술집으로 갔다. 술집 여주인은 루이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즉시 듀란트 부인에게 의사를 불러 주세요.”

루이자는 아버지의 말투를 좀 닮은 명령조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주인은 근심이 되어 불안스레 물었다.

루이자는 도로를 훑듯 쳐다보고 식료품상 마차가 이스트우드 쪽으

로 가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 남자를 세우고 의사를 부탁했다.

루이자가 돌아와 보니 듀란트 부인은 얼굴을 돌린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눕도록 해드리죠.”

루이자의 말에 듀란트 부인은 반대하지 않았다.

루이자는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의장 제일 아래 서랍에서 가벼운 평상복과 프란넬 속옷을 찾아냈다. 낡은 탄쟁용 프란넬로 오븐 선반을 끄집어 내어 그걸 싸서 침대 속에 넣었다. 알프레드의 침대에서 그녀는 담요를 들고 뛰어 내려가 담요를 난로에 따뜻하게 펼쳐 놓았다. 그리고 자그마한 듀란트 부인의 옷을 벗기고 그녀를 이층으로 운반했다.

“날 내려봐! 날 내려봐!”

듀란트 부인이 소리쳤다.

루이자는 아무 말 없이 노파를 신속히 옮겼다. 그러나 침실엔 난로가 없어 불을 피울 수 없었고 바닥은 석고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루이자는 램프를 가져와서 불을 붙여 한쪽 구석에 세워 놓았다.

“이것으로 방안이 건조하게 되겠죠.”

루이자가 말했다.

“그래, 그럴거야.”

늙은 부인은 신음했다.

루이자는 따뜻한 프란넬 옷을 많이 가지고 뛰다시피 가서 오븐 선반에서 꺼낸 것과 바꿔 놓았다. 루이자는 밀기울 주머니를 만들어 노파의 옆구리에 대었는데, 그 복부 가장자리에 큰 응어리가 나와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걸 느끼고 있었지. 그래도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알프레드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루이자는 왜 알프레드가 놀라서는 안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몇 시지?”

호소하는 듯한 소리로 부인이 물었다.

“네시 십오분 전입니다.”

“저런! 삼십분 지나면 그 애가 돌아오는데. 아직 저녁 준비가 안되었지?”

부인은 슬프게 말했다.

“제가 해드릴까요?”

루이자는 조용히 물어보았다.

“그 양배추가 있지. 그리고 식료품실엔 고기도 있어. 또 따뜻하게 데울 사과파이가 있고. 하지만 그만 뒤!”

“그럼 누가 하죠?”

루이자가 물었다.

“모르겠어.”

병자는 생각할 힘도 없어 신음할 뿐이었다.

루이자는 저녁을 준비했다. 의사가 와서 정성껏 진찰했으며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다.

“무슨 병이죠, 선생님?”

부인은 이미 희망이 사라진, 늙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종기가 나 있던 피부가 찢어진 것 같소.”

의사가 대답했다.

“아아!”

노파는 중얼거렸고 시선을 돌려 버렸다.

“이 노파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종기는 녹여서 떼어낼 수 있어요.” 늙은 의사는 루이자에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 응어리를 녹여서 제거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완쾌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루이자는 부인에게 알려 주었다.

“아아!”

노파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이내 그녀가 물었다.

“불이 피어 있어?”

“예, 그럴거예요.”

루이자가 대답했다.

“그 애는 불이 필요하다구.”

어머니가 말하자 루이자는 불을 더 잘 피워 놓았다.

듀란트가 죽은 이래 이 미망인은 이따금 교회에 나갔고 루이자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처녀의 마음 속에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떤 남자도 알프레드·듀란트만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남자는 없었고, 그녀의 모든 영혼은 알프레드에게 쏠려 있었다. 마음 속으로 그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와 약간 엄격한 물질주의적 듀란트 부인과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있었다.

알프레드는 듀란트 부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알프레드도 다른 아들과 똑같이 고집센 아이였고, 자기의 의지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남자로 자라났다. 다른 아이들 처럼 그도 학교를 졸업하자 곧 탄갱에 들어가 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것이 빨리 어른이 되고 다른 남자들과 동등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신사로 키우고 했던 어머니로서는 매우 분개할 만한 일이었다.

그래도 알프레드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변함없는 효자였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애정은 몹시 깊었지만 밖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피곤할 때나 새 모자를 쓰고 있으면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따금 어머니를 위해 사소한 물건을 선물로 사서 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프레드가 얼마나 자기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만큼 영리하지 못했다.

사실상 알프레드는 어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알프레드가 충분히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따금 독

서를 즐겼고 그 이상으로 피콜로(높은 음이 나는 작은 피리) 불기를 좋아했다. 정확한 음조를 내려고 애쓸 때, 그의 머리가 피리 위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재미있어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인은 자기의 아들을 사랑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의 연민에 가까운 애정을 가지고 좋아했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확고히 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기를 원했었다. 여자에게 정신을 팔지 않고 알프레드가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노래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를 불렀다. 여름에는 정원에서 일했고 닭과 돼지를 돌보았으며 비둘기를 길렀다. 토요일엔 크리켓이나 축구팀에 들어가서 경기에 참가했다. 하지만 부인에게 알프레드가 그녀의 다른 아들처럼 하나의 남자, 하나의 독립된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지금도 그녀의 아기였다. 이런 이유로 알프레드를 사랑하면서도 약간은 한심스러워할 때도 있었다.

모자간에 약간 갈등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처럼 맹목적으로 정신없이 마시지는 않았다. 술에 대해 그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아들을 가엾게 생각했다. 알프레드를 가장 사랑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스므살에 집을 나가 해군에서 일정기간 복무했으며, 그 결과 남자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해군과 군복무, 그리고 복종 의무 등을 중애했다. 수년간 그는 자존심 때문에 엄한 군율 밑에서 자기 자신과 싸웠으며, 맹목적인 분노와 수치, 그리고 경련처럼 일어나는 열등감과 싸워 나갔다. 그로 인해 그는 굴욕과 자기 증오에서 벗어나 일종의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상화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희망과 신앙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알프레드는 서른살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소년처럼 순진했고 세상에 대해 경험이 없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인생에 대한 일종의 말없는 겸허이자 삶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리라. 그는 거의 완벽한 정도로 동정이었다. 강한 감수성으로 인하여 그는 여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그에겐 어찌된 영문인지 살아있는 여자에게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는 셈이었다. 하나는 관념으로서의 여자이며 그는 머리 속에서 이런 여자와 더불어 즐겨 보기도 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여자로 그 앞에서 그는 몹시 불안해졌고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어떤 여자에서나 뒤로 물러났고 자기를 지켰으며, 그리고 나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깊은 마음속에서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정상적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제노바(이탈리아의 북서부에 있는 商港)에서 알프레드는 하사관과 함께 저속한 여자들이 애인을 찾으러 나타나는 술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는 유리컵을 들고 앉아 있었고 여자들은 그를 쳐다봤지만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여자들이 접근해 와도 그는 그들이 먹고 마신 음식값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여자들을 불상히 여기고 먹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알프레드는 여자들 중의 하나와 함께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다. 으스스하고 쉽사리 흥분하는 이탈리아인 —본능적이고 비인간적인 매력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을 그는 이상한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남자이고 자신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나병환자인 것처럼 느껴졌고 뭔가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와 어떤 여자와의 성적 장면을 상상하고 속으로 성적 만족을 느끼며 그곳을 나와 걸어갔다. 그와 동침할 뜻이 있는 여자가 나타나도 그녀가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무능함이 응어리가 되어 자기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는 몇번인가 만취하여 친구들과 함께 외국의 인가된 갈보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그 경험의 불결한 ‘무의미함’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적 무능력자인 것 같았다. 비록 현실적으로 무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는 이 비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건 알 수 없는, 부여되지 않은 자아 — 그를 줄곧 괴롭히는 — 의 변함없는 짐이었다. 해군에서 받은 훈련의 덕택으로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자기의 육체를 의식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수영도 하고 아령도 하면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크리켓을 하고 축구도 했다. 그는 독서를 하고 페이비언 주의자들(1884년 Sidney Webb, Bernard Shaw 등이 영국에 설립한 점진적 사회주의 단체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정불변의 사상을 지니기 시작했다. 피콜로도 불었고 전문가라는 평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밑바닥에는 이 수치와 불완전성의 고민이 항상 잠재해 있었다. 그의 건강한, 유쾌한 기분 밑에는 비참한 기분이 숨어 있었고 불안했으며, 관념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열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고 자의식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저열한 인간이 되어도 상관없었다. 쾌락을 찾아서 주저없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광부를 보고 그를 몹시 부러워했다. 이 자발성, 그리고 쾌락을 찾아 직접 나서는 맹목적인 우매함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듯한 심정이었다.

IX

탄갱 속에서 알프레드는 불행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다. 자기와 타인간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알프레드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있는 성 싶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일간이로, 자기들보다

못난 인간으로 경멸하고 있지 않은지 그는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다만 더 남자다운 척했고, 그들이 모두 쉽사리 속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고 있었다. 원래 성격이 쾌활했기 때문에 그는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도 자신이 있었다. 허리까지 옷을 벗고 일 때문에 먼지투성이가 되어 그들은 잠시 쭈구리고 앉은 채 안전 램프의 불빛으로 희미하게 서로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위에는 검은 석탄이 튀어 나오고 나무로 된 지주가 마치 낮고 검은, 몹시 어두운 사원 내의 기둥처럼 줄지어 있었다. 그러면 소형기관차가 나타나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찾아왔다. 그는 7번갱에 서의 메시지나, 물통에서 가져온 물병이나, 지사에서 뉴스 등을 전달했다. 하루 하루가 즐겁게 지나갔다. 매일 반복되는 지하생활에는 규칙에 매이지 않는 태평함과 안락함이 있었다. 위험한 곳에서 다른 세계와 단절된 광부간의 유쾌한 동지애가 있었고, 구멍을 파고 짐을 싣고 지주를 세우는 다양한 노동이 있었으며 또 그 분위기 속엔 신비와 모험의 매력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것은 모두 밖의 대기와 바다에 대한 동경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다면 탄광생활을 매력있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날은 할 일이 많아서 알프레드는 친구들과 잡담할 기분이 나지 않았으며, 오후내내 말없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해산”하는 소리가 들리자 광부들은 갱 밀바닥으로 걸어갔다. 현도료를 칠한 지하 사무실은 그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램프를 다 켜고 수갱의 밀바닥 주위에 십여명씩 둘러 앉았다. 그 수갱 밑으로 까만 목직한 물방울이 끊임없이 물웅덩이 속으로 떨어졌고, 여러 전등이 큰 지하도를 따라 환하게 길을 비추주었다.

“비가 오나요?”

알프레드가 물었다.

“눈이 오지.”

노인 하나가 대답했고 젊은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눈이 올 때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즐거웠다.

“마침 크리스마스에 알맞게 내리고 있지”

노인이 덧붙였다.

“그렇군요.”

알프레드가 대꾸했다.

“녹색 크리스마스, 두툼한 묘지.”

또 한 사람이 격언식으로 중얼거렸다.

알프레드는 작은, 좀 뽀족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자아올림틀(깁에서 사람을 실어 올리는 상자 모양의 것)이 내려왔고 그들은 열 두명씩 줄을 서서 탔다. 알프레드는 그 틀의 지붕—구멍난 아치형의—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 좋아했다. 그 틀은 땅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더러운 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알프레드는 자기 주위의 사물을 좋아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표정 밑에는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기묘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상의 세계는 눈빛으로 인해 거의 섬광처럼 눈 앞에 다가왔다. 깁구 쪽으로 서둘러 가서 램프를 사무실에 놓고, 자기 주위의 맑은 공기를 피부에 느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눈 때문에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좌우의 언덕은 황혼 속에서 연한 푸른 색을 띠고 산울타리는 어둡고 살벌하게 보였으며, 선로 사이의 눈은 발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그러나 저 앞쪽—짐을 돌아가는 광부들의 검은 모습 그 너머—에 눈은 그대로 부드럽게 쌓여 있었고, 잡목 숲 어두운 벽까지 계속 뻗어 있었다.

서쪽에는 핑크색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늘엔 큰 별이 하나 반쯤 빛나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탄갱의 불빛이 건물의 어둠 사이로 노랗게 선명하게 빛났고, 옛 알더크로스의 불빛은 푸르스름한 황혼에 줄지어 깜박거렸다.

알프레드는 생의 기쁨에 넘쳐서 광부들 사이에 걸어갔고 그들은 모두 눈 때문에 신명이 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광부와 사귀는

것을 즐겨했고 흰 황혼의 세계를 좋아했다. 정원의 문에 잠깐 멈춰 서서, 아래쪽 자기 집 불빛 —고요한 푸른 눈을 비추고 있는— 을 바라보면 어쩐지 약간 흥분을 느끼는 것이었다.

X

선로의 큰 문 옆 울타리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언제나 자물쇠로 잠겨 두었다. 그는 그 작은 문을 열고 숲과 바깥의 눈을 비추는 부엌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건 밤이 될 때까지, 타게 될 촛불일 거라고 혼자 생각했다. 그는 아래 판판한 곳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 부드러운 눈 위에 처음 발자국 내기를 그는 좋아했으며 드디어 관목을 통하여 집에 이르렀다. 두 여자는 바깥 흙밭이어서 나는 무거운 장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문을 열고 말하는 알프레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그 초로 얼마나 기름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그는 램프의 밝은 빛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병과 도시락을 내려놓고 상의를 부엌문 뒤에 걸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루이자와 얼굴을 마주쳤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 눈은 웃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이 긴장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병이 나셨어요.”

루이자가 말했다.

“저런! 어떻게 해서?”

그는 놀라서 소리쳤다.

“정원에서요.”

루이자는 대답했다. 그는 두 손에 상의를 든 채 머뭇거리더니 얼른 옷을 걸고 부엌쪽으로 돌아섰다.

“침대에 누워계시나요?”

그가 물었다.

“예.”

루이자는 대답했다. 그가 모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알프레드는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는 부엌으로 가서 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장화를 벗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작았지만 생김새는 보기에 좋았고 갈색 머리털은 짧고 곱슬거렸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즐거워 보였다. 그는 무거운 두터지 가죽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에서 탄갱의 퀴퀴한 맥빠진 냄새가 풍겼다. 슬리퍼를 신은 뒤 장화를 걸거지하는 곳에 갖다 놓았다.

“어디가 아프시죠?”

그는 두려워하면서 물었다.

“어딘가 속병인 것 같아요.”

루이자가 대답했다.

그는 이층으로 올라갔고 어머니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루이자는 그의 발자국이 위 침실 석고로 된 바닥을 울리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애야, 걱정할 것 없어. 어제나 지난 주보다 더 심한 게 아니야. 의사는 별것 아니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좀 딱딱하게 말했다.

“무얼 하고 있었죠?”

아들이 물었다.

“난 양배추를 뽑고 있었지. 너무 세게 뽑았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아, 정말 아팠어...”

아들은 어머니를 얼른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하지만 애야, 이따금 갑자기 아픔을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나 다 그런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르겠어. 별거 아닐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했다. 구석에 있는 큰 램프는 진한 녹색 가리개로 가리워져서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그는 염려와 복잡한 감정 때문에 몹시 긴장되어 있었고, 이내 이마를 찌푸렸다.

“땅이 얼었는데 왜 내장이 튀어나오도록 양배추를 뽑는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뽑았겠죠.”

알프레드가 힐난하듯 말했다.

“누그든 뽑아야 하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몸을 해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더 말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아래층의 루이자는 모자간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라앉았다. 그들 사이엔 이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았다.

“정말 어머니 심하지 않죠?”

알프레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호소하듯이 물었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듀란트부인은 약간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전 어머니기 더 나빠지지 않기를,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래요.”

“어서 가서 저녁을 먹어라.”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하필 통증은 그 때 더 심해지고 있었다.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날 너무 소중히 하고 있어. 루이자는 좋은 처녀야. 그 처녀가 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서 먹으렴.”

알프레드는 자기 자신이 마보스럽고 부끄럽게 느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잘 피했고 알프레드는 가서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는 고통으로 창자가 끓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대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식사하러 내려가서 기뻐다. 고통으로 신음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프레드는 습관대로 몸을 씻기 전에 식사를 했다. 루이자는 저녁

식사의 시중을 들었으며, 그녀는 좀 어색했고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프레드와 그의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몹시 긴장하고 있었고, 그가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알프레드는 음식에서 얼굴을 돌린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이자의 영혼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 내려하면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검은 얼굴과 두 팔은 거칠었고 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얼굴은 석탄 가루로 까맣게 덮여 있어서 루이자는 그를 제대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갈색 눈썹, 동요하지 않는 두 눈, 꼭 다문 입 위의 거친 작은 콧수염 —이것만이 그녀에게 익숙한 그의 모습이었다. 탄진을 덮어쓰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루이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는 이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따뜻이 데우기 위해 프란넬 옷과 밀기울 주머니를 들고 이내 내려왔다. 늙은 부인의 통증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저녁을 반쯤 먹다가 갑자기 메스꺼워서 포크를 놓았다.

“이것들이 고통을 좀 가라앉히겠죠.”

프란넬옷과 밀기울 주머니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물려서서 지켜볼 따름이었다.

“고통이 심해요?”

알프레드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루이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의견을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루이자는 간호로 바꿨고 다시 이층으로 올라갔다. 가련한 듀란트 부인은 고통으로 안색이 창백해졌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루이자는 부인의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주했고 그녀의 얼굴은 힘이 들어 시무룩했다. 그녀는 다시 앉아 기다렸다. 고통은 서서히 사라졌고 부인은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루이자는 침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나는 물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희미하게 헛소리하는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알프레드가 몸을 씻고 있지. 등을 닦아주길 원할텐데...”

루이자는 이 병든 노파가 무얼 원하는지 신경을 쓰며 열심이 귀를 기울였다.

“그는 등을 닦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말했다. 루이자는 일어나서 노르스름한 이마에서 땀을 닦아 주었다.

“제가 내려가 보죠.”

루이자는 달래듯이 말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병든 부인은 중얼거렸다.

루이자는 순간 기다렸다. 듀란트 부인은 자기가 할 바를 다하고 눈을 감았고 루이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 자신이든 알프레드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지금은 괴로워하는 여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

알프레드는 허리까지 옷을 벗고 난로앞 깔개에 무릎을 꿇고 도제(陶製)의 큰 대야에 몸을 씻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저녁 이렇게 몸을 씻었고,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루이자는 이 집안 일엔 익숙하지 못했다.

그는 반복하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하얀 비누 거품을 기계적으로 자기의 머리에 문질렀고, 손을 이따금 목뒤로 뻗기도 했다. 루이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도 단단히 마음먹고 그렇게 해 줘야 했다. 알프레드는 머리를 구부려 물속에 넣었고 비누를 씻어내고 눈에서 물을 닦아냈다.

“등을 씻어주길 당신이 원할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자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의 일상화된 생활습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

나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가! 루이자는 자기에게 거의 지겨운 일이 억지로 맡겨진 것같은 기분이었다. 그 일은 너무나 천했고 저속한 것을 함께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의 확고한 자존심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얼굴을 뻗 돌려 몹시 우스꽝스럽게 루이즈를 올려다 보았고, 그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얼굴을 거꾸로 하니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루이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와 서민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이다. 그가 두 팔을 넣은 물은 까만 빛이었고 비누거품은 거무스름 했다. 루이자는 그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기가 힘들었다. 자기의 습관대로 그는 기계적으로 더러운 물 속을 더듬어서 비누와 프란넬을 찾아내어 뒤로 손을 뻗어 그녀에게 주었다. 알프레드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며, 두 팔을 똑바로 대야에 넣어 어깨의 무게를 두 손으로 받치고 있었다. 씻어내니 그의 피부는 산뜻하게 희고 흠이 없었으며, 단단하고 불투명한 흰색이었다. 루이자는 조금씩 그의 피부를 쳐다보았으며 그 피부도 그의 일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피부는 그녀를 매혹시켰고 그에 대한 소외감은 사라지고 말았다. 루이자는 알프레드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러나려는 생각을 버리고 말았다.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중심이 있었으므로 루이자의 가슴은 몹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 아름답고 깨끗한 남성의 육체에서 어떤 목표에 이른 것이며, 그녀는 비인간적으로 하얀 열에 자극되어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햇볕에 탄 불그레한 목과 귀, 그것들은 더 인간적이고 흥미로웠다. 마음 속에 애정이 솟아났고 이상하게 생긴 그의 귀까지 사랑스러웠다. 알프레드는 그녀에 대해 하나의 인간, 하나의 친숙한 존재였다.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고 근심에 쌓여 다시 이층으로 올라갔다. 루이자는 지금까지 오직 한 사람만 가까이서 보았는데 그건 바로 메어리였다. 나머지는 모두 낯선 사람들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의 혼은 무언가를 향해 열리려 했고 또 하나의 사람을 보려고 했다.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어쩐지 마음이

가득히 채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알프레드는 기분이 썩 좋아질 거야.”

루이자가 방안에 들어가자 병자는 헛소리처럼 맥없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듀란트 부인은 한참 말없이 누워있다가 호소하듯이 입을 열었다.

“루이자양, 제발 신경쓰지 마.”

“제가 신경쓸 이유가 있겠어요?”

깊이 감동되어 루이자가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생활 형편이야.”

병든 부인이 설명했다.

루이자는 또 자기가 그들의 생활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고, 실망의 눈물을 가슴 속에 흘리며 몹시 괴로운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과연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알프레드가 이층으로 올라왔다. 그는 말쑥했고 와이셔츠 바람이었으며 이제는 노동자처럼 보였다. 루이자는 자기와 그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타인임을 느꼈으며, 다시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아아, 뭔가 확실한 관계, 확실하고 영속적인 ‘짓’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머니, 어떠세요?”

알프레드가 물었다.

“좀 괜찮아.”

어머니는 지쳐서 아무 감정도 없는 듯이 대답했다. 이처럼 부인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제거하고, 또 아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걸 듣고 루이자는 그들의 관계가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건 아들을 무가치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만듦였고, 루이자는 마치 그를 잃어버린 듯이 마음 속에서 다시 찾고 있었다. 어머니는 실제적이고 긍정적이었지만 아들은 현실적이 못되었다. 루이자는 당황했고 오싷한 느낌마저 들었다.

“해리슨 부인을 데려올까요?”

알프레드는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며 물었다.

“누군가 오도록 하는 게 좋겠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루이자는 그들의 일에 간섭하는 게 두려워서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자기들 생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녀를 단지 밖에서 온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다. 루이자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별개의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의식되지 않은 그들과의 차이 때문에 감정이 상했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참을성 있고 굽히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남아서 간호해 드리죠. 부인께서 혼자 계실 수는 없어요.”

모자는 수줍어서 무어라 대답하지도 못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어.”

듀란트 부인은 지친 듯이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쨌든 저는 내일까지 머물러 있겠어요. 그럼 병세를 알 수 있겠죠.”

루이자가 말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병든 부인은 신음하듯이 말했지만 사실 누구에게든 꼭 간호를 받아야 했다.

루이자는 비록 공적인 자격이라 해도 어쨌든 허락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던 것이다. 집에서는 메어리가 왔으니 자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이제는 자기들끼리 해 나가야 했다.

“전 제 집에 간단한 편지를 쓰겠어요.”

루이자가 말했다.

알프레드는 자기가 루이자를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묻고 싶은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기꺼이 남을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알프레드의 호의에는 소박한

독립성이 있었으며 그녀는 이런 점을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자는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꽤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루이자에게 몹시 정중하게 대했고, 그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알프레드는 루이자를 가끔 아주 날카롭게 쳐다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이 금갈색이고 동공이 아주 작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군대식 차렷 자세로 긴장해서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아직도 약간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펜과 종이가 필요합니까?”

알프레드는 상관에게 정중하게 제의하듯이 물었다. 루이자에겐 이런 태도가 절제된 태도보다 더 어려웠다.

“예, 부탁드립니다.”

루이자가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루이자는 그가 모든 일에 능숙하고 모든 동작에 아주 자신이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알프레드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한 발자국도 그녀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그녀에게 완전히 사무적으로 대하고 도와주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루이자는 그가 자기를 위해 잘해 주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했지만,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는 당황할 것이고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거라고 느꼈다. 그가 조끼 단추를 끌고 목도 내놓은 채 와이셔츠 바람으로 루이자를 시중들며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상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는 남아있는 생명이 풍부한 듯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전함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더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루이자는 그의 묻는 듯한 시선을 대할 때마다 당황하곤 했다.

그녀는 앉아서 편지를 썼고 그는 그녀의 곁에 또 하나의 양초를 세워놓았다. 좀 진한 불빛이 여러번 포갠 그녀의 머리의 두 곳을 비

추자 그 머리는 마치 두툼한 금빛 깃털을 포개올려 놓은 듯이 묵직하고 밝게 빛났다. 몹시 흰 목덜미에는 가는 솜털과 끝이 뾰족한 금발의 작은 다발이 있었고 알프레드는 낮을 잃고 그것이 환상인양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루이자는 그를 초월한 모든 것이었고, ‘계시’이자 절묘한 존재였다. 이상적이고 자기를 넘어선 모든 것이 바로 그녀였다. 루이자는 그와 어떤 관계도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러나 루이자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조이긴 했지만 알프레드는 오늘날 생의 경이를 만끽하고 있었다. 촛불이 그녀의 머리에서 반짝였고 그를 매혹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기의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기분이었으며, 자기와 어머니와 루이자가 잠시 이상한 미지의 분위기 속에 젖어있는 느낌이었다. 알프레드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늘의 별은 몹시 반짝였고 밑에 쌓인 눈은 겨우 보일 정도였으며 새로운 밤이 그의 둘레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존재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다. 자기의 주위에서 울려오고 있는 이 새 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알프레드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환경의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의 가슴은 어머니를 의식하고 어머니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달아날 수 없었으며 어머니는 미형성의 미지의 ‘혼돈’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XI

알프레드는 고민하면서 길을 걸어 올라갔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작열한 쇠가 자기의 가슴 둘레를 죄는 것만 같았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는 눈 위에 두세 방울 눈물을 흔들어 떨어뜨렸

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믿지 않았고 보다 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메어리가 루이자의 물건들을 뺑 속에 집어 넣고 있는동안 그는 목사 주택의 현관에 앉아서 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알프레드는 그 큰집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해졌으며 자기가 질병의 하나임을 다시 인식했다. 메어리가 그에게 말을 걸자 그는 거의 경례하는 자세를 취했다.

‘정직한 사람’—이렇게 메어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마음은 그녀 자신의 울적한 기분에 일종의 ‘위안’처럼 작용했다. 메어리는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호할 수 있었으며, 이 신분이 그녀에게 남겨진 거의 전부였다. 어쨌든 메어리는 이런 신분이 없었다면 살아가지도 못했으리라. 그녀는 어떤 일정한 장소 밖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상류계급의 여성이 아니라면 자기를 존경할 수도 없었다.

알프레드는 빗장을 거는 대문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마음 속 깊이 슬픔을 느끼고 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서서 북두칠성—밤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았고 먼 들판에서 눈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슬픔이 육체의 고통처럼 그를 엄습해 왔다. 그는 대문을 꼭 잡고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 하고 속삭였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듯이, 베는듯한 급작스런 슬픔의 육체적 고통이었다. 너무 심한 고통이어서 그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또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고통은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 자신과도 거의 관계가 없었다. 어쨌든 고통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참아야 했다. 그의 영혼의 모든 흐름은 미지의 상태로 점점 확대되는 죽음을 향해 몰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흘러가게 했다. 그의 사고와 의식의 모든 단편은 사라져 버리고 솟아 오른 영혼의 파도는 흘러내려서 부서졌고, 그가 이제껏 간 어느곳보다 더 멀리 그를 운반해 갔다. 젊은이는 다시 정신을 차려 자기의 집으로 들

어갔다. 그러자 거의 즐거울 정도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의 집이 그를 들뜨게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아졌다. 마음이 변하여 무엇이든 놀려대고 싶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침대의 한쪽에 앉았고 루이자는 그 반대쪽에 앉았으며, 일종의 명량한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어둠과 공포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거의 반쯤 옷을 벗었을 때 어머니 생각이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마치 고민 중에 두 손이 사물을 꼭 잡듯이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몹시 긴장해서 침대에 드러누웠다. 고통은 꽤 오래 지속되고 피로하게 만들어, 그는 일어나 옷을 다 벗을 기력도 없이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한밤 중에 일어나 보니 몸이 돌처럼 차가웠으며, 그는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들어갔다. 이내 잠이 들었다.

여섯 시 십오분 전, 그는 잠이 깨자마자 즉시 생각이 떠올랐다. 바지를 입고 양초에 불을 붙인 다음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불빛이 침대를 비추지 않게 손으로 촛불을 가렸다.

“어머니!”

알프레드는 속삭였다.

“그래.”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일터에 가도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무겁게 고통치고 있었다.

“애야, 나라면 가겠다.”

그의 마음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그는 촛불에서 손을 내렸고 불빛이 침대를 비쳤다. 그는 거기에 루이자가 누워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루이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가 얼른 눈을 감고 등을 돌려 얼굴을 반쯤 베게에 파

물었다. 그녀의 둥근 머리 둘레에 헝클어진 머리털이 마치 빛나는 수증기 같았고, 두 가닥 땀은 머리가 침구 사이에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마음 속에 파문을 느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 서 있었다. 루이자는 침대 안에 움츠러 들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시선과 마주쳤고, 다시 기가 꺾여서 확신이 사라졌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 일터로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니에게 키스하면서 그는 대답했다. 그의 가슴은 절망으로 내려앉았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집을 나갔다.

“알프레드!”

어머니가 가냘프게 외쳤다.

그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침대로 돌아왔다.

“어머니, 왜 그러죠?”

“알프레드, 넌 언제나 옳은 일만 하겠지?”

이제 아들은 자기 걸을 떠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나간 듯이 물었다. 그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어머니의 묻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죠.”

알프레드는 대답했다.

어머니는 자기의 뺨을 아들에게 돌렸으며, 그는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흑독한 절망 속에 방을 나갔다. 그는 일터로 간 것이다.

XII

정오 무렵 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는 갹구에서 그 슬픈 소식을 들었다. 마음 속으로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오히려 큰 충격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몸을 떨었다. 그저 답답하게 숨을 쉬

면서 그는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루이자는 아직도 집에 있었으며,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간략하게 알프레드가 꼭 알아야 할 일을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다.

“당신은 반쯤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친의 사망은 큰 충격이 아니었죠?”

알프레드를 쳐다보면서 그녀는 물었다. 그녀의 두 눈은 까맣고 침착했으며 무언가 살펴보는 듯했다. 그녀도 역시 당황한 기색이었고, 그는 아주 미숙하고 암담한 태도였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바보스럽게 대답했으며, 그녀의 시선을 참아내지 못하고 반대로 눈길을 돌렸다.

“당신이 예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걸 전 참을 수 없었어요.”

루이자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때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을 그는 몹시 부담스럽게 느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루이자는 돌아갔고 그 뒤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가지 일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득실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동안엔, 비록 억제하기 힘든 발작적인 슬픔은 있었지만 그는 일을 잘 처리했다. 그외엔 그는 건성이었다. 혼자 있을 때엔 격렬한, 거의 미칠 듯한 슬픔의 폭발을 참아내야 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슬픔은 다시 사라졌고, 그를 침착하게 거의 산뜻한 기분이 들게 했으며, 다만 낮은 기분만이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져서 거대하고 놀라운 대혼돈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인생의 장벽이 폭파된 것 같았고, 어리둥절한 거대한 홍수 —광대하고 사람도 없는— 속에 빠져든 느낌이 있었다. 그는 대혼돈 속에 깨어지고 었질러진 존재에 불쾌했고 말없이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다시 고민이 그를 엄습해 왔

다.

사람들이 모두 채석장 오두막에서 떠나가고, 알프레드와 중년이 넘은 가정부 둘만 남게 되자 긴 시련이 시작되었다. 눈은 녹고 다시 얼었으며, 눈이 또 내려 회색 세계를 희게 하고 다시 녹기 시작했다. 세계는 마치 영성한 갈색 진창길 같았다. 알프레드는 밤에 할 일이 없었다. 원래 그의 생활은 여러가지 작은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고 어머니를 극으로 하여 살아왔으며,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나이 많은 가정부가 떠나간 후에도 그는 옛날 하던 대로 해나갈 수 있었지만, 그 생활의 힘과 균형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줄곧 주먹을 꼭 쥐고 자기를 억제하며 뭘지 모르는 것을 참아가면서, 책을 읽는 척 했다. 그는 또 지쳐버릴 때까지 거무스름한 습기에 젖은 벌판 길을 몇 마일씩 걸어갔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그가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일종의 도피에 불과했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도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만약 여름이었다면 그는 잠잘 때까지 정원에서 일하며 도피할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도피할 방법도 휴식도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이해하기보다 행동하기 위해, 존재하기보다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그는 마치 수영 방법을 잊어버린 수영선수처럼 충격으로 인해 활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일주일간 그는 이 생활 —괴롭고 숨막힐 듯한— 을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 후부터 피로를 느꼈고, 힘을 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무렵 그의 자기 보존의 본능이 제일 강해졌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하나?’ 이것이 언제나 문제였다. 술집은 사실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거기에 가봐도 쓸모가 없었다. 그는 이민 갈 것을 생각해 보았고 딴 나라에 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성 싶었다. 그는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장례를 치른 후 그 다음 일요일, 듀란트의 온 식구가 교회에 갔을 때, 알프레드는 루이자가 침착하고 집중계 앉아있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몹시 세침한 메어리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린들리 가(家)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알프레드는 그들을 자기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실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생활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예배 후에 루이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제 언니는 형편이 되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드시기를 바라고 있죠.”

그는 메어리를 쳐다보았으며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친절한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루이자에게 한 것이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메어리는 마음 속으로 자기의 행위를 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어리는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예, 원하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알프레드는 좀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막연하게 그 곳은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내일 저녁 여섯 시 반쯤 오세요.”

알프레드는 그시간쯤 되서 찾아갔다. 루이자는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갓난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넓적다리 위에 주먹을 꼭 쥐고 아주 조용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일종의 명상이나 방심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와 그들 사이에는 공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며, 이 사실을 알프레드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아주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밤은 서서히 깊어갔다. 린들리 부인은 그를 ‘젊은이’라고 불렀다.

“젊은이, 여기에 앉으시죠.”

그는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불리운다 해도 별 차이는 없었다. 그들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린들리 목사는 그에게 특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친절하고 관용적이었지만 생색을 내는 듯한 태도였다. 알프레드는 비판도 화도 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도무지 먹

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있는 데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거기에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동안 예의상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는 정확하게 단음절어(單音節語)로 대답했다.

그는 떠나갈 때 얼떨떨해져서 주춤거렸다. 모두 다 끝난 것이 기뻔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는 목사 집에서 떠나갔다. 즉시 캐나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루이자는 마음 속으로 고민했다. 그들 모두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었지만, 왜 화가 나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X III

이틀밤이 지난 후 루이자는 여섯 시 반에 채석장 오두막의 문을 노크했다. 알프레드는 저녁을 마쳤고, 가정부는 접시를 다 닦고 떠나간 후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탄쟁의 오물과 먼지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얼마 뒤 '새 여인숙'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어딘가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새 여인숙이라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단순한 접촉이 필요했고, 여유, 파스한 휴식,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경과 등이 필요했다. 그래도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앉아 있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는 텅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아직도 탄쟁의 먼지 투성이었다.

“저는 방문하고 싶었어요. 오래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소파 있는 데로 갔다. 그는 루이자가 왜 어머니의 둥근 안락의자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가정부가 거기에 앉으면 분노 비슷한 감정이 마음 속에 솟아났다.

“지금쯤 나는 몸을 닦고 있어야 했죠.”

그는 패종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패종에는 나비와 버찌 장식
식이 있었고 ‘티 부르크스, 맨스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는 새까만 두 손을 더럽고 얼룩덜룩한 팔 위에 올려 놓았다. 루이자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에 대한 순수한 중립적인 태도와 감정을 자
제하는 몸가짐이 그에게 보였고, 이런 태도는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 친절할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루이자가 말했다.

“나는 그런 일에 익숙해 있지 않죠.”

그는 사이가 벌어진 흰 이를 보이면서 입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침착했고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루이자는 얼른 말했다. 그녀의 침착성은 세련되었고 진한 회색 눈
은 이해심이 넘쳐 있었다. 그녀를 의식하게 되자 알프레드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가 두려워졌다.

“어떻게 혼자서 지내시죠?”

루이자가 물었다.

그는 불있는 데를 흘끔 쳐다보았다.

“난...”

그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대답하려 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
다.

루이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이 방은 참 답답하군요. 이렇게 불을 세게 한 탓이겠죠. 전 상의
를 벗어야겠어요.”

루이자가 말했다.

알프레드는 그녀가 모자와 상의를 벗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녀는 금빛 비단으로 수놓은 크림색 카시미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

다. 그건 그녀의 목과 손목에 꼭 맞았고 아주 좋은 옷처럼 보였다. 그 멋진 옷은 그에게 즐거움과 깨끗함, 자신으로부터의 해방감 등을 안겨주었다.

“아직도 몸을 씻지 않은 걸 보면 무슨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나요?”

그녀는 약간 다정하게 물었다. 그 질문을 듣고 그는 머리를 돌리고 웃었다. 그의 눈 흰자위는 검은 얼굴에 대조가 되어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아, 그건 말할 수 없는데요.”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이 집을 계속 지니고 있겠어요?”

루이자가 물었다.

그 물음에 알프레드는 의자에서 약간 몸을 움직였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마 캐나다에 갈 것 같아요.”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침착해졌고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가시죠?”

루이자가 물었다.

그는 다시 의자 위에서 불안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예, 그러니까 제 인생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죠.”

알프레드는 천천히 대답했다.

“어떤 인생이죠?”

“여러가지 해볼 일이 있어요. 농장 경영, 재목상, 또는 광산같은 거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그는 요즘 생각하는 버릇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잘 모르겠군요. 직접 내가 해볼 때까지는.”

루이자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서 영원히 떠날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집과 정원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지 않으세요?”

루이자가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아마 프레드가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살림을 차릴 생각은 없으세요?”

루이자가 물었다.

알프레드가 의자의 팔걸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그녀에게 얼굴을 돌렸다. 루이자의 얼굴은 창백하고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어쩐지 우울하고 냉정했으며, 안색이 창백해짐에 따라 머리카락은 더 윤기를 내며 빛났다. 루이자는 그에 대해 확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어떤 존재 —그에게 바쳐진— 었다. 그의 가슴은 긴장한 탓으로 뜨거워졌고, 공포와 고통에서 일어나는 심한 경련이 온몸에 퍼져갔다. 그는 자기의 몸을 그녀에게서 돌려버렸다. 침묵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그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숨막힐 지경이었다.

“오늘밤 외출할 생각이었나요?”

루이자가 물었다.

“예, ‘새 여인숙’까지만.”

알프레드는 짧게 대답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루이자는 자기의 모자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밖에 어떤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가야만 했다. 그녀가 떠나가서 마음이 편해지기를 그는 앉아서 기다렸다. 루이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대로 그 집을 떠나가면 실패자로서 나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루이자는 모자를 쓰고 모자에 편을 꼰고 있었다. 이제 곧 떠나야 하는 것이다. 뭔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날카로운 아픔이 번개처럼 그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쳐갔고 그녀는 자신을 잊고 말았다.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루이자는 물었다. 자제하려해도 말이 자기와 무관하게 스스로 나오듯이, 불같은 고민 속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의 얼굴은 탄진(炭塵) 속에서 창백해졌다.

“왜요?”

그는 두려워져서 그녀를 돌아보며 억지로 물었다.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루이자는 반복했다.

“왜요?”

그는 똑같은 말로 물었다.

“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두 폐(肺)를 불로 가득히 채운 채, 숨을 헐떡이며 루이자는 대답했다.

알프레드의 얼굴은 실룩거렸다. 그는 허공에 매달린 듯이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혼돈의 고민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음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 그녀도 마치 돌로 변한듯이 그의 눈을 똑바로 지켜보았다. 몇 분 동안 그들의 영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건 일종의 고민의 표현이었고 그들은 그 고민을 참아낼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숙였지만 그의 몸은 날카로운 작은 경련으로 꿈틀거렸다.

루이자는 돌아서서 상의를 집으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은 그녀 안에서 죽어 버렸고 두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감지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상의를 입었다. 방안에는 비참한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녀가 가야할 때가 온 것이다. 알프레드가 얼굴을 들자, 두 눈은 고민하는 검은 눈동자를 제외하고 마노(瑪瑙)처럼 무표정했다. 그의 눈은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이제 의지도 생명도 없었다. 루이자는 파멸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를 원치 않으세요?”

그녀는 힘없이 물었다.

고뇌의 경련이 그의 눈을 스쳤고, 그 눈은 그녀를 잡고 놓지 않았다.

“난..., 난...”

알프레드는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것’이 그를 의자에서 그녀 쪽으로 잡아당겼다. 루이자는 마치 먹이로 바쳐진 생물처럼 마술에 걸린듯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손을 시험하듯이 불안스럽게 그녀의 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기이하고 비인간으로 보였고 그녀는 꼼짝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자기의 팔을 그녀의 몸에 감았다. 그녀가 거의 의식을 잃고 그도 쓰러질 정도가 되도록, 그녀를 가혹하게 맹목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서서히 그녀를 꼭 잡았고, 머리가 어지럽게 돌면서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 한편 루이자는 자신을 바친 결과 일종의 죽음속으로 기절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완전한 암흑의 순간이 그에게 나타났고, 둘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얼마 후 그는 팔에서 힘을 좀 빼었고, 그녀도 몸을 약간 빼내어 자기를 안고 있는 그에게 자기의 두 팔을 감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힘껏 포옹했으며, 말로는 못했지만 다짐을 얻기 위해 서로 자기의 몸을 상대방의 몸안에 감추고 있었다. 애정이 사무쳐 남자의 몸을 더욱 끌어 당기고, 그의 몸에 바짝 대고 떠는 것은 언제나 루이자의 두 손이었다.

드디어 그녀는 자기의 얼굴을 뒤로 당겨서 알프레드를 우러러 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젖었고,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두려움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의 얼굴은 온통 거무스레 하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였으며, 그녀에게 그는 진정 영원한 존재인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고통의 메아리가 희귀한 환희속으로 되돌아왔고 그녀의 모든 눈물이 솟아났다.

“당신을 사랑해요.”

입술을 오므리고 흘쩍이면서 루이자가 속삭였다. 그녀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거의 가슴을 찢은 듯한 평안과 정열이 갑자기 솟아나자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머리를 그녀에게 기대었다. 둘이 말없이 서 있는 동안에 정열은 약간 진정되었다.

마침내 루이자는 그를 정면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두 눈을 들었다. 검고 작은 동공의 남자 눈은 빛나고 기이했으며, 이상한 그 눈이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로 다가왔다. 그의 입이 그녀의 입에 점점 다가오고 마침내 입을 맞추게 되자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말았다.

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 너무나 정열과 비애, 그리고 죽음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고민 중에 포옹하고 두려움이 정열로 변하는 긴 상처입은 키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몸을 빼내었다. 그는 상처받은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즐거운 기분도 들었으며 거의 그녀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전 기뻐요.”

루이자가 속삭였다.

그는 뜨거운 감사와 정열을 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직도 무슨 말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포근한 위안을 얻어서 기분은 멍했다.

“전 가야만 해요.”

루이자가 입을 열었다.

알프레드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는 자기가 그녀에게서 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당신의 얼굴은 까맣군요.”

그녀가 말했다.

알프레드는 약간 웃었다.

“당신의 얼굴은 약간 얼룩져 있어요.”

이번엔 알프레드가 낮게 말했다.

그들은 상대방을 서로 무서워했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에 붙들어 둘 수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루이자는 자기의 얼굴을 씻고 싶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조금 갖다주고 곁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매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의 블라우스가 더러워진 걸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루이자는 자기의 소매를 보고 즐거운 듯이 웃었다.

그는 프라이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요?”

루이자가 되물었다.

그는 좀 어색하게 대답했다.

“나에 대해서 말입니다.”

알프레드가 말했다.

“제가 무얼 해드리기 원하세요?”

루이자는 웃으며 물었다.

그는 한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몸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X IV

그들이 언덕을 올라감에 따라 밤은 어떤 ‘미지의 것’에 의해 깊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모든 주위에 암흑이 살아 있고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끼면서 바짝 붙어서 말없이 언덕을 걸어서 올

라갔다.

가로등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그는 루이자보다 더 수줍어 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손을 늦춰주면 그녀의 손을 놓아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루이자는 그를 꼭 붙잡고 있었다.

이윽고 둘은 들판 사이의 아주 캄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고 구태여 입을 열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둘은 린들리 목사 주택의 대문에 도착했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마로니에 나무밑에 섰다.

“당신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군요.”

남자가 말했다.

그녀는 이내 희미하게 웃었다.

“내일 오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세요.”

낮은 어조로 여자가 말했다.

그녀는 자기의 손안에 그의 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똑같은 공감에서 나오는 슬픈듯한 웃음을 조금 웃었다. 루이자는 그와 키스를 한 뒤 알프레드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에 돌아온 알프레드는 이전의 발작적인 슬픔이 일어나서 루이자를 마음 속에서, 어머니 —상처에 난 열의 폭발처럼 스트레스가 사나운— 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든든한 기댈 것이 있었다.

X V

다음날 저녁, 알프레드는 린들리 목사댁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 입었다. 그는 구혼을 해야한다고 느꼈고 어떻게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 구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루이자의 마음은 확실했고 그 결혼은 그에 대해 어떤 운명같은 것이었다. 그건 또 그의 마음에 축복받은 운명이라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그는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알프레드는 불도 안 피운 작은 서재에 안내되었고, 얼마 후에 린들리 목사가 들어왔다. 목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적대감에 차 있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죠?”

목사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다시 상관앞에 서 있는 수병처럼 그를 쳐다보았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의 정신은 아주 맑았다.

“린들리 목사님, 저는…”

알프레드는 정중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래도 그 일은 꼭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줄곧 서 있었다. 그는 자기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굳게 잡고서 결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었다. 그 문제는 그의 개인적 자아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쳐놓아야 했고, 그건 또 최고의 의무였기 때문에 자기를 의식해서는 안 되었다.

“자네는…”

린들리 목사가 입을 열었다.

알프레드는 입 속이 말랐지만 그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루이자양… 루이자양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루이자에게 결혼해 주길 간청한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알프레드는 자기가 간청한 일이 없음을 회상하고 있었다.

“만약 루이자가 저와 결혼한다면 전… 목사님께서 반대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잘 생긴 남자였으며, 목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자네와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요?”

린들리 목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알프레드는 진지하게 대답했지만 약간 고통스러웠고, 자기와 이 연장자 사이에 어떤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목사는 말하고 그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메어리와 루이자, 그리고 린들리 부인이 있었고, 맞시 썬는 램프를 들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루이자, 이 젊은이는 네 일로 오셨어.”

린들리 목사가 말했다.

“예, 알고 있어요.”

루이지는 예의바르게 서 있는 알프레드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광부와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겠지, 바보같은니.”

린들리 부인은 격렬할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느슨한 비둘기희색 가운을 입고 뚱뚱한 몸을 어쩔 수 없는 듯이 소파위에 눕히고 있었다.

“아니,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메어리는 낮은 어조지만 힘주어 말했다 — 약간 오만하게.

“젊은이는 아내를 부양할 방법과 능력이 있어요?”

린들리 부인은 난폭하게 물었다.

“전! 전 충분히 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프레드는 움찔해서 대답했다.

“그래서 얼마나 별죠?”

난폭한 목소리로 부인이 다시 물었다.

“하루에 7실링, 6펜스죠.”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그것으로 부양할만 하겠어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좁은 작은 집에서 살 작정인가요?”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죠.”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그들이 자기를 쓸만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는 좀 화가 나고 당황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에겐 자기가 훌륭한 신앙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내 딸이 당신과 결혼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바보지요.”

린들리 부인은 자기의 결혼을 거칠게 내뱉으며 소리쳤다.

“어머니, 결국 이건 루이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

메어리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루이자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겠지. 하지만 결혼한 걸 후회할거야.”

린들리 부인이 메어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루이자는 가족의 일도 고려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돼.”

린들리 목사가 말했다.

“아버지는 무얼 원하시죠?”

루이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내 말은 만약 네가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된다는 거야. 특히 네가 이 교구에 남아 살게 되면 말이지. 만약 네가 아주 멀리 떠나간다면 일은 간단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바로 코 밑 광부 오두막에서 살아간다면 내 체면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겠지. 나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지위가 있지.”

“젊은이, 이리 오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줘요.”

린들리 부인이 거칠게 말했다.

알프레드는 얼굴을 붉히며 걸어가서 자리에 섰다. 완전한 차렷 자세는 아니어서 그는 자기의 두 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루

이자는 그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화가 났다. 그는 자기가 남자임을 보여주어야 했다.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둘 다 살아가기가 더 나을 거예요.”

린들리 부인이 말했다.

“그러죠.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메어리가 분명하게 물었다.

알프레드가 돌아보았다. 메어리는 아주 당당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구에게든 두통거리가 될 바에야 떠나는 게 낫겠죠.”

“당신 개인으로서는 남아있고 싶은거죠?”

메어리가 물었다.

“그건 제 집이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떻게 결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에겐 그 자신의 권리가 있고 또 만일 루이자가 그와 결혼하길 원한다면...”

메어리는 부모를 똑똑히 바라보았다.

“루이자, 루이자!”

아버지는 짜증난 듯이 소리쳤다.

“루이자가 정상적으로 처신하지 않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왜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가족의 일을 생각지 않는지 그 까닭을 난 모르겠어. 그 문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루이자는 가능한 한 이 일을 잘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만일...”

“그래도 아버지, 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루이자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부모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지. 그리고 난 네

가 부모를 가능한 한... 그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는 멀리 가서 살 수 있어요.”

루이자는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말았다.

“물론이죠.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알프레드는 창백한 안색을 하고 고민하면서 얼른 대답했다.

방안에는 완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정말 좋을거야.”

목사는 누그러진 태도로 중얼거렸다.

“그렇고 말고요.”

병든 부인이 거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런 일을 부탁했으니 우린 사과해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메어리가 딱딱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젠 더 이상 말썽거리가 없는 것이 알프레드로서는 기뻐다.

“그럼 여기서 결혼 예고를 할까요? 아니면 호적계로 갈까요?”

알프레드는 도전하듯이 똑똑하게 말했다.

“호적계로 가요.”

루이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또다시 방안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렇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가야 할 길을 가야해.”

린들리 부인이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맛시 씨는 줄곧 방구석에 혼자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었다. 그러자 맛시 씨가 일어나서 입을 열었다

“메어리, 아기를 봐야죠.”

메어리는 일어나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갔고, 몸집이 왜소한 그녀의 남편도 메어리 뒤를 터벅터벅 따라갔다. 알프레드는 이상한 듯이 허약한 작은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결혼 후에 어디로 떠나갈 생각이요?”

런들리 목사는 상당히 다정한 태도로 물었다.

알프레드는 움찔했다.

“전 딴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캐나다로? 아니면 어디로?”

“캐나다로 갈 생각입니다.”

“그건 썩 좋은 생각이군.”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는 사위가 된 당신을 자주 볼 수 없겠군요.”

런들리 부인은 거칠지만 다정하게 말했다.

“자주 볼 순 없겠지요.”

알프레드가 대답했다.

이윽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고 루이자는 대문까지 함께 갔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하고 그의 앞에 섰다.

“우리 가족들 때문에 언짢게 생각지 않으시겠죠?”

루이자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들이 언짢게 생각지 않는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몸을 구부려 루이자에게 키스했다.

“빨리 결혼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좋아요. 내일 난 바포드로 갈 생각이요.”

알프레드가 말했다.

2. 섬을 사랑한 사나이

첫번째 섬

섬을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섬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섬을 원했다. 꼭 자기 혼자만 섬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을 자기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다.

섬이 너무 크면 대륙보다 결코 나을것이 없었다. 그것이 섬처럼 느껴지려면 정말로 작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어볼 때, 섬을 자기의 개성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섬을 사랑한 남자는 서른 다섯이 되었을 때 자기의 섬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그는 섬을 ‘자유보유 부동산’(개인이 세습으로서 또는 종신권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99년간의 차지권(借地權, 타인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地上權 및 賃借權)을 얻었는데, 그건 그와 그 토지에 관한 한 영구적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아브라함(유대인의 선조, 사라의 남편, 이삭의 아버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3절)처럼 자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기르는데 섬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섬은 이내 인구 과잉이 되고 사람들이

넘쳐흘러 빈민굴처럼 될 것이다. 섬을 ‘떨어진’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겐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섬은 하나의 알, 단 하나의 알을 품게되는 둥지이며, 이 알은 바로 섬에 사는 그 남자다.

이 가능성을 가진 남자에 의해 입수된 섬은 멀리 떨어진 바다 속에 있지 않았다. 그건 고향 바로 가까이에 있었으며, 야자수도 모래톱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선착상 위에 좀 우울해 보이면서도 견고하고 좋은 집이 한 채 서 있었고, 그 너머엔 오두막들로 된 농가가 하나, 그리고 더 떨어진 곳에 약간의 밭이 있었다.

아래쪽 부두의 작은 만에는 해안경비대의 오두막 같은 세 채의 소가옥이 일렬로 서 있었는데 모두 깨끗하고 흰도료가 칠해져 있었다.

이보다 더 아늑하고 가정적인 곳이 달리 있겠는가. 가시금작화와 자두나무 숲을 지나서, 바다의 가파른 바위를 올라 앵초가 자라는 작은 숲 사이의 오솔길을 내려가서 섬을 일주하면 약 4마일이 되었다. 만약 두 개의 언덕을 직선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암소들이 누워 새김질하는 바위 투성이의 들판을 지나 드문드문 자라나는 귀리밭을 통과하여, 다시 가시금작화 숲 속에 들어가 낮은 절벽까지 걸어가면 겨우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섬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저쪽에 또 하나의 더 큰 섬이 보였다. 그러나 이쪽과 그 섬 사이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렸다. 그리고 잔디밭—목초지에 자라는 앵초가 한 들거리는—을 지나서 돌아오면 동쪽으로 또 다른 섬, 암소의 종아리 같은 작은 섬이 나타났다. 이 작은 섬도 역시 이 섬 사람의 소유였다. 이처럼 섬들까지도 친구처럼 이 남자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성싶었다.

이 섬 사람은 자기의 섬을 극진히 사랑했다. 이른 봄엔 작은 길이나 빈터에 흰눈 같은 자두나무가 나타났다. 그건 촘촘한 풀밭과 회색 바위의 켈트적 정적 속에 흰꽃을 아담하게 피웠고, 지빠귀들은 그 꽃 사이에서 제일 빠르고 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자두나무와 아늑한 앵초 뒤에는 환영같은 푸른 히아신스가 숲과 빈터의

나무 밑에 솟아났다. 마치 요정(妖精)이 사는 호수와 미끄러운 푸른 시트처럼, 그리고 그 섬에서는 등지에 들어 있는 많은 새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건 정말 놀라운 멋진 세계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노란구름앵초는 사라지고 들장미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건초용 목초가 자라나는 들판이 한 군데 있었고 디기탈리스가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만에는, 그 위에서 사람들이 목욕하는 흰 화강암을 햇빛이 비치고 바위 위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안개가 살며시 다가오기 전에 익어가는 귀리밭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른 섬에서 농무 경적이 울려오면 바다 위에 번쩍이는 빛은 하늘에서 사라져 갔다. 어느덧 바다의 안개는 사라져서 이제 가을이 다가왔다. 귀리 다발이 밭에 줄지어 눕혀지고, 하나의 섬 같은 큰 달이 금빛을 발하며 바다에서 떠오르면 바다세계는 온통 흰 빛으로 변해갔다.

그러면 어느새 가을은 비와 함께 사라지고 겨울이 왔다. 어두운 하늘에 습기가 차서 비가 왔지만 서리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섬, 바로 그 섬은 캄캄하게 움츠려들고 ‘떨어져’ 나갔다. 화난 영혼이 축축하고 음울한 구멍 속에서 우울하게 몸을 굽힌 젖은 개나,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뱀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바다 위에서 처럼, 밤중에 힘찬 질풍이 연달아 불어오지 않으면 그 섬은 하나의 우주—암흑처럼 무한하고 영원한—같이 느껴졌다. 그건 전혀 섬이라 할 수 없었고, 과거의 밤의 모든 영혼들이 사는 무한한 암흑 세계였으며, 무한에 가까운 거리도 가깝게 느껴졌다.

기묘한 일이지만 이 공간의 작은 섬에 있으면 당신은 어둡고 거대한 시간의 왕국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영혼이 방대하고도 기묘한 일로 인해 가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아래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 지상의 작은 섬은 아주 외딴 곳처럼 줄어들어서 “무”(無)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시간이라는 어둡고 광대한 신비 속에 뛰어 내렸기 때문이다. 과거는 거기에서 광대하게

살아있고 미래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섬사람이 되는 위험이다. 당신이 도시에서 흰 각반을 두르고 척주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한다면, 당신은 무한의 시간이라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순간은 시간에서 작은 섬이며 그것은 당신의 주위를 달리는 공간적 우주다.

그러나 일단 공간이라는 바다의 작은 섬에 자신을 격리시킨다면, 순간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부풀어 오르고, 단단한 육지는 없어지고, 별가벗은 미끄러운 암흑의 영혼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소위 죽은 자의 전차가 세기라는 옛 거리를 달려가고, 영혼은 보도 —그 순간 흘러간 세월이라고 하는— 에 끌려드는 것이다.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위에서 힘차게 고통치고 있으며 당신은 이제 다른 무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 섬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감정이 솟아난 것이다. 오래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한 기묘한 의식과 마력같은 힘, 그의 섬에서 살다가 사라졌지만 밤의 대기에서 없어지지 않은 큰 콧수염의 갈리아(옛 로마의 屬領, 로마인들이 Galia라고 부른 지방)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섬에서 살았고, 크고 난폭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들을 밤새도록 부딪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으로 된 칼과 겨우살이를 지닌 사제들, 십자가들 손에 쥔 또다른 사제들, 그리고 해상에서 살인을 자행하는 해적들이 있다.

이 섬 사람은 불안스러웠다. 낮에는 이런 희귀한 난센스를 전혀 믿지 않았지만 밤에는 정말로 고스란히 존재하는 성 싶었다. 그는 스스로 줄어들어 공간의 한 점이 되었지만, 점은 길이와 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 딴 곳에 들어가야 했다. 마치 파도가 발판을 씻어 없애면 바다 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그도 밤이 되면 불사의 시간인 딴 세계에 들어가야 했다.

섬사람은 암흑 속에 누우면서 낮의 공간에서도 좀 기분 나쁜 자두나무 숲이, 밤엔 제단의 돌 주위에서, 눈에 안 띄는 종족의 노인들과

함께 우는 것을 발견했다. 낮동안 낙엽수 아래의 패허였던 곳은 형언할 수 없는 밤엔, 십자가를 든 피묻은 중들의 신음이 되고, 동굴이면서 거친 바위 사이에 숨어있던 해변은, 눈에 안 보이는 밤엔 해적들의 자줏빛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가 되었다.

이제는 이와같은 의식을 피하기 위해, 섬 사람은 매일같이 이 유형(有形)의 실제의 섬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이 섬이 '행복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어쩌서 헤스페리데스(희랍 신화에 나오는 사과밭)의 마지막 작은 섬이 되면 안되는 것일까? 또 그 자신의 꽃 같은 혼으로 가득찬 완벽한 장소가 되면 안되는 것일까? 그건 인간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순수한 완벽성을 지닌 미소한 세계가 아니겠는가!

흔히 사람들이 낙원을 되찾는 모든 시도를 할 때처럼 그도 돈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낡은 반봉건주의 시대의 주택을 개축하여 더 많은 광선이 들어오게 하고, 바닥엔 깨끗하고 아름다운 융단을 깔고, 우중충한 창문에는 꽃잎이 달린 청결한 카텐을 쳤다. 그리고 바위로 된 지하실에는 포도주를 들여 놓았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 포동포동 살찐 가정부와 부드러운 말씨의 경험 많은 집사 —앞으로 섬 사람이 될 운명인— 를 데려왔다.

또 농가에는 토지관리인과 두 명의 일꾼을 두었다. 저어지 종(種) 암소들은 가시금작화 사이에서 종종 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낮에는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 소리가 울렸고, 휴식을 취할 저녁엔 연통에서 한가로이 연기가 솟아 올랐다.

모타 달린 경쾌한 범선 한 척이 만(灣)의 피난처 —흰 오두막 세 채가 일렬로 늘어선 바로 아래— 에 정박하고 있었다. 소형 잡용정(雜用艇) 한 척이 보였고 두 척의 손으로 젓는 보트가 사장에 인양되어 있었다. 고기잡은 그물은 그 지주 위에서 건조되고, 보트에 가득한 흰 판자들이 십자로 줄지어 있었으며, 양동이를 든 여자가 샘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장자리의 오두막에는 보트의 선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살았다. 선장은 다른 큰 섬에서 온 사람으로 부근의 바다에 익숙해 있었고, 날씨가 좋으면 날마다 아들과 함께 낚시 하러 갔다. 청명한 날엔 언제나 섬 부근에 신선한 고기가 놓고 있었다.

가운데 오두막에는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았으며 아주 성실한 부부였다. 노인은 목수였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대패와 톱 소리가 줄곧 끊이지 않았다. 노인은 일에만 몰두하는 일꾼으로 다른 종류의 섬사람이었다.

세번 째 오두막에는 석공이 살았는데 그는 할아버지로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다.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남자는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방벽을 세우고 새 헛간을 지었다. 그리고 작은 체석장에서 돌을 다듬기도 했다. 딸들은 큰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섬은 조용하지만 분주한 작은 세계였다. 만약 그 섬 사람이 당신을 손님으로 모셔온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검은 수염을 기른 야윈 선장 —늘 생글 생글 미소짓는— 아놀드와 그의 아들 찰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집에서는 온세계를 방랑하며 살았던 말 잘하는 집사가 시중들고, 당신 주위에 완벽하나 좀 신용못할 하인이 만드는, 진기하고 크림같이 매끄러운 호사스런 분위기 —마음 속 경계심을 풀어주는—를 자아낼 것이다. 그는 당신의 의혹을 풀어주고 자기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리라. 포동포동 살찐 가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진짜 신사 계급에게만 보이는 다정한 태도 —미묘하게 경의를 나타내는—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또 장미 같은 하녀는 당신이 위대한 외부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사람인양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미소를 짓지만 조심성있는 콘웰 출신의 토지관리인과 바크샤 출신의 수줍은 농장 일꾼, 그의 깔끔한 아내와 두 아이들을 만나고, 약간 무뚝뚝한 서퍼크 출신의 일꾼도 대하게 되리라. 켄트인인 석수는 만약 당신이 허락하면 정원에서 말을 걸겠지만 늙은 목수는 무뚝뚝해서 딴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섬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몹시 안전하다고 느끼고, 당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인양 당신에게 호

의적으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섬사람의 세계이지 당신의 세계는 아니다. 그는 주인이고 특별한 미소나 주의는 그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섬 사람은 ‘모씨’(某氏)가 아니라 주인이다. 섬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 섬은 이상적이었고 주인은 폭군이 아니었다. 정말이지! 그는 남자답게 잘 생긴 사람으로서 섬세하고 감수성이 강하였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였다. 물론 그 자신은 이 행복과 완벽의 근원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시인이었다. 그는 손님들을 몹시 정중하게 대접하고 자기의 하인들을 관대하게 다루었다. 또 그는 주의깊고 몹시 현명했으며 모든 섬 사람들에게 주인이면서도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헤르메스(희랍신화, 神들의使者로서 과학·상업·변론의 神) —약빠르고 푸는 눈을 한— 처럼 모든 일에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건 하나의 경이였다. 그는 저지 종의 암소에 대하여, 치즈 제조에 대하여, 그리고 도랑과 담장 만들기, 꽃과 원예, 배와 항해술 등에 대하여 놀라운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지식의 원천이었고, 마치 자기가 신들의 기이하고 현실과 유리된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반쯤 아이러니컬하고 예언적인 미묘한 방법으로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손에 모자를 들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흰 양복이나 크림 같은 흰색을 좋아했고, 또 망토와 폭넓은 모자를 좋아했다. 날씨가 화창하면, 토지관리인은 크림같은 백색 사지양복을 입은 키 큰 우아한 모습이, 어떤 새처럼 휴경지를 넘어 순무 재초작업을 보러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몇분간 색다르고 빈틈없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토지관리인은 그 말에 감탄한 듯이 대답했다. 일꾼들은 뺨이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놀라서 듣고 있었다. 토지관리인은 주인에게 거의 애정에 가까운 감정을 지

니고 있었다.

또 바람이 세계 부는 아침, 그는 습기 찬 바닷바람에 망토를 펼럭이며 도랑가에 서서, 얼굴에 바람을 받으며 밑에 있는 인부들—습지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랑을 파는—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 인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두 눈으로 그를 지긋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혹은 비오는 저녁무렵 그는 비를 맞지 않도록 테 넓은 모자를 쓰고 정원을 가로질러 서둘러 오는 것이 보였으며, 그를 보고 농부의 아내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주인 양반이예요! 존, 일어나요. 소파에 자리를 만드세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누군가 했더니 주인 나으리가 아니예요? 이런 밤 중에 저희 같은 사람에게 찾아 오시다니!”

토지관리인은 그의 망토를 받았고 농부의 아내는 모자를 받아들였으며, 두 일꾼은 그들의 의자를 뒤로 쭉욱 밀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가까이에 있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는 아이들을 썩 잘 다루었고 아주 멋지게 말을 걸었으며, 여자들은 그가 구세주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주인은 항상 미소를 띤 상대방으로부터 그가 마치 더 고귀하고 동시에 더 허약한 존재인양 특별한 존경을 받으며 인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거의 애정을 느꼈고 아침하듯이 대하였다. 하지만 그가 떠나갔을 때, 또는 그에 관해 평할 때엔 미묘하고 조소하는 듯한 미소가 얼굴을 스쳤다. 그들은 ‘주인양반’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었으며 그저 그가 하고 싶은대로 하게끔 방임하면 되었다. 다만 나이 많은 목수는 이따금 그에게 아주 무례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는 노인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 중의 누구든, 그를 남자대 남자로, 또는 여자대 남자로서 진정 좋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또 그가 그들 중의 어느 하나를 남자대 남자로, 또는 남자대 여자로 좋아했는지 여부도 의문

이다. 그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 작은 세계가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 좋고 싫은 것’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호의’ 뿐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일반적 호의는 그 대상에 의하여 언제나 뭔가 모욕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며, 그 결과 그건 아주 특수한 종류의 악의를 만들어낸다. 일반적 호의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그건 확실히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섬 사람은 자기 자신의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는 희랍계, 라틴계 작가에 나타나는 모든 꽃에 대한 참고서를 편찬하느라고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뛰어난 고전학자는 아니라도 보통의 퍼블릭 스쿨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의 아주 훌륭한 번역서를 찾아볼 수 있다. 어쨌든 고대 세계에 핀 꽃들을 하나씩 더듬어간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일년은 지나갔고 많은 일이 섬에 이루어졌다. 이제 청구서가 그에게 날라오기 시작했으며, 모든 일에 꼼꼼한 그는 이 청구서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안색이 창백해졌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부자가 아니면서도 섬을 운영하기 위해 그의 자본에 구멍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구멍을 메꾸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수천 파운드의 돈을 섬은 먹어치웠고 ‘무’로 만들어 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지출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비록 그 섬이 아직은 이익을 올리지 못한다 해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는 확실하게 기반을 닦은 셈이었다. 그는 많은 지불을 하고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지만, 어쨌든 그는 충격을 받았으며, 다음 해부터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했다. 그는 단순하고 감동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들은 “물론이죠! 물론이고 말고요!”하고 맞장구를 쳤다.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도서관에 앉아 토지관리인과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면서 농장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잘 생긴 좁다란 얼굴을 약간 쳐들고 있었고, 그 푸른 눈은 공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지!”

바람은 포탄처럼 사납게 불어대고 있었다. 그는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 접근할 수 없는 자기의 섬을 생각하고 우쭐해졌다. 아니, 나는 이 섬을 잃어버려서는 안되지. 그는 천재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농장 계획으로 돌아갔으며 자기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두 손을 줄곧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토지관리인은 목소리에 억양을 높여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예, 나오리! 예, 주인 나오리! 맞습니다. 나오리!”

하지만 그 토지관리인은 그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고 있었다. 그는 주인의 푸른 린 샤츠와 불같이 빨간 보석이 달린 진기한 핑크색 넥타이, 에나멜색 카프스단추, 그리고 특이한 갑충석(왕쇠똥구리 모양으로 조각한 보석)이 박힌 반지를 줄곧 쳐다보고 있었다. 이 땅 전문가의 탐색하는 듯한 갈색 눈은 경탄의 눈초리 —천천히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로 멋지고 흠없는 주인의 모습을 반복해서 흘끔 흘끔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의 고상한 맑은 시선과 우연히 마주치면 그는 머리를 약간 숙이면서 세심한 성의와 경의로 자기의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둘 사이에서, 어떤 작물의 씨를 뿌리고, 여러 농장에 어떤 비료를 쓰며, 무슨 종류의 돼지와 무슨 혈통의 칠면조를 수입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그리하여 관리인은 줄곧 조심스럽게 주인의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 젊은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맡기고 있었다.

주인은 자기가 말하는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고,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대체로 말하여 그의 생각은 건전했고 토지관리인도 그 사실

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땅 전문가에겐 주인의 성의에 상응하는 열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갈색 눈은 미소 —충심으로 경의를 나타내는— 를 띄우고 있었지만 그 얇은 입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주인은 자기의 생각을 재치있게 상대방에게 설명하면서 아이처럼 번덕스럽게 부드러운 입을 오므렸으며, 관리인은 감탄하는 눈초리로 그를 지켜 보았지만 마음 속으론 듣고 있지 않았다. 기묘한 이질의 동물을, 아무런 동정심없이 냉정하게 지켜보는 초연한 눈초리로, 그는 주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 문제는 결정되고 주인은 종을 울려 집사인 엘버리를 불러 샌드위치를 가져오게 했다. 주인은 기분이 썩 좋았다. 집사는 주인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안초비(地中海産 멸치)와 햄 샌드위치, 그리고 새로 연 베루못(흰 포도주) 병을 가지고 왔다. 그 집엔 언제나 새로 연 각종 술 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주인과 그는 약간의 땅의 배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더 많은 수도관을 주문했다. 그리고 특별한 벽돌과 이것 저것 자재들도 주문했다.

드디어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섬의 고된 노동에도 잠시 휴식이 찾아왔다. 주인은 이제 요트를 타고 짧은 순항을 떠났다. 그 배는 진짜 요트가 아니라 작고 새침한 잠용정이었다. 그들은 본토의 해안을 따라 항해했으며 여러 항구에 기항했다. 입항하는 항구마다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고 집사는 선실에서 맛 좋고 가벼운 음식을 장만했다. 주인은 별장이나 호텔에 초대받았고, 섬 사람들은 그가 마치 왕자나 되는 듯이 배에서 내려가게 했다.

하지만 그 순항은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며 그는 은행에 전보를 쳐서 송금을 부탁해야 했고, 집으로 돌아간 후엔 그만큼 절약해서 살아가야 했다.

배수를 위해 도랑을 파고 있는 작은 습지에 만수국이 불타듯이 피어났다. 그는 지금 진행중인 작업을 후회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노란 꽃이 다시 피어나지 못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추수할 때가 다가왔고 그 해는 풍작이었다. 그래서 섬에서는 풍작을 축하하는 잔치가 베풀어졌다. 긴 창고는 완벽하게 수리되고 증축되었으며, 목수들은 긴 식탁을 부지런히 만들었고 금경사진 지붕의 들보에 여러 각동을 매달았다. 드디어 모든 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토지관리인이 사회를 맡았다. 잔치는 보기에든 즐거운 광경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벨벳 자켓을 입은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러자 관리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주인 나으리의 장수와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축하하여 열성과 갈채로 건배했다. 그러자 주인은 답례로써 짧은 인사를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작은 세계안의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참된 행복과 만족의 세계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 모두 자기의 맡은 일을 해야 하며 저도 제가 맡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이 섬에 있고 또 섬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집사는 이 주인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섬에 이 주인나으리가 계시는 한, 이 섬은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천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사의 말은 관리인과 석수에 의하여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선장은 흥분해서 제 정신이 아닌성 싶었다. 그리고 나서 무도회가 열렸으며 늙은 목수는 연주자로서 바이올린을 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지는 않았다. 그 바로 다음날 아침, 농장의 소년이 찾아와서 암소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주인은 직접 그 현장으로 나가 보았다. 그는 과히 높지 않은 내리받이를 내려다 보았으며, 그 암소가 늦게 피는 몇 송이 금작화가 보이는 푸른 바위턱 위에,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비싼 그 아름다운 짐승은 벌써 몸이 부풀어 오른 것 같았다. 쓸데없이 그렇게 떨어져 죽다니 얼마나 바보스런 짐승인가!

몇몇 사람들이 독에서 그 암소를 끌어올리고, 가죽을 벗기고 파문

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도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얼마나 불쾌하고 역겨운 일인가!

이 사건은 섬 자체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었다. 가슴 속에 기쁨이 넘쳐서 힘이 솟아나듯이, 눈에 안 보이는 손이 나타나 말없이 악의에 찬 일격을 가한 것이다. 어떤 기쁨도 고요한 평화조차도 섬에서는 허락될 수 없다는 듯이…. 일꾼 한 사람의 한쪽 다리가 부러졌고 또 한 사람은 류머티즘열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돼지들은 이상한 병에 걸렸고 폭풍우가 일어나서 요트를 바위 위에 밀어 올렸다. 석수는 집사를 미워했고 자기의 딸이 그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대기 속에서도 돌 같은 음울한 적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섬 자체도 적의를 품고 있는 성 싶었다. 섬에서 한꺼번에 몇 주씩 줄곧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섬은 낙원의 아침처럼 아름답고 평화스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청명하고 풍부해졌다. 모든 사람이 다시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활짝 핀 꽃처럼 주인의 기분이 환해지자마자 어떤 불길한 조짐이 섬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주인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어 섬 사람을 비난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인의 잘못을 넌 지시 알려 주었다.

“섬 사람들은 여기서 부정하게 돈을 벌어 편하게 살아간다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죠.”

석수의 딸은 주인이 듣는데서 상냥한 집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주인은 못들은척 했다.

“제 주인은 이 섬은 애굽의 야원 암소들(구약성경 창세가 41장 20절,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난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마른 암소를 말함)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섬은 많은 돈을 삼켜 버리지만 섬에서 얻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농장 일꾼의 아내는 주인의 방문객에게 이렇게 털어 놓았다.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진 사람의 불평이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없는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리하여 여러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섬은 몹시 아름다웠다. 인동덩굴의 향기가 코를 스치고 달빛이 바다 위에서 환하게 반짝이기 시작하면 불평꾼들도 이상한 향수를 느끼는 것이었다. 섬은 사람들을 열렬한 그리움으로 갈망하게 만들었다. 지금과는 달리 피가 고동쳤던, 섬의 먼 신비로운 과거로 돌아가려는 갈망이었으리라. 이상한 정열이 넘쳐 흘렀고 기이하고 난폭한 정욕과 잔인한 상상이 떠올랐다. 섬이 이제껏 알고 있던 피와 정열과 정욕, 그리고 불길한 꿈과 희미한 꿈, 희미한 동경 등이.

주인 자신도 자기의 섬을 약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엔 느낀 적이 없는 이상한 격렬한 감정을 느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욕망이 솟아남을 깨달았다. 섬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암암리에 자기에게 반대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비밀리에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섬 사람들을 그들이 대하는 것과 똑같이 조심하고 자기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처사였고, 그로 인해 이년이 지나자 몇 번 섬에서의 탈출 사건이 발생했다. 첫번 째로 가정부가 떠나갔다. 거만한 그녀를 주인이 줄곧 심하게 책망했기 때문이다. 석수는 이제 더이상 경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갔다. 류머티즘에 걸린 농장 일꾼도 가버렸다.

그 후, 또다시 그 해의 청구서가 날라와서 그는 수입과 지출에 관

해 따져 보았다. 그해는 풍작인데도 지출에 비해 수입은 형편없었다. 그 섬은 또 수백이 아니라 수천 파운드의 손해를 그에게 끼쳤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심정이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모두 가버렸을까?

그는 도서관에서 계산을 하면서 여러날 밤낮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성격은 몹시 꼼꼼한 편이었다. 가정부는 이제 없었지만 그녀가 주인을 속여온 것이 분명했다. 섬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겨워서 그는 더이상 생각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계산'을 마무리하고 창백한 안색에 쑥 들어간 눈을 하고 도서관에서 나왔다. 무엇인가에 의해 배를 한 대 견어체인 듯 한 표정이었다. 재정 형편은 비참해졌다. 어쨌든 돈은 바닥나버렸고 끝장이 난 것이다. 그의 자본에 또 하나의 큰 구멍이 나고 말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부정할 수 있을까?

그대로 더이상 유지해 갈 수는 없었으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곧 파산할 지경이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집사에게 해고한다는 통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집사가 얼마나 자기의 돈을 편취하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졌다. 왜냐하면 그 집사는 어쨌든 '놀라운' 집사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관리인도 해고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도 느낄 수 없었다. 농장에서의 손해 때문에 기분이 아주 언짢았기 때문이다.

제3년은 경비를 몹시 절약하는 중에 어느덧 홀리가 버렸다. 그래도 섬은 여전히 신비롭고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믿을 수 없고 잔인하고 비밀에 싸여 있었으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적의에 차 있었다. 흰 꽃과 블루벨(영국 남부의 습지에서 봄에 종 모양의 남빛 꽃이 피는 야생 히아신스)의 그 멋진 온갖 자태, 장미빛 붉은 종 같은 꽃을 단 디기탈리스의 아름다운 위엄 등이 있었지만, 섬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수' 같았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노임을 감소시키고 사치스런 외관도 줄이는

중에 어느덧 그 한 해도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그건 희망없는 투쟁이나 다름없었다. 농장은 그 해에도 많은 손해를 보았고 그의 자본의 나머지에 또 구멍이 났다. 묵은 구멍의 주위에 남은 잔금에 또 새 구멍이 난 것이다. 섬은 이점에 있어서도 역시 신비로웠다. 마치 눈에 안 보이는 팔을 가진 낙지가 사방팔방으로 훔쳐가듯 섬은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 같았다.

주인은 여전히 섬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4년째의 후반을 섬을 타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본토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냈다. 그리하여 섬을 처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그런 섬을 누구나 사랑하고 갈망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누구도 섬에 대해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뤘도 이혼을 원하는 남자처럼 섬을 처분하려고 서둘렀다.

마침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섬에 투자할 호텔회사에 섬을 양도한 것은 이미 섬생활 5년째의 절반이 지날 무렵이었다. 그 회사는 섬을 편리한 신혼여행 겸 골프의 섬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자신의 번영할 때를 몰랐던 그 섬을 이제 가져가라는 것이다! 자 이제 신혼여행겸 골프의 섬이나 되어라!

두번 째 섬

섬 사람은 이사해야만 했다. 그러나 본토로 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아니, 절대로 안 될 말! 그는 더 작은 섬으로 옮겨 갔으며 그 섬은 아직도 그의 소유였다. 그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한 적이 없는 부부 —충실한 늙은 목수와 그의 아내— 와 섬에서의 마지막 해에 자기의 집을 돌봐 준 미망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노인을 도와줄 고아인 젊은이도 데리고 갔다.

그 섬은 정말로 작았다. 하지만 바다에서 튀어나온 바위산이라 겉

으로 보기보다 더 컸다. 그 작은 섬주위를 구불구불 돌아가고 오르내리는 작은 길 —바위와 숲 속을 지나가는— 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한 바퀴 도는데 이십분이나 걸렸다.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었다.

그래도 그것은 섬이었다. 섬 사람은 모든 책을 가지고 방이 여섯 개나 있는 평범한 집으로 이사했으며, 그 집은 바위투성이의 선착장에서 기어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서로 붙어 있는 두 채의 오두막이 있었다. 한쪽 오두막엔 늙은 목수 부부와 젊은이가 살았고 다른 쪽엔 미망인과 그녀의 딸이 살았다.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났으며 주인의 책은 두 개의 방에 가득히 꽂혀 있었다. 벌써 가을이 되었고 오리온 성좌(유명한 세 별이 있는 성자로 Betelgeuse, Rigel의 두 輝星이 포함되어 있음)가 바다에서 위로 올라와 있었다. 어두운 밤에 주인은 자기가 전에 살았던 섬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었다. 거기서는 호텔회사가 여러 손님들 —골프치는 신혼 부부들에게 새유홍지를 선전할— 을 정성껏 대접하고 있었다.

이 바위산의 섬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인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섬의 갈라진 틈과 기묘한 손바닥만한 풀밭, 그리고 그해 마지막 초롱꽃이 달려 있고 여름의 여러 풀꽃씨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가 갈색으로 변해버린, 가파른 작은 절벽을 답사했다. 오래된 샘을 들여다 보았고 돼지를 길렀던 석조 축사를 살펴보았다. 그는 섬에서 산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섬이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켈트의 바다는 바위 사이에서 깃털 같은 회색을 빨아들이고 씻어내고 파도치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소리는 얼마나 다양한 소리인가! 깊숙한 폭발소리, 우르르 울리는 소리, 기이한 긴 한숨 소리, 휘파람 소리.... 바다 밑 시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듯이 와글와글 거리는 군중의 소음. 그리고 푹푹히 올려 오는 먼곳의 진짜 종소리! 몹시 오랫동안 겁을 주는 떨리는 소리. 그리고 낮게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이 섬에서는 인간의 망령, 고대민족의 망령은 전혀 없었다. 바다와 거품, 비바람 등이 망령을 다 쫓아버리고 씻어 버렸기 때문이다. 바다 자체의 소리—겨울내내 그 유령이 무수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음모를 꾸미고 외쳐대는 소리—뿐이었다. 회색의 투명한 바다 사이로, 그보다 더 투명한 대기 속에 풍기는 바다의 냄새, 그리고 몇 송이 가시금작화가 피어있는 뾰뚱한 숲과 히이드속 식물의 거친 덩불의 냄새, 또 한기(寒氣)와 회색, 부드럽게 기어드는 바다의 우유빛 안개! 그리고 공간의 마지막 일점처럼 그 모든 것 안에 불쑥 튀어나온 바다의 작은 섬...

녹색의 별 시리우스(大犬座 가운데서 가장 밝은 별)가 바닷가의 상공에 떠 있었고 섬은 그 그림자였다. 먼 바다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고, 아래쪽 바위투성이 작은 만에 보트와 모터보트가 튼튼하게 매어 있었다. 목수의 오두막 부엌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물론 미망인이 저녁 준비를 하고 딸이 도와주는 그 집에서 램프불이 비치는 것은 제외하고 말이다. 그 섬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섬 사람의 하나에 불과했지만 마음은 아주 평안했다. 늙은 목수와 미망인과 딸은 모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일에 대한 정열을 지니고 있어서 햇빛이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했다. 미망인과 서른세살의 조용하고 좀 가냘픈 몸집의 딸은 주인을 위해 시중들었다. 그들은 주인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고 주인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준 것을 무한히 고맙게 생각했다. 그래도 그들은 ‘주인 나오리’라고 부르지 않고 ‘카스카트 씨!’라고 부드럽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주인도 세상을 등진 사람이 큰 소리를 두려워하듯이 조용히 점잖게 그들에게 대답했다.

섬은 이제 하나의 ‘세계’는 아니었고 일종의 피난처였다. 섬 사람은 이제 뭔가를 위해 힘쓰는 일이 없었고 어떤 ‘필요한 것’도 없었다. 그와 얼마 안 되는 그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공간을 날아가다 이 바위에 내려앉아, 말없이 함께 붙어 있는 해조의 작은 떼와 비슷했

다. 그것은 흡사 여행하는 새들의 말없는 신비의 일부와도 같았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냈다. 그가 쓰는 책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 미망인의 딸은 그의 원고를 타자칠 수 있었으며 그녀는 교양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타자기의 소리는 섬에서 들리는 유일한 이상한 소음이었다. 하지만 그 탁탁하는 소리도 이내 바다와 바람의 소음에 융화되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갔다. 그 섬 사람은 서재에서 계속 책을 썼으며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조용히 해나갔다. 염소는 노란 눈의 작고 까만 새끼를 한 마리 낳았고 고둥어들은 바다에서 뛰놀고 있었다. 노인은 젊은이와 함께 보트를 타고 낚시질을 했고 날씨가 온화할 때엔 모터보트를 타고 우편물을 가지러 제일 큰 섬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배에 싣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욕망도 권태도 느끼지 않은 채 어느덧 날이 가고 밤이 갔다.

모든 욕망에서 해방되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된 것은 그에게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었다. 그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드디어 그 자신 안에서 조용해졌고 그의 정신은 마치 물속의 동굴—희미하게 불이 켜진— 같았다. 거기에서 이름모를 해초는 축축한 대기 속에 뻗어가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물고기는 말없이 그림자처럼 들락날락 거렸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부드럽고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뿌리내린 해초가 살아 있듯이 모두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

그 섬 사람은 스스로 물어보았다.

“이것이 행복일까?”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했다.

“나는 꿈으로 변하고 만거야.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는 것을 모르고 있지. 그래도 나는 행복한 기분이야.”

다만 그는 자기의 정신 활동이 계속되는 무슨 일이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시간을 보냈으며, 서둘러 일하지도 않았고 중대한 일처럼 긴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글쓰는 것

이 마치 졸린 거미줄이 뻗어나가듯이 자기자신 속에서 줄곧 이어가게 했다. 저술하는 것이 좋든 나쁜든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글이 마치 졸린 거미줄이 뻗어나가듯이 자기자신 속에서 줄곧 이어가게 했다. 저술하는 것이 좋든 나쁜든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글이 마치 거미줄인양 천천히 부드럽게 뻗어가게 했고, 가을에 거미줄이 녹아 버리듯이 글이 녹아 버린다 해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 영원처럼 보이는 것은 거미줄처럼 부드럽고 덧없는 것 뿐이었다. 그 안엔 영원성을 지닌 안개가 그대로 깃들여 있었다. 그러나 석조 건물, 예전대 큰 성당 등은 자기가 결국 쓰러질 운명임을 깨닫고 잠정적인 저항을 하느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 기나긴 인내의 긴장 때문에 줄곧 그 속에서 울부짖는 성 싶었다.

이따금 그는 육지에 상륙해서 도시로 갔다. 그는 최신의 스타일로 옷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자기의 클럽에 찾아갔다. 또 극장의 특별관람석에 앉아서 관람했고 본드 가(街)(런던의 一流 高級商店街)에서 쇼핑을 했다. 그는 자기의 저서를 출판할 조건에 관하여 출판 업자와 상의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자기가 '진보의 경주'에서 탈락했다는 거미줄 같은 표정이 떠올랐으며, 그 표정을 보고 저속한 사람들은 그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느꼈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의 섬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뻐다.

그는 자기의 책이 출판되지 않는다해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세월은 혼합되어 부드러운 안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봄이 왔다. 그의 섬에 앵초를 없었지만 노랑너도바람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두 개의 뿔나무속 관목 —잔 가지가 돌아난— 과 약간의 아네모네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섬의 꽃 일람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그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는 야생의 까치밥나무 숲을 발견했고 왜소한 어떤 나무에서 딱총나무꽃을 찾아냈다. 금작화의 처음 피는 노란 꽃을 보고 기뻐할 때도 있었다. 그 밖에도 만테마속 다년초, 난, 별꽃, 애기똥풀 등등. 그는 이 꽃들을 섬의 사람들 이상으로 자랑으로 여겼다. 축축한 구석에서 눈에 잘 안

띄는 범의 귀(범의 귀屬 高山·岩生植物)를 찾아내면, 그는 정신없이 주저앉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냇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바라볼 만한 가치도 없었다. 범의 귀를 과부의 딸에게 보이자 그녀가 생각했듯이.

그는 아주 의기양양해져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오늘 아침 금빛 범의 귀를 발견했어요.”

그 이름은 아주 멋있게 그녀에게 들렸고 그녀는 매혹된 듯이 갈색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그를 좀 놀라게 하는, 어떤 ‘공허한’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요? 그건 멋진 꽃인가요?”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별로 멋있지는 않아요. 원하시면 보여드리죠.”

“보고 싶군요.”

그녀는 몹시 조용했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끈질긴 성격을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아주 행복하고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기에 아주 좁은 바위투성이의 길을 그 처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갔다. 그는 앞서 갔고, 그녀가 순종하는 태도로 바짝 따라오며 흘린듯이 바라보는 것을 그는 등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녀에 대한 일종의 연민 때문에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비록 자기를 매혹시킨 그녀의 매력의 정도와 그녀가 자기를 얼마나 원했나 하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가 정욕에 굴복한 순간 그건 모두 잘못된 짓이라는 느낌 — 그의 귀에 쟁쟁을 리는 — 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몹시 불안스러운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그녀와 육체관계를 원치 않았고, 또 그녀의 육체적 자아에 관한 한 그녀도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느꼈다. 그건 다만 그녀의 의지에 불과했다. 그는 이내 그녀에게서 물러났고, 목을 부러뜨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가의 바위턱으로 간신히 내려갔다. 몇 시간동안이나 거기에 앉아서 산란한 기분으로 바다를 바라보았

고, 비참한 기분으로 자신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어. 우린 그 관계를 실제로 원한 게 아니야.”

그를 다시 사로잡은 것은 성의 기계적인 행위였다. 그는 성을 혐오하지 않았으며, 중국인이 그랬듯이 성을 위대한 생의 신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관계가 되어 그는 그 성관계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기계적인 성은 그를 파괴시켜 놓았고, 일종의 죽음 같은 참담한 기분으로 마음 속을 채워 놓았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욕망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정적’에 이르렀다고 상상했다. 아마도 그 너머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땅에서 이뤄지는, 두 사람의 참신한 가냘픈 육체 관계—새롭고 신선한 욕망의 미묘한 충족—가 있을 것 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참신하거나 신선한 관계도 아니었다. 자동적이고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에 불과했다. 그녀조차도 그녀의 진정한 자아는 그 관계를 원치 않았으며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에 불과했다.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염려—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 때문에—로 창백해진 것을 발견하자 그는 그녀를 가엾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위로하는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다. 종전처럼 말없이 그의 시중을 들었고,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위해 일하고 싶은 숨은 욕망 때문에 일할 뿐이었다. 그녀의 애정이 알 수 없는 무서운 집요함을 지니고 자기를 쫓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현실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빛나는, 이상하게 공허한 갈색 눈과 마주치면 말없는 혈문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혈문은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힘과 의지력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굴복했고 그녀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괜찮아요. 그 일로 저를 미워하신다면...”

그녀가 대꾸했다.

“왜 내가 미워하겠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전 당신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얼마 후에 그는 초조해져서 그녀가 한 말을 다시 되새겼는데 그러자 더욱 초조해졌다. 왜 그녀는 나를 위하는 척 했을까? 왜 자기자신을 위하지는 않았을까? 그는 초조해진 나머지 자신을 더 깊이 몰아붙였다. 어떤 만족—그걸 도저히 얻을 수 없었지만—을 얻기 위해 그는 자기 자신을 그녀에게 완전히 맡겨 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게 되었지만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가졌던 욕망조차 사라져 버리고 자신이 산산조각이 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기의 의지만으로 그를 원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마음이 분쇄되고 자기 경멸로 마음이 가득 찼다. 그의 섬은 더럽혀지고 쓸모없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마침내 도달한 시간의 경지—보기드문, 욕정을 넘어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뒤로 쓰러져 버렸다. 만약 그것이 둘 사이의 진짜 미묘한 욕정이고, 남녀가 모두 크로커스 불꽃 같은 정욕—섬세하고 민감한—에 충실했을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미묘한 밀회—제삼의 보기드문 장소에서 이뤄지는—라면! 하지만 그들의 관계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동적이고 의지에 의한 행위였고 진정한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굴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의 말없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섬에서 떠나갔다. 그는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대륙을 방랑했지만 헛된 것이었다. 그는 ‘나사’폴린 사람 같았고 더 이상 세상에 적응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플로라—그녀의 이름인데—로부터 편지가 한 장 날라 왔으며, 자기가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는 사연이었다. 그 편지를 읽고 마치 총탄에 맞은 것처럼 그는 땅바닥에 주저 앉았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그녀에게 보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임신했다면 잘 된거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해야죠.”

바로 그때 섬들의 경매가 있었으며 그는 지도를 사서 섬들을 조사했다. 그는 경매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섬을 또 하나 샀다. 그것은 군도의 바깥쪽, 북방으로 멀리 떨어진, 몇 에이커 안 되는 바위섬이었다. 바다에서 나즈막하게 튀어나온 섬으로 거기에는 건물 하나 없었고 나무조차 없었다. 다만 북쪽에 잔디가 있었고, 또 빗물 웅덩이, 약간의 사초속(莎草屬) 식물, 바위, 해조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울고 있는 듯한 젖은 서쪽 하늘이 머리 위에 보일 뿐이었다.

그는 여행을 떠나서 이 새 소유지를 찾아갔다. 며칠간 거친 바다 때문에 그 섬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 후 가벼운 안개 속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 섬이 낮게 안개에 덮여있고, 언뜻 보기에 길게 뻗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환각에 불과했다. 그는 축축하고 탄력있는 잔디 위를 걸어갔다. 진한 회색 양 한 마리가 “매애, 매애” 목선 소리로 울며 그를 지나쳐 갔다. 사초속 식물이 자란 어두운 웅덩이까지 걸어 갔으며, 이윽고 축축한 데서 회색 바다가 성난 듯이 바위들을 핏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건 진짜 섬이었다.

그는 다시 플로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신비로운 두 눈에 죄의 공포와 승리한 듯한 빛을 띄우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다정하게 그녀에게 대하고 위로했으며, 거의 치통(齒痛) 같은 이상야릇한 욕정을 품고 그녀의 육체를 안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본토로 갔으며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직도 그의 음식을 날랐고 자기의 음식도 함께 가져와서 식탁에 앉아 그와 함께 식사했다. 그렇게 하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이다. 과부인 어머니는 부엌에서 식사하기를 원했고, 플로라는 그 집의 주부로서 이젠 객실에서 잤다.

그의 욕정은 과거에 무엇이었던, 구역질나듯이 어느 순간 그에게서 싹 없어지고 말았다. 아이를 낳으려면 아직도 몇 달 지나야 했다. 그 섬은 이제 그에게 속되고 싫증났으며 교외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 자신도 그의 섬세한 식별력을 모두 상실해 버렸고, 일종의 감옥 속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사이에 몇 주가 흘러갔다. 그래도 그는 플로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꼭 참기로 했다. 마음 속으로 그는 달아날 궁리를 했으며 플로라는 그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있었다.

간호원이 플로라를 위해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했다. 의사도 종종 찾아왔고 바다가 사나우면 의사는 자고 가기도 했다. 그는 위스키를 마시면 기분이 명랑해졌고 아주 좋아했다.

그 둘은 마치 골더스·그린(런던 교외의 고급 주택가)의 젊은 부부처럼 보였다.

마침내 플로라는 딸을 낳았다. 아버지는 아기를 보고 낙심하고 말았으며 거의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맏돌 하나가 목에 매달린 기분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플로라는 그의 기분을 짐작할 수 없었으며, 그녀는 회복해 가면서 기쁜 나머지 일종의 어리석은 승리감으로 미소마저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암시적이고 가슴아픈, 좀 오만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었고 자기가 얼마동안 어디를 가야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울었지만 자신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는 자기 재산의 제일 값나가는 부분을 그녀에게 양도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올리는 수입액을 그녀를 위해 적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으며 그 우울하고 사모하는, 좀 오만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예금액을 정확히 써 넣고 수표장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녀도 정신을 차렸고, 그는 다시 이 섬 생활이 지루해지면 어디든 그녀가 원하는 곳에 집을 마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두 눈 —가슴아픈, 고집센 갈색눈— 으

로 그를 쫓아갔지만, 그는 그녀의 우는 모습조차 되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세번 째 섬을 준비하기 위하여 곧바로 북쪽으로 떠나갔다.

세번 째 섬

세번 째 섬은 곧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세멘트와 해변에서 주운 큰 조약돌로 두 일꾼이 오두막을 지었고 골함석으로 지붕을 이었으며, 보트 한 척이 침대와 테이블, 세 개의 의자, 그리고 고급 찬장과 약간의 책을 날라왔다. 그는 필요한 석탄과 파라핀유, 식량 등을 저장했지만 많이 저장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집은 평평한 해변 —그가 상륙하고 그의 가벼운 보트를 정박시킨— 근처에 있었다. 팔월의 어느 화창한 날 일꾼들은 배를 타고 떠나갔고 그만 혼자 남게 되었다. 바다는 잔잔하고 담청색이었으며, 그는 수평선상에 소형 우편선이 마치 걸어가듯이 서서히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 매주 두번씩 찾아왔다. 그는 필요하면 날씨가 좋은 때 그 배까지 노를 저어갈 수 있었고 또 그의 오두막뒤 깃대에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다.

여섯 마리의 양이 아직도 섬에 남아서 그와 친구처럼 지냈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 몸을 비벼대는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다. 북쪽 가울의 햇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동안, 그는 바위 사이와 그의 좁은 영지의 질척질척한 잔디 위를 걸어 다녔고, 설새없이 출렁이는 해변으로 언제나 찾아갔다. 그는 나뭇잎들 —서로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는—을 하나하나 관찰했고, 바닷물에 밀려 온 해초들이 끝없이 늘어났다 수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보호할 만한 히스속 식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잔디와 작은 잔디 식물, 풀 결의 사초속 식물, 그리고 대양의 해초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나무와 숲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것들은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듯이 사람처럼 뻗뻗이 서 있었다. 담황색의 바다에

떠있는 부드럽게 경사진 섬 —나무도 숲도 없는— 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그는 이제 책을 쓰지도 않았다. 책쓰는 흥미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섬의 낮은 대지(台地)에 앉아서 대양을 바라보는 것을 즐겨했다. 담청색 잔잔한 바다만이 눈에 떨어 뿐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안개낀 바다처럼 부드러워지고 안개로 덮이는 것을 좋아했다. 이따금 육지의 그림자가 신기루처럼 북쪽으로 솟아 올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저 너머의 큰 섬이었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가까운 수평선에 증기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뻔했다. 그 배가 정지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나머지 가슴이 죄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불안스럽게 배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으며,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안심이 안 되어 정신을 차리지도 못했다. 사람의 접근을 기다릴 때 느끼는 긴장은 잔인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찾아오는 걸 바라지 않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원치 않았다. 무심코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으며, ‘위대한 침묵’을 깨뜨린 잘못 때문에 자신을 책망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호소하듯 가냘프게 “야옹”하고 울면 짜증이 났다. 그는 고양이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고 고양이도 그 뜻을 알아차렸다.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야생동물이 되어 바위틈에 숨어서 고기라도 잡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가 가장 싫어한 것은 한 때의 양이 입을 벌려 귀에 거슬리는 목원 소리로 “매에”하고 우는 것이었다. 그는 양을 지켜보았으며 끔찍하고 조잡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양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는 다만 속삭이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탄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만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 제일 좋았다.

그는 배가 왔을 때 양들을 배에 실어서 쫓아 버리려고 마음 먹었다. 양들은 이제 그에게 익숙해져서 냉담한 거의 야유하는 듯한 오만

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다. 황색이나 아무 색깔도 없는 눈으로. 양들에겐 차갑고 저속하게 보이는 뭔가가 들어 있어 점점 양도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들이 바위에서 스타카토로 뛰어 내리고, 발굽이 건조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털이 네모진 등에서 털썩 떨어지면, 양들이 불쾌하고 저질의 짐승처럼 느껴졌다.

어언간 좋은 날씨가 지나가고 종일 비가 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열어놓은 문을 통해 빗줄기, 검은 바위, 숨어 있는 바다를 내다보고, 지붕에서 양철 물통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금 섬에는 많은 갈매기가 있었고 온갖 종류의 해조가 있었다. 그건 다른 세계의 생활이었다. 많은 새들은 그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 새들의 이름을 알기 위해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려는 옛날 충동이 일어났다. 옛날 정열이 번쩍이더니, 눈에 띄는 모든 것의 이름을 알기 위해 증기선까지 노를 저어 가려고 결심했다. 이 새들의 이름! 그것들의 이름을 꼭 알아야 한다. 이름도 모르면 새들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고, 그들은 자기에게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다만 새들이 자기의 주위를 선회하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새인지 식별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지켜볼 따름이었다. 모든 흥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윽고 한 마리, 멋진 갈매기가 나타났다. 그 높음 무슨 용무라도 있는 듯이 그의 방의 열어제친 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높음 몸집이 크고 진주 회색이었고 그 둥근 몸은 진주처럼 매끄럽고 아름다웠다. 접은 날개만이 검은 색으로 날개 끝부분을 덮었고, 그 속의 검은 깃털엔 세 개의 아주 또렷한 백색 반점이 나타나서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그 섬사람은 추운 먼 바다에서 온 새가 왜 이런 반점이 있는지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 새가 거무스름한 금빛 발로 으스대며 걷고, 끝이 구부러진 당황색 부리를 묘하게 오만스레 쳐들고 방 앞을 왔다 갔다 하자, 그는 이 새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갈매기는 어딘지 이상한 데가 있었고 무슨 의

미가 있는 성 싶었다.

하지만 그 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섬은 이제껏 해조들, 날개의 번쩍임과 그 퍼덕거리는 소리, 공중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불길한 울음소리 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또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새들은 이제 바위의 잔디 위에 살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머리를 움직이며, 날아 오르지 않고 발주위에 머무르는 일은 없게 되었다. 새들이 양들 사이에서 잔디를 가로질러 달리거나 그 낮은 날개로 날아가는 일도 없어지고 말았다. 새들의 큰 떼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몇 마리는 계속 남아 있었다.

날은 짧아지고 ‘세계’는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다. 어느 날 보트가 마치 습격해 오듯이 갑자기 섬에 나타났다. 그 섬 사람은 그것이 일종의 ‘침입’처럼 느껴졌다. 몸에 맞지 않는, 촌스런 옷을 입은 두 어부에게 말을 거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다정하고 친숙한 분위기가 그의 비위에 거슬렸다. 그는 말쑥한 복장을 했고 그가 거처하는 방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어떤 ‘침입’에 대해서도 짜증이 났다. 두 어부의 세련되지 못한 태도, 육중한 발등을 바라보면 격심한 불쾌감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어부들이 가져온 여러 통의 편지를 뜯어 보지도 않고 작은 상자에 넣어 두었다. 편지 중의 하나에는 돈이 들어 있었지만 그걸 뜯어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어떤 종류의 접촉도 짜증이 났고 봉투에 적힌 자기의 이름을 읽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편지를 눈에 띄지 않게 감춰버렸다. 그리고 양들을 잡아서 줄로 매어 배에 실었다. 그때의 양들의 소동과 공포 때문에 그는 모든 동물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 동물이나 악취나는 사람을 만든 신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일까? 어부도 양과 똑같이 그의 코에 악취를 풍겼고 신선한 대지에 대해 불결한 존재로 느껴졌다.

배가 마침내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위로 떠나갈 때에도 그의 신경은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며칠이 지난 뒤에도 상상 속에 양들이 우적우적 먹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혐오감으로 치를 떨었다.

이윽고 겨울의 어두운 날이 다가왔다. 이따금 진정한 낮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용해되고 그 용해가 이미 시작된 듯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밖에서 그리고 그의 머리와 영혼의 내부에서 모든 것이 황혼이었다. 한번은 그가 문결에 갇을 때 자기의 만(灣)에서 검은 남자들의 머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얼마 동안 기절하여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인간의 접근에 대한 충격이자 공포였다. 황혼 속의 심한 두려움! 그 충격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영혼이 몸에서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검은 머리가 헤엄치는 물개의 머리임을 깨달았다. 불쾌했지만 그래도 안도감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 충격 후에 그의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앉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눈물을 흘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뭔가 신비하고 영묘한 동물인양 그는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혼자라는 것, 완전히 고독한 것, 그리고 공간이 자기에게 침투해 오는 사실에 유일한 만족을 느꼈다. 회색의 바다도 외로이 혼자 있었다. 그리고 바닷물이 씻고 있는 섬이라는 거점(拠点)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의 접촉은 없었고 그에게 공포심을 안겨 주는 인간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다만 공간만이 있었다 —축축하고 어슴푸레하고 바닷물에 씻기는 공간만이.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의 양식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폭풍이 일어나거나 바다가 거칠어질 때 제일 기뻐했다. 그럴 때엔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깥 세계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서운 폭풍이 몹시 괴롭힌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바람은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세계를 없애 주었다. 어떤 보트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바다가 항상 심하게 파도치고 사나워지는 것을 좋아했다. 바다는 그 섬 주위의 영원한 성벽 같았다.

그는 흘러가는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책을 떠들어 보려고도

않았다. 인쇄물이나 인쇄된 문자는 말이 타락한 것 같아서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는 파라핀 스토브에서 낫쇠 라벨을 떼어냈고 방안에 있는 글자따위를 모두 지워 버렸다.

기르던 고양이가 그의 곁에서 없어졌는데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고양이의 주제넘은 가는 울음소리에 몸서리를 쳤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석탄 창고에서 살았고 그는 아침마다 자기가 먹는 것과 똑같은 죽 한 접시를 갖다 주었다. 그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 접시를 닦았고 또 고양이가 그 몸을 뒤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고양이는 죽을 먹으려 오지 않았다. 고양이는 죽을 달라고 항상 “야옹”하고 울었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비를 맞으며 유포로 된 비옷을 입고, 자기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가는데도 모르고 막연히 섬을 배회했다. 시간은 이제 흘러가기를 멈춘 듯 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예리하고 멀리 바라보는 푸른 눈 — 날카롭고 창백한 얼굴에서 빛나는 — 으로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 컴컴한 바다를 지켜 보았다 — 거의 잔인할 정도로 열을 올리며, 만약 차가운 파도 위에 어선의 돛이 바람과 싸우는 모습은 보면, 심술궂은 자기도 모를 분노가 얼굴을 스쳐갔다.

이따금 그는 몸이 좋지 않았다. 걸어갈 때에 비틀거리거나 쉽사리 넘어지곤 해서 그는 자기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럴때면 걸어가다 멈춰 서서 몸의 어디가 좋지않을까 하고 근심했다. 그는 식량 저장실에 가서 분유와 맥아를 꺼내어 먹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병을 잊어버렸고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조차 중지해 버렸다.

낮이 다시 조금씩 길어졌다. 겨울내내 날씨는 비교적 온화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는 태양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대기가 몹시 차가워져서 그는 몸을 떨었고 공포를 느꼈다. 하늘은 평평하고 회색이었고 밤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몹시 추웠고 더 많은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섬은 얼어 붙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추위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날씨는 이제 매일같이 우울하고 몹시 냉랭했으며 이따금 하늘에서 눈송이가 흩날리기도 했다. 낮은 점점 길어지고 회색빛이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고, 하늘엔 얼어붙은 회색 햇빛이 보일 뿐이었다. 새들은 날아가 버렸지만 그 중의 어떤 것은 얼어서 땅에 떨어져 있었다. 모든 생명은 떠나가고, 북쪽에서 몸을 움츠리고 기어나와 남쪽으로 떠나가는 성 싶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없어지겠지. 이 지역 전체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잔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어느날 밤, 그의 고통이 다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잘 잘 수 있었고 반쯤 잠이 깨어 떨거나 몽롱한 의식 속에서 몸을 뒤틀지 않았다. 그는 몸을 떨거나 뒤트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한번 깊이 잠들게 되자 그걸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그는 잠이 깨어 이상한 흰 빛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내린 눈으로 온통 희게 덮여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으며 온 몸을 떨었다. 정말이지 무서운 추위였다! 모든 것이 흰 빛이고 바다는 어두운 납색이며, 검은 바위엔 기묘한 백색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거품은 이제 투명치 않아 불결하게 보였고 바다는 시체 같은 흰 육지를 깨물고 있었다. 눈 가루가 죽은 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는 듯 했다.

눈은 지상에 일피트쯤 쌓여 있었고 희고 미끄럽고 부드러웠다. 바람은 그 위에 불지 않고 있었다. 그는 삼을 들고 집과 창고 주위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창백한 아침이 어두워지고, 얼어붙은 공기속에 떨리서 울려오는 기이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다시 내리는 눈을 통해 번개가 희미하게 번쩍었다. 흰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움직이지 않는 어스름 속에서.

그는 몇분 동안 밖에 나가 있었지만 그것도 힘든 일이었다. 그는 실족하여 눈 속에 쓰러졌으며 그 때문에 얼굴에 별장게 열이 났다. 힘이 빠져서 그는 맥없이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힘을 회복하자 힘들어서 뜨거운 우유를 만들었다.

눈은 줄곧 내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다시 분명치 않은 천둥 소리가 들렸고 떨어지는 눈 속을 통해 번개가 붉게 번쩍었다. 불안스런 기분으로 그는 침대에 누워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아침은 이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성 싶었다. 영원처럼 긴 시간, 그는 누워서 밤을 쫓아줄 창백한 빛을 기다렸고, 드디어 대기가 더 희게 변한 것 같았다. 그의 집은 흰 빛으로 희미하게 조명된 지하실이었고, 창 밖은 눈이 벅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몹시 추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러자 쌓인 눈이 가슴만큼 높은 벽이 되어 그를 꼼짝 못하게 막아 버렸다. 그 꼭대기를 바라보자 죽은 바람이 서서히 부는 것을 느꼈고 눈가루가 장례식 행렬처럼 떠올라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침침한 바다는 끓어 올라 이를 갈았고 힘없이 쌓인 눈을 깨물고 있었다. 하늘빛은 회색이었지만 밝게 빛났다.

그는 보트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 맹렬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설사 그가 눈 속에 갇힌다 해도 그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자연의 기계적 힘에 의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바다에 가야만 했고 보트에 꼭 도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체력이 약했으며 이따금 눈이 그를 압도해 버렸다. 흰 눈이 그의 위에 쏟아졌고 그는 눈 속에 파묻혀서 죽은듯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너무 늦기 직전에 힘을 내어 정신을 차렸고 온몸의 열을 모아 다시 눈에 덤벼들었다. 기진맥진할 지경이 되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으며, 다시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와 커피를 끓이고 베이컨을 요리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줄곧 요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눈과 싸웠다. 그를 대항해서 쌓여 있는, 새롭고

잔인한 백색의 힘, 그 눈을 정복해야 했다.

그는 무서운 죽음의 바람 속에서 삼으로 눈을 힘껏 밀어 제치며 일을 계속했다. 잠시 태양이 얼굴을 비쳐 그에게 하얗고 창백한 주위와 검은 바다—수평선까지 흐릿한 거품으로 얼룩지고 우울하게 구비치는—를 보여줄 때에도 바람 속에선 여전히 추웠고 단단히 얼어 있었다. 그래도 태양은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쳐주었다. 삼월이 왔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는 보트에 다다랐으며, 그 위의 눈을 밀어 제치고 보트의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파도가 높았고 거의 그의 발밑까지 소용돌이 쳤다. 모든 것이 불길하게 보이는 세계에서조차 자갈만은 기이하게 자연스럽게 보였다. 태양은 더 이상 비추지 않았고, 눈은 단단한 작은 부스러기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그 많은 눈은 단단해 보이는 검은 바다에 닿으면 이내 기적에 의한 듯이 사라져 버렸다. 조약돌 깔린 해변에서 파도는 목선 소리를 내며 소리쳤고 쌓인 눈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물에 젖은 바위는 잔인할 정도로 검은 빛을 띄었고, 악마같은 눈부스러기는 수도 없이 검은 바다에 닿아서 사라져갔다.

밤중에 큰 폭풍우가 일어났고 거대한 눈덩이가 끊임없이 “철썉” 소리를 내며 온 세계를 때리는 것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바람은 모든 것 위에서 기이하고도 공허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그 사이에 눈도 못뜨게 번개가 번쩍이고 바람보다 육중한 천둥소리가 낮게 울려왔다. 드디어 새벽이 다가와서 희미하게 어둠이 거치기 시작하자 폭풍우는 약간 가라앉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어대고 있었다. 눈은 그 오두막의 문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다.

불쾌한 기분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눈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그는 여러 피트 쌓인 눈더미의 뒷부분에 있었다. 눈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얼어붙은 눈은 이피트 이상 되지 않았지만 그의 섬은 이제 없어진거나 다름없었다.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언덕이 없었던

곳에 크고 하얀 언덕이 솟아나 접근할 수도 없었다. 그 언덕은 타오르는 화산처럼 연기를 뿜고 있었는데 그것은 눈가루의 연기였다. 그는 피로한 기분으로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의 보트는 다른 더 작은 눈더미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트를 파낼 만한 힘이 없었으며 별도로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삼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는 눈 속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다. 눈 속에서는 바다의 파도소리가 울려오고 있었다.

얼마 후 무언가 그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거의 감각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몸을 따뜻이 할 수 있었다 — 눈 속에 잠들었을 때 석탄불에 기울이고 있던 몸의 부분만을. 그는 다시 우유를 뜨겁게 끓였고 다음엔 조심해서 불을 피웠다.

바람이 가라앉았다. 다시 밤이 돌아온 것일까. 적막 속에서 눈이 펄마처럼 끝없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천둥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울려왔고 흐릿한 붉은 번개 뒤에 즉시 파열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멍하니 혼수상태에 빠진 듯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연의 힘! 자연의 힘!’

그는 마음 속으로 이 말을 소리없이 반복했다. 인간이 자연의 힘에 이기지 못하는 법.

얼마나 그렇게 계속되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한번 그는 망령처럼 밖으로 나가서 식별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섬의 흰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태양은 뜨거웠다.

‘여름이다. 나뭇잎이 돌아나는 계절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바보처럼 그는 자기의 낯선 흰 섬을 그리고 생명없는 황량한 바다를 둘러 보았다. 그는 자기가 반짝이는 배의 돛을 언뜻 보았다고 억지로 상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삭막한 바다에 돛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멀리 바라보는 사이에 하늘은 신비롭게 어두워지고 싸늘하게

변했다. 멀리서 아직도 충분히 울리지 못한 듯한 천둥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그건 바다 위로 눈이 내릴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입김을 자기 몸에 느끼고 있었다.

3. 지미와 절망에 빠진 여자

“그는 어딘가 아주 훌륭하고 강한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돌봐줄 분별있는 여자가 꼭 필요하죠.”

이 말은 지미에 대하여 한 여성이 내린 ‘호의적인’ 결론이었다. 이
결론은 지미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화나게도 했다.

이런 견해를 십년간 지녀온, 매력있는 현명한 아내 —분별있는 보
호자로서의 ‘게임’에 마침내 지쳐버린— 를 그가 이혼시켰을 때 그의
초조함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지미를 세상 풍파 속에 던져 버리고 싶지만, 그 가련한 남자
는 아마 어떤 여성을 새로 만나 그 가슴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안 된 일이죠. 십 분간이라도 좋으니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겐 보기
드문 좀 못진 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말은 부유한 젊은 미국인의 팔에 안기어 지미에게서 떠나갔을
때, 클라릿사가 그에 대해 한 말의 요약이었다. 이 젊은 미국인은 지
미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면 화를 내곤 했다. 클라릿사는
이제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끔 아
직도 지미의 아내인양 말하는 것은 기분나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미 자신의 평가는 이것과는 달랐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
틀거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고민이 뒤따

왔다. 그는 클라릿사가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기가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무언가 멋지고 보기드문 것’은, 적어도 그의 기분으로는 ‘여성의 가슴’에 매달린 ‘가련한 남자’라는 말에 의해 완전히 흐려진 느낌이었다.

“나는 여자 가슴에나 매달리는 가련한 놈은 아니야. 내게 알맞은 여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녀가 나에게 달라붙게 될거야.”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지미는 이제 서른 다섯이었고, 그가 매달리느냐, 아니면 그에게 매달리게 하느냐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자 분기점이기도 했다.

그는 정말 ‘여자다운’ 여자를 상상해 보았다. 지미는 그런 여성에게 ‘멋지게 강하며’, 또 순간이라도 ‘가련하고 자그마한’ 남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아버어빌 가(家)의 테스(Thomas Hardy의 *Tess of the D'Urbervilles*에 나타나는 여주인공), 생각에 잠긴 그레첸(Goethe의 *Faust*에 나오는 여주인공), 보리 이삭을 줍는 소박한 릿(구약성경 릿記에 나오는 나오미의 자부) 등 단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처녀들은 어떨까? 좋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 분명히 이세상에는 그런 여자들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그런 여성을 만나지 못한 점에 있다. 그는 이제껏 세상 일에 닳아빠진 여자만을 만났었고 ‘진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사실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고, 단순하고 순수하며 꾸밈없는 때문지 않은 사람들이다. 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는, 소박하고 순진하고 순량한 사람들이여!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딘가에! 다만 우리들이 그들을 만나보지 못할 뿐이다.

지미는 그의 직업 때문에 몹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는 직업상 아주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할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진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다 —

단순하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을.

그는 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일류교양잡지의 편집장이었다. 그의 개성적이고 아주 솔직한 논설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잘 생긴 외모에다 마음이 내키면 굉장히 '상냥했고', 비평에 있어서도 대단히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지지와 칭찬받을 기회는 아주 많았다.

첫째로 그는 썩 잘 생긴 남자였다. 얼굴의 윤곽은 멋있고 선명했으며, 잘 웃지만, 웃음을 멈춘 우울한 순간의 목양신(로마神話, 반은 사람이고 반은 羊의 모습을 한 음탕한 神)의 얼굴 같았다 — 길고 예리한 양볼의 선, 힘있어 보이는 턱과 약간 굽은 단단한 코, 긴 속눈썹이 있는 아름다운 진한 회색 눈, 술많은 검은 눈썹. 지미가 가장 지미다운, 사람을 비웃는 순간 — 진한 검은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고, 회색 눈에 염소같은 냉소적인 빛을 띠우고, 코와 입을 비꼬듯이 뒤틀었을 때 — 의 모습은 정말 목양신의 얼굴을 빼다 박은 것 같았다. 피부가 곱고 잘 생긴 사티로스(그리스神話, 半人半獸의 숲의 神) 그대로였다. 그의 남자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가 지미로서는 제일 멋있게 보이는 순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견해에 의하면, 그는 성모 마리아도 비교가 안되는 순교자 성 세바스찬(로마의 군인·순교자, ?~A.D.288?) — 악한 세상이 쏘는 화살을 계속 맞아가며, 셀 수 있는 한 떨어지는 핏방울을 세고 있는 —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따금 — 예컨대 클라릿사가 부유한 젊은 미국인과 함께 떠나려고 하면서, 그녀가 지미를 이혼시키나 아니면 지미가 그녀를 이혼시키나 물었을 때처럼 — 화살이 그를 향해 날라오는 찌르레기 떼처럼 그를 명중시키고, 그를 찌르고 순교의 핏방울이 후두두 떨어질 때엔 그도 그 수를 셀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클라릿사를 이혼시켜 버렸다.

남자 친구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는 끊임없이 싱글싱글 웃는 목양

신 또는 사티러스, 또는 판 신(그리스神話, 목동·산양의 神)이었고,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에 의하면 그는 프라톤의 마음을 가진 순교자 성 세바스찬이라는 것이다. 여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여성으로 하여금 여왕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 즉 여자에게 참된 자아를 깨닫게 하는 —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며, 근사한 자그마한 남자라고 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연히 호화롭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떤 여성이든 다시는 여왕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여자 쪽이 그를 왕처럼 느끼게 할 차례였다.

때묻지 않은, 순박한, 야성의 피를 가진 여성에 대해, 그는 지혜와 미와 부를 지닌 일종의 솔로몬왕이 되는 것이다. 삼천파운드의 돈과 햄프셔 주(영국 잉글랜드 南部의 州)에 있는 주말용 별장이라는 재산의 가치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려면 빈곤한 환경의 여자이어야 한다. 게다가 순박한 여성이기 위해서는 서민층의 여자라야 한다. 이 건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근본이 미천한, 저속한 멍텅구리’도 곤란하다.

그는 많은 편지를 받고 있었다. 시, 단편, 논문 또는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글 등을 동봉한 편지들었다. 그는 이것들을 모두 읽어 보았다 — 마치 쓰레기장에서 쪼아내고 뒤지고 있는 근엄한 표정의 띠까마귀처럼.

그런데 한명 — 편지가 아니라 투고자인데 — 의 여자, 요크셔 주(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州) 탄광촌에서 편지를 보내는 에밀리아·피네카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미가 찾고 있는 그런 여자인지도 몰랐으며, 물론 지금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미는 북부의 어둡고 좀 두려운 느낌이 드는 탄광촌에 대해 신비로운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옥스포드 시(런던의 서북방에 있는 도시) 이북에는 거의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 사는 광부들이야기말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일거라는 느

낌이 들었다. 게다가 피네가라는 이름도 썩 좋았다. 에밀리아도!

그녀는 찝찝한 쪽지 —만약 「코멘테이터」지의 편집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없애 버리라는 뜻이 적힌— 가 떨어진 시 한 편을 보내왔다. 「코멘테이터」지의 편집장인 지미는 이 시가 썩 좋다고 생각했고, 쪽지에 쓴 간결한 글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시를 잡지에 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또 자기에게 보여줄 작품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서로 서신 왕래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지미의 요청에 따라 아래의 글을 보내왔다.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 저는 무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는 서른 한 살의 가정 주부이고 여덟 살 난 딸이 하나 있죠. 결혼해서 남편과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전 시를 —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죠. 그 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해도 여자들이 걸릴 위험있는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제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또 표현할 생각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학교 교사였고, 로더함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받았어요. 가능하면 다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결혼한 교사는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교사노릇을 할 수 없지요—’

“광 부”

—그의 아내에 의하여—

보조 엔진의 툭툭하는 고동 소리, 덜거덕거리는 요란한 선탄기(選炭機) 소리,

그의 심장의 고동처럼 고막을 울리고 그의 숨소리처럼 내게 다가오네.

연기를 뿜고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 풀린 산,
금발 남자의 존재처럼 대기를 채우고, 깊숙히 연소하는 불꽃은
태초부터 나타난 그의 웅고집일세.

그가 호흡할 때마다 의자는 오르내린다
수갱 속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송풍기가 회전시킬 때 그는 색정
(色情)을 품는다.
지하 석탄 속에 사는 인간 —그의 영혼은 기이한 엔진.

이것이 그가 사는 인생의 모습.
나는 결혼했고 그를 알아야 한다.
어머니 대지는 그를 분만했다 —석탄내장 속에서.
지상의 고통을 참아 내도록.

「코멘테이터」지의 편집장이 망설인 것은 바로 이 시였다. 그리고
그의 생각엔 피네가 부인이 남자에게 매달리는 순박하고 단순한 타
입은 아닌성 싶었다. 그래도 무언가 다른 것이 지미를 끌어 당겼다
—이 여자 안에 있는 무언가 필사적이고 비극적인 것이.

“다음에 일어난 일”

황혼이 다가오는 저녁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물어도
나는 모른다. 새로 나타난 누군가의
먼 북소리가 들려올 뿐.

나와 지나간 날의 사이에,
눈에 안 띄는 병사의 긴 열을
이끌고, 연기긴 빈민가 슬픈 녹색

황혼을 지나 다가온다.
어느 낯선 남자가.

암흑이 서서히 내 감각을 마비시킬 때,
낮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변한다.
불투명한 스크린 뒤에서.

그 대신, 내 속에
감싼 북소리가 들려온다.
내 힘이 시들어갈 때
나는 기대어서 들어야 하리, 새로이
나타난 게 무엇인지.

아마도 사신(死神)이
양심깊은 등등 소리를 내며
그의 엄지로 북을 두드리던지,
아니면 어떤 낯선 이가
섬뜩한 인간의 새 희망곡을 북치며
서서히 행진하는 것이리.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석탄 먼지로 시작한 하루, 석탄같은 암흑 가루로 끝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난 살아가고, 할 수 없으면
무엇이든 기꺼이 참아가리.

이 시는 몹시 정말적인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코멘테이터」지의 편집장은 그 시를 실기로 결정하고 또 그 작자를 만나 보기로 했다. 그녀가 사는 근처에 찾아가면 자기와 만날 의사가 있는지 그녀에게

편지로 물어보았다. 그는 셰필드 시(영국 잉글랜드 South Yorkshire州의 首都)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다. 기꺼이 만나겠노라고 답장이 왔다.

그는 “책 속의 사람과 생활 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강연을 했는데, 물론 “책 속의 사람”부터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이 끝나자 피네가 부인의 가족이 사는 탄광촌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이월이라 보기 흉한 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밀·벨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두웠다. 위험이 도사린 것 같은 암흑 —점점이 부어오른 듯한— 에 둘러싸인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을 끌고 지하 탄광의 섬뜩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상한 억양으로 대화를 나누며 유령처럼 지나갔다. 좀 무시무시하고 약간 소름끼치는 기분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작은 시장있는 곳으로 언덕길을 올라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 올라가면서 되돌아보니, 여기저기 떼를 지어 반짝이는 검은 계곡은 마치 마귀들의 양영지 같았다. 답답하고 냉습한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암흑의 대기에서, 유황과 석탄의 악마적인 냄새가 흘러왔다.

뉴·런던의 작은 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주어 그는 언덕 하나를 더 내려갔다. 어쩐지 피부가 섬뜩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곳은 마치 철과 여러가지 광물이 검은 공기 속에 가쁜 숨을 내뿜는, 무정하고 기분나쁜 시골 —적의에 찬— 같았다. 잘된 일이었지만, 그는 주위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없었고, 그 곳 사람들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가 길을 물어보면 ‘벽돌 조각이라도 던질 듯한 말투’로 사람들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여러번 물어보며 지치도록 걸은 끝에, 이월인데도 얼지 않은, 차디찬 진흙 오솔길 —나무 사이로 난— 로 접어들었다. 탄광은 아무래도 진흙이 가라앉은 시골의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무 사이로 슬픈 듯한 붉은 불 —갱도가 난 야산에서 타오르는— 을 볼 수 있었고, 유황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자기가 마치 헤카테(그리스神話, 天上·地上·地下界를 다스리는 女神)의 영역을 방황

하는 현대 올리시즈 같은 기분이었다. 탄광과 공장 사이를 해매는 오늘날의 방랑 여행은 사이렌(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여 파선시킨 바다의 精), 실리(Messina해협 이탈리아쪽 해안의 바위에 살던 女子 怪物), 카리브디스(바다의 소용돌이를 의인화한 女怪) 사이를 빠져 나가는 항해보다 얼마나 더 무섭고 우울한 것인가!

검은 오솔길을 따라서 얼어 붙은 진흙 속을 걸어가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머리 위의 검은 나무들은 이따금 탄광에서 나는 “슈슈” “칙칙 폭폭”하는 소리에 장단을 맞춰 신음 소리를 내었고, 별빛 없는 캄캄한 하늘은 탄갱의 전기 불꽃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 곳은 마치 춥고 캄캄한 정글처럼 사람도 살지 않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상상했던 대로 새로 난 작은 거리가 있고 가로등이 하나 켜 있었지만 집들은 모두 캄캄했다. 지미는 걸음을 멈췄다.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세 명의 아이들이 나타났다.

그 아이들이 집을 가르쳐주어 그는 어두운 길을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작은 뒷마당에 불빛이 보였고, 그는 약간 불안해 하면서 문을 노크했다. 약간 키 큰 여자가 “누구죠?” 하는 표정으로 계단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피네가 부인인가요?”

“아, 프리드씨이군요. 들어오세요.”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서 부엌 반짝이는 불 빛 속으로 들어갔다. 말없는 ‘분노의 가면’을 쓴 듯한 표정을 하고, 키 큰 피네가 부인이 냉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이내 지미는 자기의 초라한 차림새와 왜소한 몸집을 의식했고, 몹시 당황한 채 한 손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 데 전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부인의 집을 영망으로 만들어 놓을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그는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괜찮습니다. 차는 드셨나요?”

“아뇨 — 하지만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마에 금발 앞머리를 느러뜨린 작은 소녀가 곁에 서 있었다. 앞머리 밑으로 난처해 하는 푸른 두 눈이 보였고, 인형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지미는 좀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의 따님인가요? 아주 예쁘군요. 이름은 뭐죠?”

“제인.”

“안녕, 제인.”

이렇게 인사했지만, 그 아이는 싸우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흔히 보는, 두 눈 — 당황한, 어리둥절한, 고통스러운 듯한 — 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피네가 부인은 차, 빵, 버터, 잼, 과자 등을 식탁 위에 차려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지미의 맞은 편에 자리를 잡았다. 잘 생긴 용모였다 — 검은 뾰뚱한 눈썹과 노란 동공의 회색 눈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미를 지닌 듯이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이 그녀의 용모에서 제일 뛰어난 부분이었다. 회색 눈 속의 노란 동공처럼, 어떤 유순한 빛이 그녀의 불굴의 ‘의지’ 속에 섞여 있었다. 코와 입은 희랍 연극의 가면처럼 반듯했고 표정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시인하지만,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 고칠 수도 없는 여자의 인상 — 이런 인상을 그녀에게서 받았다.

그는 몹시 불안해졌다. 비슬비슬 걷는 몸집이 좀 작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녀와 앉아 있으니까 지미는 자기의 빈약한 육체를 세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사람과 운명에 지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지켜온 여자처럼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고. 부엌 저쪽 구석에서 인형을 가진 작은 금발 소녀가 푸른 눈을 반짝이며 그를 지켜 보았다 — 소녀도 말 한마디 없이.

“여기는 아주 지독한 곳이군요.”

그는 입을 열었다.

“예, 아주 형편없는 곳이죠.”

여자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부인은 이런 곳에서 도망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가만히 듣고 있을 뿐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것 같았다. 지미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벽시계를 흘끔 쳐다보고 대답했다.

“그는 아홉시에 올라오죠.”

“그 분은 탄쟁 속에 내려가 있나요?”

“예, 그는 오후 당번이에요.”

그 어린 소녀는 말 한마디 없었다.

“제인은 전혀 말을 하지 않나요?”

그가 물었다.

“예, 별로.”

그녀는 뒤를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다.

지미는 강연에 대한 이야기와 셰필드 및 런던 시에서의 일 등을 약간 들려 주었지만 그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기심에 찬,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두 눈으로 줄곧 바라보며, 별 말도 없이 냉정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마치 복수로 상대방을 파멸시킨 압초 위에서, 자신도 궁지에 빠져버린 여자같았다. 변함없이 용서도 후회도 굴복도 하지 않지만, 자기가 한 복수가 어떤 것이었나 무엇을 위한 복수였나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런 곳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그는 되풀이했다.

“어디로요?”

“아, 어디든지요. 그 곳이 여기서 멀기만 하면.” 그는 애매한 몸짓을 했다.

그녀는 엄숙한 이마를 하고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딴 데로 가도 별 차이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딸을 흘끔 되돌아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아주 떠나가기 전엔. 게다가 저 아이를

생각해야죠.”

그녀는 팔쪽으로 턱을 쑥 내밀었다.

지미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그는 이런 진지하고 냉엄한 일에는 익숙하지 못했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말수 적은 단정한 용모의 이 여자 —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금빛 동공의 단호한 눈을 한 — 는 그에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금빛 동공에 깃든 유순한 빛에도 도전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그래도 어딘가에 그녀도 여자의 약한 ‘정’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여자에게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그녀는 어떤 방식이든 자기의 의사에 거슬리는 생활을 해왔음에 틀림없었다.

“저에게 와서 함께 살지 않겠어요?”

약간 도박사가 된 듯한 기분으로 그는 이렇게 제의했다.

상반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기묘한 미소가 그에게 떠올랐다. 그는 이 여자의 도전을 도박사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절대로 지면 안 될 도박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처음 보는 여자가 두려웠으며 그 공포를 극복해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앉아서 지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예쁜 입가에 냉엄한 미소의 흔적을 보이며.

“함께 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아 그건 보통 쓰는 말로 해석하면 돼죠.”

약간 수줍어 하는 웃음을 보이며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분명히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분명히 말하겠는데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뛰쳐 나가세요. 제게 와서 함께 살자고 한 말은 그 말 그대로의 뜻이죠. 런던으로 가서 당신이 좋다면 제 아내로서 살아가세요. 만약 당신이 이혼하고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도 있죠.”

지미는 이 웅변을 그녀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지미가 하는 방식이었다. 그 문제가 모두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인양 모든 일을 자기 혼자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자기 자신에게 몰래 말하고 두 눈으로 마음 속을 들여다 보듯이, 왼쪽 눈을 가늘게 뜨고 목을 서서히 흔드는 이상한 버릇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종의 놀란 상태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일에는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상한 태도와 아주 노골적인 제의 때문에, 그녀는 긴장된 무감동의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아! 그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저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녀는 구석에 있는 둥근 눈의 소녀에게 머리를 뒹 돌렸다. 제인은 붉고 작은 입을 조금 벌린 채, 아무 표정도 없이 앉아 있었다. 소녀는 일종의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듯 했다. 어른처럼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로서 무의식 상태인 혼수 상태로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뺑 돌아서 자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열띤, 걱정스러운, 거의 죄의식을 느낀듯한 푸른 눈으로 둘 다 한 마디도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서로 주고 받는 느낌이었다.

“물론 그 아이도 함께 가는 거죠.”

그는 다시 고개를 뒤틀며 대답했다.

그녀는 한번 더 자기 아이를 쳐다보고 그에게 몸을 돌린 후, 천천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실 이 일은...” 그는 더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저로서는 이 일을 갑작스레 생각한 것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결코 아니죠. 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처음 당신의 시와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마음 속에 눈을 돌린 채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움츠리지 않고 그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저를 만나기도 전예요?”

그녀는 이상한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물론이죠. 물론 만나 뵈기도 전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만나러 오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저에겐 분명한 느낌이...”

지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이한 날카로운 몸짓을 했고, 자기의 내부에 눈을 돌린 채 취한 듯이 혼자 씨부렁거렸다. 그녀는 지미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망령에 불과했고, 그는 의식 속의 여자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녀는 그의 밖에 앉아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그녀에겐 뜻밖의 일이었다.

“그래 지금 저를 잘 보셨지요. 그래도 진정 제가 런던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우울한 어조로 물었다. 사실이 일은 그녀에게 좀 상식 밖의 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일도 아니잖는가? 그녀가 빠져든 무덤에서 끌어내려면 좀 터무니 없는 방법도 필요할지 몰랐다.

“물론이죠!” 그는 또한번 머리와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며 소리쳤다. “제가 실제로 당신을 만나보니 정말로 더 원하게 되었죠.”

여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 그의 눈은 줄곧 자기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겐 뜻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무감동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지미는 그때, 먼 구석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소녀 — 붉은 뺨을 한 — 의 타는 듯한 푸른 눈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기묘하게 조금 낄낄거리며 웃었다.

“당신과 제인이 저와함께 살게 된다면 저로서는 기대 이상의 기쁨이지요. 사실 그거야말로 저에겐 진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약간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듯이 처음으로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

보았다 —똑바로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며. 그러나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의 눈은 사팔뜨기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의 내부, 자기 의식 내부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제가 언제 가기를 원하시죠?”

그녀는 좀 냉정한 어조로 물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와 함께 갑시다. 전 세인트·존즈·우드에서 작은 집이 있죠. 그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함께 갑시다. 그게 제일 간단하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 보았다. 그는 취한 사람 같았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버린 것이다. 정수리 부분의 머리가 빠져가고 검은 머리숱이 적어 보였다.

“내일 갈 수는 없어요. 며칠간의 여유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

여자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몹시 기이한 제안을 가지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타난 기이한 남자가 아닌가!

그는 얼굴을 쳐들었다. 그의 눈은 아직도 마음 속으로 향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장님이 된 메피스토펠페스(Goethe의 *Faust*에서 *Faust*가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악마를 말함)처럼 보였다. 검은 눈썹을 치켜 올린 메피스토펠페스, 장님이 되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메피스토펠페스였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는 자기의 입술을 내밀고 입을 이상하게 찌죽거리며 강조했다.

“저는 끝장이 났었죠. 완전히 말입니다. 클라릿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 곁을 떠나버린 후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 세상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참말...” 그는 자기의 얼굴을 약간 쳐들었지만 상대방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인 —제인— 이 아이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

은 아이군요.” 그는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제인은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여자와 제인은 약간 당황한 낯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 피네가 씨와 결말을 지어야 해요. 당신은 그를 만나겠어요?”

그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아, 저는...” 그는 좀 애원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전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저는...”

“당신이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녀의 말.

“좋습니다. 그러면 만나죠. 언제고 당신이 원할 때엔.”

“아홉 시가 지나면 그는 곧 돌아와요.”

“좋습니다. 그럼 그 때에 그를 만나도록 하죠, 더 잘 됐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오늘밤 잘 곳을 찾아놔야 되겠어요. 너무 늦으면 그것도 힘들겠죠.”

“저도 함께 가서 부탁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안 됩니다. 당신은 가지 않는 편이 좋아요. 제가 가야할 곳만 가르쳐 주시면...”

그는 상대방을 감싸주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를 그녀 자신에서, 그리고 추문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태도, 그의 좀 옥스포드적인 태도가 그녀보다 나은 점이었다. 그녀는 그런 일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

북부 밤의 암흑 —모든 것을 삼켜 버릴듯한— 속으로 지미는 뛰어 들어갔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힘든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다. 모험을 해치울 결심이었다.

빵집 —하룻밤 재워줄 걸 부탁해 보라고 그녀가 일러준— 에 갔지만 거기서는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그의 외모가 전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집에서도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었다. 그와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보다 더 설득시키는 어조로 부탁했다.

“그래도 여보세요…” 사람을 울타리 밑에서 자라고야 할 수 없지 않겠소? 여주인쯤 만나볼 수 없어요?”

그는 여주인을 설득하여 응접실의 큰 폭신평신했던 긴의자 위에서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거기에는 불이 벌겍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열 시경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진흙과 이슬비 속을 뚫고 다시 뉴·런던의 오솔길로 돌아갔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불에 스튜냄비가 끓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얼굴 윤곽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상보를 깔았다. 지미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가 거기에 있는 것도 그녀는 모르는 인상이었다. 분명히 그녀는 돌아올 남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성 싶었다. 낮선 지미는 소파에 앉아서 그저 기다릴 따름이었다. 자기가 몹시 긴장해 있음을 그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진정으로 긴장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기분이었다.

아홉 시의 기적을 울리는 소리가 탄광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그녀는 난롯불에서 스튜 냄비를 들고 부엌 설거지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물에서 감자를 걸러내는 냄새가 풍겨 왔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해야 할 일도 할 말도 없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느라고 검은 테 안경을 쓴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떤 회의적인 철학자의 가면 같았다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생과 사를 거의 초월한 듯한.

이윽고 무거운 구두 소리가 문간에 들려오더니 이내 강한 바람처럼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얼룩진 얼굴에서 금빛 수염이 튀어나오고, 나뭇잎 푸른 눈이 석탄 먼지로 더러워진 안와(眼窩) 속에서 흰자위를 굴리고 있었다.

“이 분이 프리드씨입니다.”

그녀가 소개했다.

지미는 옥스포드식으로 몸을 약간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한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경 뒤의 지미의 회색 눈이 이상하게 흰 빛을 내며 빛났다.

“내 손은 더러워서 악수도 할 수 없군요. 앉으시지요.” 팡부가 말했다.

“아, 석탄 먼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건 깨끗한 먼지이니 까요.”

지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들 하죠.”

피네가가 대꾸했다.

키는 중키였지만 몸에는 정력이 넘쳐 있었다.

피네가 부인은 난로의 반짝이는 놋쇠 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통에 받았다. 난로에는 오븐과 균형이 잡히게 반대쪽에 물 끓이는 보일러가 달려 있었다. 피네가는 목재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아 몸을 굽혀 켄도에서 신는 구두를 벗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이상한, 곰팡내 나는 땅 속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말없이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서, 벗은 구두를 들고 설거지 하는 곳으로 갔고, 그의 아내는 뜨거운 물이 든 물통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돌아와서 쇠 난로울에다 거칠거칠한 고리 타월을 펼쳐 놓았다. 남편이 킁킁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네가 부인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허리까지 벗은 피네가가 방으로 뛰어 들어와 별경계 단 큰 난로 앞에 반듯이 쭈그려 앉았다. 그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몸의 앞 부분도 온통 물에 젖어 있었다. 등은 회색이었고 아직 씻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난로울에서 고리 타월을 집어들고 머리와 얼굴을 벽 벽 문지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대야를 가져와서, 비누를 칠한 플란넬 수건으로 바지를 걷어 올린 허리까지 내려오며 남편의 등을 말없이 닦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손님이 앉아있는 것은 완전히 잊은 모양이

었다 —등을 닦는 것은 광부의 의식(儀式)의 일부였고, 의식을 올리는 동안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가 무릎을 넓게 벌이고 다 떨어진 벽난로 앞 깔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자, 그녀도 몸을 굽혀서 남편의 등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쁜 그러나 굳은 얼굴에는 특이한 표정 —기분 나쁜 조롱하는 듯한— 이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미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의 개인적 의식에서 자기가 완전히 냉정하게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광부는 자기의 짧은 금발을 힘껏 문질렀고, 드디어 그 머리털은 모두 곤두서 버렸다. 그는 모든 걸 잊은 듯이 별정계 타 오르는 난롯불을 지켜볼 뿐이었고, 그이 뺨은 점점 불게 물들어 갔다. 그러자 그는 또 그 거친 수건으로 자기의 몸이 마치 닦아야 할 기계인양 가슴과 몸을 난폭하게 문질러 댔고, 그의 아내는 이상하게 느린 동작으로 다른 수건을 가지고 등의 물기를 닦아주었다.

그녀는 수건과 대야를 치웠고, 남자의 몸에서는 이제 물기가 말라 버렸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쭈그려 앉아서 정신나간 듯이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광부에겐 그것도 역시 매일의 의식의 일부인 듯 했다. 뺨이 붉어졌고 금빛 콧수염은 수건으로 문지른 탓으로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열띤 푸른 눈은 빨간 석탄을 열중한 듯이 응시했고 석탄의 반짝이는 빛이 그의 가슴과 벌거벗은 몸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한창 때인 약 35세의 남자였다. 아주 매끄러운 피부였고 몸에 비겟살은 전혀 없었다. 근육은 많지 않았지만 민첩하고 활력이 넘쳐 있었다. 난롯불 빛을 받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깨끗이 주조된 어떤 ‘엔진’ 같았다 —검푸른 이상한 눈이 달린, 작업중에 잠시 쉬고 있는 듯한.

광부는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손님을 자기의 의식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손님에게서 자기

의 얼굴을 계속 돌리고 있었다. 아내는 옷장에서 속옷 한 벌을 꺼내어 남자의 쪽 뺨은 상처투성이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 크고 단단한, 일로 거칠어진 손이, 매끈한 가는 팔끝에 달려있는 것이 좀 이상스럽게 보였다.

피네가는 불 앞에 셔츠와 속옷을 펼쳐서 잠깐 졸린 듯이 멍하니 불에 쪼더니, 그 옷을 머리에 쓰고 끌어 내렸다. 드디어 그는 셔츠를 바지 위에 느러뜨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의식에서 외계를 밀어 내려는, 여전히 멍하고 졸린 듯한 몸짓으로, 다시 설거지하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옷장앞에 멈춰 서더니 둘둘 말아 놓은 평소에 입는 바지를 끄집어 냈다.

피네가 부인은 수건을 치우고 식탁에 저녁 식사를 차려 놓았다. “씻었”하고 끓는 갈색 스투냄비에서 쏟은 양파 냄새가 진한 스투, 삶은 감자, 그리고 차 한잔 등. 남자는 깨끗한 플란넬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금발 머리를 깨끗이 빗고 나서 설거지하는 곳에서 돌아왔다. 그는 식탁옆에 안락 의자를 털썩 놓고 식사를 하려고 육중하게 그위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적의를 품은, 방심하지 않은 한 남자가 상대방을 쳐다보듯이, 지미를 쳐다보았다.

“이 근처에는 처음 오셨겠죠?”

그가 물었다. 그 말투에는 약간 형식적인 그리고 좀 거만한 울림이 들어 있었다.

“처음이죠.” 지미는 그가 못보게 옆을 보고 약간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접시에 겨자를 약간 바르고 자기의 입에 맞을런지 생각하며 음식을 흘끔 쳐다보았다.

“먼 데서 오셨나요?”

이렇게 묻고 나서 그는 식사를 시작했다. 저녁을 먹는동안 그는 다시 지미를 잊어버린 모양이었고, 접시 위에 머리를 숙인 채 줄곧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야만인 같은 경계심을 가지고 무언가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왔습니다.”

지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런던에서요!”

광부는 접시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피네가 부인이 나타나서 의식중에 침묵을 지키듯이, 말없이 불빛 아래 놓인 등 높은 흔들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피네가는 차를 저으면서 물었다.

“아, 전 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미는 소파에 앉은 채 약간 몸을 비틀었다.

광부는 차를 얼른 꿀꺽 마셔 버렸다.

“그럼 내 내자하고 아는 사이인가요?”

남자는 돌아다 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는 지미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자기의 옆 얼굴만 보이며 앉아 있었다.

“예, 지금은 그렇죠. 오늘 저녁까지는 전 부인을 알지 못했었죠. 사실은 부인께서 「코멘테이터」지에 약간의 시를 보냈어요. 저는 편집장입니다. 전 그 시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뜻을 편지로 써서 부인에게 보냈었죠. 그러는 중에 제가 꼭 직접 만나뵙고 싶어서, 그리고 부인께서도 승락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는 손을 뻗어서 빵을 한 조각 잘라 한입 가득히 씹어서 삼켰다.

“내 내자의 시가 잘 되었다고요?”

그는 드디어 지미를 돌아보고 그 소녀와 좀 닮은 눈으로 —약간 공격적인 기미가 든— 지미를 지긋이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은 그 시를 잡지에 실을 생각인가요?”

“예, 그럴 생각이죠.”

지미의 대답.

“난 그녀의 시를 하나 밖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녀가 잘 아는 광부에 관한 것이었죠. 어쨌든 그녀는 광부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는 독특한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엔 약간 조롱

하는 듯한 울림이 들어있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도 섞여 있었다.

지미는 잠자코 있었다.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싸울듯한 목소리 때문에, 기가 죽어 버린 것이다.

“나는 「코멘테이터」지 하고는 성미가 맞지 않아요. 땡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느낌이지요.”

남자는 고기가 든 접시를 밀어놓고 푸딩을 찾으면서 말했다.

“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논조가 재미있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무엇이든 결론이 분명히 나올수는 없거든요. 특히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지미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소. 「리베레이터」지에는 약간의 분명한 사실이 실려 있고, 「야누스」지엔 쓸만한 생각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감정을 가지고 결론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피네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무슨 결론을 얻고 싶은거죠? 결론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 무슨 결론을 얻고 싶다는 겁니까? 제말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 뿐이지요. 만일 당신이 광산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 좋습니다. 힘써서 그걸 얻어야죠.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이 하는 그 말의 구체적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미는 약간 숨을 ‘훅’ 내뿜으며 웃었다.

“나는 남자죠, 그렇지 않아요?”

광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남자라는 말은?” 짜증이 나서 지미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당신은 남자이지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할 권리를 나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천천히 냉정하게, 무거운 어조로 광부는 말했다.

“그야 물론 가지고 있죠.” 지미는 약간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조지 왕이하 모든 사람은 다 이용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이 푸딩을 먹는다면 당신은 결과적으로 수백의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의 부인까지 포함해서.”

“나도 알고 있소. 물론 알고말고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 사정이 달라지는게 아니죠. 어쨌든 나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도 다른 모든 것처럼 말에 불과한 겁니다.”

광부는 꿈쩍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의 표정은 점점 딱딱해지고 쌀쌀해졌다. 분명히 그의 의식 속에 찢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살 속에 박힌 철판 때문에 피부가 이따금 단단해지듯이, 그는 무언가를 단단하게 만들어보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지.”

이번엔 그는 냉혹하고 분명하게 혼잣말을 했고, 허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탄광에서도 나는 이용만 당하고, 눈썹만한 노임을 받고 있을 뿐이지. 집에서도 역시 이용만 당하고 내 마누라는 내가 마치 상점에 들어온 손님인양 그저 식탁에 저녁을 차려줄 뿐이지.”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얼 기대하고 있소?”

지미는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나말ियो? 내가 무얼 기대하고 있는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소. 그래도 난 한마디 해야겠는데...”

그는 몸을 돌려 지미의 눈을 똑바로 냉정하게 쳐다보았다.

“난 이제 어떤 일에도 더 참지 않겠다는 거요.”

지미는 상대방의 눈에서 냉혹한 결심을 알아채고 뒤로 물러섰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참지 않을 생각인지 알고 있다면...”

지미가 말했다.

“나는 내 마누라가 시 따위를 쓰는 걸 원치 않소! 그리고 만난 일도 없는 남자들에게 그걸 보내는 것도 말이오. 내가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가 마치 보아디케아 여왕(로마 帝政時代 로마인의 황포에 분개하여 로마總督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전투에 패하여 자살한 Icení女王) 처럼 앉아있는 것도 보기 싫단 말이오. 구멍 뚫린 돌벽 같은 얼굴을 하고, 그녀의 몸이 어디가 좋지 않은지 나는 모르고 있소. 그녀도 아마 모를거요. 하지만 저 좋을대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잘 들어요. 나도 나 좋을대로 행동할 겁니다.”

“물론이죠!” 하고 지미는 소리쳤지만 그렇게 맞장구를 칠 근거는 지미에게 없었다.

“내게 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녀가 말하더군요?”

“예.”

“그럼 그 이유를 내가 말해 드리죠. 내가 석탄 채벽(採壁)에 몸을 맡기고 탄광에 들어가 매일 여덟시간씩 노예처럼 일한다면, 누군가도 나에게 정성을 바쳐서 나쁠거야 없잖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부인에게 절대복종을 원한다면 —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할 여자와 당신은 결혼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말을 지미가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마치 청교도의 성직자처럼 광부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자기도 과거에 클라릿사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소란을 겪었지만 그런 일을 깨끗이 잊은 채.

“나는 날 즐겁게 해주고,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원하는 아내가 필요한거요.”

“왜 다른 사람보다 꼭 당신이 즐거워야만 하죠?”

그의 아내가 냉정하게 물었다.

“내 어린 딸은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 —제 어머니가 허락해 준다면 말이야. 하지만 여자들은 한통이 되기 쉽지, 내 딸은...” 그는 여기서 지미에게 몸을 돌려 검푸른 두 눈을 번쩍였다. “나는 널 즐겁게 해주는 여자, 널 즐겁게 해주려고 진정 원하는 여자를 바라고 있지. 집 안에 그런 여자가 없다면 딴 곳에 가서라도 찾아야 하거든.”

“그 여자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길 전 바라고 있어요.”

아내는 의자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물론 즐겁게 해주고 말고.”

“그렇다면 아주 그녀에게 가서 같이 살지 그러세요?”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가지 않느냐고? 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지. 내 집이 있고 어떤 여자든 같이 사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야. 게다가 아이도 있고, 왜 내가 가정을 파괴시켜야 하지?”

“그럼 내 형편은 어떨죠?”

냉정하고 격렬한 어조로 아내가 물었다.

“당신말이야? 당신은 집이 있고 아이가 있지. 또 당신을 위해 일하는 남편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한다는 건가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비꼬는 어조로 그녀가 대꾸했다.

“그렇지. 집에서의 약간의 일을 제외하고는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지. 만약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길 원하면 나가도 돼. 그러나 이 집에서 사는 동안은 가정을 존중해야 하지. 딴 남자를 여기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거야. 알겠어?”

“그럼 당신은 이 가정을 존중했나요?”

“하고 말고. 물론이야. 널 즐겁게 하는 딴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 해도 난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당신은 가정주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돼.”

“당신의 등을 씻어주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의 아내는 몹시 비꼬는 어조로 대꾸했고, 지미는 약간 저속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등을 씻어주는 것도. 난 등을 씻어야 하기 때문이지.”

“그 여자는 어떻게? 그녀보고 씻으라고 하시죠.”

“여기는 내 집이니까.”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이상한 몸짓을 했다.

지미는 좀 창백한 안색을 하고 앉아 있었고, 속으로 공포심이 일어났다. 말없는 광부의 뒤에서 지미는 냉혹한 분노와 불변의 의지가 응집되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의 야윈 얼굴에서 그는 남성의 뼈 —그 남자다운 굳은 뼈를 볼 수 있었고, 마치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있는 두개골과 골격 속에 들어가 있는 듯 했다.

지미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단단한 뼈를 가진 그 논리적인 남자에게 아주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가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남자의 냉혹함과 완고한 태도였다.

“여보세요!” 지미는 두 눈을 번쩍이며 안경 뒤에서 시선을 집중시킨 채, 잘 울리는 옥스포드 사투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부인이 자유라고 하셨죠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부인이 나와 함께 즉시 여기서 떠나간 다 해도 이의는 없겠군요.”

광부는 놀라서 편잡장의 창백하고 이상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미는 약간 고개를 돌린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썹은 메퍼스토텔레스의 눈썹처럼 올라갔고 입은 순교자 세바스찬처럼 꼭 다물어 있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말인가요?”

피네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의 아내는 희미하게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허영심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를 택하려는 아내의 마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건 당신이 직접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다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 목적 때문이죠.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살자고, 그리고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간청하러 온거요.”

“내 아내를 만난 일도 없는데 그렇게 간청하러 왔단 말인가요?”

그는 점점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그렇소. 이제껏 한번도 만난 적은 없소.”

지미는 마치 취하기라도 한 듯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열을 올리면서. “당신은 정말 시를 가지고 괴상한 고기를 한 마리 낚았군!”

그는 아내에게 남편다운 ‘친숙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런 노골적인 남편의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종류의 고기를 낚은거죠? 도대체 무얼 가지고 그 여자를 낚았죠?”

그녀는 받아 넘겼다.

“끈끈이를 가지고!”

그는 희미하게 싱긋 웃었다.

지미는 서스펜스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잠시 조마조마하여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래 당신은 이 분에게 뭐라고 대답할 생각이요?”

드디어 그가 물었다.

지미는 머리를 쳐들었다. 악의에 찬 희미한 미소 때문에 그는 목신(牧神)과 메피스토펠레스를 혼합한 것 같은 상당히 멋진 얼굴이 되었다. 좀 떨어진 데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여자를 그는 흘끔 쳐다보았다. 호기심에 찬 유혹하는 눈으로.

“전 함께 갈 생각이예요.”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광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목제 안락의자에 몸을 세워 앉은 채로 그는 허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서, 자기의 영혼으로 부

터 무언가 날아가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성 싶었다. 하지만 굴복하려는 듯한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감정도 굽히려 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그는 지금 아내가 자기에게서 떠나려 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녀는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미는 청교도 성직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죠” —그는 불안한 듯이 말을 길게 끌었다— “부인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가신다 해도,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나는 약속합니다.”

광부는 지미가 아주 멀리에 있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지미는 그의 응시를 보고 움찔했다.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을 사정없이 억누르고, 마치 자기의 살을 깎아내어 남자의 딱딱한 뼈 —감정에 의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까지 드러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백지 어음을 떼어주었죠.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할 수 밖에.”

피네가는 마비된 듯한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아버지로서의 애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군요. 당신의 엄청난 이기주의와 비교하면.”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상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 분노의 표정을 띠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에 위압되어 입을 꼭 다물었다.

“나로서는 당신에게 백지 어음을 떼어 주었소.”

그는 얼빠진 듯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정말 백지 어음이군요!”

처음으로 그녀는 신랄한 어조로 내뱉었다.

지미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술집은 문을 닫아 버릴지도 몰랐다. 그는 아침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튿날 정오에 런던으로 떠날 생각이었다.

깜깜한 밤으로 뒤덮인 시골의 암흑과 진흙 속으로 그는 뛰어 들어갔다. 공포심이 뒤섞인 이상한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공포의 느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그 집에 남아있는 두 부부를 생각하고 공포로 몸이 오싹해졌다. 무서운 공포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로서는 이제 극단적인 긴장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타협하고 변명하고 애처로운 태도를 취하곤 했었다. 피네가 부인도 그런 식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에밀리!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에밀리! 에밀리아라는 이름은 얼빠진 느낌이었다. 에밀리라는 이름의 여성과는 이제껏 교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겁이 났으며, 동시에 의기 양양한 기분도 들었다. 그는 자기가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와 사랑에 빠져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그녀를 남편에게서 데려가고 싶었다. 그녀와 더불어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진정 그녀와의 모험을 갈망했다. 그는 의기 양양해졌고, 진정한 자기가 된 듯 했고, 남자다워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그는 좀 수줍어하면서 그 광부의 집으로 갔다. 이슬비 내리는 우울한 날이었고, 나무도 길도 울타리도 벽돌집도 모두 거무스름했다. 구름낀 하늘 밑에서 광부들의 냄새가 나고 그들의 소음이 들려왔다. 마치 기분나쁜 지하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지미는 그 집에 이르는 좁은 길을 올라갔다. 그는 양배추 줄기와 지저분한 변소가 있는 처량한 작은 뒷마당을 흘끔 쳐다보고 뒷문을 노크했다.

그 아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금발에 붉은 뺨을 하고 열띤 검푸른 눈을 하고 서 있었다.

“안녕, 제인.”

지미는 다정하게 인사했다.

그가 들어가자 키 큰 단단한 몸집의 어머니가 식탁 곁에서 기분나

쁜 시선을 던졌다. 얼굴은 예뻐으나 고운 살결은 아니었다. 부부 싸움이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 싶었다. 그는 항상 여자를 즐겁게 해준 매력있는 미소를 서서히 띠우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금빛 주근깨가 있는 그녀의 눈 — 유순한 맛은 조금도 없이 자기의 눈을 들여다 보는 — 을 지켜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떻게 이 여자와 같이 잘 수 있지!”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었다.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부는 난로옆 목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미는 까딱도 하지 않는 그의 단단한 두개골과 야윈 모습을 바라보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는 이 남자에게 꼭 이겨야 하는 것이다.

“몇 시 기차로 돌아가시죠?”

부인이 물었다.

“열두 시반 기차입니다.”

지미는 대답을 하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특유한 아이처럼 수줍은, 번쩍이는 눈을 크게 뜨고서. 그녀는 흥미를 느낀듯이 놀란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지미의 어린아이 같은, 빛나고 매력적인, 진한 갈색 눈 — 긴 속눈썹이 있는 — 에 거의 매혹된 듯 했다. 푸른 눈 속에서 항상 내다보는, 남편의 불쾌하고 완고한 눈에 비해 얼마나 큰 변화일까! 남편은 언제나 그녀에게 골칫거리였다 — 불쾌한 인상에 무언가에 열중하고,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린 페르시아 고양이처럼 매력적인 크고 빛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대답하면서도 수줍어하고 소심하며, 이상하게 매력적인 그 두 눈으로. 그녀는 이내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떠나시기 전에 식사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우울한 그녀의 남편 앞에서 식사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전 아침을 잔뜩 먹었어요. 셰필드에서 갈아탈 적에 샌드위치를 먹

으면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장보러 나가야 했다. 장보고 돌아오면 지미와 함께 역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열한 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그런데 여보세요.”

지미는 신문을 들고 자기를 못본체 앉아있는, 야원 방심한 듯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린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하겠어요. 전 피네가 부인이 저와 함께 가서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함께 말입니다. 부인도 가시겠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도 저와 함께 가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가방에 물건 조금만 집어넣고 가시면 돼요. 이 문제를 질질 끌 필요는 없지요.”

“여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백지 어음을 떼어주었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대로 하지 않겠어요? 곧 떠나는 게 어때요?”

지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래도 그의 시선은 약간 자기의 내부에 향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충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녀의 판단에 맡겨 버린 것이다.

“안 돼요! 오늘은 갈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 안 돼요? 정말 안 되나요?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가도 되지 않겠어요? 백지 어음을 받았으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요.”

“백지 어음을 받았다 해도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어쨌든 오늘은 갈 수 없어요.”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죠?” 그는 이상한, 화난 듯한, 좀 애원하는 어조로 물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정말입니다.”

“월요일엔 가능하겠죠.”

그녀가 불쑥 말했다.

“월요일요!”

그는 안경넘어로 좀 당황한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를 꼭 다물고 머리를 아래위로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그러면 월요일에!”

“죄송합니다. 전 뭘 좀 사러 나가야 되겠어요. 돌아오면 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죠.”

그녀는 제인을 작은 하늘색 코트와 보네트로 싸고, 자기도 두터운 검은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지미는 광부의 맞은 편에 아주 불안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광부도 안경을 끼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피네가는 노동당 정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면서 신문을 내려놓고 코에서 안경을 벗었다.

“맞습니다. 결국 논리적이 되는 것이 최고지요. 당신이 민주주의자라면 유일하게 논리적인 것은 노동당 정부일 겁니다. 저 개인으로서 어떤 정부든 별차이 없지만요.”

“그렇지도 모르죠! 그러나 조만간 어떤 일이든 끝장이 나야 할거예요.”

“아, 그래야 할 일들이 많아지죠.”

지미가 동의했다. 그들은 다시 말이 없었다.

“당신은 전에 결혼한 적이 있나요?”

드디어 피네가가 입을 열었다.

“예,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예, 그렇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거요...”

“나로서는 이혼하든 안하든 마찬가지죠. 나는 또 다른 여자와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않겠어요. 배가 가득차면 진수성찬과 같다고 하죠. 만약 아내가 이혼해 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지미가 반복했다.

그후 오랜 침묵이 흘렀다. 지미는 그의 아내가 속히 돌아왔으면 하고 속으로 바랬다.

“나는 당신을 하나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소 무엇인가 부서져야 해요. 당신은 그걸 부수는 도구입니다.”

광부가 말했다.

이 야위고 서먹서먹한, 고집센 남자와 한 방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미는 이 남자에게 약간 매료되어 있었다. 동시에 지미는 그와 함께 있으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증오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미는 그것이 싫었다.

“내 아내는 자기가 날 떠나가면 내가 이내 타락할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죠.”

피네가는 거의 익살스러운, 놀리는 듯한 독특한 웃음을 띠며, 지미를 보고 말했다.

지미는 무엇이랴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머리를 뒹 숙이고 잠자코 있었다. 상대방은 무한히 참을성 있는 죄수처럼 의자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그녀는 어딘가에 멋진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당신이 그 미래의 문을 열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죠.”

광부가 다시 말했다.

또 한번 똑같이 재미있어 하는 웃음이 그의 눈에 스쳤다.

지미는 자기가 다시 그에게 매료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 사실이 아주 불쾌했다. 왜냐하면 지미는 마음 속으로 자기가 남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제일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야윈 이상한 남자가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네가가 어디에 있는 그의 말없는 무의식이 방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미는 그 사실을 혐오했다.

드디어 피네가 부인이 돌아왔고 지미는 그녀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는 광부와 악수를 나누었다.

“안녕!” 지미가 인사했다.

“안녕!” 피네가는 그의 특유한 재미있어 하는 푸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미는 자기가 그 눈을 이겨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안경꾼 남자와 키 큰 여자는 함께 역까지 걸어가면서 뒤에 남은 광부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월요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에밀리는 아홉시 기차로 갈 것이고, 지미는 메어리테본에서 그녀를 만나 세인트·존즈·우드에서 그의 집에서 지미에게 할 작정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아이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피네가가 아내를 이혼시키거나, 에밀리가 그를 이혼시키거나, 어쨌든 이혼이 성립되면 그들은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에서, 그는 이 계획으로 인하여 엄청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해낸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런던이 가까워짐에 따라 음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모든 일로 인해 너무나 피곤해서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 식사후 세반의 집으로 찾아가 모든 걸 그 친구에게 털어 놓았다.

“참 바보짓을 했군! 왜 그런 짓을 했지?”

세반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아, 난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그는 고민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참말이지, 그 여자는 메두사(三人姉妹의 怪物 Gorgons의 하나, 그리스 神話에 나옴)의 머리처럼 들리는데. 자네도 의욕이 강한 영웅이군. 정말이야! 클라릿사를 기억하고 있겠지?”

“물론이지. 그러나 이번 일은 달라.”

지미는 몸을 뒤틀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엠마인가 아니면 그런 종류의 것인가?”

“에밀리라고 해!”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어쨌든 자네는 바보일세. 그러니 그 바보의 역을 그대로 계속하는 편이 낫겠지. 수양버들의 역을 하면서 자네가 초대한 여성의 모든 폭풍을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을거야. 폭풍에 뿌리가 뽑힌 수양버들을 난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자네는 잘 해나갈 거야. 운 좋게 말이지!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줄 그레트헨을 찾고 있던 사람치고는, 참 말이지 자네도 엄청난 짓을 했군!”

세반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지미는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일요일 아침 그는 염려스러운 편지를 한통 썼다. 그는 편지의 첫머리를 어떻게 써야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친애하는 피네가 부인”도 “사랑하는 에밀리”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거나 너무 일러서 적당치 않을 듯 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빼버리고 곧장 용건을 썼다.

“출발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떠나시기 전에 혼자서 숙고하여 최후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스러우시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어쨌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부인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엔 전보를 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신다면 저는 당신과 아이를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J. F 올림

일요일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도록 그는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왕복 여비와 3파운드의 팁을 주었다.

그는 저녁때 돌아왔으며 편지를 그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장은 없었다.

일요일 밤은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월요일 오전은 긴장에 쌓여 있었다.

전보가 도착했다. “메어리본에 12시 50분 제인과 도착. 에밀리로부터”

지미는 이를 악물고 역까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그는 감지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내 아이의 손을 잡고 플랫폼을 천천히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떠었다. 그녀의 두 눈 — 동작이 느린 고양이 같은 — 이 반듯한 눈썹 밑에서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듯 했고, 지긋이 지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미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 했다. 그녀에게 한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얼굴에 헬썩한 웃음이 떠올랐다.

“당신이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가 택시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에 대한 강한 욕정 —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 이 끌어 올랐으며, 그걸 억제할 도리가 없었다. 그 여자 주위에서 그 남편의 존재를 그는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물 안탄 술을 마셨을 때처럼 그 느낌이 머리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 남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방법으로, 그 남자가, 그 몸이, 사실상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 그 광부가. 그녀는 그 남자의 영기(靈氣)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 싶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매어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위스키처럼 지미의 머리에 올라오고 있었다. 둘 중에 누가 그의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내고 쓰러질 것인가 — 이 여자일까, 아니면 그녀의 남편인 그 남자일까?

4. 차표를 사겠어요.

영국 잉글랜드의 중부 지방에 단선 궤도의 전차 노선이 하나 있다. 전차는 주도(州都)를 대담하게 나온 후, 이내 컴컴한 시골 공업 지대에 들어가서 언덕을 올라가고 계곡을 내려가서, 긴 보기 흉한 노동자의 집들이 줄지어 있는 마을을 지나 운하와 철도를 넘어서, 매년 그늘 위에 높이 솟은 교회를 지나 황량하고 오싹 추운 작은 시장을 통과한다. 다시 전속력으로 영화관과 상가를 지나서 탄광이 있는 계곡을 내려가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작은 시골 교회를 지나 물푸레 나무 밑을 통과하여, 공업지대의 마지막 작은 지저분한 지점인 종착역 —황량하고 우울한 시골 변두리에서 떨고 있는 한냉한 작은 도시— 을 향하여 달려간다. 거기에서 전차 —녹색과 크림색이 칠해진— 는 휴식을 취하게 되고, 기이한 만족감에 도취되어 목구멍은 가르릉거리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몇분 후에 도매 협동조합 상점의 시계탑이 시간을 알리면 전차는 즉시 모험을 하기 위해 다시 출발한다. 루프선(전차의 종점에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원둘레 모양의 선로)은 튀고, 전차는 무섭게 언덕을 뛰어 내린 후 다시 언덕을 올라가 그 꼭대기의 시장에서 떨며 손님을 기다린다. 이윽고 교회 아래의 가파른 사면을 숨도 쉬지 않고 쏜 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루프 접속로에 멈춰서서 저편에 나타날 전차를 끈질기에 기다린다. 다시 두 시간쯤 계속해서 달려가면 드디어 도시가 두툼한 가스탱크 너머로

흐릿하게 떠오르고 웅기종기 늘어선 공장들이 나타나며, 도시의 더러운 거리를 통과하여 마침내 종착역에 이른다. 서행 그리고 정지. 이 전차는 거대한 도시 전차—진홍색과 크림색을 칠한—때문에 부끄럼을 타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차고 활발하고 약간 무모하며, 검은 탄광 마당의 우쭐대는 파슬리나무 가지처럼 팔팔하다.

이런 전차를 타는 것은 항상 일종의 모험이다. 지금은 전시(戰時)이기 때문에 전차 차장들은 병역 면제자인 불구자나 곱사등이 뿐이다. 따라서 악마의 정신이 차장들 안에 숨어있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전차를 타는 것은 진짜 장애물 경주와 비슷하다. 후레이! 전차는 운하의 다리를 보기 좋게 뛰어 넘는다—다음은 4차선 교차점이다. 비명을 지르고 불꽃을 튀기며 이것도 훌쩍 뛰어 넘는다. 그런데 전차는 자주 선로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하지만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다른 전차들이 나타나서 끌어낼 때까지 도랑에서 기다리면 된다. 살아있는 승객들을 가득 실은 전차가 깜깜한 밤중 어딘지도 모르는 암흑 속에 정거하고, 기사와 여차장이 “불이야! 다 내려요!” 하고 고함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승객들은 당황해서 뛰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반응—“타세요! 타세요! 우린 내리지 않겠소. 그대로 있을 거요. 조지, 제발 잘 해봐요.” 실제로 불꽃이 타오를 때까지 그들은 태평스럽다.

이렇게 승객들이 하차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밤은 깜깜하고 몹시 춥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전차 속이 아늑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영화나 애인이나 술집을 바꿔가며 돌아다닌다. 전차는 몹시 뽀뽀하고 혼잡스럽다. 누가 철쭉같은 어둠 속에 나가서 다음 전차를 한 시간쯤 기다린 후, 고장으로 ‘차고행’이라는 쓸쓸한 표지를 바라보고 싶겠는가? 불연이면 환하게 불킨 전차—세 차량으로 연결된—가 사람을 가득히 태우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지나는 것을 지켜보고 싶겠는가? 밤의 암흑 속을 달려가는 여러 전차들.

교통부당국이 자랑삼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전차는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전차라고 한다. 그 차장은 모두 젊은 아가씨들이고, 운전기사도 약간 불구인 성급한 젊은이들이거나 무서워서 느릿느릿 차를 모는 소심한 사람들이다. 아가씨들은 모두 두려움을 모르는 말괄량이들이다. 초라한 곤색 제복에 무릎까지 올라간 스커트를 입고 멧 없는 낡은 헌팅캡을 쓴 차장들은 모두 고참 하사관 정도의 침착성을 지니고 있다. 크게 노래하는 광부들—아래층에선 찬송가를, 위층에선 외설스런 노래로 응답하고 있는—로 꽉 찬 전차 속에서 아가씨 차장들은 태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차표받는 기계를 피하는 암체를 발견하면 그들은 즉시 달려든다. 남자들이 산 차표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차장은 사정없이 밀어낸다. 차장들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런 바보가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전혀 없고, 승객들은 모두 차장을 두려워한다.

“안녕, 아니!”

“안녕, 테드!”

“스톤양, 내 발가락의 못좀 조심해 줘요. 당신은 돌로 된 심장을 가졌군요. 내 못을 또 밟았어요.”

“그 발가락의 못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세요.”

스톤양은 이렇게 말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이층으로 올라간다—목이 긴 구두를 신고.

“차표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태도다. 게다가 그녀는 의심이 많고 또 먼저 따지고 드는 성격이다. 설사 만 명이 차기를 반대한다 해도 그녀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차의 발판은 테르모필레 싸움터(기원전 480년, 그리스 장군 Leonidas가 펠사 大軍과 싸워 전멸한 곳)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전차 안에서는 어떤 분방한 로맨스가 일어나기 쉽다—아니 자신의 억센 가슴에도 연애에 편리한 시간은 일이 좀 수월한 열 시와 한 시 사이의 오전 동안이다. 장날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그

런 때엔 아니도 자기의 주위를 둘러 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 내려 쓸 만한 것을 눈여겨 본 상점으로 들어간다. 그 동안에 운전기사는 큰 길에서 잡담을 즐기게 된다. 여차장과 기사들은 서로 이해하고 대체로 사이가 좋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 함께 일하고, 전차 —힘한 육지의 파도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라는 달리는 배 속에 함께 올라탄 동료 선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감독들이 가장 눈에 띄기 쉽다. 어떤 이유에서, 이 전차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젊고, 머리가 센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마 일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감독들도 아직 젊은 나이이고, 그 중에도 주임 감독은 잘 생긴 남자다. 비오는 우울한 아침, 긴 방수복에 헌팅캡을 눈까지 눌러 쓰고, 전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기 바란다. 불그레한 얼굴에 작은 갈색 콧수염을 비에 적시며, 약간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다. 키도 꽤 크고, 방수복을 입어도 몸이 날래어 전차에 훌쩍 뛰어 오를 수 있다. 그는 차안의 아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다.

“안녕, 아녀!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전차 안에는 두 사람 밖에 없고 차내의 점점은 이내 완료된다. 그 뒤엔 발판 위에 서서 노골적인 긴 잡담을 시작한다. 끝도 없는 한가로운 잡담이다.

이 감독의 이름은 존·토마스·레이너인데 보통 존·토마스라고 불리운다. 이따금 감정을 품은 사람이 코디(Penis의 뜻도 들어있다)라고 부를 때도 있다. 먼데서 누가 코디라고 부르면 얼굴에 노기를 띠고 화를 낸다. 그에 대하여 5, 6개의 마을에서 상당히 좋지못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오전 중에 여차장들과 새롱거린 후 차장들이 밤에 차고에서 나가면 그는 차장들과 데이트를 즐긴다는 것이다. 물론 차장들은 빈번히 직장을 그만 둔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차장들과 다시 시시덕거리고 데이트를 시작한다 —물론 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의 유혹에 따라올 때의 일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처녀들이 예쁘

고 젊으며, 또 팔팔한 마도로스 기질과 무모한 성격을 지닌 것은 — 전차를 타는 유랑의 생활 때문이겠지만 —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가 입항중일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든 과히 문제될 건 없다. 내 일이면 다시 항구를 떠나가니까.

여차장 아나는 약간 날카로운 성격을 지니고 말투도 꽤 매서워서 존·토마스는 몇달 동안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아나는 그를 한층 더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끈질기게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존이 여차장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자기에게 새 룡거리는 그의 입과 눈의 움직임으로 그녀는 전날밤 그가 누구와 데이트를 했나 알아 맞힐 수 있었다. 사실 그는 멋진 바람둥이였고 그녀는 그의 인품을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미묘한 대립 중에서 둘은 오랜 친구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치 부부 사이처럼 상대방의 일에 눈치가 빨라졌다. 그래도 아나는 여전히 그를 자기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의 애인이 하나 있었다.

11월에 베스트우드에서 정기시(Candlemas와 Martimas 등에서 매년 열리는 농장 일꾼들을 고용하는 定期 市場)가 열리게 되었다. 아나는 월요일 밤 마침 비번이었다. 가랑비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지만 그녀는 잘 차려입고 그 회장으로 놀러갔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곧 쓸만한 친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안에서는 회전 목마가 빙빙돌고 노래 소리가 흘러 나오고 온갖 소음을 내며 여흥히 진행되고 있었다. ‘코코넛 떨어뜨리기’(코코넛을 표적 또는 상품으로 함)에서 진짜 코코넛은 없고 전시라 그 대용품만 있었다. 그것도 젊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철제대에 꼭 묶여있다는 것이었다. 그 회장안은 섭섭하게도 번쩍거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였다. 사람들이 붐비고 너울거리는 불길과 전등에 비쳐진 얼굴들이 이리저리 밀렸고, 석유와 약간의 튀긴 감자, 그리고 전기 냄새가 종전처럼 코를 찔렀다.

그 놀이터에서 처음으로 아니에게 말을 건 사람은 각독 존·토마스였다. 그는 까만 외투의 단추를 턱까지 채우고 트위드(스카치 羅紗의一種) 모자를 눈까지 눌러썼고, 그 사이에 보이는 불그레한 얼굴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친절했다. 그가 입을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

아니는 ‘남자 친구’가 생겨서 펍 즐거웠다. 정기시까지 와서 친구가 없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존은 즉시 활랑답게 그녀를, 이를 무섭게 드러낸 용 모습의 ‘롤러코스터’(環狀의 물매진 線路를 달리는 오락용 滑走車)에 태웠다. 롤러코스터는 물론 전차처럼 흥미진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담배를 입에 문 존이 자기에게 몸을 기대는 동안, 흔들리는 녹색 ‘용’을 타고 거품같은 무수한 얼굴을 내려다 보며 낮은 하늘에서 위협스레 질주하는 것은 사실 스틸 만점이었다. 아니는 포동포동 살찐 민첩하고 활발한 처녀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녀는 몹시 흥분했고 자릿자릿한 기쁨을 맛보았다.

존·토마스는 그녀가 한바퀴 더 롤러코스터를 타도록 했다. 그쯤 되니 그가 자기의 팔을 그녀의 몸에 감고 뜨겁게 포옹하는 몸짓으로 가까이 끌어당겨도, 그녀는 부끄러워 몸을 빼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신중했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기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아래를 보니 그의 붉은 깨끗한 손은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워져 있었다. 둘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 그들의 마음은 달아 올랐고 점점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용 모습의 롤러코스터를 내리고 이번엔 목마를 탔다. 존은 줄곧 자기가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바깥쪽 ‘검은 베스’라는 이름의 말을 탔고, 아니는 안쪽 ‘도깨비불’ 말을 타고 그를 향해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다. 그는 늦쇠로 된 쇠막대기를 쥔 채 ‘검은 베스’에 점잖게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한 불빛아래서 빙빙 돌았고 아래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발을 그녀의 말 위에 짚고 위험스레 말 사이에서 흔들렸고, 반쯤 몸을 뒤로 눕힌 채 그녀에게 웃음을 던졌다.

그날밤 그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모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불안스러웠지만 그래도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테이블에서 고리던지기를 하여 모자 고정핀 —연한 하늘색의— 두 개를 따서 그녀에게 주었다. 이윽고 다음번 영화상영을 알리는 마이크소리가 들리자 둘은 길에 깔린 판자를 밟고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이런 영화 상영 중에는 기계고장으로 칠혹같이 깜깜해질 때가 종종 있다. 그러면 “와—” 하고 야유하는 소리, “쭈”하고 키스를 흉내내는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그런 순간에 존은 아니를 자기 쪽으로 살며시 끌어당겼다. 그는 몹시 따스하고 아늑하게 여자를 팔에 안는 법을 익히고 있었고, 그런 멋진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여자로서는 그렇게 안기우는 것이 기분이 썩 좋았다. 위안이 되고 아늑하고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녀 위에 존은 몸을 구부렸다. 그녀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존이 자기 입술에 키스하려는 것을 알아 차렸다. 어쨌든 그는 몹시 따스한 사람이라 그녀는 그의 기분을 포근히 맞춰줄 수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존이 자기 입술에 키스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불이 갑자기 들어오자 전기 쇼크를 받는 것처럼 그녀는 깜짝 놀랐고 모자를 뺄듯이 고쳐썼다. 그는 아니의 몸에 팔을 감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아니는 이런 경험이 재미있었고, 그와 함께 이런 곳에 온 것이 몹시 흥미로웠다.

영화가 끝나자 그들은 어둡고 축축한 들판을 가로질러 산책을 즐겼다. 그는 여자에게 구애하는 모든 수단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 가랑비 내리는 어둡 속..., 사람들이 넘어 다니는 ‘충계’(사람만이 넘어 다니고 가축은 못다니게 만든 농장에 있는 충계)에 걸터 앉아 여자를 포옹하는 것에 특히 능숙했다. 공중에 여자를 껴안는 자세로 자기의 따스한 몸에 여자를 끌어당겨 즐거움을 만끽했다. 게다가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여유가 있었으며 온 몸에 퍼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니는 자기의 애인을 멀리 떼어놓고, 감독 존·토머스

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여차장들이 심술을 부리기도 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선,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아니가 존·토마스를 몹시 좋아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가 가까이에 있으면 그녀는 마음이 뿌듯하고 파스한 기분이 들었다. 그도 아니를 보통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뻘 속에 녹아 들어 오듯, 아니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몸가짐은 드물고 멋진 경험이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몹시 즐겁게 여겼다.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자 두 연인 사이의 친밀함도 깊어져 갔다. 아나는 그를 하나의 인간, 하나의 남자로서 생각하고 싶었다. 그에게서 지적인 흥미를 느끼고 지적인 반응을 얻고 싶었다. 그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밤중에만 즐기는 데이트 상대로서는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녀는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점에서 그녀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밤에만 그녀와 만나기를 원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완전한 하나의 남자로서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가 그 자신과 그의 생활과 그의 성격에 지적인 흥미를 느끼게 되자 그는 아니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지적인 흥미 따위는 질색이었다. 그런 일을 멈추게 하려면 피하는 길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여성특유의 소유본능이 그녀에게 일어나자 그는 아니를 떠나고 말았다.

아나는 놀라지 않았다고 말해도 아무 쓸모 없을 것이다. 그녀도 처음엔 자기의 기대가 어그러진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를 꼭 잡고 있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얼마동안 그녀는 마음이 동요되었고 모든 일에 자신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뒤엔 노여움과 격분, 외로움과 비참한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절망의 경련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 후 존이 아직도 뻘뻘스레 그녀의 전차에 나타나서, 그 머리의 동작으로 잠시 딴 여자에게 흥미가 옮겨가고 새 목장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자, 그녀는 복수를 결심하였다.

그가 지금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갔는지 아나는 정확하게 판단하

고 있었다. 그녀는 노라·퍼디를 찾아갔다. 노라는 안색이 좀 창백하고 키가 컸지만, 균형잡힌 몸매에 아름다운 금발 처녀였다.

그녀는 자기의 비밀을 여간해서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봐요!”

아니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상냥하게 물었다.

“지금 존·토마스와 가까이 지내는 아가씨는 누구지요?”

“몰라요.”

“무슨 말을. 당신은 나만큼 잘 안텐데.”

아니는 아이러니컬하게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니니까 신경을 쓰지 않죠.”

“아마도 시시·미킨일텐데.”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철면피가 아니겠어! 난 그의 낯짝도 보기 싫어. 다음에 나한테 알랑거리면 발판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말겠어!”

“언젠가 그도 혼쭐날 거예요.”

노라의 말.

“그렇고 말고. 누군가 결심하면 말이지. 난 그 놈이 줄경치르는 꼴을 꼭 보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당신도 아마 나만큼 원한이 사무쳤을거요. 어쨌든 우리 둘이 해치워 버립시다. 어때요? 원치 않아요?”

“저도 반대는 아니예요.”

노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상 노라도 아니 이상으로 그에 대한 원한이 쌓여 있었다.

아니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존·토마스의 옛날 애인들을 찾아 다녔다. 시시·미킨은 전차 회사를 조금 다닌 후에 갑자기 그만두고 말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못 다니게 한 것이다. 이쯤 되자 존·토마스도 조심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옛날 애인들을 둘러보았

고, 다시 아니에게 눈독을 드리기 시작했다. 지금쯤 그녀에게 다시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 그는 판단했다. 게다가 아내는 그의 마음에 꼭 들었던 여자였다.

그녀는 일요일밤 그와 함께 귀가할 것을 그에게 약속했다. 우연히 아니의 전차는 아홉시 반에 차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차는 열시 십오분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래서 존은 차고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차고에는 여차장 전용의 작은 대합실이 하나 있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난로와 오븐, 거울과 테이블, 목제 의자 등이 놓여 있었다. 존·토마스를 너무나 잘 아는 여섯 명의 차장들이 그 일요일 오후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차들이 들어오자 차장들은 대합실에 모여 들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난롯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다. 밖은 전시 중의 암흑이 깔렸고 무법 세계로 보였다.

존·토마스는 열시 십오분 전쯤 아니 다음의 전차를 타고 들어왔다. 그는 차장들의 대합실에 태연하게 머리를 디밀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나요?”

존이 물었다.

“예, 여자들만요.”

로라·샤프의 대답.

“나도 끼어 볼까!”

이 말은 그가 잘 쓰는 말버릇 중의 하나였다.

“문 좀 닫으세요.”

무리엘·바갈리가 주의를 주었다.

“들어와서요, 아니면 나가서요?”

존이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좋은대로 하시구려.”

포리·버킨이 대답했다.

그는 방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차장들은 서 있는 원을 좁혀서 불 곁에 존이 앉도록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모

자를 뒤로 제쳤다.

“차 한 잔 따라줄 사람은 없소?”

그가 말했다.

노라·퍼디가 말없이 차를 따라 주었다.

“고기 스프에 적신 빵 좀 드시겠어요?”

무리엘·바갈리가 권했다.

“아, 조금만요.”

그는 빵을 먹기 시작했다.

“내 집처럼 좋은 곳은 없지.”

그의 말.

차장들은 모두 뻔뻔스런 말을 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많은 아가씨들에게 둘러쌓여서 기분이 흐뭇한 모양이었다.

“특히 어둠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로라·샤프가 덧붙였다.

“나 말이오? 나는 혼자 가도 아무렇지도 않소.”

마지막 전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몇 분 지나자 엠마·하우스레이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폴리·버킨이 호들갑을 떨었다.

“지독하게 추워요!”

손가락을 난로에 갖다대며 엠마가 말했다.

“하지만 —가기가 무서워요, 집으로— 어둠 속을.”

머리 속에 언뜻 떠오르는 곡조로 로라·샤프가 노래했다.

“오늘밤 누구하고 돌아가시죠, 존·토마스씨?”

무리엘·바갈리가 냉정하게 물었다.

“오늘밤? 오늘밤 난 혼자 가요 —외롭게 집으로 말이오.”

“그건 내가 알아서!”

노라·퍼디가 그의 말버릇을 흉내내며 말했고, 아가씨들은 크게 웃어댔다.

“나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요, 노라.”

존·토마스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로라가 말했다.

“나도 살살 출발해볼까?”

그는 일어나서 오바에 손을 뻗치며 말했다.

“안 돼요.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폴리가 막았다.

“내일 아침에 늦지 않게 모두 나와야 하니까.”

점잖은 관리답게 그는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차장들은 모두 웃었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외롭게 남겨두고 가지 마세요. 누구 하나 끌라잡으세요.”

뮤리엘이 아양을 떨었다.

“그럼 모두 데리고 가지.”

활랑답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안돼요. 둘은 좋지만 일곱은 재미가 없어져요.”

“맞아요. 하나를 고르세요.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누구라고 똑똑히 말씀하세요.”

로라의 말이었다.

“그래요. 존·토마스 씨 하나를 끌라요. 누구죠?”

아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야, 난 오늘밤 조용히 돌아가겠어. 모처럼 기분이 좋으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죠? 여하튼 좋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요. 우리 중에서 꼭 끌라 잡아야 해요.”

아니는 고집을 피웠다.

“안 될 소리. 어떻게 하나를 끌라? 난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

불안한 듯이 웃으며 그가 대꾸했다.

“하나를 꼭 골라 잡아요.”

아니는 되풀이했다.

“선택해야죠, 하나를.”

로라도 거들었다.

“이런! 아가씨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안녕.”

도망치려는 듯이 존·토마스는 돌아서며 소리쳤다.

“안 돼요. 누군가 하나 꼭 골라 잡아요. 벽쪽으로 얼굴을 돌리세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만졌나 말해봐요. 자, 등을 살짝 만질테니까 — 누군가 하나가. 자, 벽을 향하세요. 여기를 보면 안 돼요. 누가 만졌나 말씀하세요.”

그는 아가씨들은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졌다. 그러나 뿌리치고 달아날 용기도 없었다. 그들은 그를 벽쪽으로 밀고 벽을 보고 서게 했다. 그 뒤에서 그들은 모두 얼굴을 찡그리고 킁킁 거렸다. 그가 우스꽝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스럽게 둘러 보았다.

“빨리 해!”

그가 소리쳤다.

“보지 말아요 —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소리쳤다.

그는 벽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갑자기 날쌔고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아나가 나타나 그의 뺨을 한대 무섭게 쳤다. 머리의 모자를 날아가고 그는 비틀거렸다. 그는 놀라서 돌아섰다.

그러나 아나가 신호를 하자 그들 모두 일제히 달려들어 치고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했다. 원한이나 분노라기보다 오히려 장난이었다. 하지만 그는 격분했다. 분노와 이상한 공포로 푸른 눈을 번쩍이고, 머리로 여자들은 받으며 문으로 돌진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자물쇠를 세게 비틀어 돌렸다. 용기를 낸 긴장한 여자들은 그를 둘러싸서 바라보았고, 궁지에 몰린 그는 여자들을 지켜 보았다. 짧은 제복을 입고 둘러선 여자들이 그 순간 몹시 무서운 존재로 보였다. 분명히 그는 공포를 느꼈다.

“자, 존·토마스 씨! 자, 하나 골라요!”

아니가 외쳤다.

“뭘 하겠다는 거야? 문 열어!”

그가 소리쳤다.

“안 돼요 —고를 때까지는!”

뮤레일이 고함쳤다.

“뭘 골라?”

“결혼할 상대를 골르란 말이에요.”

그녀의 대꾸.

그는 순간 머뭇거렸다.

“이 놈의 문을 열지 못해? 못된 짓은 집어쳐.”

그는 직장의 상사다운 태도로 올랐다.

“자, 골라야 해요.”

아가씨들이 소리쳤다.

“자, 어서 하세요!” 그의 눈을 쳐다보며 아니가 외쳤다. “어서 골라요! 어서.”

그는 좀 멍한 상태로 한 발자욱 앞으로 나섰다. 아나는 혁대를 빼내어 그걸 휘둘러서 박클끌로 그의 머리에 날카로운 일격을 가했다. 그는 펄쩍 뛰어 어니에게 달려 들었다. 그러자 다른 아가씨들이 즉시 그에게 덤벼들어 잡아당기고 할퀴고 두들겨 뺐다. 차장들은 이제 완전히 격분했고 그는 차장들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마음껏 그에게 복수할 결심이었다. 이상한 난폭한 야수가 된 차장들은 그를 붙잡고 늘어졌고, 덤벼들어 그를 꺾어 누르려 했다. 그의 옷은 목까지 찢어지고 노라는 그의 칼라 뒤를 잡고 목을 힘껏 조이고 있었다. 다행히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미친듯이 허위적 거렸다 —거의 미칠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옷은 거의 다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와이셔츠 소매도 찢어지고 양쪽 팔이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다. 그들은 달려 들어 주먹질하고 힘껏 잡아 끌었다. 그리고 덤벼들어 밀어 붙이고 있는 힘을 다해 머리로 받아 버렸다.

다. 또는 난폭한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다. 그는 목을 숙이고 움츠렸고 옆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그러자 그들의 공격은 더 사나워졌다.

드디어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들은 달려들어 무릎으로 짓눌렀다. 그는 숨을 쉴 수도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다. 누가 얼굴을 길게 핏줄이 피가 흘렀고 이마도 상처가 나 있었다. 아내는 그를 무릎으로 누르고 다른 아가씨들도 무릎으로 짓눌렀고 붙잡고 늘어졌다. 흥분해서 얼굴은 새빨개지고 머리는 흐뜨러졌고, 눈은 이상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마치 맥이 빠져 포수들이 하는 대로 쓰러진 짐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 그의 눈이 아가씨들의 난폭한 얼굴을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가슴은 육중하게 혈떡었고 손목에도 상처가 나 있었다.

“이봐요. 이것으로 깨닫게 되었죠?”

아니가 혈떡이며 말했다.

아니의 무서운, 냉혹한 승리의 말을 듣자 그는 갑자기 짐승처럼 몸을 꿈틀거렸다. 그러자 아가씨들은 아주 뛰어난 체력과 의지력으로 그에게 덤벼들어 짓눌러 버렸다.

“자, 이제는 어때요?”

마침내 아내는 혈떡이며 말했다.

그 뒤엔 몹시 조용해져서 심장의 고동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모두 다 마음 속에서 말이 없는, 조마조마한 순간이었다.

“자, 이제 깨닫게 되었죠?”

아니의 말이었다.

그의 별거벗은 흰 팔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공포와 적의로 실신한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차장들은 자기들이 이상한 힘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느껴졌다.

갑자기 포리가 웃기 시작했다. 난폭하게 낄낄거렸고 —어쩔 수 없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엠마와 뮤리엘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니와 노라와 로라는 눈을 번쩍이며, 그대로 긴장하고 조심하며 서 있었다. 그는 여자들의 시선에서 눈을 돌려 버렸다.

“이제는”하고 아니는 은밀하고 양심깊은, 이상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젠 알게 되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었나 —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 왔나 — 알게 되었겠죠!”

그는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다. 번쩍이는 눈을 돌리고 피나는 얼굴도 돌려버린 채,

“당신을 죽였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죽어 마땅한 거요.” 아니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어도 싸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무서운 고민이 들어 있었다.

폴리는 웃는 것을 겨우 멈췄고, 제 정신이 돌아오자 “아—”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죠.”

어렴풋이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지, 꼭 해야 해.”

로라의 말 속에는 복수할 결심이 분명히 서려 있었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나요?”

아니의 말. 그녀는 그가 움츠릴 정도로 매섭게 그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휩 돌렸다.

“들리세요?”

그의 몸을 흔들며 그녀는 반복했다.

그는 전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냅다 그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그는 깜짝 놀라서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이내 안색이 흐려졌다. 무시해 버리는 표정이었다.

“듣고 있어요?”

아니는 다시 반복했다.

그는 적개심에 불타는 눈으로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말해 봐요!”

자기의 얼굴을 그의 얼굴에 악마처럼 가까이 대고 아니가 소리쳤

다.

“무얼 말아야?”

거의 기가 죽어서 그는 뇌까렸다.

“콜라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위협이나 되는 듯이, 그리고 더 잔인하게 강요하지 못함이 분한 듯이 그녀는 소리쳤다.

“뭘 콜라?”

그는 공포에 떨며 물었다.

“당신의 애인말이요, 코디. 지금 당장 콜라요. 앞으로 또 못된 짓을 하면 목을 분질러 놓을테니! 이제 넌 끝장이야.”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얼굴을 돌려 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망신을 당했어도 여전히 교활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들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설사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좋소. 그렇다면 난 아니를 고르지.”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울림이 들어 있었고 적의에 가득차 있었다. 아니는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거나 한 듯이 얼른 손을 놓아 버렸다.

“아, 그는 아니를 골랐어!”

일제히 그들은 외쳤다.

“나를!”

아니는 놀라서 크게 소리쳤다. 그녀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돌린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그들은 불안한 듯이 그의 둘레에 몰려 들었다.

“나를!”

또 한번 아니는 되풀이했다. 몹시 괴로운 어조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이상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보이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난 그를 만지기도 싫어.”

내뱉듯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일종의 고민으로 떨렸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

왔다. 다른 여자들은 옆으로 비켜 섰다. 찢어진 양복을 걸뜨리고 피나는 얼굴을 돌려버린 채 그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래도 그가 선택했으니...”

폴리가 입을 열었다.

“난 원치 않아. 그가 한번 더 고르면 돼지.”

그녀는 전처럼 쓰디쓴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다.

“일어나요.” 그의 어깨를 일으키며 폴리가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기묘한, 기진맥진한, 정신나간 짐승 같았다. 여자들은 좀 떨어진데서 진기한 듯이, 몰래, 위험한 존재인양 그를 지켜 보았다.

“누군가 그를 원하세요?”

난폭하게 로라가 외쳤다.

“아무도 원치 않아!”

모두 경멸하듯이 일제히 외쳤다. 하지만 그들 하나 하나는 그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고, 말없이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들과 달랐다. 무엇인가 그녀의 가슴속에서 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고 얼굴을 땀 데로 돌려 버렸다. 모든 일이 끝난 듯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찢어진 옷의 조각을 주웠지만 그걸 어찌 해야 좋을지도 몰랐다. 여자들은 불안한 듯이 둘러서서 얼굴을 붉히며 헐떡였고, 머리와 옷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방구석에서 모자를 발견하자 그 쪽으로 가서 모자를 주웠다. 그가 모자를 쓰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자 하나가 히스테리컬하게 날카롭게 웃어댔다. 하지만 그는 본체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오바 — 거리못에 걸려 있는 — 있는 곳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여자들은 마치 그가 전기 통하는 전선인양 그에게 닿지 않게 몸을 피했다. 그는 오바를 입고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양복 찢어진 조각을 둘둘 말고나서 말없이 잠긴 문 앞에 섰다.

“누군가 문을 열어줘.”

로라의 말.

“아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중의 하나가 말했다.

아니는 묵묵히 그들에게 열쇠를 내밀었다. 노라가 문을 열었다.

“이것으로 피장파장이요. 이제 남자답게 행동하고 양심을 품지 맙시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무런 몸짓도 하지 않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무표정한 얼굴에 머리를 숙이고.

“이제 정다셨겠지.”

로라가 말했다.

“코디!”

로라가 중얼거렸다.

“제발 그만 해요!”

고문을 받는 듯이 아니가 크게 소리쳤다.

“자, 나는 가야겠어. 빨리 빨리 해!”

뮤리엘이 외쳤다.

여자들은 모두 빨리 떠나가고 싶었다. 그들은 서둘러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멍하니 굳어진 얼굴을 하고.

5. 장미원 속의 그림자

아름다운 해변 별장의 창가에 몸집이 좀 작은 젊은이가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여 신문을 읽으려고 했다. 오전 여덟시 반쯤이었다. 밖에서는 화려한 장미꽃이 기울어진 불담은 사발처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매달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쳐다보고 다시 패종을 보고나서 자기의 큰 은제 회중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초조하고 딱딱한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의 벽에 걸린 유화를 지긋이 쳐다보았다. 「포수에 쫓긴 수사슴」의 그림을 그는 조심스럽게 좀 불쾌한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는 갈색 콧수염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의 두 눈에 날카로운 흥미가 일어났다. 그 얼굴은 못생긴 편이 아니었으며 그는 콧수염을 비틀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체격은 작았으나 민첩하고 정력적인 데가 있었다. 거울에서 돌아섰을 때 얼굴에는 자기의 용모에 대한 자신감과 실망하는 기색(氣色)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는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정원으로 나갔다. 몸에 걸친 자켓은 허름한 것이 아니었다. 신품인데다 스마트하고 활기찬 맛이 풍겼고 확신에 찬 그의 몸에 꼭 들어맞았다. 그는 잔디밭 곁의 무성한 가축나무를 주의해 보고 다음 나무로 슬슬 걸어갔다. 홍갈색 과실이 매달린 구부러진 사과나무가 더 쓸모있게 보였다.

그는 주위를 살펴본 뒤 사과 하나를 따서 집 쪽에 등을 돌리고 한 입 짹 깨물었다. 의외로 그 사과는 맛이 좋았고 그는 사과를 또 하나 따다. 그리고 한번 더 침실의 창—정원을 내려다 보는—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였으며, 아내는 분명히 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저쪽 바다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그는 아내를 지켜보았고 눈여겨 관찰했다. 미모의 여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보다 나이가 연상인 듯했고 약간 창백했으나 그래도 건강하게 보였다. 얼굴에는 무언가 동경하는 빛이 뚜렷했다. 술이 많은 그녀의 적갈색 머리는 이마에 흘러내려 주름져 있었다. 자기 아내—멀리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는 그와 그의 세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성 싶었다. 그녀가 멍하니 정신을 빼앗긴 채 자기마저 잊은 듯이 서 있는 것은, 약간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양귀비 열매를 따서 창문에 던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야성적인 미소를 띠며 그를 흘끗 쳐다보고, 다시금 저쪽을 바라보았다. 이내 그녀는 창가에서 물러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가짐은 우아하고 아주 자신있게 보였으며, 부드럽고 흰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꽤 오래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다.

“저 말인가요, 아니면 아침 식사말인가요? 아홉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을 하셨으니 주무실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나는 언제나 다섯 시면 일어나죠. 여섯 시가 지났는데 침대에 누워 있을 수야 없죠. 이런 아침에 침대에 들어 있는 건 갱(坑) 속에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와서 갱에 대한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유리 덮개 속의 장식품을 바라보며 방안을 점검하듯이 걸어다녔다.

그는 난로 앞 깔개 위에 선 채 불안스럽게 그녀를 지켜보며 마지 못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안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고,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자, 쿠푸츠 부인이 조반을 쟁반에 날라 올 때까지 정원으로 나가시다.”

“빨리 갔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콧수염을 잡아 당기며 말했다.

그녀는 싱글 웃고 그의 팔에 매달려서 함께 걸어갔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젊은 부부가 오솔길을 내려가는 걸 보고 노부인의 도자기처럼 푸른 눈이 반짝였다. 아내는 남편의 팔에 매달리고 남편은 느긋한 자신 있는 태도로 걸어갔다. 늙은 여주인은 부드러운 요오크셔 사투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둘은 키가 꼭 같구만. 그녀는 자기보다 작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점에서는 그녀에게 비교가 안 되지.”

그러자 노부인의 손녀가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음식이 든 쟁반을 내려놓았다. 소녀는 노부인 쪽으로 다가갔다.

“저 남자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할머니.”

“그 사람말이나? 행복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밖에서는 그 젊은 행복한 남자가 땡그렁하는 찻잔 소리를 듣고 안달이 났다. 드디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왔다. 식사를 조금 들고나서 그는 잠깐 쉬면서 말했다.

“여기가 브리드린턴(Bridlington : 영국 동부 Humberside주의 항구도시)보다 더 좋은 것 같소?”

“물론이죠. 엄청나게요! 게다가 전 여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 체계는 낯선 해변 같지 않아요.”

그녀는 선뜻 대답했다.

“당신은 여기서 얼마나 있었지?”

“이년이요.”

그는 생각에 잠기며 식사를 계속했다.

“당신은 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난 생각했었지.”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우아하게 자기 손을 내밀었다.

“어쨌서요? 제가 즐거워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는 명랑하게 웃고 빵에 마말레이드를 듬뿍 발랐다.

“난 당신이 즐기기를 바라고 있소.”

그녀는 다시 남편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프랭크.”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녀가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또 여기서 산 일이 있다던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전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절 다시 알게 되면 우린 아주 난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왜 왔지?”

“왜냐구요? 모르시나요?”

“모르겠는데.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겠지.”

“전 이 고장을 보러 왔지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여자는 남자와는 다르죠. 전 왜 오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왔지요.”

그녀는 남편에게 또 한 잔의 커피를 권했다 —진정 바라는 듯이.

“어쨌든 마을에선 저에 대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불안한 듯이 웃었다. “전 제 과거를 굳이 들춰내고 싶진 않아요.”

상보 위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염에 묻은 커피를 빨면서 컵을 내려놓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

그녀는 약간 죄의식을 느낀 듯이 상보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제 지난 일을 파헤치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녀는 응석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는 위로하듯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지 않을 거야.”

그는 기분이 좋았다.

아내는 잠자코 있다가 잠시 후에 얼굴을 쳐들고 입을 열었다.

“전 코우츠 부인과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혼자 산책하는 것이 좋겠어요. 한 시에 점심을 먹도록 합시다.”

“그래도 오전 내내 코우츠 부인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야 그렇죠 —그리고나서 전 편지도 써야하고, 스커이트에 묻은 얼룩도 지워야 하고, 오전중엔 해야 할 잔 일이 많아요. 혼자 나갔다 오시는 편이 좋겠어요.”

그는 아내가 자기를 혼자 나가게 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이층으로 올라가자 모자를 쓰고 절벽 있는 데로 슬슬 걸어갔다. 분노를 꺾 참고, 그녀도 곧 밖으로 나갔다. 장미꽃을 장식한 모자를 쓰고 흰 드레스 위에는 긴 레이스 쇼울을 걸쳤다. 약간 열이 난 듯이 양산을 펼쳐 들자 그녀의 얼굴은 색깔있는 그늘 속에 반쯤 가리워졌다.

그녀는 어부들의 발길에 납작하게 닳아버린, 좁은 판석포장 도로를 걸어갔다. 그녀는 주위를 피하는 눈치였다 —자그마한 양산 그늘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고 싶은 태도였다.

교회를 지나 오솔길을 내려가서 길가에 높은 담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 담 아래를 천천히 걸어서 열린 입구까지 와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입구는 검은 벽에 그린 광화(光畵)처럼 흰빛이 빛나고 있었다. 밝은 정원과 푸르고 흰 바다의 잔 돌들을 깎 위로 —입구

넘어 요술에 걸린 듯한 곳에— 그림자의 무늬가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저쪽에 녹색 잔디가 햇빛에 빛나고 그 코트머리 쪽에는 월계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발끝으로 걸어서 안뜰로 들어갔고, 그들 속에 서 있는 집을 훑어 보았다. 커튼이 없는 창문은 어두워 보였고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았다. 부엌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망설이면서 그녀는 저쪽 정원을 향해 그곳을 동경하듯, 몸을 약간 구부리고 한발자욱 한발자욱 다가갔다.

거의 그 집 모퉁이까지 다달았을 때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저벅저벅 들려왔다. 이내 정원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버들가지로 된 쟁반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쟁반위엔 너무 익어 검붉은 큰 구즈베리 열매가 뒹굴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다가왔다.

“오늘은 정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는 매력있는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되돌아갈까 하고 망설였다.

좀 놀라서 그녀는 잠시 입을 열 수 없었다. 정원을 공개하다니 그것이 무슨 뜻일까?

“언제 공개하지요?”

그녀는 얼른 재치있게 물어보았다.

“교구목사님은 금요일과 화요일에만 정원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죠.”

그녀는 생각에 잠기면서 서 있었다. 교구목사가 자기의 정원을 공개하다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가면 여기엔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구슬리듯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다.

남자가 몸을 움직이자 커다란 구즈베리 열매가 쟁반에서 굴러다녔다.

“교구목사님은 새로 건축한 목사관에 살고 계시죠.”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고, 그 남자는 여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는 애교있는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잠깐 장미꽃좀 구경할 수 없을까요?”

그녀는 상냥하게 고집을 부리며 아양을 떨었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면 괜찮겠죠.”

남자는 옆으로 비켜서며 대답했다.

그녀는 정원사에 대하여 금세 잊어버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곳을 둘러보니 잔디밭에 면한 창들은 모두 커튼이 쳐 있지 않았고 컴컴했다.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색채로 된 문—진홍색 덩굴장미의 아아치형 출입구—을 지나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저 너머에는 만(灣)의 푸른 바다가 아침 안개 속에 아늑하게 물결치고, 검은 바위가 솟아난 갑(岬)이 푸른 하늘과 물 사이에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고뇌와 기쁨으로 열을 띠어 그녀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했다. 발밑엔 백화가 만발한 정원이 험준하게 펼쳐지고, 저 멀리 아래쪽엔 시내를 덮은 나무 우듬지가 군데군데 검게 돋보였다.

그녀는 정원—자기 주위에서 화사한 꽃들이 번쩍이는—을 되돌아 보았다. 수목 밑에 벤치가 놓여 있는 자그만 구석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엔 많은 꽃이 빛나는 고대(高台)도 있었다. 그리고 두 개의 오솔길이 이 고대에서 아래로 뻗어가서 정원의 양쪽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양산을 접고 많은 꽃들 사이를 서서히 걸어갔다. 주위는 온통 장미꽃으로 덮여 있었다—큰 열(列)을 이룬 장미, 지주(支柱)에 매달려 흔들리는 장미, 혼자 서 있는 관목에 기대어 있는 장미 등등. 빈 터 옆에도 많은 다른 꽃들이 있었다. 고개를 들면 저쪽으로 바다가 솟아나 보였고, 바다로 뻗어난 갑이 바라다 보였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세계로 돌아온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한쪽 오솔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갑자기 그녀는 벨벳처럼 부드럽고 목직한 진홍색 장미꽃에 닿았으며, 자기 아이의 손을 종종 애무하는 엄마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꽃을 조심스레 만져보았다. 그녀는 향기를 맡으려고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나서 다시 멍하니 발걸음을

옅게 놓기 시작했다.

때때로 불꽃 같은 빛깔의 향기 없는 장미꽃에 매혹되어, 그 꽃을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바라보기도 했다. 또 핑크색 꽃잎들이 엉켜 있는 앞에서도 똑같은 친숙한 느낌이 마음 속에 일어났다. 얼음 같이 중심에 녹색을 띤 백장미도 호기심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이처럼 그녀는 애수에 찬 흰 나비처럼 오솔길을 천천히 거닐었으며, 드디어 장미꽃이 가득찬 자그마한 대지(台地)에 이르렀다. 장미들은 햇빛을 듬뿍 받아 즐거운 듯이 때를 지어 그 곳을 매꾸고 있었다. 장미꽃은 너무나 많고 환하게 빛나 그녀는 부끄럼을 느낄 지경이었다. 장미는 서로 말하며 웃고 있는 듯 했고, 그녀는 낮선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들뜨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져 갔다. 맑고 향기로운 공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백장미 속의 작은 벤취로 가서 걸터앉았다. 그녀가 들고 있는 양산 빛깔이 뚜렷이 진홍색으로 돋보였고, 그녀는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기는 그저 한송이 장미에 불과한 듯했다 —그것도 활짝 피지 못한 딱딱한 장미 같았다. 이윽고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무릎, 흰 드레스 위에 앉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치 파리가 장미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자 어떤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가로질렀고, 사람 모습이 시야에 들어와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슬리퍼를 신고 소리도 없이 다가온 한 남자였다. 남자는 린네르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신선한 아침은 깨어지고 마술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무언가 힐문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남자가 다가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를 바라보자 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좀 살찐 청년이었고 군인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술질이 잘 되어 부드럽게 빛나고 콧수염에는 밀이 발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좀 산만한 티가 나타났다. 그녀는 입술이 창백해져서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그 두 눈은 검은 색이었고 응시하면서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본 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는 벤취 위에서 몸을 움직였고 발을 고쳐 놓더니 군대식 말투로 짧 짧게 말했다.

“제가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자는 검은색 옷에 다 린네르 상의를 빈틈없이 입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자기가 잘 아는 반지를 그의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는 걸 보자 그녀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온 세상이 견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기의 뜨거운 사랑의 상징이던 남자의 손이 이제 튼튼한 넓적다리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니,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떨리는 것이다.

“담배를 피워도 괜찮을까요?”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가져가면서 살그머니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았다. 남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로 나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고민하면서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했다.

“담배를 갖고 있지 않았군.”

그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태도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다 끝난 것일까?”

그녀는 얼어붙은 듯이 마음줄이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존·코튼(담배의 상표)을 피우고 있지만 너무 비싸서 아끼며

피우지. 이 소송사건 때문에 내 형편이 별로 윤택하지 않거든.”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요?”

하고 그녀는 대꾸했지만 심장은 냉랭해지고 정신은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움직여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사랑했던 그 모습 — 그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단단한 군인다운 머리며, 그 멋진 체격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지금의 그의 모습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그녀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다.

갑자기 자켓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가 다시 돌아왔다.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요? 그러면 사태를 더 똑똑히 내다볼 수 있을텐데.”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며 그는 다시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멋지고 튼튼한 손가락을 가진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과거에 약간 떨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옛날엔 의아하게 여겼지만, 이젠 그 움직임도 어색해져서 담배가 파이프 밖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신경을 써야할 소송사건이 있어서요. 소송사건은 언제나 확실성이 없지요. 나는 변호사에게 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해주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앉아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말하는 그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 손은 지난날 자기가 키스했던 손이며, 번쩍이는 그 이상한 검은 눈은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 공포에 질려서. 침묵이 흘러갔다. 그는 담배 주머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손으로 땅 위를 더듬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그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지 기다려야만 했다. 도대체 그녀는 왜 떠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내 그는 일어섰다.

“이제 곧 가야지. 올빼미가 올 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은밀한 사실을 털어놓듯이 덧붙였다.

“그의 이름은 사실 올빼미가 아니지.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야. 그가 벌써 왔는지 가 봐야겠어.”

그녀도 일어섰다. 그는 불안스러운 듯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군인다운 잘 생긴 남자이지만 미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신중히 살펴보았다.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지, 과거의 그를 찾아낼 수 있을지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를 알아볼 수 없으세요?”

그녀는 홀로 서서 공포에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았다.

그는 이상한 듯이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의 기이한 시선을 참아내야 했다. 그의 두 눈은 그녀를 쳐다보며 빛났지만 눈 속에 지성(知性)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 알고 있죠.”

남자는 자기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열을 내어 대답했지만, 미친 사람의 말에 불과했다. 그녀의 공포는 너무나 커졌다. 그 힘센 광인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려고 했다.

한 남자가 서둘러 달려왔다.

“오늘 아침에는 정원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 남자의 말.

제 정신이 아닌 그 광인은 멈춰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지기는 벤치로 가더니 그 위에 떨어진 담배 주머니를 집어 들었다.

“담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런네르 상의를 입은 신사에게 그 주머니를 건네주며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숙녀에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고 있었죠. 이 분은 내 친구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맹목적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햇빛을 받고 있는 장미꽃 사이를 빠져나와 창문 —어둡고 공허한— 이 있는 저택을 지나서, 바다의 잔 돌을 간 정원을 통과하여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곧 이층으로 올라가서 모자를 벗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마치 그녀의 내장 속 어떤 막이 두갈래로 찢어진 것 같았고, 생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 —하나의 인간이 아닌 성— 싶었다. 앉은 채 창에서 바라보니 담쟁이의 작은 가지들이 해풍을 받아 아래위로 물결치고 있었다. 그리고 햇빛을 반사하는 바다의 신비로운 ‘반짝임’이 공중에 떠돌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어떤 ‘존재’도 아닌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쩐지 병이 날것만 같았고 그것은 터진 내장에서 흐르는 피의 탓일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맥이 쑥 빠져버려 꼼짝않고 앉아 있었다.

얼마 후에 아래층 마루바닥에서 남편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가만히 앉은 채 남편의 거동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우울한 듯이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질문하고 대답하고 점차 명랑해지는 그의 말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불그레한 얼굴에 약간 즐거운 표정을 띠고 방안에 들어왔다. 기민하고 단단한 그의 몸에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듯이 몸을 움직였다. 남편은 다가오다가 멈칫했다.

“무슨 일이지?”

그 묻는 목소리에는 초조한 울림이 들어 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소?”

이 질문은 그녀에겐 고문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그의 갈색 눈은 당황하는 듯 했고 이내 노기를 띠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두세 걸음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더니 우뚝 멈춰섰고 창 밖을 내다보았다.

“누구하고 마주쳤소?”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대답.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자기에게 냉담한 그녀의 태도가 그를 성나게 했다. 드디어 그는 더 참을 수 없는 듯이 그녀에게 다그쳤다.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하게 되었소?”

“아니예요, 왜 그러시죠?”

그녀의 대꾸는 애매한 어조였다. 그녀에 대한 자극제로서만 그는 존재하는 것 같았다.

분이 치밀어 올라 그의 목구멍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그런 것 같기 때문이야.”

그는 노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사실 성별 만한 이유는 표면엔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 게다가 그녀는 뒤에 남겨진 씁쓸한 감정의 ‘잔재’를 홀로 맛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날라 오는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겨왔고 정원에서 남편이 피우는 담배 냄새가 흘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종이 울렸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왔다. 그 발자국 소리에 자기의 심장이 위축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방문을 열었다.

“저녁이 준비되었소.”

하고 그는 알려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방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자기의 일에 간섭하려고 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을 되돌릴 수 없었다. 자리에서 어색하게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지만 그녀는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자신의 존재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려 했지만, 마침내 화가 나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다시 이층으로 올라가서 침실문에 열쇠를 잠갔다. 그녀는 혼자 있어야만 했다. 남편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정원으로 나갔다. 아내에 대하여 —남편보다 자기가 낫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쌓이고 있던 분노가 가득 차서 몹시 우울한 기분이었다. 그는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사람이 된 적도, 그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그를 묵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는 기가 죽어 버렸다. 그는 탄광의 전기 기사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여자편이 더 상위의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아내에게 양보해 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굴욕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 결과 이제는 그녀에 대한 모든 분노가 불타 오르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안에서 남편이 세 번 째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심장의 고동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는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밀었다 —열쇠가 잠겨 있었다. 다시 한번 세게 밀어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정지하는 듯했다.

“문을 잠갔소?”

그는 집주인을 생각하고 조용히 물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가 문을 부수지 않을까 겁이 나서 그녀는 일어나서 열쇠를 돌렸다. 남편이 자기를 혼자 있게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 사이에 파이프를 물고 들어왔으며 그녀는 침대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문을 닫고 문을 등지고 섰다.

“무슨 일이 있었소?”

또렷한 어조로 그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지겨워졌고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저를 혼자 있게 해 줄 수 없어요?”

그녀는 남편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굴욕감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으며, 그녀를 한번 노려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무언가 일이 있었죠, 여보?”

그는 단호히 물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일이 당신이 절 괴롭힐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괴롭힐 생각은 없소. 도대체 무슨 일ियो?”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증오에 차서 필사적인 어조로 외쳤다.

무언가 달그락 하고 소리가 났다. 그는 깜짝 놀라서 입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파이프를 잡았으며, 허로 파이프의 흡구(吸口)를 밀어내어 입술에서 떼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파이프의 불을 끄고 조끼에서 담뱃재를 떨었다. 다시 그는 머리를 쳐들었다.

“나는 알아야겠어.”

하고 그는 고집했다. 얼굴은 창백하고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둘 다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이 몹시 흥분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가슴에서 두근거렸다. 그녀는 남편을 증오하고 있었지만 저항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캐물었다.

그는 아내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고민에 찬 눈과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놀랐고 마음이 괴로웠으나, 이내 그 마음은 다시 싸늘해지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껏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그녀는 달아나려는 짐승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를 이처럼 무섭게 엮매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자기에게 고향 ‘어떤 것’이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구속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걸 벗어버리기가 더욱 힘들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중오했고, 부셔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문을 등에 지고 서서 마치 그녀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대항하려고 하는 듯이 꼼짝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싸늘했고 적의에 차 있었다. 그의 노동자 같은 손은 뒤흔 문의 네모진 널빤지 위에 펼쳐져 있었다.

“제가 전에 여기서 살았던 것을 알고 있죠?”

그녀는 일부러 남편의 감정을 해치려는 듯이 양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 대해 긴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토릴홀의 버찌양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버찌양과 교구목사님도 친구였고, 아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여기서 말이 끊겼다. 그는 무슨 말이 나올지 예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듣고 있었으며,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서, 스커아트 가두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펼쳤다 되풀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적의에 찬 목소리였다.

“그는 장교였고 —중위로 승진할 참이었는데— 대령과 싸운 끝에 군대에서 나와 버렸죠 어쨌든.” —그녀는 스커아트 가두리를 잡아당겼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그녀의 동작을 주시하고 있노라니 혈관이 분노로 부풀어 오르는 듯했다— “그는 저를 몹시 좋아했고 저도 그를 좋아했죠 —극진히.”

“그는 몇 살이었소?”

남편이 물었다.

“언제말이죠? 제가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말인가요? 아니면 그가 가버렸을 때 말인가요?”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말이요.”

“제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스물 여섯 —그러니까 지금은 —서른 하나죠 —이제 서른 둘이 다 됐지요 —제가 스물 아홉이고 그는 저보다 세 살 위니까—”

그녀는 얼굴을 들고 맞은 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재촉했다.

그녀는 굳어진 표정으로 냉담하게 말했다.

“약 일년간 우리는 약혼한거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아무도 아는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문은 났었지요 —하지만 —결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그이는 떠나갔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버렸다는 거요?”

남편은 그녀의 감정을 해쳐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 의도로 잔인하게 물었다. 그녀의 가슴이 분노로 불타 올랐다.

“맞아요!” 그녀도 지지않고 그의 약을 올리려고 소리쳤다. 그는 “푸—”하고 노기 띤 한숨을 내쉬며 발을 굴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하고 그녀가 말을 계속하자, 고민이 냉소적인 어조로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아프리카 전쟁터로 떠나갔죠.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무렵 전 버티 양으로부터 그가 일사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 두달후에 그가 전사했다고—”

“그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기 전인가요?”

남편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잠시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두 눈은 보기 흉하게 수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옛날 애인과 함께 돌아다닌 장소를 살피려 온 셈이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나가려고 했군!”

그래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문에서 창가로 갔으며 뒷짐을 쥐고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손은 천박하게 보였고 뒷머리는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의사가 아닌 듯이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얼마 동안이나 그와 함께 농탕(弄蕩)을 쳤소?”

“그게 무슨 뜻이죠?”

썰썰하게 그녀가 물었다.

“얼마나 그와 더불어 재미를 보았느냐 말시오.”

그녀는 얼굴을 쳐들었지만 그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거절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재미를 봤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를 만난 첫날부터 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버티 양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지 두달째의 일이었죠.”

“그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믿고 있소?”

그는 비꼬듯이 물었다.

“사랑하고 말고요.”

“그런 식으로 당신과 관계를 끊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증오와 고민에 찬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럼 당신들 사이는 어느 선까지 간거요?”

드디어 그는 겁이 난 듯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뻥 둘러서 묻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의 유도 신문에 화가 나서 그녀는 자기를 잊고 소리쳤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우린 애인이었죠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없어요.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당신을 알기 훨씬 전에 우린 애인이었죠—”

“애인 —애인들이라고.”

성이 나서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당신은 군인하고 실컷 놀아나고, 온갖 재미 다 보고 나서 나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그녀는 남편의 신랄한 말을 듣고도 꼭 참고 앉아 있었다.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사에 빠져 들어갔다 그 말이지?”

남편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댄 의미라도 있단 말인가요?” 그녀가 잔인하게 소리쳤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비정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마비된 듯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자그마하게 위

축된 듯이 느껴졌다.

“당신은 결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어.”

몹시 빈정대며 그가 말했다.

“당신은 물은 적도 없죠.”

그녀의 대답.

“나는 그럴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아,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군요.”

온갖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은 채, 거의 어린애 같은 굳은 얼굴을 하고 그는 서 있었다. 그의 마음 속은 고민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전 오늘 그를 만났어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미쳐 있었죠.”

그녀의 남편은 깜짝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쳤다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미친 사람이죠.”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녀는 꼭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남자는 당신을 알아 보았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뇨.”

그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드디어 그는 둘 사이의 갈라진 틈의 넓이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는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서로 가까이 접근함은 상호간에 모독이 될 것 같았다.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었다. 둘 다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한 상태였고 더 미워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몇분 후 그는 아내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갔다.

6. 두번째 신랑감

“아, 나는 피곤해!”

프랜시스는 화난 듯이 소리치고 산울타리 옆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는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스러운 프랜시스의 변덕에 익숙해 있는지라 얼른 입을 열었다.

“언니는 어제 리버플에서 먼 길을 여행했으니 틀림없이 피곤하실 거예요.”

아니도 자기 언니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열네 살난 아주 포동포동한 몸을 지닌, 좀 요염해보이는 소녀였고, 세상 물정에도 밝았다. 프랜시스보다 훨씬 연상인 스물세 살 정도였고, 성격이 변덕스러워 갑자기 흥분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그 집안의 미인이고 영리한 딸이었다. 신경질적으로 그녀는 자기의 옷에 달라붙은 갈퀴덩굴(줄기에 갈퀴모양의 가시가 있어 옷에 달라붙는 잡초)을 열심히 뜯어냈다. 먹음직스런 배처럼 거무스름하고 주홍색이 돈 얼굴빛은 화사해보였고, 검은 머리로 굴곡되어 보이는 예쁜 옆얼굴은 가면처럼 조용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가는 갈색 손은 안달이 난 듯 계속 갈퀴덩굴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건 여행이 아니었어.”

프랜시스가 아니의 둔감한 말을 부인하자 아니는 묻고 싶은 표정

을 하고 언니를 쳐다보았다. 나이 어린 아나는 현실적인, 자신있는 태도로 이 변덕스러운 언니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나는 자기의 모습이 프랜시스에 두 눈에 선명히 비쳐있는 걸 발견했고 열광적인 검은 눈이 자기에게 불처럼 도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프랜시스에 이런 아주 솔직한 눈매로 인해 유별났고, 난폭하고 갑작스런 표정의 변화때문에 사람을 당황케 했다.

“왜 그러죠, 언니?”

아나는 언니의 가냘프고 고집센 몸을 두 팔로 안으며 물었다. 프랜시스에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고, 동생의 튼튼하고 싹트는 듯한 가슴에 포근히 안겼다.

“난 그저 약간 피곤할 뿐이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물론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뭘 생각하고 있죠?”

아나가 달래듯이 물었다. 그녀가 프랜시스에 대해 어른같이 대하고 거의 어머니처럼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에 아나는 걱정없는 십대 소녀였고, 남자들은 그녀에게 마치 큰 개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반면에 스물셋의 프랜시스에 남자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부근의 시골은 아침의 정적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공유지에서 모든 것이 그림자를 던지며 반짝였고 언덕은 침묵속에 열을 내뿜고 있었다. 갈색 잔디는 끄느름이 타오르는 듯했고 참나무 잎들은 갈색으로 그을리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거무스름한 나뭇잎 사이에 마을은 붉은색과 오렌지색 작은 반점처럼 빛났다. 공유지 아래쪽 시냇가의 버드나무들은 갑자기 보석처럼 번쩍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한 차례 센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나는 다시 평소의 태연한 태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무릎을 벌리고 무릎 사이에 개암 —잎 많은 백녹색 과일— 을 한 움큼 놓았다. 개암의 한쪽 면은 갈색과 핑크색 중간쯤으로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그녀는 개암을 깨어 먹기 시작했고, 프랜시스에 그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고민하듯이 생각에 잠겨 있었

다.

“아, 언니는 탐 스페들리를 알고 있죠?”

나이 어린 아나는 단단한 알맹이를 껍질에서 빼내며 입을 열었다.

“그래 알고 있지.”

프랜시스가 비꼬듯이 대답했다.

“그는 자기의 길들인 토끼와 함께 살도록 자기가 잡은 야생 토끼를 주었어요. 그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잘 됐군!”

프랜시스는 아주 초연하고 아이러닉하게 대꾸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는 절 올러톤 축제(Ollerton은 Nottingham 북방 17마일에 있고 댄스 파티를 위한 두번의 축제가 있으며, 한번은 메이데이인 5월 1일, 또 한번은 9월 26일임)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그는 목사관의 하인을 데리고 갔지 뭐예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래야지.”

프랜시스가 말했다.

“아니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전 그에게도 그래선 안 된다고 나뵈웠죠. 언니에게도 말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 사이에서 개암이 딱하고 소리를 냈고, 그녀는 알맹이를 껍질에서 빼내어 만족한 표정으로 씹었다.

“그래봤자 별 쓸모도 없어.”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전 그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왜?”

“속상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인과 함께 갈 권리가 없어요.”

“아니야, 당당한 권리가 있지.”

아주 공정하고 냉담하게 프랜시스는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절 데려간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프랜시스는 마음이 놓였고 재미있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그걸 잊었었군.”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네가 나한테 말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그는 웃고 나서 말했어요. ‘그런 일로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야.’”

“그래 맞아. 난 신경쓰지 않아.”

프랜시스는 알보듯이 중얼거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 공유지 —시든 금발을 한 엉덩퀴, 우거진 고요한 가시나무, 갈색 껍질을 한 가시금작화 등이 햇빛에 반짝이는—는 그들에게 마치 환영처럼 느껴졌다. 시내를 가로지르면 농장의 거대한 바둑판 같은 무늬가 나타났다.

흰 바둑무늬의 보리 그루터기, 갈색 네모진 밀밭, 카키색 목장, 붉은 줄무늬진 휴한지 등이 보이고, 그 주위에 언덕 바로 앞까지 멀리 뻗친 삼림지대와 장식품같이 어둡고 작은 마을 등이 눈에 띄었다. 그 언덕에서 바둑판 무늬는 점점 작아져서, 흰 네모진 보리 그루터기 밭만이 멀리에 뚜렷이 돋보였다. 열을 내는 희미한 아지랑이 속에서….

“저런, 여기에 토끼굴이 있네!”

아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한 마리 뛰어나올지 지켜볼까? 조바심할 필요는 없어.”

두 처녀는 꼼짝않고 앉아 있었다. 프랜시스는 주위에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특이한 어떤 적의에 찬 모습이였다. 자줏빛 줄기위 녹색 딱총나무 열매가 무겁게 드리우고, 하늘을 배경으로 산울타리에 떼지어 솟아오른 노란 사과나무가 반짝이고, 산울타리 아래 납작 누운 앵초의 시든 잎사귀가 이채로웠다. 이것들은 모두 그녀에게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건 두더지였다. 따스하고 붉은 흙 위에서 소리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땅을 코로 밀어대고 여기저기 발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납작하고 거무스름했다. 두더지는 줄곧 자리를 옮기고, 삶을 즐기는 유령처럼 팔팔했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프랜시스

는 깜짝 놀라 그녀의 버릇대로 그 작은 골칫거리를 죽이려고 아니에게 소리치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우울하고 힘이 빠져 그렇게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프랜시스도 그 작은 동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 저것 만지작거리고 냄새를 맡고 뚫어보는지 알아보려고 건드리고, 보지도 못하면서 뛰어다녔다. 그리고 자기의 배, 코에 닿는 뜨거운 기이한 물건과 햇빛 때문에, 황홀한 느낌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그 작은 짐승에 대하여 그녀는 몹시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이봐요, 프랜! 두더지예요.”

아니는 일어나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거무스름한 짐승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불안스러워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달아나지 않죠?”

어린 아니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살금살금 그 동물에 다가갔고 두더지는 더듬어가며 물러났다. 순간적으로 아니는 자기의 발로 두더지를 밟아 버렸다. 너무 세지 않게. 그 짐승이 구두바닥 밑에서 꿈틀거릴 때, 프랜시스는 핑크색 작은 손이 허우적거리고 뽀죽한 코가 뒤틀리고 썰룩거림을 바라볼 수 있었다.

“꿈틀거려요!”

쾌활한 소녀지만 기분이 나빠져서 눈썹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허리를 구부려서 자기의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프랜시스는 구두바닥 가장자리 너머로 두더지의 벨벳 같은 어깨가 들먹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얼굴이 애처롭게 움직이고, 납작한 핑크색 두 손이 미친듯이 꿈틀거리는 것도.

“아주 죽여!”

그녀는 얼굴을 외면하며 명령했다.

“아, 전 못해요. 죽이려면 언니가 해요.”

몸을 움츠리며 아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싫어.”

프랜시스는 낮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몇번 손을 움직인 다음, 아니는 작은 두더지의 목덜미를 잡아 쳐들

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두더지는 거무스름한 긴 주둥이를 옆으로 이리저리 돌렸다. 가장자리에 잔 핑크색 이가 드러난 입을 기묘한 타원형으로 벌리고 있었다. 앞 못보는 입을 미친듯이 벌리고 두더지는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무겁고 꼴사나운 두더지 몸이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팔팔한 작은 짐승이었지?”

두더지의 이를 보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며 아니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이지?”

프랜시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죽여야죠. 두더지가 끼치는 피해를 생각해봐요. 전 이걸 집으로 들고 가서 아파나 다른 사람보고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대로 놔둘 순 없죠.”

그녀는 손수건으로 두더지를 둘둘 말아서 쥐고 언니 옆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아내는 줄곧 꿈틀거리는 두더지를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요즘 언니는 지미에 대해 별로 말이 없군요. 리버플에서 자주 만나세요?”

아니가 갑자기 물었다.

“한두 번.”

프랜시스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 질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 지 아무런 내색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젠 지미와 가까이 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어. 그는 약혼했지.”

“약혼했다고요? 지미·바라스가! 저런 세상에! 그가 약혼하리라고 전 전연 생각지 않았죠.”

“왜 않겠니? 그도 딴 사람과 똑같이 약혼할 권리가 있어.”

프랜시스가 말했다. 아내는 두더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정말 약혼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아나가 말했다.

“왜 하지 않겠니?”

프랜시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모르겠군요. 이 못된 두더지좀 봐. 가만히 있지 못해! 누구하고 약혼했죠?”

“난 몰라.”

“오래 사귀어 왔으니 언니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젠 의학 박사가 되었으니 약혼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그게 그의 약혼과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고 말고요. 그는 자기가 큰 인물이나 된 듯이 으시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약혼한 거예요. 요놈 가만히 있지 못해? 들어가!”

그러나 두더지는 바로 이때 간신히 몸을 꿈틀거리며 빠져나와 있었다. 미친듯이 몸을 뒤틀고 보지도 못하는 뽀죽한 머리를 흔들며 고, 작은 수갱(豎坑)처럼 입을 벌린 채, 그 주름잡힌 손을 쪽 뺀고 있었다.

“들어가!”

그녀는 손수건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집게손가락으로 두더지를 찌르며 소리쳤다. 갑자기 불꽃처럼, 두더지의 입이 그녀의 손가락에 달려들었다.

“아이고! 물렸어!”

그녀는 땅바닥에 두더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앞 못보는 짐승은 얼떨떨해져서 더듬거리고 있었고, 프랜시스는 크게 소리치려고 했다. 그녀는 두더지가 순식간에 생쥐처럼 달아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 자리에서 더듬거릴 뿐이었다. 프랜시스는 빨리 도망치려고 외치고 싶었다. 아내는 핫김에 순식간에 결심하여 언니의 지팡이를 잡았다. 한번 후려치자 두더지는 뺨에 버렸고, 프랜시스는 깜짝 놀라서 몹시 충격을 받았다. 순간 가련한 두더지는 햇볕에 몸을 떨었다.

지만, 이내 힘없이 거무스름하게 땅바닥에 누워 버렸다. 땅에 떨어진 주머니처럼 꿈틀거리지도 떨지도 않았다.

“죽었어!”

프랜시스가 혈떡이며 소리쳤다.

아니는 손가락을 입에서 떼고 물린 데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죽었어요. 잘 되었죠. 사실 두더지란 못된 작은 해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나자 분노도 가셨으며 아니는 죽은 짐승을 집어 올렸다.

“예쁜 털가죽을 가졌죠?”

집게손가락으로 털가죽을 쓰다듬고 다시 뺨에 문지르며 말했다 — 생각에 잠기면서.

“조심해! 네 스커트에 피가 묻겠어!”

루비 같은 핏방울이 막 떨어지려고 작은 주둥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얼른 초롱꽃무리 위에 피를 흔들어 떨어뜨렸다. 프랜시스는 갑자기 침착해지더니 이내 어론다운 태도를 취했다.

“두더지는 물론 없애버려야 되지.”

그녀는 최근에 겪은 슬픔 때문에 약간 지루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햇빛에 사과가 반짝이고 화사한 버드나무가 빛나는 것도 이제 하찮게 보였고 쳐다볼 가치도 없어 보였다. 그녀안의 ‘어떤 것’이 죽어버려 이제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한 느낌이었다. 마음은 차분했고, 무관심 — 말없는 슬픔 뒤의 — 속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시내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걸어갔다.

“잠깐 기다려요, 언니!”

아니는 넘어질 듯이 뛰어오며 소리쳤다. 프랜시스는 소떼의 발로 밟혀서 오목해진 붉은 진흙을 바라보며 다리 위에서 서 있었다. 진흙엔 물 한 방울 없었지만 모든 것이 싱싱하고 축축한 냄새를 풍겼다. 왜 나는 아니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을까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아니는 자기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왜 나는 타인에게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할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가

고립되고 무관심한 점에서 그녀는 약간 끈질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보릿단이 줄지어 있는 밭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또 뿔뿔한 아마빛 옥수수 술이 땅을 향해 물결치고 있었다. 그루터기는 흑독한 여름 더위로 희어져서 넓은 밭은 눈부시게 빛났다. 그 다음 풀밭은 또 다른 씨앗의 때 — 거무스름한 풀밭에 작은 핑크색 꽃을 곱게 드리운 흩어진 클로버들 — 로 다정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풀밭 냄새는 희미하고 역겨웠다. 아니보다 프랜시스도 앞서서 한줄로 걸어갔다.

문가에 한 젊은이가 낮으로 오후의 가축 사료로 쓸 풀을 조금 베고 있었다. 그는 처녀들을 보자 일을 중단하고 할일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 모슬린 드레스를 입은 프랜시스는 위엄있게 다가갔다. 초연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그녀의 침착하고 태연한 걸음 걸이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지미를 오년간이나 사랑했지만 그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이 젊은이에 대해 약간 흥미를 느꼈을 뿐이었다.

이 남자 — 이름은 탐인데 — 는 중키고 그 몸에선 정력적인 느낌이 솟아나고 있었다. 매끄럽고 살결이 흰 그의 얼굴은 햇볕에 타서 갈색이 아닌 붉은색이 되었고, 그 불그레한 안색은 명랑하고 태평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보다 한 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프랜시스도 받아들이기 싫어만 보였다면 오래전에 구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처녀들과 시시덕거리며 무사안일하게 지내왔다. 오랜 세월 아무 근심 걱정없이 약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온 것이다. 다만 그는 자기가 여자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따름이었다.

그는 처녀들이 접근하자 의식적으로 자기의 바지를 약간 위로 치켜올렸다. 프랜시스도 보기드문 우아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이한 성감(性感)을 돋구었다. 그는 흥분이 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약간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어쩐지 그녀는 여느때보다 오늘 아침에, 자기의 마음을 더 설레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는 센스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목적의식을 지니지도 못한 상태였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는 그녀가 관심만 보여주면 이내 그녀를 사랑할 마음이었다. 이제 지미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제일 멋진 남자—지미, 좀 잘난 체하는 남자임을 알고 있지만—를 차지하지 못해도 그 다음 좋은 남자, 즉 탐을 차지해야 했다. 그녀는 약간 무관심한 태도로 다가갔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탐이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엔 약간 불안한 울림이 들어 있었다.

“아니예요. 전 아직 리버플에 머물러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의 친숙한 울림을 듣고 그의 마음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군요?”

그는 이렇게 받아 넘겼다.

그녀의 가슴은 그의 말이 옳다는 뜻으로 두근거렸다. 남자의 두 눈을 그녀는 들여다 보았고, 순간적이나마 두 남녀는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그는 약간 마음이 산란한 듯한 몸짓을 하며 머리에 쓴 모자를 위로 치켜올렸다. 프랜시스는 분명히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의 이상한 버릇, 그의 유머, 그의 무지, 그리고 활발치 못한 남성적 매력까지도.

“이것 봐요, 탐·스페드리.”

아니가 끼어들었다.

“두더지군! 죽은 걸 발견했소?”

그가 물었다.

“아니예요. 이 놈이 절 물었어요.”

아니가 대답했다.

“아, 알았소. 그래서 부아가 치밀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예요. 무슨 말투가 그래요?”

아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 무언가 잘못되었나요?”

“그렇게 촌스럽게 말하는 걸 못참겠어요.”

“못참는다고요?”

그는 프랜시스를 흘끔 쳐다보았다.

“좋은 말투는 아니군요.”

프랜시스는 불만스럽게 말했지만 말투에 그다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저속한 말은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는데, 그런 점에선 지미는 신사였다. 하지만 탐의 말버릇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 당신이 점잖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녀는 덧붙였다.

“알겠소.”

그는 약간 마음이 동요되어 자기의 모자를 기울였다.

“아, 당신은 평소에 점잖게 말하는 편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노력해 보죠.”

약간 긴장한 채 씩씩한 어조로 그가 약속했다.

“뭘 말이에요?”

그녀가 푹푹히 물었다.

“점잖게 말하도록 말입니다.”

그는 점잖게 대답했다. 프랜시스는 얼굴이 몹시 빨개져서 순간 머

리를 숙였는데, 이내 그의 어색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는지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말에 좀 신경을 쓰세요.”

아니는 탐에게 충고를 하며 소리치듯 말했다.

“아가씨는 두더지를 그토록 많이 때릴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는 자기에 대한 비난이 끝나 안도의 숨을 쉬면서, 팔을 비비며 놀리듯 말했다.

“아니에요. 한 대 맞고 죽은 거예요.”

프랜시스는 가벼운 말투로 대꾸했다.

“때리는 기술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텐데...”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탐이 말했다.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전 모르겠군요.”

프랜시스는 잘라 말했다.

“못한다고요?”

그는 빈틈없이 주의깊게 물었다.

“할 수 있겠죠, 필요할 때엔.”

그녀는 더 힘주어 대답했다.

그는 여자의 감정을 알아채는 데 민첩하지 못했다.

“당신은 해충을 잡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는 불안스럽게 물었다.

“필요하다고요?”

그를 지긋이 냉정하게 쳐다보며 프랜시스가 되물었다.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죠.”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탐이 대답했다. 탐은 제자리에 꺾뻗이 선 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겐 필요치 않을 거예요.”

프랜시스는 좀 알보듯이 중얼거렸다.

“예, 그렇겠죠.”

그는 콧웃하게 대답했다.

약간 불안한 듯이 그녀는 웃었다.

“물론 저도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제가 두더지를 잡아 죽이기를 원하세요?”

잠시 후에 좀 망설이며 프랜시스가 물었다.

“사실 두더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자기의 땅에 콧웃이 서서 그는 화난 듯이 말했다.

“다음에 한 마리 만나면 한번 잡아 보죠.”

그녀는 도전하듯이 말했다. 그들의 두 눈이 마주쳤으며 그 남자 앞에서 그녀는 움츠러드는 기분이었고, 자존심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운명에 사로잡힌 듯이 불안스러웠고 동시에 우쭐해졌으며, 또 당황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탐을 떠나가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두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 도무지 알 수 없군요.”

프랜시스와 둘이 밭 그루터기 사이를 지나면서 아니가 말했다.

“모를 거야.”

무슨 의미라도 있는 듯이 프랜시스도 웃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 생각엔 탐·스메들리가 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더 낮고 말고요.”

“그렇지도 모르지.”

프랜시스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다음날, 프랜시스는 몰래 끈질기게 찾아다닌 끝에, 햇볕을 즐기는 두더지 한 마리를 발견하여 죽였다. 그날 저녁 식사후 탐이 담배를 피우려고 대문쪽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죽은 두더지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 여기 한 마리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이 잡았어요?”

벨벳같은 시체를 손가락으로 잡고 세밀히 조사하며 그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당황한 기분을 감추려고 했다.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녀는 자기의 얼굴을 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물었다.

“아니, 난 알 수 없었을 뿐이죠.”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기묘하게 약간 웃었다. 숨막힐듯 했고 흥분해서 눈물이 솟아날 지경이었으며 무모한 욕망에 가득차 있었다. 그는 놀라고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살며시 자기의 손을 그의 팔에 댔다.

“저와 함께 산책이나 할까요?”

그는 어색하고 난처한 듯한 어조로 말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으며 얼굴을 돌렸다. 탐의 내부엔 욕망처럼 피가 솟아올랐고, 그의 기분은 벽차고 압도할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기의 피—그 기분을 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밀어제치고 그의 기분을 사로잡았으며, 매력적인 가냘픈 그녀의 목덜미를 바라보자 그녀에 대한 정열이 불같이 타올랐다. 물론 다정한 느낌마저 함께.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에 대한 정열을 느끼며, 그 정열을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프랜시스는 소리를 죽이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가냘픈 목소리에는 짜릿짜릿한 기쁨이 솟아나 있었다.

7. 프러시아 장교

1

그들은 새벽부터 햇볕으로 하얗게 달아오른 길을 삼십 킬로미터 이상이나 대열을 지어 행진했다. 이따금 수풀이 순간적으로 그들을 만 들었지만 다시 햇볕은 맹렬히 이글거렸다. 길 양쪽에는 넓고 얇은 계곡이 폭염 속에서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짙은 녹색의 호밀밭, 자라나는 담황색 옥수수들, 휴한지(休閑地)와 목장, 그리고 검은 솔밭이, 번쩍이는 하늘 아래 더위에 맥빠진듯 도형(圖形)을 이루어 넓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바로 정면엔 산들이 연한 푸른 색으로 몹시 고요히 줄지어 나타나고, 깊숙한 대기 속에 흰 눈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연대는 그 산들을 향해 호밀밭과 목장 사이를, 그리고 간선도로 양쪽에 규칙적으로 심어진 말라버린 과수 사이를 지나 계속 행진했다. 반들반들한 암녹색 호밀이 숨막힐 듯한 열을 내뿜었고 정면의 산들이 점차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군인들의 발이 점차 뜨거워지자 땀방울이 철모 밑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 내렸다. 등에 멘 배낭은 어깨에 닿아도 이제 뜨거운 촉감을 주지 못하고 그대신 싸늘하고 따끔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땅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눈앞의 산들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산들은 반은 대지, 반은 창공이 되어 겹겹으로 연속되고,

하늘은 담청색 봉우리 속에 여러 줄의 층안 —눈으로 덮인— 이 박힌 요새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이제 행진을 해도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발을 절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는 메스꺼웠고 처음 일 마일 정도 걸을 때까지는 숨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솟아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행진하면서 그 고통을 없애버렸다. 어쨌든 그건 타박상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넓적다리 뒤에 입은 깊은 상처였다. 아침에 걷기 시작한 때부터 그 상처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픔을 참으며 자신을 억제한 결과 이제 가슴 속에 단단한 뜨거운 웅어리가 되어 있었다. 호흡을 해도 공기가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새벽에 커피를 마실 때 장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장교의 일을 돌보는 병사는 그 떠는 손을 두번이나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그는 멋진 풍채의 대위가 앞의 농가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대위는 주홍색 소매 표지 —병과를 나타내는— 가 달린 연한 청색 군복을 입고 검은 철모와 칼을 찻는데, 그 쇠붙이가 햇빛에 번쩍였다. 대위는 훌륭한 군인다운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쳤다. 비단 같은 털의 적갈색 군마에서 땀방울이 검은 줄을 그으며 흘러 내렸다. 장교의 부하인 그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는 그 장교의 동작이 자기와 관계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지겹지만 별수없이 그림자처럼 말탄 장교를 말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 장교도 뒤 따르는 군대의 발소리와 그 속에 끼어 있는 그 부하를 의식하고 있었다.

대위는 사십대 정도의 키 큰 남자로 관자놀이 부분에 흰 머리가 많이 나고, 체격은 멋지게 균형 잡혀 있었다. 대위는 서부에서 가장 뛰어난 기수중의 하나였다. 그 부하가 장교의 몸을 손으로 비벼줘야 했을 때, 그는 허리의 놀랍게 발달된 근육 —승마로 인한— 을 보고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장교의 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 정도로 밖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가 장교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사실 그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장교의 머리카락은 뽀뽀하고 불그스름한 갈색이었다. 장교는 머리를 짧게 깎았고 수염도 짧게 다듬었다. 수염은 둥글고 잔인해보이는 인상의 입 위에 뽀뽀이 곧두서 있었다. 얼굴은 좀 엄한 표정을 드러냈고 뺨엔 살이 거의 없었다. 아마도 얼굴에 난 깊은 주름과 급한 성미를 드러내는 팽팽한 이마 때문에 그는 더 멋있게 보였으리라. 이것은 인생과 싸우는 한 남자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장교의 연한 푸른 눈은 항상 냉정한 불꽃이 번뜩였고 그 위에는 근사한 눈썹이 덩수룩하게 휘어져 있었다.

장교는 오만하고 거드름빼는 프로이센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폴란드의 백작부인이었다. 젊어서 너무 많은 노름빚을 지게 되어 군인으로의 출세를 스스로 막아버렸다. 그리하여 지금도 보병대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않았으며 대위의 지위로서는 결혼할 형편도 못되었고 또 결혼할 의욕을 일으킨 여성도 없었다. 여가에는 승마를 즐겼고 —이따금 자기 소유의 말을 타고 경주에도 출전했다— 또 장교클럽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종종 정부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재미를 본 뒤에는 이마를 더 긴장시키고 적의와 신경질이 가득한 눈을 번쩍이며 근무에 돌아갔다. 하지만 부하에 대해서는 그저 인정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대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를 두려워했지만 크게 증오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따금 화를 내면 악마 같이 날뛰기도 했지만 부하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자기의 일을 돌보는 그 부하에 대해 장교는 처음엔 냉정하지만 공정하게 대했으며 그다지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사소한 일 때문에 법석을 떠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 부하는 장교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될 지, 그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면 그의 마음에 들 지 등등에 대해서만 알게 되었고, 그 밖에는 장교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부하는 스물두 살 정도의 청년이었고 중기였지만 훌륭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지는 강하고 튼튼했으며 안색은 가무잡잡하고, 부드럽고 검은 청년다운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에게 어딘가 따스하고 활기찬 데가 있었다. 몹시 뚜렷한 눈썹 밑에는 검고 무표정한 두 눈이 보였고, 그 눈은 깊이 생각해본 일도 없이 그저 감각으로 직접 생명을 받아들여 본능으로 행동해 온 것 같았다.

이 장교는 점점 자기의 일을 돌보는 그 부하의 젊고 활기찬 무의식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젊은이가 곁에서 시중들고 있을 때 그 육체의 감각에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이 지긋한 남자의 굳어버린 육체—활기가 거의 없어지고 유연성이 사라진—에겐 하나의 따뜻한 불꽃 같은 것이었다. 그 젊은이에겐 어딘가 펄 자유롭고 자족적인 데가 있었고, 그 동작엔 장교로 하여금 그를 의식케 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그 프로이센 사람의 신경을 건드렸다. 장교는 부하에 의해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의 부하를 쉽사리 교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제 장교는 부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그를 피하려는 듯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젊은 병사가 아무 생각없이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장교는 자기의 부하를 주시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젊고 단단한 어깨와 목의 굴곡부를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그러면 또 신경질이 나는 것이었다. 햇빛에 탄 병사의 젊고 보기좋은 농부 같은 손이 빵이나 포도주병을 잡는 것을 보면, 장교의 혈관 속에 증오나 분개가 번개처럼 일어났다. 그 젊은이가 어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상관을 그토록 화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이의 자유로운 어린 동물 같은 행동에 내재된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정확성이었다.

한번은 포도주병이 넘어져서 붉은 액체가 테이블보 위에 왈칵 쏟아진 일이 있었다. 장교는 그걸 보자 욕설을 퍼부으며 벌떡 일어났

다. 불 같은 푸르스름한 두 눈이 젊은이의 눈을 순간적으로 흘겨보았다. 그런 응시는 그 부하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무엇인가 깊숙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전에 어떤 것도 닿은 적이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 무언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오히려 멍해졌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타고난 원만한 성격의 일부가 사라지고 그 대신 약간 '불안한 것'이 들어섰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젊은이는 그후부터 자기의 상관을 만나는 것을 사실상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 강철 같은 푸른 눈과 험악한 눈썹을 잊지 않았고 두번 다시 그런 눈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장교의 시선을 보려고하지 않았고 자기의 상관을 피했다. 그는 좀 불안해하면서 복무 기한이 끝날 앞으로의 삼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장교의 앞에 서면 중압감을 느꼈으며 장교보다 그 부하 쪽이 더 혼자 있고 싶어했다. 그는 부하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했다.

그는 장교 밑에서 그의 일을 돌보며 벌써 일년 이상을 지냈으며 자기가 해야할 일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임무를 자기에게 당연한 일처럼 힘들이지 않고 처리해 갔다. 상관과 그의 명령을 마치 태양과 비가 존재하듯이 그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일은 그 부하를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말려들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기의 상관과 역지로 그 지위를 바꿔야한다면, 그는 마치 사로잡힌 야수처럼 되어서 달아나야할 것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 젊은 병사의 영향력은 훈련으로 굳어진 장교의 몸에 침투되었고, 그의 남성다운 성격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장교는 세련된 몸가짐을 지닌 —게다가 길고 멋진 두 손을 가진— 신사였기 때문에 타고난 자아(自我)를 혼란시키는 듯한 행동은 삼가했다. 장교는 원래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따금 결투를 한 적은 있었고, 병사들 앞에서 심한 분노를 터뜨린 일도 있었다. 장교는 자기가 항상 폭발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군대에 복무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제했다. 이에 반해 그 젊은 부하는 따스하고 원만한 성격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기의 행동자세에서도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의 동작엔 야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처럼 일종의 묘미(妙味)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그의 상관을 더욱 화나게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장교는 그에 대한 자기의 감정의 중립성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는 자기의 부하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다. 장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를 지켜보고 엄한 명령을 내렸으며 가능한 한 그에게서 시간을 빼앗으려 했다. 이따금 그에게 몹시 화를 내고 북아탔다. 그러면 그 부하는 마치 장교의 욕설이 들리지 않는 듯이 태연한 태도를 취하고, 고함소리가 가라앉기를 새빨간 우울한 얼굴을 하고 기다렸다. 상관의 어떤 말도 그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의 감정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자기자신을 잘 자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왼쪽 엄지 손가락에 상처 자국이 있었고 깊은 꿰뚫은 자국이 그 마디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장교는 그 자국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느꼈고 그 상처에 무언가 조치를 해주고 싶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상관의 눈에 띄었고, 햇볕에 탄 젊은 손에 잔인하고 보기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장교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 그 부하가 테이블보의 주름을 펴고 있을 때, 그 엄지 손가락을 연필로 꼭 누르고 물어보았다.

“그 상처는 어떻게 난 거지?”

그 부하는 움츠리더니 뒤로 물러서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나무 도끼로 그랬죠, 대위님.”

그는 얼른 대답했다.

장교는 더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부하는 더이상 말이 없었다. 그 부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상관은 몹시

뿔로통해졌고 부하는 장교를 피해버렸다. 그 이튿날 장교는 그 엄지 손가락을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으로 의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꼭 잡아보고 싶었다. 뜨거운 불꽃이 그의 피 속을 스쳐갔다.

장교는 자기의 부하가 곧 제대하게 되어 기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부하는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하고 있었으며 장교는 미칠 정도로 약이 오르고 있었다. 자기의 부하가 자리에 없으면 편히 쉴 수 없었고 부하가 나타나면 고통스러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장교는 자기 부하의 근사한 검은 눈썹—무뚝뚝한 검은 눈 위의—을 증오했고, 아무리 군사훈련을 받아도 유연성(柔軟性)을 잃지 않는 그 사지(四肢)의 자유로운 동작을 혐오(嫌惡)했다. 그래서 장교는 가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부하를 학대했고 신랄하게 야유하고 모욕을 주었다. 그러면 그 부하는 점점 말이 적어지고 무표정한 얼굴을 할 뿐이었다.

“무슨 놈의 짐승이 널 키웠단 말이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내가 말할 때엔 내 눈을 쳐다봐!”

그 말을 듣고 부하는 검은 두 눈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지만 그 눈엔 똑바로 응시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있지 않았다. 그는 되도록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회미한 사시안(斜視眼)으로 바라보았고, 상관의 눈의 푸른 빛을 인지하면서도 그 속의 표정을 읽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를 보고 상관의 얼굴빛은 창백해졌고 붉으레한 눈썹은 경련을 일으켰다. 장교는 다시 명령했지만 부하의 반응은 없었다.

한번은 그의 무거운 군용장갑을 얇은 부하의 얼굴에 던졌다. 그러자 불 속에 짙을 던졌을 때 불꽃이 타오르듯 병사의 검은 눈에 번쩍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고 장교는 만족감을 느꼈으며, 약간 떨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달 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었다. 그 부하는 본능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남은 기간을 보내려고 했다. 그는 자기의 상

관이 마치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권위의 상징인양 장교를 섬기려 했다. 그의 모든 본능은 장교와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고 뚜렷한 중요까 지 피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상관의 걱정애 비례하여 자기도 모르게 중요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군대를 떠나면 마음껏 상관에 대한 중요 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원래 그는 활동적이고 친구도 많았다. 그 친구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나 하고 회상해 보았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고독해지고만 것이다. 이젠 그 고독감이 점차 커가고 있었다. 그는 남은 복무기간중 고독감으로 괴로워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장교는 점점 제정신이 아닌 듯한 징후를 보였으며 부하는 이때문에 깊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 부하에겐 산림근처에서 자란 애인 — 원시적이고 개성이 강한 — 이 하나 있었다. 두 연인은 별로 말도 하지 않고 함께 거닐었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팔로 그녀를 안고 몸을 만져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면 그는 마음이 편해지고 장교를 무시해 버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애인을 자기의 가슴에 꼭 껴안음으로써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를 위해 존재하는 성 싶었고, 둘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장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부하를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우울한 표정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 이따금 장교와 부하의 눈이 마주쳤다. 젊은이의 눈은 우울하고 어두웠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며, 장교의 눈엔 불안한 경멸이 나타나고 비웃는듯 했다.

장교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젊은 부하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우매하고 고집센 부하에 대해 화를 내는 감정만이 아님을 인식하려 하지 않았다. 장교의 의식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무의식중의 반감을 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드디어 장교는 혁대 끝으로 부하의 얼굴을 힘껏 후려쳤다. 부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두 눈에 고통스런 눈물이 떠오르며 입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자 장교는 온몸이 떨리는 깊은 쾌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음을 그 자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놈의 태도가 너무나 분을 돋구었기 때문이다. 그의 신경은 망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장교는 여자를 데리고 며칠간 멀리 놀러 갔다.

여자와 노는 것은 즐거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그는 여자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허가받은 기간 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휴가가 끝나자 장교는 조바심과 괴로움, 그리고 비참한 기분으로 고민하면서 돌아왔다. 그는 저녁내내 승마를 하고 나서 곧바로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다. 부하는 자리에 없었다. 장교는 멋진 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꼼짝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모든 피가 썩어가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그 부하가 들어왔다. 튼튼하고 느긋한 젊은 모습, 멋진 눈썹, 술 많은 검은 머리를 장교는 지켜봤다. 일주일의 지나자 젊은 부하는 이전의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장교의 두 손은 경련을 일으켰고 미칠 듯한 불꽃이 몸 안에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움직이지 않고 차렷자세를 취한 채 뻗뻗이 서 있었다.

장교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부하는 뭔가 열중하는 듯했고 접시를 덜거덕거리고 있었다.

“자네 뭔가 서두르고 있나?”

장교는 부하의 열중해 있는 듯한, 상기(上氣)한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내 질문에 대답하지 그래?”

장교가 재촉했다.

“예.”

하고 그 부하는 깊이 포갠 군용접시를 들고 서서 대답했다. 장교는

다시 기다리고 나서 그를 쳐다보고 또 물었다.

“자네 서두르고 있나?”

“예, 대위님.”

그 대답은 듣는 이의 가슴을 불꽃으로 관통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전 외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은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는 잠시 주저하고 있었다. 한편 장교는 이상하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부하는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내일밤도 할 일이 있어. 내가 허가를 주지 않는 한 밤엔 계속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젊은 수염이 난 그 입이 꼭 다물어졌다.

“예, 대위님.”

순간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며 부하는 대답했다. 그는 다시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자넨 왜 귀에다 연필을 꽂고 있지?”

그는 망설이더니 말없이 걸어갔으며 문 밖에 접시를 쌓아놓고 귀에서 연필을 빼내어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자기 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카드에 시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부하는 저녁먹은 식탁을 정리하려고 다시 돌아왔다. 장교의 두 눈은 찡찡해 있었고 약간 열을 띠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귀에다 연필을 꽂고 있었지?”

장교는 다시 물었다.

부하는 두 손에 가득히 접시를 들었다. 장교는 커다란 초록색 난로 곁에 서 있었다. —얼굴에 약간 미소를 띠고 앞으로 턱을 쑥 내밀고 서. 젊은 부하는 상관을 쳐다보자 가슴이 이내 달아올랐고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문쪽으로 가

서 접시를 내려놓으려고 몸을 구부렸을 때 뒤에서 발로 걷어차여 앞으로 엎어지고 말았다. 접시는 계단을 와르르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는 난간의 기둥을 가까스로 붙들었다. 그가 일어나려고 하자 거둬 발로 몹시 차였기 때문에 잠시 아픔을 참으며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장교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래 층에 있던 하녀는 계단을 올라다보고 접시들이 다 깨진 것을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장교의 심장은 크게 고동치고 있었다. 장교는 바닥에 흘러면서 포도주 한잔을 따라 차디찬 녹색 난로에 기대어 꿀꺽 마셨다. 장교는 부하가 계단에서 깨진 접시를 주워모으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취한 듯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장교는 기다렸으며 부하는 다시 들어왔다. 그 젊은 부하가 고통으로 어쩔 줄 모르고 발이 비틀거리는 걸 보고 대위의 가슴은 즐거운 ‘고통’을 느꼈다.

“더 똑똑히 굴어!”

장교가 소리쳤다.

그는 차렷자세를 취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

“알겠습니다.”

그 젊은 부하는 애처로운 젊은 수염과 흑색 대리석 이마에 멧진 눈썹을 뚜렷이 나타내며 상관 앞에 섰다.

“난 네게 질문을 했었지.”

“옛!”

장교의 어조는 산(酸)처럼 매서웠다.

“왜 넌 귀에 연필을 꽂고 있었지?”

또다시 부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검은 긴장한 두 눈으로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상관을 쳐다보았다. 그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육중하게 심어진 듯이 서 있었다. 상대방을 위촉시키는 미소가 장교의 두 눈에 떠오르더니 한 발을 쳐들었다.

“전 —전 잊었습니다.—”

부하는 헐떡였다. 그의 검은 눈은 상대방의 춤추는 푸른 눈을 응시

하고 있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었나?”

장교는 부하가 말하려고 애쓸 때 그의 가슴이 부풀어 오름을 볼 수 있었다.

“저는 글씨를 썼습니다.”

“뭘 썼지?”

그는 눈을 들어 상관을 보고 다시 눈을 숙였다. 장교는 그의 혈떡이는 소리를 들었다. 장교의 푸른 눈에 미소가 떠올랐다. 부하는 말라버린 목구멍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장교의 얼굴에 미소가 불꽃처럼 번뜩이더니 부하의 넙적다리를 한 대 걷어찼다. 그는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듯이 변하고 검은 두 눈만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뭇 말인가?”

부하의 입은 침이 말라버려 혀가 건조한 갈색 포장지 위에 놀듯이 움직였다. 그는 목구멍을 움직여 보았다. 장교는 또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그는 뻗뻗해지고 말았다.

“시를 조금 말입니다.”

바삭바삭하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왔다.

“시라고? 무슨 시야?”

음울한 미소를 띠우며 장교는 캐물었다.

다시 부하는 목구멍을 힘겹게 움직였다. 대위의 가슴은 갑자기 우울해졌고, 불쾌하고 피로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 애인에게 주려고 합니다.”

메마른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장교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테이블을 치워주게.”

“꿀꺽!” 하고 병사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났다. 다시 “꿀꺽!” 하고 소리가 나더니 좀 똑똑한 말이 나왔다.

“엣!”

젊은 부하는 늙은이의 표정을 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장교는 혼자 남게 되자 어떤 일이든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을 쫓쫓이 하고 있었다. 그의 본능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마음 속 깊은 데서 강한 정열의 만족감이 아직도 힘차게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뭔가 마음속에서 무섭게 무너지는 것이,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그건 모두 고통스러운 반동이었다. 그는 거기서 한시간이나 혼돈된 감각의 상태에서, 그러나 자기의 의식을 공백상태로 유지하고 마음이 뭔가 생각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쫓쫓이 서 있었다. 그는 최악의 상태가 지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완전히 취해 버렸다. 드디어 장교는 정신없이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잠이 깨자 그의 본성의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생각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웠으며, 자기의 마음이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억제해 버렸다. 그 결과 의식인으로서의 그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는 다만 취한 후의 기분만 느꼈고, 몸도 피곤했지만 그 사건 자체는 몽롱한 상태로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자기가 한순간 격정에 빠져버렸던 사실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부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장교는 그 전날의 아침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고 간밤의 일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고—그걸 부인함에 드디어 성공했던 것이다. 그는 그런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그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간에 그건 어리석고 순종치 않은 저 부하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었다.

병사는 잠이 올 때까지 멍한 상태로 계속 돌아다녔다. 목이 타는 것 같아서 맥주를 좀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알콜이 들어가자 그의 쓰라린 감정이 되살아났으며 그는 그 감정을 참아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자기 속에 들어 있는 ‘보통 사람’의 10분의 9가 무감각상태에 빠진 것처럼 힘이 빠져버렸다. 그는 보기 흉한 상태로 술을

걸어갔다. 여러 번 차인 것을 생각하자 울화가 치밀었고, 앞으로 또 방 안에서 체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달아오르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지게 걷어채인 것을 생각하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제 애인에게 주려고 합니다.”라고 할 수 없이 고백하고 말았었다. 너무나 심하게 걷어채여 울고 싶은 마음도 나지 않았다. 그의 입은 바보처럼 조금 벌어져 있었고 공허하고 지쳐버린 기분이었다. 그 결과 그는 고통스러운 듯이 아주 천천히 서투르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옷술을 되는데로 만지작거리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그의 사지와 턱은 힘이 쑥 빠져 맥이 풀렸고 몹시 피곤했다. 드디어 그는 침대에 들어가 폭 쓰러져 힘없이 잠들어 버렸다. 그건 수면이라기보다 마비상태였으며, ‘고민의 미광(微光)’에 시달린 혼수상태의 하룻밤이었다.

그 다음날엔 군사훈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잠이 깨어 있었다. 가슴 속 고통스러운 아픔, 목구멍의 건조, 변함없는 무섭고 비참한 느낌 등이 잠을 깨게 했고 이내 기분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생각지 않아도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이 났고, 자기의 할 일이 있는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어둠이 방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힘없는 몸을 움직여 상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함을 생각했다. 아직도 젊은 나이로 피로움을 별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암흑에 싸여 고통이 누워있도록 무한히 밤이 계속되었으면 하고 원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날이 밝아움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일어나서 장교의 말에 안장을 놓고 커피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없이 것이다.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병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장교에게 커피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 그는 머리가 멍하게 되어 자기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아무리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만은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그는 자기가 무기력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동작의 하나 하나를 굳은 의지로 —억지로— 뒤에서 밀어내듯이 해야만 했다. 절망적인 기분이 들고 현기증이 나고 자기가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얼마 후에 그는 침대를 붙잡았다. 찌르는 듯한 아픔이 일어나 넓적다리를 살펴보니 거무스름한 살 위에 까만 상처 자국이 보였다. 상처난 곳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래도 그는 정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와 장교사이의 일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자기와 대위.

서서히 조심하면서 그는 옷을 갈아입고 억지로 내키지않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는 간신히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아픈 때문에 오히려 그의 둔한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도 가장 싫은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었다. 쟁반을 들고 장교의 방으로 올라가야 했다. 장교는 창백하고 피곤한 모습을 하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부하는 상관에게 인사했을 때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조금씩 그는 용기를 되찾았고 이젠 제정신이 든 것 같았다. 그러자 이번엔 장교의 모습이 흐릿하게 되어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부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느낌에 집착하려 했다 —장교가 없어진다면 자기는 살아 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장교가 커피를 들었을 때 두 손이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자 그는 모든 일이다 수포로 돌아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무너지고 엉망이 된 듯한 기분이 되어 방을 나왔다. 그리고는 장교가 말을 타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총과 배낭을 진 채 고통중에서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두 눈을 감아야 할 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만사에 대해 눈을 감아야 하듯이. 탈 듯한 건조한 목구멍을 하고 행군을

하는 긴 고통을 위해서만, 잠과 같은 무거운 의식 —자기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으로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성 싶었다.

2

그는 타는 듯한 목구멍의 고통에도 차차 익숙해졌다.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가 하늘 높이 빛나고, 백녹색의 빙하가 아래 계곡의 창백한 하상(河床)을 지나 구불거리는 것이 거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열과 갈증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는 불평 한마디없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는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강 위엔 물과 눈의 파편처럼 두 마리의 갈매기가 눈에 띄었고, 햇빛을 담뿍 받은 녹색 호밀의 냄새가 코를 찔러 메스껍게 했다. 행군은 거의 악몽처럼 단조롭게 계속되었다.

큰길 근처의 한 농가 —나지막하게 넓은 자리를 차지한— 에 이르자 물통이 몇 개 땅바닥에 놓고, 군인들이 그 둘레에 모여들어 물을 마셨다. 철모를 벗은 군인들의 젖은 머리에서 땀으로 김이 무럭무럭 솟아올랐다. 장교는 말을 탄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가 쓴 철모는 밝고 난폭한 두 눈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으며, 그의 수염·입·턱 등이 햇빛을 받아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 병사는 말탄 상관의 앞에서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상관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속 빈 조개처럼 창자가 드러나서 안이 빈 것 같았다. 햇빛 아래 기어다니는 그림자인양 자기가 허무한 존재로 느껴졌다. 비록 목이 타긴 했지만 장교가 옆에 있는 걸 생각하니 물도 거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땀으로 젖은 머리를 닦기 위해 철모를 벗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그늘에 머물러 있고 싶었고 억지로 의식 속에 되돌아오고 싶지도 않았다. 출발시간이 되자 장교의 가벼운 뒤꿈치가 말의 배를 차는 것이 보였다. 장교는 말을 달리게 하여 그 곳을 떠났고, 그 부하는 다시 텅 빈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덥고 밝은 아침에, 어떤 것도 그에게 살만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놓여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의 ‘공백’인 듯이 느껴졌지만, 그의 상관인 장교는 더 거만해지고 부하를 못살게 들볶는 듯했다. 그 순간 뜨거운 섬광(閃光)이 그 부하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장교는 점점 활기가 넘치고 자부심이 강해졌지만 그 부하는 반대로 그림자처럼 공허한 존재에 불과했다. 또다시 섬광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눈이 아찔해졌다. 그러나 심장만은 점점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연대는 병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바퀴 크게 돌려고 언덕을 올라갔다. 아래쪽에서 나무 사이로 농장의 종이 울려왔다. 맨발로 무성한 풀을 베던 일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어깨에 땀 큰 낫이 번쩍이는 긴 손톱처럼 등 뒤에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 듯했고, 자신은 아득한 꿈 속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고,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공백’에 불과한 듯했다.

병사들은 햇빛에 번쩍이는 언덕을 서서히 기어 올라갔다. 점차 그 부하의 머리는 울동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이따금 눈 앞이 깜깜해 지기도 했다. 마치 검게 그을린 유리를 통해 보듯이 세계가 덧없는 그림자이거나 가공의 것처럼 느껴졌다. 걸으면 머리가 몹시 아팠다.

공기는 너무나 향기로웠고 산들바람 한 점 없었다. 모든 싱싱한 녹색 식물들이 수액을 내뿜는 듯했고, 마침내 공기는 죽은 듯이 건조해지고 녹색 향기로 메스꺼워졌다. 진짜 꿀 같은 클로버 냄새가 흘러왔고, 조금 지나자 희미하고 매콤한 냄새가 풍겨왔다. 너도밤나무 가까이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엔 이상한 덜거덕 소리가 났고 숨 막힐 듯한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양떼 곁을 지나고 있었다. 흑색 작업복을 입은 목동이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왜 양들은 이렇게 뜨거운 햇볕 밑에서도 떼지어 있어야 하나? 그 부하는

자기가 그 목동을 쳐다볼 수 있어도 상대방은 자기를 볼 수 없으리라 상상했다.

드디어 행군이 정지되었다. 그들은 라이프츨을 원추형으로 세우고, 그 주위에 둥그렇게 배낭을 내려놓고, 조금 흠어져서 언덕의 좀 높은 둥근 곳에 앉았다. 잡담이 시작되었고, 병사들은 더워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활기가 넘쳤다. 그 부하는 조용히 앉아서 이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저쪽 지면에서 솟아오른 푸른 산들을 바라보았다. 굽이치는 산맥 속에 푸른 색 우묵한 곳이 한군데 보였고, 거기서 산기슭쪽으로 넓고 창백한 하상(河床)이 나타나서, 검은 소나무숲 속 핑크빛의 회색 사주(砂洲) 사이에 백녹색 물이 퍼지고 있었다. 그 물은 아주 멀리까지 흘러갔으며 강은 언덕을 내려서 흐르는 것 같았다. 뗏목 하나가 일 마일 쯤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모든 풍경이 낮은 나라의 풍경 같았다. 더 가까이에 붉은 지붕의 넓은 농가 한 채 —흰 토대 위에 네모진 창문이 여기저기 보이는— 가 숲 가장자리 너도밤나무가 우거진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호밀과 클로버, 희끄무레한 녹색 곡식이 자라는 밭이 길게 뻗어 있었다. 또 그의 발 밑, 둥근 언덕 아래엔 거무스레한 늪이 보였고, 거기에는 금매화가 가는 줄기 위에 숨죽인 채 고요히 피어 있었다. 그리고 창백한 금빛 거품 같은 것이 약간 분출되어 그 조각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의 눈 앞의 신기루 —고운 색깔의— 속에 나타난 것이 있었다. 담청색과 주홍색의 작은 장교의 모습이었다. 그는 언덕의 판판한 곳을 따라 고른 보조로 말을 달리며 발 사이로 나타났다. 장교는 깃발로 신호를 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말탄 사람은 오만하고 당당하게 움직였다. 그 신속하고 빛나는 모습에 아침의 모든 빛이 집중되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희미하게 빛나는 그림자로 변했다. 냉담한 태도로 젊은 병사는 앉아서 그 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저 복종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말이 최후의 험준한 길에 이르러 천천히 걷게 되자 갑자기 큰 섬광이 그의 육체와 영혼에 번쩍었다. 그는 앉아서

기다렸다. 그의 머리의 뒷부분에 육중한 불의 일격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두 손을 움직였을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말탄 장교는 천천히 오만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병사의 마음 속에 긴장은 점점 더해갔다. 안장 위에서 태연한 자세의 장교를 바라보자 또 한번 번쩍하고 불빛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장교는 언덕에 밀집된 담청색과 주홍색으로 된 군복과 검은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부하들을 거느리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고, 몹시 자랑스러운 기분에 빠져들게 했다. 그 병사도 그들 안에 섞여서 똑같이 복종하고 있었다. 장교는 등자(燈子) 위에서 몸을 좀 똑바로 일으켜서 둘러보았다. 그 부하는 우울한 얼굴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장교는 다시 안장 위에 앉았다. 너도밤나무 열매처럼 갈색인, 가는 다리의 멋진 말이 당당하게 언덕을 올라갔다. 장교는 부대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병사들과 땀과 가죽 등의 뜨거운 냄새 속으로. 그는 그 냄새에 익숙해 있었다. 중위와 한마디 말을 나눈 다음 장교는 서너 걸음 더 올라가서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땀에 젖은 말은 그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장교는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 사이에선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병사를 쳐다보았다.

젊은 병사의 심장은 가슴 속에 불이 타올랐고 숨쉬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다. 장교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 명의 젊은 병사가 두 개의 물통을 들고 양지바른 녹색 들판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테이블 하나가 큰 나무 밑에 놓여 있었고 야원 중위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장교는 갑자기 힘을 내어 그 병사를 불렀다.

상관의 명령이 귀를 울리자 뜨거운 불꽃이 젊은 병사의 목구멍에 뛰어들었고, 그는 숨막힐 듯한 기분으로 맹목적으로 일어섰다. 그는 장교의 아래에 선 채 그에게 경례했다. 부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장교의 목소리엔 분명히 떨리는 음조가 들어 있었다.

“주막에 가서…을 가져와.” 장교는 명령했다. “빨리!” 장교는 다시

뒹뒹였다.

이 마지막 말을 듣고 그 병사의 가슴은 펄쩍 뛰었고 순간 몸에 힘이 솟아남을 느꼈다. 부하는 기계적으로 명령에 복종하여 곧바로 무겁게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군화 위를 덮은 바짓가래이가 부풀어 올라 마치 곰과 같은 모습이었고, 장교는 이 맹목적인 달음질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병사의 몸의 '표면' 뿐이었다. 속에서는 점차 하나의 응어리가 이루어지고 이 응어리에 젊은 생명의 모든 정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임무를 마치고 신속히 언덕으로 돌아왔다. 걸으면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복판 응어리에는 그 자신이, 그 자아가 뚜렷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건 견고한 것이어서 쉽사리 깨뜨려질 것이 아니었다.

장교는 올라가서 숲 속으로 들어갔고, 부하는 뜨거워서 냄새가 지독한 부대의 한가운데를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는 이제 자기 안에 기묘한 정력의 덩어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문에 이제 장교의 편이 사실상 그보다 실체가 없는 존재였다. 그는 숲 속 녹색의 입구로 다가갔다. 반쯤 그늘진 곳에 장교의 말이 서 있었고, 밝은 햇빛과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가 그 갈색 몸뚱이에서 춤추고 있었다. 근처에는 최근에 나무들이 벌목된 빈 터가 있었다. 번쩍이는 컵 모양의 햇빛 옆 금녹색 그늘안에, 푸른 색과 핑크 색의 두 사람 모습이 보였으며, 핑크색 부분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대위가 중위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부하는 확히 트인 빈 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거기에는 나무의 큰 줄기 —껍질이 벗겨져 번쩍이는— 가 갈색 피부의 별거벗은 몸뚱이처럼 누워 있었고, 나무의 파편이 반사된 햇빛처럼 밝혀진 지면에 흩어져 있었다. 벌목된 나무들의 큰 밑둥이 여기저기 보이고 싱싱하고 판판한 우듬지가 돋보였다. 그 너머에는 너도밤나무의 잎이 햇빛을 받아 녹색으로 번쩍었다.

“그럼 내가 먼저 가지.”

대위가 하는 말이 그 부하에게 들렸다. 중위는 경례를 하고 성큼 성큼 걸어갔다. 부하는 앞으로 나아가 장교 앞으로 다가서자 뜨거운 선팅이 또다시 배를 뚫고 지나갔다.

장교는 젊은 부하가 좀 우둔한 모습으로 비틀 비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혈관도 이내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면 한 남자 대 한 남자로 대하는 것이었다. 장교는 정색을 하고 머리를 숙인 채 다가오는 부하 앞에서 주저앉았다. 부하는 몸을 굽히고 판판한 그루터기 위에 음식을 놓았다. 장교는 햇볕에 탄 반짝이는 부하의 손을 지켜보았다. 그 젊은 부하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부하는 넓적다리에 병을 기대어놓고 마개를 따서 컵에 맥주를 따랐다. 그는 줄곧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장교는 컵을 받아 들었다.

“몹시 덥군!”

장교는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불꽃이 부하의 가슴에서 분출되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옛! 대위님.”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교의 맥주 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주먹을 꼭 쥐어서 손목이 몹시 아팠다. 그러자 병마개 닫히는 희미한 소리가 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장교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얼른 눈을 돌렸다. 장교가 다시 몸을 구부리고 그루터기에서 빵 한 조각을 집는 것이 보였다. 땀뻑한 몸이 자기 밑으로 구부리는 걸 보고 또다시 불꽃이 젊은 부하의 몸을 관통했고 두 손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는 탄 데로 시선을 돌렸으며, 장교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걸 느낄 수 있었다. 장교가 빵을 떼었을 때 빵 조각이 땅에 떨어지자 다른 조각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나이는 긴장한 채 가만히 서 있었으며, 장교는 힘들여 빵을 씹고 부하는 주먹을 꼭 쥐고 얼굴을 돌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때 젊은 부하는 움찔했다. 장교는 컵의 뚜껑을 다시 열었다. 부하는 마치 홀린 듯이 컵의 뚜껑과 손잡이를 쥐고 있는 흰 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교는 잔을 들었고 부하는 잔의 움직임에 눈으로 쫓고 있었다. 장교의 마른, 그러나 힘찬 목이 마실 때마다 상하로 움직이고, 완강한 턱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젊은 부하의 손목을 경련시켰던 충동이 갑자기 풀려난 것 같았다. 강한 불꽃에 의해 자신이 둘로 분열되기라도 한듯이 펄쩍 자리에서 뛰었다.

장교의 박차는 나무뿌리에 걸렸고 그는 ‘턱’ 소리를 내며 뒤로 쓰러졌다. 등 한복판이 무참히도 끝이 뻗은 그루터기에 부딪쳤고 컵이 날아갔다. 순간 병사는 심각하고 진지한 낯으로 아랫입술을 깨물며 무릎으로 장교의 가슴을 누르고, 그루터기의 저쪽으로 턱을 밀어 붙였다. 마음 속 깊이 즐거움을 느끼며, 손목의 긴장에도 깊은 안도감을 만끽하며 밀어 붙히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 끝으로 있는 힘을 다해 턱을 눌러댔다. 게다가 그의 턱, 수염으로 이미 약간 거칠어진 굳은 그 턱을, 자기 손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기분이었다. 그 부하는 조금도 손힘을 늦추지 않았고, 상대방의 머리를 끝까지 누르고 있었다. 순간 온몸의 모든 피, 모든 힘이 목을 누르는 것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드디어 희미하게 ‘꿀꺽’ 하는 소리가 났고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부하는 자기의 가슴이 증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심한 경련이 장교의 몸을 흔들었고 젊은 부하는 무서워지고 몸이 떨렸다. 그래도 그 경련을 눌러서 억제시키며 두 손으로 상대방의 턱을 눌러대는 것은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슴이 강하고 젊은 무릎의 중압 아래 숨이 끊어지고, 쪽 뻗은 몸이 딱딱하게 경련하고 —놀려진 몸통 전체가 발작적으로 움직이면서— 있음을 느끼는 것은 시원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곧 그 몸은 조용해졌다. 그는 상대방의 콧구멍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그 두 눈은 차마 볼 수 없었다. 아주 이상하게 입이 쑥나오고 입술이 크게 벌어지고 수염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자 그 장교의 콧구멍이 점차 피로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깜짝 놀랐다.

붉은 피가 가득 피더니 넘쳐나서 얼굴에서 눈으로 작은 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그걸 보자 부하는 충격을 받았고 당황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장교의 몸은 힘없이 경련하고 마침내 쪽 뻗어 버렸다. 그는 일어나서 말없이 지켜봤고 그가 죽어버린 것은 안 된 일이라 느꼈다. 그 시체는 그를 발로 차고 괴롭혔던 것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시체의 두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는 두려웠다. 그 눈은 끔찍했고 흰 창만이 보였으며 피가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보자 부하의 얼굴은 이내 공포로 일그러졌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장교의 얼굴이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얼굴을 혐오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얼굴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부하의 마음속에는 크게 안도감이 일어났으며 이럴수 밖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늘어진 몸이, 멧진 손가락을 보이면서 나무 그루터기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는 시체를 감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둘러서 그는 재빨리 시체를 단정한 자세로 만들어 쓰러져 있는 나무줄기 밑에 밀어 넣었다. 그 줄기는 멧진 그 몸통의 양끝을 통나무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시체의 얼굴은 피로 인해 보기에 끔찍스러워 철모로 덮어 버렸다. 그리고 사지를 단정하게 반듯이 뻗게 하고, 근사해 보이는 군복으로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버렸다. 이제 시체는 나무 그늘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햇빛이 통나무 사이로 좁다랗게 새어 들어와 가슴 위를 지나고 있었으며 부하는 시체 옆에 잠시 앉아 있었다. 여기서 그 자신의 생애도 끝난 셈이었다.

그때, 숲 밖에서 중위가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멍하니 앉아있는 병사에게 들려왔다. 아래쪽 강 위에 걸린 다리가 적군에게 점령되어 있다고 상상하라는 말 같았다. 이제 그 부대는 어떤 작전으로 공격을 개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중위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재간이 없었다. 부하는 습관이 되어서 잘 알아들었지만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중위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되풀이

하자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자기가 부대로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뭇잎이 햇빛에 번쩍이고 나무 파편이 땅에서 하얗게 반사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에게 있어 세계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겐 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만이 세계에서 떠나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맥주컵과 병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그의 임무였지만 그렇게 할 순 없었다.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난 것이다. 중위는 아직도 목선 소리로 설명을 계속했다. 그는 어디로든 가야만 했고 만일 가지 않으면 체포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그는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으며 이내 그 자리를 떠났다. 말이 오솔길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말 있는 데로 가서 올라탔고 안장에 올라 앉는데 아픔을 느꼈다. 숲 속을 서서히 달리면서 안장에 앉아 있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을 뿌리칠 수 없었다. 길은 이제 숲을 지나서 앞으로 뻗어 있었다. 숲가에서 말을 멈추고 그는 서서 둘러보았다. 햇빛을 받은 넓은 계곡에서 군인들이 작은 떼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다. 이따금 휴한지를 썰레질하고 있는 남자가 방향을 바꾸려고 소에게 고함을 쳤다. 마을과 흰 탑이 있는 교회가 멀리서 햇빛을 받아 작게 보였다. 이제 그는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다. 밖의 암흑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딴 세계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미지의 생활로 떠나갔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해가 번쩍이는 계곡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는 깊은 숲 속으로 말을 타고 갔다. 잿빛을 띄고 사람처럼 고요히 서 있는 나무줄기는 말타고 지나는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햇빛과 그림자가 합쳐진 모양으로 암사슴 한마리가 얼룩진 그늘 속을 달려갔다. 숲 속에는 군데 군데 밝은 녹색의 갈라진 틈이 나타났고 다시 어둡고 냉랭한 소나무숲이

계속되었다. 그는 몸이 아팠고, 머리에선 견딜 수 없을 만큼 맥박이 울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이제까지 그는 병으로 고생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눈이 아찔해졌다.

말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는 잘못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아픔을 느끼며 몸의 균형을 잡지못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말은 불안한 듯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고삐를 세게 잡아당겨 말을 빨리 달아나게 했다. 그 말은 그 자신과 세상의 다른 것과의 마지막 연계(連繫)였다.

그는 다만 드러누워 방해를 받지 않고 고요히 쉬고 싶었다. 숲 속을 비틀거리면서 그는 너도밤나무와 소나무가 자라나는 경사진, 조용한 곳에 이르렀다. 그는 얼른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의식은 자신을 빠져 달아나는 듯 했다. 몸 안에서는 메스꺼운 큰 고동이 마치 온 지구를 진동시키듯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숨기 한점 없는 더위로 그는 온몸이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견잡을 수 없는 정신착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외부의 것을 주의할 겨를도 없었다.

3

그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들었다. 입은 말라서 깔깔하고 심장은 몹시 고동치고 있었지만 일어날 힘은 전혀 없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병사인가, 집인가?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힘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들, 푸른 잎들, 땅바닥에 비치는 불그레한 밝고 고요한 햇빛을.... 그는 자기가 자기임을 믿을 수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았다. 무엇인가 때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다시 맥이 풀리고 말았다. 또다시 그는 힘을 내보았다. 그러자 그의 주변이 그 자신과 점차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의 처지를 알 수 있었다. 무서운 공포감이 그의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누군가가 또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 위에서 육중한 흑색 덩마같은 전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눈을 감았다고 믿지 않았다. 사실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흑 속에서 사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또 두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중요하는 장교의 피투성이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공포로 인해 가만히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속 깊은 데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장교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육체적인 착란상태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가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공포로 인해 죽은 듯이 고요히 누워있었고 점차 의식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날쌔게 나무줄기를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건 작은 새였으며 그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텅, 텅, 텅. 그건 머리가 마치 작고 둥근 망치인양 부리로 나무줄기를 툭툭 두드리는데, 날쌔게 작은 새였다. 호기심이 나서 그는 새를 지켜보고 있었다. 새는 기어가듯이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으며 생쥐처럼 꺾질없는 줄기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날쌔게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의 감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머리를 쳐들었다. 아주 무거운 느낌이었다. 그러자 새는 그늘에서 뛰어나와 햇빛이 비치는 조용한 곳을 가로질렀다. 작은 머리를 삐죽삐죽 아래 위로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흰 발을 번쩍이면서. 그 새 — 꼭 짜인 몸에, 날개 위에 흰 반점이 있는 — 는 사실 얼마나 귀여운가! 그런 새가 몇 마리 더 있었다. 그것들은 정말 귀여웠다. 마치 날쌔고 변덕스러운 생쥐처럼 새들은 너도밤나무 열매 사이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너무도 피곤해서 옆으로 드러누웠고 의식이 조금씩 몽롱해졌다. 기어다니는 그 작은 새들이 그는 두려워졌다. 그의 모든 피는 머리 속에서 돌진하며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심한 피로로 고통이 더 심해져서 제 정신이 들었다. 머리가 아프고 몹시 메스껍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이제껏 병으로 앓은 적이 없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일사병에 걸린 모양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대위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었다. 얼마전에, 아니 오래전에.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두 눈은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쨌든 다 끝난 것이다. 그건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것이다. 그는 이제껏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었다. 이젠 생(生)일까 아니면 생이 아닐까? 그는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크고 밝은 세계에 있지만, 자기는 그 밖에 있었다. 도시, 나라, 전체, 크고 밝은 광명의 땅. 하지만 그는 그 외부인 이 곳에 있다. 모든 하나하나가 분리된, 완전히 고립된, 어두운 공지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언젠가는 이 곳에 와야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찮은 존재들이며 그의 뒤에 남아 있다. 거기에는 부모나 애인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는 공지에 불과하다.

그는 일어나 앉았다. 무언가 급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건 작은 갈색 다람쥐였다. 땅 위를 파도처럼 귀엽게 짹짹 뛰며 달려가고 있었다. 그 붉은 꼬리는 몸의 울동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다람쥐가 땅에 앉게 되자, 그 꼬리는 감겼다 풀렸다 되풀이했다. 다람쥐를 바라보자 그는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다람쥐는 다시 장난치듯 즐겁게 달려갔다. 그것은 또 다른 다람쥐를 향해 난폭하게 달려들고 서로 쫓아다니며, 약간 시끄럽게 캐캐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는 다람쥐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목선 소리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다람쥐들은 모두 갑자기 달아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중의 하나는 나무줄기의 반쯤 올라가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심이 갑자기 솟아났다. 그가 의식하고 있는 한 재미도 있었지만, 다람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나무줄기를 반쯤 올라간 곳에서 작은 날카로운 얼굴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손톱나온 손으로 나무껍질을 붙들고 흰 가슴을 곧추 세운 채. 그는 깜짝 놀라서 다람쥐에서 눈을 돌려버렸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그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

가를 찾기위해 무작정 걸어갔다 —한 잔의 물을 얻으려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여 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비틀거렸다. 그후부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발길을 옮기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계속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또 한번 이 세계를 보려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놀란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생각해 보려고도 않았다. 금녹색이 반짝이는 배후에 진한 금빛이 보였고, 높은 회자색(灰紫色)의 빛과 먼 곳의 암흑이 그를 둘러싼 채 어두워 갔다. 그는 마침내 ‘도달했다’는 느낌을 의식했다. 그 자신은 실제 속에 있었고 실제의 어두운 밑바닥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머리 속에는 타는 듯한 갈증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그다지 괴롭지는 않았고 점점 기분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놀라움 정도로 빨리 걸어가고 구원에 곧바로 이른 것 같다고 느꼈다. 아니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른 것일까?

갑자기 그는 두려워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무서운 금빛 광선이 엄청나게 큰 빛을 내며 나타났다. 그와 그 빛 사이에는 서너 개의 검은 나무줄기가 기둥처럼 서 있었다. 거의 같은 크기의 어린 보리는 비단 같은 녹색 밭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풀 스커트를 입은 여자 하나가 두건 대신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반짝이는 녹색 곡식 밭을 그림자처럼 지나서 아주 밝은 곳으로 나왔다. 거기에도 그림자가 있는 곳은 푸르스름하고 검은 재목의 농가 한 채가 보였다. 금빛 속에 거의 녹아든 것 같은 교회의 뿔족탑이 나타났다. 여인은 앞으로 계속 걸어갔고 그는 뒤에 처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할 적당한 말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의 존재가 아니었다. 빛나고 단단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녀는 그를 당황케 할 말을 중얼대고 그 눈은 그를 보아도 똑바로 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 곳을 가로질러 저쪽으로 걸어갔고 그는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서서 판판한 땅이 벌써 어두워가는, 긴 텅 빈 공지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상한 빛 속에 번쩍이는 산들—그리 멀지 않은 곳의—이 눈에 띄었다. 제일 가까운 산의 연한 재빛 능선 뒤에 먼 산이 금빛으로 창백하게 솟아 오르고, 쌓인 눈은 정결하고 부드러운 순금처럼 빛났다. 하늘가에 고요히 빛나고 하늘의 광석으로 만들어진 듯 산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쌓인 눈의 금빛 섬광처럼 자기의 갈증이 몸 안에서 번뜩임을 느꼈다. 나무에 몸을 기대어 바라보는 사 이에 모든 것이 공간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밤중에 번개가 끊임없이 번쩍여서 하늘이 온통 희게 변했다. 그는 다시 걸어갔음에 틀림없었다. 세계는 잠시 그의 주위에 납빛으로 드리워지고, 발은 회녹색의 평탄한 광채로 변했다. 수목은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고 창백한 하늘에 구름이 어둡게 뻗어 있었다. 얼마 후 어둠이 덧문처럼 내리고 캄캄한 밤이 되었다. 반쯤 보이는 세계가 희미하게 펼쳐졌지만 암흑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그러자 다시 대지에 창백한 빛이 퍼졌고 희미한 여러 가지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머리 위 하늘에선 구름이 길게 드리워졌다. 세계는 순간적으로 암흑 속에 던져진 희미한 그림자 같았고,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되돌아왔다.

그의 내부에서는 메스꺼움과 열병에 의한 순전한 착란상태가 계속되었다. 머리는 밤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고—나무 주위에서 응시하는, 큰 눈을 가진 무언가를 두려워하여 이따금 경련을 일으켰다. 행군의 긴 고통과 피를 녹이는 태양이, 그리고 대위에 대한 증오가 빈민, 그에 따른 온화함과 안락의 고민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뒤틀리고, 고통에서 나왔다 고통으로 녹아들었다.

아침이 되어 그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머리는 갈증의 고통으로 불타 올랐다. 햇빛이 얼굴에 비쳤고 젖은 옷에서 이슬이 증발했다. 귀신들린 사람처럼 그는 부시시 일어났다. 거기, 그의 바로 앞에는 산들이 아침 하늘의 창백한 가장자리에 줄지어 나타났다. 푸

르고 차디차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는 산들을 원했다. 아니 산만을 원했다. 자신을 떠나서 산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산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희고 부드러운 눈의 표지를 달고 고요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통으로 미칠듯이 괴로워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손을 꼭 쥐고 떨기도 하면서. 그러자 발작이 일어나서 그는 풀 위에 쓰러져 몸을 뒤틀었다.

그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꿈을 꾸면서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가 느낀 갈증은 그에게서 떠나 하나의 '욕구'가 되어 하나의 실체로 서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고통도 다른 하나의 '자아'가 되고 육체라는 '장애물'도 하나의 분리된 존재인 것 같았다. 그는 분열되어서 온갖 종류의 분리물(分離物)이 되었다. 그것들 사이에는 어떤 기이하고 괴로운 연결이 있었지만, 점차 멀리 떨어져 나갔으며 얼마후엔 모두 흩어질 것 같았다. 그의 머리 위에 내리찍는 태양은 그 연결을 뚫고 지나갔고, 그것들은 분산되어 영원히 흐르는 공간 속에 떨어질 운명이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의식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서 빛나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산들은 땅과 하늘 사이에 아주 고요히 장엄하게 줄지어 솟아 있었고, 그는 눈이 감겨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냉랭히 정결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산들은 자기 안에 잃어버린 모든 걸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4

세 시간 후 군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두 팔 위에 얼굴을 올려놓고 누워 있었다. 그 검은 머리는 태양 밑에서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다. 멍하니 벌린 그의 검은 입을 보자 젊은 군인들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 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버렸다.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한 채 한밤중에 병원에서 죽었다.

의사들은 그의 발 뒤에 있는 상처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 남자의 시체는 시체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나는 희고 날씬했지만 경직된 채 누워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젊고 활발하여 금시라도 잠에서 깨어날 듯했다.

8. 병든 광부

남편에 비하여 아내가 낫다고 누구나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사실 때문에 후회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남자는 겨우 열 아홉살 되었을 때 스무살 된 그녀에게 구혼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단단하고 작달막한 남자였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검은 피부였다. 꽃꽂한 머리와 가슴, 그리고 교미하는 새를 연상시키는 허세부리는 듯한 행동은 긴장되고 활기찬 육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근면한 광부였기 때문에, 그는 탄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집안도 좋은 편이어서 저축도 약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노팅햄 가(街)에 있는 ‘업랜드 요리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큰 키에 하얀 살결을 가진 예쁜 처녀였고 과묵한 편이었다. 하루는 그녀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허스폴은 멀찌기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에게 반했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비록 그 남자가 지능이 높지 않은 단순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높이 사서 그의 구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혼식을 올린 후 그들은 스카질 가에 있는 아주 좋은 집 —방이 여섯이나 달린— 에 살게 되었고, 집안의 가구 등은 둘이서 갖추어 놓았다. 도로는 길고 가파른 언덕 측면에 나 있었고 폭이 좁아서 터

널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집의 후면에서는 들판의 넓은 계곡과 숲을 가로질러 인접한 목장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밑바닥에는 탄광이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직도 광부의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지 않았었다. 그들은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일요일 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식탁에 조반을 차려놓고 난롯불 앞에 내가 탄광에서 쓰는 도구를 정리해 뒤테요. 나는 아침 다섯시 반에 일어날 거요. 당신이 스스로 원한다면 몰라도 구태여 서두를 필요는 없소.”

그는 아내에게 식탁에 상보 대신 신문지를 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내가 반대의견을 말하자,

“난 아침에 당신이 까는 흰 상보를 보고 싶지 않소.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옷가지를 따듯하게 하고 아침에 입을 수 있도록 난롯불 앞에 잘 정리해 두었다 —두더지모피 바지와 깨끗한 속내의, 또는 두꺼운 프란넬의 소매없는 조끼, 긴 양말 한 켤레, 수경에서 신는 장화 등.

“자, 보시오. 매일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시간에 맞추어 다섯시 반이 되면 의례적인 작별인사도 없이 그는 아내로부터 떠나갔고, 셔츠바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오후 네 시에 집에 돌아오면 저녁준비가 다 되어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었다.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을 하고, 얼굴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검은 줄무늬를 만든 채 남편은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쳤다. 아내는 불 앞에서 흰 불라우스에 흰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멋진 여자 —아름다운 “순결”을 나타내는 진정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는 무거운 장화를 신고 “어색한 몸짓”으로 방에 들어왔다.

“집안 일은 잘 되어 가요?”

그가 물었다.

“집에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서 다 해 놓았죠.”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탄면지로 까맣게 된 그의 얼굴에서 갈색 눈동자 사이로 흰자위가 반짝 빛났다.

“아! 나도 집에 오고 싶었소.” 그는 대꾸했다.

그는 양철병과 도시락 주머니를 화장대 위에 내려놓고, 저고리와 목도리, 그리고 조끼를 벗고 안락의자를 난롯불 가까이로 끌고 가서 주저앉았다.

“자, 저녁 좀 먹읍시다 — 나 배고파 죽겠소.” 그가 말했다.

“먼저 몸부터 씻지 않겠어요?”

“왜 몸을 씻어야 하지?”

“아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저녁을...”

“그만 뒤요! 수갱(豎坑) 안에선 씻지 않고 점심을 먹지 않소?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저녁을 차려주고 그의 맞은 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고 둥근 얼굴은 두 눈의 흰자위와 붉은 입술을 빼놓고는 온통 까만색 투성이었다.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붉은 입을 벌리고 흰 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팔과 손은 시커멓게 일룩져 있었지만, 드러난 억센 목은 어깨 사이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약간 깨끗해 보였다. 그 목을 보자 그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방 안에는 희미한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건 축축하고 맥빠진 듯한 공기의 냄새였다.

“왜 속옷의 어깨부분은 그렇게 까맣죠?” 그녀가 물었다.

“내 속내의 말이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이지. 이긴 수갱에서 올라오기 전에 입은 마른 셔츠요. 거기엔 큰 빨래걸이가 있어서 우린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이 마르도록 거기에 걸어두죠.”

남편이 허리까지 옷을 벗은 채 난롯가 융단 위에 무릎을 꿇고 몸을 씻기 시작하자 그녀는 남편이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근육은 우람했으며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짐승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벗은 가슴을 그녀 앞에 내놓고 물기를 닦고 있을 때, 굵은 팔 때문에 근육이 부푸는 모습을 보고 그녀

는 약간 메스꺼워졌다.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아주 행복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수갱 안의 남자들은 그를 놀려댔고 그를 딴 곳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어떤 일도 그의 아내 때문에 얻은 확고한 자부심을 가라앉힐 수 없었고, 천진스러운 정도의 만족감을 흔들리게 할 수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아내와 잡담을 나누거나 그녀가 신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날씨가 좋으면 그는 거리에 나가 등을 응접실 벽에 기대고 다른 광부들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인사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면 그저 쪼그리고 앉아 담배 피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마음 속에 부유한 느낌과 만족감을 가득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들이 결혼한 지 일년도 되기 전에 브렌트 회사와 웰우드 회사의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다. 윌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궁핍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살아갈 수는 있었다. 그는 가구대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빚도 지고 있었다. 그녀는 살림 걱정으로 이것저것 궁리하고 있었으며, 그는 집안 일을 아내에게 맡겨 버렸다. 그래도 그는 착실한 남편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바쳤다.

광부들은 15주동안 파업을 계속했다. 그들이 파업을 멈추고 다시 일하게 된 지 꼭 일년이 넘었을 때, 윌리는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의 방광이 터져버렸다. 갱구에서 의사가 병원 이야기를 하자, 젊은 광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통과 병원의 공포 때문인지 미친 사람처럼 고향을 질렀다.

“당신을 집에 보내드리겠소, 윌리. 집에 보내드리겠소.” 탄광의 보안위원이 말했다.

한 젊은이가 다친 사람을 위한 침대를 준비하라고 윌리의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주저하지 않고 침대를 준비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고향치는 남편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기절할까봐 두려워졌다. 그들은 윌리를

방안으로 옮겼다.

“응접실에다 침대를 놓아야 했는데. 그러면 이층까지 올라다닐 필요도 없고 부인도 그만큼 발이 덜 아팠을 텐데요.”

보안위원이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겨를도 없었으며 그들은 윌리를 이층으로 옮겼다.

“그들은 날 눕혀 놓았어, 루시. 그 무시무시한 두 시간 동안이나 분탄(粉炭) 위에다 말이야. 채탄장(採炭場)에서 날 밖으로 옮기기 전에. 아이고 아파, 루시. 아이고, 아이고!” 그는 고햀쳤다.

“아픈 건 알고 있어요, 윌리. 그래도 아픈 걸 좀 참아야죠.”

“이봐요, 그렇게 소리치지 마시오. 당신 부인이 더 참을 수 없을 거요.” 보안위원이 거들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는 다시 소리쳤다.

그는 평생 병상에 누워 본 적이 없었다. 한번은 손가락 하나가 잘 못해서 으스러진 일이 있었는데 그는 상처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몸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이었고 그를 두렵게 하였다. 드디어 아픔이 좀 누그러졌고 그는 기진맥진해 버렸다.

얼마 후에 그녀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 주었다. 그는 다른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그와 같은 광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묘한 조심성 때문이었다.

6주 동안 그는 심한 고통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도 어디가 나쁜 건지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고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거의 알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고, 살이 빠지거나 힘을 잃지는 않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거의 걸을 수 없었다.

6주 쯤에 광부들은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있곤 했는데, 파업 둘째주 수요일에도 그는 여느때 처럼 그곳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머리통이 작은 젊은 남자였지만 아직도 그는 건장하게 보였다. 그러나 얼굴엔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한 특이한 공포의 기색이 드러나 있었다.

“루시, 루시!” 그가 불렀다.

아내는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손수건 좀 줘요.” 그의 말.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녀는 다가오며 말했다.

“날 만지지 마!”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그는 흰 손수건을 꺼냈다.

“난 흰 게 필요없소. 붉은 걸 줘요.”

“누가 당신을 만나러 찾아오기라도 하는 것 같군요.” 그녀는 붉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절 이층으로 부르지는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통증이 또 엄습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요.” 그는 약간 공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말고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데도 일어나리라고 속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대꾸했다.

“내 몸인데도 내가 못 느낀다는 말이요?” 그가 소리쳤다.

“견인차가 언덕을 내려오고 있어요. 그 차가 사람들을 흠어놓아 버리겠죠. 전 곧 가서 당신에게 드릴 푸딩을 만들어야겠어요.” 아내는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떠나갔다. 견인차는 집을 진동시키며 지나갔다. 그러자 거리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말소리만이 들려왔다. 열 다섯 살에서 스물 다섯 살에 이르는 한 떼의 젊은이들이 길 한복판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또 보도에서도 작은 무리가 같은 놀이를 하는 중이었다. 거리에는 우울한 기분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설 사이없이 부르고 외치는 소리를 들리는 들을 수 있었다.

“넌 인색해!”

“아니야!”

“그 붉은 공기들을 가지고 이리와.”

“그것 하나와 이 네 개를 바꾸자.”

“안돼. 그대로 해.”

월리는 밖으로 나가서 공기놀이를 하고 싶었다. 그동안 앓아온 탓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자제력이 거의 없었다.

이내 또 다른 한 떼의 남자들이 거리에 슬금슬금 나타났다. 그 날은 바로 월급날이었다. 노동조합은 원리주의 감리교회 건물 안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십 실링을 월급으로 받고 돌아왔다.

“서리! 서리!”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은 인사하는 말이었고, “시러”(Sirrah : “어이” 또는 “이봐!”라는 뜻)라는 말이 전화(轉訛)된 것 같았다.

월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리!” 하고 또다시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낫츠팀과 빌라팀 사이의 시합을 보러 가지 않겠어?”

공기놀이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다.

“뭇시지? 기차가 없을 텐데. 우린 걸어가야 할거야.”

이 사람들로 인하여 거리는 이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시합을 보러 노팅햄으로 누구 함께 가지 않겠어?” 똑같은 큰 목소리가 또 외쳤다. 눈까지 모자를 눌러 쓴, 술취한 덩치 큰 남자가 외치고 있었다.

“가자. 야, 가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댔다. 거리는 외치는 사람들의 고함소리로 넘쳐 흘렀다. 그들은 이내 흥분한 뿔뿔 집단으로 나뉘었다.

“힘내라, 낫츠팀!” 그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다.

“힘내라 낫츠팀!” 젊은이와 어른들이 합세했다. 그들의 흥분은 폭발할 지점까지 확산되었다. 그들을 흥분시키려면 한번 외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런 일은 경관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가야겠어! 난 나가야겠어!”

창문에 앉아 있던 병든 윌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루시가 이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메도우 운동장의 나츠팀과 빌라팀의 시합을 보러 가겠어.”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 —당신은 안 돼요. 기차가 없어요. 구 마일을 어떻게 걸어요?”

“난 시합을 보러 가겠어.” 그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당신도 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앉으세요. 진정해요.”

그녀는 남편의 몸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몸을 흔들며 그녀의 손을 떨어뜨려 버렸다.

“내가 하는 걸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말란 말야. 당신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 바로 당신이. 난 축구시합을 보러 노팅햄으로 가겠어.”

“앉으세요.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가야겠어. 가게 해줘. 바로 당신이 날 못가게 하는군. 난 가야겠어.”

그는 아내를 꼭 잡았다. 그의 작은 머리는 흥분한 탓으로 머리털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힘이 세었다.

“여보, 윌리!” 그녀가 소리쳤다.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을 죽여야 해! 죽여야 해!”

“윌리, 사람들이 들어요.”

“또 아파지기 시작하고 있어. 정말이야. 당신을 죽여야 해.”

그는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니었다. 남편이 계단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녀는 남편과 몸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고향치고 날뛰는 남편의 손에서 빠져나와 스물 네살 난 이웃집 처녀에게 와달라고 손짓을 했다. 그녀는 마침 길 건너편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

에델·멜로는 부유한, 석탄통 중량을 재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허스플 부인에게 달려갔다. 남자가 고래고래 외치는 소

리를 들고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에텔은 이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젊은 부부의 집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아담하게 보였다.

월리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루시를 쫓아 방 둘레를 비틀거리며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고함쳤다.

“죽여야 해! 죽여야 해!”

“허스폴씨!” 에텔은 시트처럼 안색이 창백해져서 침대에 기대어 떨면서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건 그녀 때문이라고 하는 거요. 그녀 때문이지. 죽여야 해, 죽여야 해!”

“허스폴 부인을 죽여요? 부인을 그토록 좋아했잖아요 —진정으로 말이예요.” 떨고 있는 처녀가 소리쳤다.

“아픔 때문이야. 정말 아파 죽겠어. 난 죽이고 싶어.”

그는 좀 가라앉았다. 남편이 주저앉자 그녀도 의자 위에 쓰러져서 소리없이 흐느꼈다. 에텔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낡은 고민하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그는 자기의 아내를 불쌍한 듯이 바라보며 물었다.

“저런! 당신은 ‘그녀를 죽일테야, 죽일테야’ 하면서 정말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었죠.” 에텔이 대꾸했다.

“루시, 정말이야?” 그는 더듬으며 물었다.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아내는 부드럽게 그러나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돌린 채 견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

방안에서는 세 사람의 숨죽여 통곡하는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루시는 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다가갔다.

“윌리,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당신은 언제나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윌리,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들이 모두 조용해지자 그녀는 에텔과 함께 잠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누군가 거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지 살펴봐요.” 루시가 부탁했다.

에텔은 웅점실로 들어가서 커튼 사이로 내다 보았다.

“아! 틀림없이 레나와 세번 부인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수다쟁이 알습 부인도 마찬가지죠.”

“아,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면 좋겠군요. 남편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들은 보수를 주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죠.”

“그런 일로 보수를 안 줄 수야 없겠죠. 절대로 안돼요.” 에텔은 힘주어 반대의견을 말했다.

“글쎄, 그들은 뭔가 지불을 정지하고…”

“소문이 퍼질 리가 없죠. 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 하지만 만약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9. 가 구

그들은 뉴잉글랜드(New England : 미국 북동부 6주의 총칭) 출신의 진짜 이상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전, 즉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이야기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둘은 처음 만나서 곧 결혼했다. 남자는 코네티컷주 출신의 눈이 날카롭고 키가 큰 젊은이였고, 여자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예의바르고 청교도같은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몸집은 작은 편이었다. 그들은 둘 다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부부의 수입을 합해도 연간 삼천불을 넘지 못하는 수입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자유로웠다. 진정한 자유!

아! 자유! 자기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는 25세이고 하나는 27세의 젊은 나이였다. 서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미(美)에 대한 애착, '인도사상'에 대한 취미 —이건 베산트 부인(1875년 뉴욕에서 창설된 神智學協會의 창설자의 하나임)에게만 해당되지만—, 그리고 연간 삼천불에 약간 미달되는 작은 수입을 가진 진짜 이상주의의 부부였다. 도대체 돈이 무엇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로 충실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 뿐이다. 구라파에는 물론 그런 전통의 근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생활은 아마 미국에서도 가능하리라. 예컨대 뉴잉글랜드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겠지만. 진정한 미는 그것이 성숙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바로크식 건축은 반쯤 아름다울 뿐이고 반쯤 성숙되어 있음에 불과하다. 진짜 아름다운 은빛 꽃, 진짜 금빛 향기어린 소담한 꽃다발은 바로 문예부흥기 —그 후기의 또는 더 천박한 시기가 아닌— 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하여 뉴헤이븐에서 결혼한 두 이상주의자들은 이내 파리로 떠나갔다. 옛날의 그 파리를 향하여. 그들은 몬파르나스 가(街)에 방 하나 있는 아파트를 빌려 진짜 파리지민이 되었다 —현대의 저속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옛날의 즐거웠던 의미에서. 그 곳은 모네와 그 추종자들, 즉 순수한 이상주의자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곳이었고, 순결한 빛의 관점 —분산되던 분산되지 않든— 에서 관찰된 세계였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밤과 강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래된 가로와 꽃가게, 책방 곁에 깃드는 아침, 몽마르뜨나 튀이레리 궁전의 오후, 그리고 가로수 넓은 길의 저녁은 얼마나 멋진 장관인가!

두 사람 다 그림을 그렸지만, 그렇다고 필사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었다. 예술은 둘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그들도 예술을 목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림을 그렸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둘은 사람들을 사귀었다— 사람을 널리 사귀어야 했지만 가능하면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그 부부는 행복했다.

그래도 사람은 ‘무엇인가’ 애착을 지녀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자유로워지고’, ‘충실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이 필요했다 —적어도 모든 이상주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태가 따르기 마련이다. ‘풀어진 끝’이 공중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 마치 뭔가 붙잡을 것, 꼭 필요한 태양을 향해 올라가는 데 쓰이는 장대 등을 찾으려 퍼져가는 덩굴의 덩굴손처럼. 그것은 물결치며 동경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만약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면 덩굴은 지면을 어정쩡하게 기어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올바른 장대를 잡는 노력.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덩굴같은 존재이며 이상주의자는 특히 그렇다. 그는 덩굴이고 붙잡고 기어올라갈 뭔가가 필요하다. 그는 감자나 순무, 또

는 나무토막을 경멸했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아주 행복했지만 그래도 항상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 했다. 처음에 그들은 파리만으로 만족했고 파리라는 도시를 남김없이 탐색했다. 그리고 자신이 거의 프랑스 국민으로 느껴질 때까지 프랑스어를 배웠으며 아주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외국인이 열정을 느끼며 프랑스어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외국인이 똑똑한 프랑스인에게 —그들은 자기보다 더 영리하게 보이지만—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스틸있는 일이지만, 길게 보면 만족스러운 일은 못된다. 프랑스인들의 끝없이 약삭빠른 실리주의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만들고 끝에 가서 불모감을 안겨주며, 진짜 뉴잉글랜드 심정과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이 두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아주 점잖게 떠나갔다. 프랑스는 그들을 실망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를 사랑했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얼마 후엔 —꽤 긴 시간인 여러 해 뒤에는— 파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만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리는 진실로 지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는 프랑스가 아니죠.”

“물론 그렇지요. 프랑스는 파리와 완전히 다르죠. 프랑스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프랑스를 사랑한다 해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 이상주의자들은 이탈리아로 옮겨 갔고, 이내 이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아름답고 프랑스보다 더 호소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에 대한 뉴잉글랜드의 개념 —프랑스인들의 실리주의와 비꼬는 버릇이 없는, 순수하고 공감에 충만한 ‘어떤 것’— 에 훨씬 가까운 듯했다. 두 이상주

의자들은 이탈리아에서 그들 자신의 맑은 공기를 처음으로 마시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파리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훨씬 더 스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현대적인 불교적 감정의 흐름 —부풀어 오른 듯한— 에 접할 수 있었고 독서를 하고 명상에 잠겼다. 또 그들 자신의 영혼에서 욕심·고통·슬픔 등을 신중히 제거하려고 힘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부처님의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려는 열정 그 자체가 일종의 욕심임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그들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 —모든 욕심, 거의 모든 고통, 그리고 많은 슬픔이 제거된— 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두 이상주의자들도 그 나라에 봉사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들의 경험 때문에 욕심·고통·슬픔 등이 세계에서 제거돼야 함을 전보다 더 절감하게 되었지만, 불교 또는 견신론(見神論)이 오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들의 어떤 부분에서 욕심·고통·슬픔 등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거함에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너무나 서구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두 자아를 구하는 반면에 온 세계를 지옥에 버릴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또 그들은 너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단 둘이 인도 보리수 밑에 붙어 앉아 열반(涅槃: 모든 번뇌를 없앤 至福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었다.

그 경지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은 보리수 밑에 쭈그리고 뭔가를 명상함으로써 —물론 그들 자신의 배꼽은 아니었지만— 열반에 이를 만한 인내심이 부족했다. 만약 온 세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열성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그건 너무나 외로운 세계였다. 그들은 뉴잉글랜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다 아니었다. 욕심·고통·슬픔이 온 세계에서 제거돼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제거된

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혀 쓸모가 없다! 그 사람은 그저 하나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도사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몹시 애착을 느꼈지만— 불안스러운 초록색 덩굴이 이제껏 올라간 장대는 썩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전의 은유로 표현한다면, 그 장대는 부러졌고 덩굴은 다시 땅에 서서히 내려앉았다. “딱” 하는 소리도 “우지끈” 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덩굴은 잠시 그 자체의 잎들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내려앉고 말았다. ‘인도사상’인 콩줄기는 사람이 그 끝까지 올라가 더 먼 세계로 가기 전에 부러지고 만 것이다.

그 부부는 말하자면 바스락거리며 서서히 땅 위로 내려왔지만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재차 실망한 것이 분명하나 그 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인도사상’이 그들을 내려앉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상호간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은 낙심했으며 가냘프게 그러나 심각하게 환멸을 느꼈다. 그들은 둘 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생활 속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탈리아 —그 사랑스러운 이탈리아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아직도 무한히 귀중한 보물, 즉 ‘자유’를 향유하고 있었고 많은 ‘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의 풍요함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들은 한 어린 소년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를 애지중지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 아이를 꼭 매어두는 것은 지혜롭게 피하고 있었다. 아니, 아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야 했으며 그런 일을 알 만한 지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 25세와 27세는 이제 35세와 37세가 되었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몹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탈리아 —그 사랑스러운 이탈리아!— 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을 —정말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탈리아는 아직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넘겨주지 않았다. 구라파는 아름다웠지만 생명은 없었다. 구라파에서 산다는 것은 ‘과거’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또 구라파인들은 모든 표면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진정한 매력을 지니지 못했었다. 그들은 실리주의적이고 마음속에 진짜 ‘영혼’이 없었다. 그들 내부에서 내면적 충동이 죽었기 때문에 정신의 내면적 충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라파인들은 모두 살아 남은 자에 불과했다. 그것이 바로 구라파인들에 대한 ‘진실’이었다. 모두 다 진취욕이 사라져 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건 녹색 덩굴 밑에서 부러진 또 하나의 콩줄기 장대, 덩굴 받침대 였다. 그러나 이번엔 아주 심하게 부러진 것이다. 왜냐하면 구라파의 낡은 나무줄기 위에 십년 이상이나 녹색 덩굴이 소리없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 중대한 십년이였다. 그 십년은 ‘진짜’ 삶을 살아 온 세월이었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영원한 포도밭에서 덩굴이 살아가듯이 구라파에서 살아왔고, 구라파와 구라파식 생활, 그리고 구라파식 사물에 의지하여 생활했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룩했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룩할 수 없는 가정을. ‘아름다움’이 바로 그들의 표어였다. 그들은 아르노 강변(이탈리아 중부의 강)에 있는 옛날 전당 이층을 사 년간 빌렸으며, 거기서 모든 ‘좋은 물건’을 사들이게 되었다. 이 아파트에서 그들은 깊은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높고 고요한 옛날 방에는 강을 향해 창문이 나 있었고, 바닥엔 진한 붉은 색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둘이 고른 아름다운 가구들이 방 안에 어엿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수평으로 아주 신속하게 줄곧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 마음에 드는 가구들을 사들이는 일에 열중하였고 긴장되어 있었다. 옛날 구라파문화 또는 인도사상의 태양을 향해 그들의 영혼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열은 가구들을 사기 위해 수평으로 흘러갔다. 물론 그들은 가구

자체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미’를 위해 사들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에 의해 완전히 채워진 곳으로 보고 있었다. 발레리는 강을 내려다 보는 긴 거실의 창문에 몹시 아름다운 커튼을 걸어 놓았다. 그 커튼은 가늘게 짠 비단—주색, 오렌지색, 금색 그리고 흑색에서 부드러운 순수한 빛으로 아름답게 바래진— 같이 보이는, 기묘한 옛날 천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커튼 앞에 정신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심정이었다.

“샤트려야!(Chartre : 프랑스 북부의 도시로서 고딕식 대성당으로 유명함) 저에겐 저 커튼이 샤트려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멜빌은 빠속까지 떨리는 느낌 없이 두세 다스의 정선된 책들이 꽂힌 책장—16세기 베니스식으로 된—을 돌리거나 바라볼 수 없었다. 그것은 지성소(유대 신전내 신의 언약궤가 놓여 있던 곳)와 같았다.

그 아이는 가구인 그 옛날 기념물을, 그것이 마치 잠자는 코브라의 집이나 사람이 만지기에 가장 위험한 ‘물건’, 즉 범궤(the Ark of the Covenant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지고 다닌 언약의 궤)나 되는 듯이 함부로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거의 불길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다운 두려움은 말없는 냉정한 것이었지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두 뉴잉글랜드 이상주의자들은 그 가구의 화려한 영광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적어도 이 부부에겐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감탄할 만한 볼로냐(Bologna :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찬장, 놀라운 베니스식 책장, 책들, 그리고 시에나(Siena : 이탈리아 Tuscany주 Florence 남쪽 도시) 커튼과 동상, 또 파리에서 직접 고른 아름다운 소파와 걸 테이블, 의자 등에 점차 익숙해졌다. 아, 그들은 구라파에 상륙한 첫 날부터 가구들을 고르고 있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구라파에 사는 사람에게나 외부인에게나 구라파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관심사였다.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 가구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끼면, 발레리와 에라스무스는 그들이 구라파에서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님을 느꼈고, 지금도 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절감하였다.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 피렌체문화를 산만하게 공부하거나 발레리가 아파트 내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긴 오전, 점심식사 후의 긴 휴식시간 또 옛날 전당내의 대체로 몹시 춥고 답답한 긴 저녁에는 그 가구들의 후광, 그 영광스러운 느낌이 가구 주위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물체가 되었으며, 영원히 서 있거나 매달린 덩어리로 변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구들을 거의 증오하게 되었다. 다른 모든 광채처럼 ‘미’의 광채도 그것에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아직도 가구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의 것이었다. 가구들을 사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던 물건도 일이 년이 지나면 거의 빛을 잃고 만다 —사람들이 그 물건때문에 그 임자를 몹시 부러워하거나 박물관 직원이 계속 열망하지 않는다면 별도리 없다. 멜빌가(家)의 가구들은 물론 좋은 것이었지만, 그 정도로 뛰어나지는 못했었다.

그리하여 가구들의 후광, 그 광채가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것에서, 구라파에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아르노 강변의 놀라운 아파트에서도.

“정말이지, 내가 만약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결코, 결코 집 밖에도 나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은 물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어보라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발레리와 에라스무스는 집 밖으로 나갔으며, 그들은 옛날 차가운 바닥의 돌처럼 무거운 침묵과, 죽음같은 위엄에서 떠나가려고 했다.

“딕,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발레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딕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그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굴복하기를 좋아

하지 않았으며 끝장났다고 자백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12년간 그들은 ‘충실한 내용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이 12년간 멀리해 온 땅이었고, 산업적 실리주의의 소돔과 고모라(the Sodom and Gomorrah : 死海 근처의 古都로 주민의 죄악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멸망받았음)였다.

끝장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은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를 속으로 꺼려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소년을 위해’ 마지못해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차마 구라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피터가 미국인이니 젊어서 미국을 보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멜빌가는 완전히 영국식 발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거의— 그리고 이따금 약간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식 발음과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구라파를 떠났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구라파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사실상 몇 대의 큰 마차에 실어야만 했다. 모든 훌륭한 것과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다 뉴욕에 도착했다 —이상 주의자들, 소년,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구라파의 몹시 부피가 큰 물건들.

발레리는 5번가(뉴욕의 변화가)의 동쪽처럼 몹시 비싸지 않은, 대충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근처에 아늑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였다. 거기서는 그들의 멋진 가구들이 놀랍게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발레리와 에라스무스는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참말이지 연간 삼천불에 훨씬 미치지 못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라파에서 자기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얻은 아파트에는 두 개의 작은 방과 간이부엌이 있을 뿐이었고 ‘가구들’을 풀어서 정리할 장소도 없었다.

그들이 물어뜯은 구라파의 ‘두툽한 조각’은 모두 창고에 들어갔으며 보관료는 한 달에 오십불이었다. 그들은 작은 방과 부엌에 앉아서 왜 자기들이 가구를 사들였는지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물론 일자리를 구해야 할 입장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두 사람 다 모르는 척 했다. 그러나 자유의 여신상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계속 다그치는 것은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에라스무스는 흔히 말하듯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에게 학자로서의 직업은 아직도 가능했다. 지난날 예일대학에서 시험을 치뤄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구라과에 체재하는 동안에도 줄곧 연구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발레리는 둘 다 몸서리치는 것이었다. 학자로서의 직업이라고! 학문의 세계! 미국의 학계! 소름이 계속 끼쳤다. ‘자유’와 ‘충실한 미의 생활’을 포기하라고? 안돼! 절대로 안돼! 에라스무스는 다음번 생일에 사십세가 된다.

그 ‘가구들’은 창고에 머물러 있었다. 발레리는 그것들을 보려고 찾아갔다. 한 시간에 일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걸 보니 심한 고통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가구들은 창고에 있는 탓으로 좀 허름하고 비참하게 보였다.

그러나 뉴욕만이 전체의 미국은 아니었으며 거대하고 순수한 서부가 남아 있었다. 델벨가는 가구를 남겨둔 채 피터와 함께 서부로 출발했다. 그들은 산 속에서 간소한 생활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산 속의 허드렛일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사물’은 보기에 다 썩 좋지만, 그게 비록 아름답다 해도 실제로 다루기엔 몹시 힘든 것이다. 끔찍한 일들의 노예가 되고, 난롯불을 계속 피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접시를 닦고, 물을 운반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 등은 지독한 ‘반생활’(反生活)의 심한 공포에 지나지 않았다.

산 속의 오두막에서 발레리는 꿈에서 보게 되었다 —플로렌스, 떠나는 아파트, 볼로냐 찬장, 루이 십오세 시대의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에 두고 온 ‘샤트러’ 커튼 등을. 이 물건때문에 매월 오십불의 보관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백만장자인 친구 하나가 나타나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오두막을 제공했다. 캘리포니아! 그 곳에서 새로운 영혼

이 태어날 운명이었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희망이라는 새 덩굴 받침대를 잡고 좀 더 서부로 즐거이 옮겨 갔다.

그러나 이 받침대는 짚에 불과했다! 백만장자의 그 오두막은 가구가 완전히 비치되어 있었고, 최대한으로 몸을 놀리지 않아도 되게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전기에 의한 난방과 취사, 백색 진주색 에나멜을 칠한 부엌, 사람 자신을 제외하고는 오물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시간 정도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의 집안일을 맡김히 해치웠다. 그들은 정말 '자유로웠다' —해안에 부딪히는 태평양의 파도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고 자기의 몸을 가득히 채우는 새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참말이지, 태평양은 해안을 아주 무자비하게 연거푸 두드리고 있었다. 대양 자체의 무서운 힘으로! 그리고 그 새 영혼은 그들의 몸 속에 아늑하게 깃드는 대신 옛 영혼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몸 밖으로 쫓아내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장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의 위협 밑에 놓여있다고 느끼는 것, 사랑하는 이상주의자의 영혼이 몸 밖으로 쫓겨남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영혼 대신에 '짜증'만 남게 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 아니었다.

약 아홉 달 후에 그 이상주의자들은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떠나갔다. 서부의 생활은 훌륭한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을 한 것을 그들은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서부는 그들이 살 곳은 아니었으며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새로운 영혼을 원했던 사람은 그걸 얻는 편이 좋았다. 발레리와 에라스무스는 그 옛 영혼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 어쨌든 그들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새 영혼의 유입을 느끼지 못했으며 사실 그 정반대였다.

그리하여 이 이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약간 손해를 보고 매사추세츠로 돌아왔으며 소년을 데리고 발레리의 부모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이를 환영했다 —국적을 버린 그 소년을. 그러나 발레리에 대해서는 약간 냉정했으며,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발레리의 어머니는 하루는 발레

리에게 그녀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에라스무스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오만하게도 어머니에게 아래의 사실들을 열거했다—아르노 강변의 아름다운 아파트, 뉴욕의 창고에 보관중인 ‘놀라운’ 가구들, 그리고 둘이 보낸 ‘놀랍고 만족스러운 생활’ 등등.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발레리의 생활이 현재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집도 없고 사십 세인데도 놀고 있는 남편, 교육시켜야 할 아이, 줄어가는 재산 등을 감안하면 ‘멋진 생활’의 정반대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에라스무스는 어떤 대학에서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자리? 무슨 대학이죠?” 발레리가 가로막았다.

“네 아버지의 연고와 에라스무스의 자격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리고 네 모든 귀중한 가구를 창고에서 꺼내야 하고 아담한 좋은 집을 마련해야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방문할 만한 집을 말이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구들은 네 수입을 갹아먹고, 너희들은 갈 데 없는, 구멍 속의 쥐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사실이었다. 발레리는 자기의 ‘가구들’을 둘 수 있는 집을 갈망했다. 물론 그녀는 상당한 값을 받고 가구들을 팔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설사 무엇이 없어진다 해도—종교·문화·대륙 그리고 희망 등—그녀는 자기와 남편이 정열적으로 수집한 그 ‘가구들’과 헤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구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에라스무스는 아직도 ‘자유’와 ‘충실하고 아름다운 생활’—그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미국을 저주했다. 그는 생활비를 벌고 싶지 않았으며 구라파를 동경하게 되었다.

소년을 발레리의 부모에게 맡기고 두 이상주의자들은 다시 구라파로 떠나갔다. 뉴욕에서 이불을 지불하고 그들은 잠깐동안 그 ‘가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학생들의 선실인 삼등 선실의 표를 끊어

배를 타고 갔다. 그들의 수입은 이제 연간 삼천불이 아니라 이천불도 되지 못했다. 그들은 파리로 직행했다 — 생활비가 싼 파리로.

그들은 이번에 구라파가 완전한 ‘실패’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개처럼 토한 것을 먹으러 왔소. 그동안에 토한 것은 김까지 빠져 버렸죠.” 에라스무스가 말했다.

그는 구라파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구라파는 그의 온갖 신경을 건드렸다. 거기다 그는 미국도 증오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비참한 오물을 먹는 대륙보다 훨씬 나았다. 그리고 구라파는 이제 물가도 싸지 않은 실정이었다.

뉴욕의 ‘가구들’에 정신이 쏠려 있던 발레리 — 그 가구들을 창고에서 꺼내고 싶어 그녀는 견딜 수 없었으며 가구는 이천불을 먹여치우면서 삼년간 창고에서 썩고 있었다 — 는 자기 어머니에게 남편이 미국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얻으면 돌아갈 것 같다는 요지의 편지를 썼다. 에라스무스는 분노와 광기에 가까운 좌절 상태에서 가난에 빠진 모습으로 닳아빠진 상의의 소매를 늘어뜨린 채, 모든 걸 몹시 증오했다. 이탈리아를 해매고 있었다. 마침 미국의 클레베랜드 대학에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의 문학을 가르치는 일자리가 나타나자, 그는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때문에 두 눈은 족제비 눈처럼 커지고, 긴 이상한 얼굴은 더 날카로워지고, 쥐를 닮은 인상이 되고 말았다. 그는 지금 사십세인데 처음으로 직업이 나타난 것이다.

“여보,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이젠 당신도 구라파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당신의 말처럼 구라파는 죽었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 대학 부지에 세운 사택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가구를 넣을 만한 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승락한다’는 전보를 치는 게 좋겠어요.”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코의 양쪽에서 떨고 있는 쥐의 수염을 보는 것만 같았다.

“전보를 칠까요?” 그녀가 물었다.

“쳐요.” 그는 불쑥 내뱉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전보를 쳤다.

그는 사람이 달라졌으며 더 조용해지고 짜증도 훨씬 줄었다. 정신적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는 새장 안에 갇힌 신세였다.

그러나 그가 거대하고, 까만 숲 중에서도 가장 큰 듯한 클레베란드의 용광로 —무서운 몹시 큰 소음을 내고 금속이 마구 쏟아지는 빨강고 흰, 타는 듯한 폭포와 거기서 일하는 요정같은 일꾼들이 있는—를 바라보자 발레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발레리,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이 용광로야말로 현대 세계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물건’이군요.”

그들이 클레베란트 대학 부지에 세운 최신식 작은 집에서 지내게 되고, 그 안에 슬픈 듯한 구라파의 유물들 —볼로냐의 찬장, 베니스의 책장, 라베나(이탈리아 동북부의 도시) 주교(主教)의 의자, 루이 십오세 시대의 걸 테이블, 샤프리의 커튼, 시에나의 청동제 램프 등—이 어울리지 않게 진열되어 깊은 인상을 주고 있을 때, 또 입을 딱 벌린 한 때의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가 제일 멋진 구라파식 태도(여전히 그는 아주 점잖은 미국인이었지만)를 취하고, 발레리는 가장 숙녀다운 몸가짐(그녀도 ‘미국을 좋아한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을 보이고 있을 때,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귀 같은 기묘한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면서.

“구라파는 분명히 마요네즈를 친 요리 같지만, 미국은 오래된 좋은 왕새우를 공급하고 있군요. 안그래요?”

“언제나 말이죠!” 그녀는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새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새장은 안전했다. 그리고 발레리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아를 분명히 찾았고, 그 가구들도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코 주위엔 순진한 회의에 빠진 듯한, 기이하고 사악한 학자다운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래도 그는 ‘왕새우’를 좋아했다.

10. 거위 시장

1

우울한 저녁무렵, 시장을 밝히는 밤 햇불의 너울거리는 불빛과 새벽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안개 속을 지나, 거위들이 아장거리며 거리에 나타났다. 신대신 검은 타르에 적신 발을 번갈아 쳐들고 끌면서 자갈길을 따라 시내로 걸어가고 있었다. 거위 행렬의 맨 끝에서 한 시골 처녀가 예정보다 몹시 시간이 늦어져서 우울한 표정을 하고, 거위 열 두 마리를 몰고 갔다. 뚱뚱한 몸매에 균형잡힌 이목구비와 금발을 하고 있었지만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생김새가 거칠어서 더 ‘다듬어야 할’ 용모였다. 눈꺼풀이 약간 쳐져서 명랑한 인상을 못 주는 것은 아마도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리라. 뒤통거리며 뒤로 처지는 거위를 향해 그녀가 쏘아붙였을 때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콧소리였다. 명청한 거위 한 마리가 하수도에 앉아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 놈은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 처녀가 발가락으로 거칠게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머리를 든 채 쪼그려 앉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불쌍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처녀는 욕설을 퍼부으며 투덜대는 큰 거위를 집어 들고 똑바로 앞으로 걸어갔다. 열한 마리의 가없는 거위들을 뒤에서 몰아대면서. 그 처녀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저녁엔 아낙네들도 서로 잡담을 하면서 현관 계단에 앉아

있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면양말을 꿰매거나 흰 레이스 문치에 붙은 실들을 째싸게 뽑아내면서. 또 어두운 높은 집에서 “샤켓티 붐, 샤켓티 붐, 즈으” 하고 들리던 양말짜는 기계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처녀가 할로우 가(街)에 이르게 되자 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녀를 놀려대기 시작했고, 지금이 몇 시냐고 빈정댔지만 그녀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몹시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레이스 시장(Nottingham)에 있는 레이스 만드는 구역)은 안식일처럼 고요했고 문에 붙은 큰 낫쇠 간판은 오랫동안 닫지 않아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거기엔 불만이 가득찬 스산한 저녁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듯 했다. 처녀는 불로 그 안이 타버린 큰 창고의 황폐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위압적으로 서 있는 얇은 담장을 지켜 보았고, 그 밑을 겁없이 청송맞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흰 거위들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거위들 위로 담장이 무너져 그것들이 몽땅 깔려버린다면 그녀는 큰 소리를 내어 웃어댔을 것이다 —짐이 없어진 홀가분한 기분에서. 하지만 담장은 그대로 서 있었고, 그녀는 길을 가로질러 안전한 쪽으로 걸어갔으며 거위들을 급히 쫓아갔다. 그녀의 표정은 한층 더 우울해졌다. 요즘의 장사 형편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장사는 알미운 원수 같았다. 그건 마치 눈에 안 보이는 손을 쭈욱 뻗어 공장 문을 닫고, 양말짜는 직공들을 자리에서 쫓아내어 반쯤 짠 천을 기계 위에 그대로 남겨 놓게 한 듯 했다. 돈 들어오는 수입의 근원을 남몰래 막고 전염병보다 더 음흉하고 은밀한 수단으로 그 도시를 굶주리게 하고 있는 성 싫었다. 장이 열리는 첫날 오후 처녀는 거위 열두 마리 —튼튼한 것 열한 마리, 절뚝거리는 것 한 마리—를 팔려고 침울한 분위기(불경기 때문에) 속을 지나 가끔 시장까지 찾아 온 것이다.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프랑스인들은 아주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쨌든 그들은 프로이센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패배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노팅엄의 장사도 망하고 말았다.

안개가 약간 올라왔고 주위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횃불을 너울거리게 했다. 처녀는 아직도 가끔 시장에 앉아 있었고 지쳐버린 거위들도 팔리지도 않은 채 돌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토끼, 비둘기, 기타 가축 등을 파는 장사꾼의 '췌췌'거리는 램프가 거위들을 환히 비치고 있었다.

2

스나 톤 교회 근처의 어떤 지역에 처녀 하나가 밤 거리를 지켜보려고 문간으로 나왔다. 날씬하고 큰 키에 상류층 교양을 나타내듯이 옷차림이 매우 단정했다. 창백하고 가름한 얼굴에 뚜렷한 윤곽을 하고 헤어스타일은 단정한 편이었다.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려고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몸을 약간 구부려 거리를 내다 보았다. 그녀는 우연히 문까지 온 것처럼 보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오래 머뭇거렸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귀를 곤두세웠다. 그러나 그 소리가 자신이 기다리는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되자, 몸을 곧게 세우고 약간 미소를 머금으며 그 남자의 머리 위를 지켜보았다. 남자는 머뭇거리며 잿 썩은 주홍색 램프가 널찍히 비추는 열린 홀을 들여다 본 후, 불빛 앞 갈색 비단옷 차림의 가냘픈 처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머리 위에 고정된 것을 알게 되자 남자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내 그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조리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길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반가워서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빠른 어조로 그러나 정확한 발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월! 난 당신이 시장에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밖으로 나와 봤죠. 난 당신이 가버린 것으로 상상했어요. 당신 우리집에 오는 거죠?” 그녀는 불안한 듯이 그의 대답을 잠시 기다렸다. “우린 당신이 저녁 먹으러 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녀는 몸

시 기다리고 있는 듯이 덧붙였다.

남자의 얼굴은 짧은 편이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 과장된 억양으로 길게 늘이는 말투를 썼고, 한쪽으로 입술을 비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약간 머뭇거리다가 그는 말문을 열었다.

“정말 죄송해요. 진정이에요, 로이스. 미안하지만 난 즉시 일터로 가야 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마귀가 내리는 거죠.” 그는 어둠을 향해 풍자하듯 시선을 돌렸다.

“정말이요, 월!” 그녀는 몹시 실망해서 타이르듯이 연성을 높였다.

“정말이야, 로이스! 나도 진정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난 일터로 가야 한단 말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노동자들은 약간 흥분하고 있소.” 그는 시장쪽으로 머리를 뻗 돌렸다. “만약 난동을 부리는 놈들이 열을 올리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약간 불만을 갖고 있죠. 만약 놈들이 불이라도 지른다면 진짜 제 구실을 하게되는 셈이죠—.”

“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연애소설의 한 장면처럼 남자의 팔에 자기의 손을 얹으며 소리쳤다. 그리고 눈을 들어 진지하게 그를 쳐다봤다.

“아버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는 엄숙히 여자를 내려다보며 대꾸했다. 둘은 그 자세로 잠시 서 있었으며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잠시 이렇게 서 있어도 돼요. 한 시간 쯤은 괜찮을 거요. 내 생각에—.”

그녀는 남자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몹시 실망한 어조로, 그러나 참을성 있게 말했다.

“안돼요, 월. 당신은 가야만 해요. 가는 편이 좋겠죠—.”

“정말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리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자기만 있는지 거리를 둘러본 다음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뻗뻗한 목소리로 소근거렸다. “어때요?”

남자가 자기를 초조하게 하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고, 그는 마치 자신이 하려는 행위가 두려운 듯이 조심해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

은 둘 다 마음이 불안했다.

“자—!”하고 남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녕!”하고 그녀는 남자가 떠나가도록 팔을 풀어 주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잠시 여자의 곁에서 머뭇거리더니 “안녕!” 하고 작별인사를 한후 걸어갔다. 그녀는 밤 속으로 멀어져 가는 남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식당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신문을 훑어보면서 “애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하고 물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월은 오늘밤 저녁 먹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왜 그러지? 시장으로 갔나?”

“아니에요.”

“그래! 그럼 무슨 일이 있어?”

로이스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대답했다.

“그는 공장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두려워 하고 있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 그래!”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대꾸했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3

로이스는 일찍 자러 들어가서 침실에 불을 피웠다. 그녀는 커튼을 당기고 두툼한 커튼 주름을 권 채 밤 경치를 내다보았지만 안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앞을 바라보아도 자신의 희미한 모습만이 나타날 뿐이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화장대로 가서 거울에 얼굴을 기울이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참 거울을 들여다 본 후 그녀는 몸을 일으켜 화장복으로 갈아 입고 「참깨와 백합」(Sesame and Lilies,

John Ruskin이 저술한 책으로 1871년에 출판)을 집어 들었다.

한밤중, 집안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자리에 앉아서 그녀는 사람들이 급히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불안스러워 하는 말소리 등을 들었으며, 서둘러 실내복을 입고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가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또렷하고 빠른 어조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죠?”

“얘야, 나한테 묻지 마라! 어서 가서 자거라! 나도 정말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로이스는 날카롭게 힘주어 물었다.

“난 아빠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 정말 나가시지 않기를 말이야. 계다가 감기까지 드셨고.”

“어머니, 무슨 일인지 제게 말해줘요.” 로이스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셀비의 공장 때문이다 — 난 네가 소방차 소리를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잭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 식구 모두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야!”

로이스는 자기의 침실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 입었다. 자기의 락 머리를 돌돌 말고 외투를 걸치고 나서 집을 나섰다.

그녀는 시내의 공장 지대를 향해 안개 덮힌 나무 밑을 따라 서둘러 갔다. 점점 다가가자 안개 속에서 불빛이 보였고,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급히 가서 드디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르자, 기품있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다. 군중 속에서 불 때문인지 붉게 물든 얼굴들을 쪽 훑어보고 아버지를 발견하자 얼른 그곳으로 다가갔다.

“아니, 아버지 — 그는 안전해요? 월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물론. 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자, 여기 삼프슨이 있어. 그가 널 데려다 줄거야. 난 할 일이 많아. 내가 지켜봐야 할 곳이 있어. 자, 집에 가. 넌 여기 있으면 안돼.”

“월을 보셨어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집에 가 —삼프슨, 로이스 좀 집에 데려가게— 지금 바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집에 가, 어서 —여기 있으면 안돼—.” 아버지는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타는 불을 지켜보는 동안 공포로 인해 눈물은 이내 말라 버렸다. 불꽃은 울부짖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려고 했다. 자기와 애인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불의 놀라운 위력을 보고 그것도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다. 건물 일층이 타오르는 엄청난 불길 속에 한꺼번에 무너지자 재목은 부러지고 파열되었으며, 불꽃을 사방으로 흩뿌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러가지 기계의 강철이 열을 받아 백색으로 변하고 불타는 글씨처럼 뒤틀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루가 차례차례 무너졌고 건물의 목조 구조가 타버리자 붉은 폐물처럼 기계들이 아래로 미끌어 떨어졌다. 공기는 뜨거워 들이마실 수도 없었고, 안개는 사라지고 불꽃은 어두운 하늘까지 살라버릴 듯이 솟아 올랐다. 이따금 불 붙은 판지 —레이스가 감겨 있는— 가 날개 돋힌 불처럼 소용돌이 치며 하늘로 올라갔다. 이 엄청난 고통치는 파괴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 위협스러웠다.

삭크스톤 회사의 관리인인 백발의 삼프슨은 로이스가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얼굴을 돌리자, 즉시 그녀를 데리고 그 곳을 떠나갔다. 삼프슨은 단단한 몸집에 화를 잘 내는 남자였다. 그는 군중을 난폭하게 팔꿈치로 밀어제치며 나갔고, 로이스는 머리를 들고 입술을 다문 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삼프슨은 말없이 그녀를 데리고 가다가 마침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불쑥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대체 뭘 기대하겠어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들은 불경기를 참아낼 수 없는 거야. 그들은 짐체만큼 큰 버섯처럼 솟아나지. 하지만 안정성이 없는 거야. 윌리엄 셀비가 내 심부름을 하던 때

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작은 데서 많은 걸 만들어 내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많은 걸 만드는 자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윌리엄 셸비는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알거지가 될거야. 사람은 행운만을 기대할 수 있지. 장사가 안 되어 경기가 나쁠 때 불난 것이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불경기에서 빠져나올 순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 불이 일어나고 있지. 하지만 아니야. 불은 내가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절대로.”

로이스는 몹시 서둘러 걸어갔고 드디어 고민으로 혈떡이는 늙은 관리인을 자기집 계단까지 데리고 갔다. 그녀는 관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참고 들을 수 없었다. 집에선 잠시동안 그들에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드디어 로이스가 이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어머니가 옷을 입은 채 —단추를 끌러 헤치고— 딸의 방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심계항진(心悸亢進)으로 고통을 겪는 중이었고, 「참깨와 백합」은 그녀 밑에 보기 흉하게 깔려 있었다. 로이스는 어머니에게 브랜드를 한 잔 따라 드렸다. 딸의 위로하는 말과 도움으로 어머니는 이내 회복되어 자기의 침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로이스는 문을 잠그었고, 무서운 불 때문에 검게 변한 자기의 얼굴을 훑듯 쳐다봤다. 납작해진 러스킨의 책을 의자에서 집어 들었고, 자리에 앉자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스폰지로 닦았다. 그리고 나서 그 무서무서한 밤에 두번째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침대 위에 눕는 대신, 호트러진 침대에서 비단 이불을 끌어내어 몸에 두르고, 처량하게 앉아서 생각에 잠기었다. 새벽 두 시였다.

4

장작불은 벽난로에서 차디찬 재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희끄무레한 아침이 뭔가 수줍어하는 사물처럼 반쯤 열어제친 커튼을 지나 방 안에 나타났다. 자신의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목은 경련을 일으켰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자 어젯밤 일이 또렷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한숨을 지었고 정신을 바짝 차렸으며 이불을 바짝 잡아 당겼다. 잠시 앉아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창백하고 비통한 체념이 가면처럼 그녀의 얼굴을 감싸버렸다. 자기가 애인의 안전에 관해 물었을 때 짜증난 듯이 대답한 아버지의 말이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안전하지, 물론.” 누가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월을 좋아한 적이 없다는 것도. 그래도 —그래도— 로이스의 가슴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다. 자기의 애인이 죄가 있다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월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로이스는 자기가 심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남자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어쨌든 월이 공장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한 말을 비밀로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따분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녀의 삶은 이제 끝장이 난거나 다름이 없었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젠 위엄있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불행한 앞날에 자신을 그대로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다. 비록 월이 고소되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그가 죄가 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월과 자기의 둘 사이에서 모든 관계는 이미 끝장이 났음을 깨닫고 있었다.

밝은 노란 안개가 끼어 있는 새벽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화장을 하면서 자기의 앞날이 황량한 안개 속을 지나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이 기분나쁜 순간, 자기를 괴롭히는 권태를 벗어버리고, 즉시 애인이 모습을 바꾸어 기다리고 있는 저 먼 ‘새벽’ —그 새롭고 밝은 따스함 속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싸늘하고 희끄무레한 새벽의 축축한 분위기 —지금 이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에서 곧바로 영원한 ‘아침’ 햇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즐겁고 펍 쉬울 것만 같았다. 도대체 이 지상의 인간이라면 누가 그 정해진 시간을 피

할 수 있겠는가? 로이스는 아무 의미도 없이 매일 아침 하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검은 상복 같은 드레스를 입고 목에 흑옥제(黑玉製) 브로치를 달자 그 의미없는 화장도 마침내 의미를 지니게 된 것 같았다.

아래층에 내려가자 아버지는 아침식사로 양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얼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맞은 편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피곤한 듯 했고 초췌하게까지 보였다.

“일찍 일어났군.”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식사를 계속하다가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자, 양고기를 먹어라. 여기 한 토막 있다! 종을 울려 더운 것 한 접시 가져오게 하지. 아니, 왜 그러지?”

로이스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무런 기색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셨지만 식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그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잭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로이스는 약간 몸을 떨었다. “아직도요?”

“아직 안 돌아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이스는 겁이 났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이 공포는 더 다급하고 더 진력나는 것이었다.

“셀비의 공장은 불로 안이 다 타버렸지. 우린 가까스로 피한거야—”

“아빠, 우리는 피해가 없나요?”

“이렇다 할 피해는 없어.”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윌리엄 셀비와는 달리 내 자신의 힘으로 행동할거야. 물론 그건 운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지만— 넌 몰라.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난 불에 더하여 또 다른 불이 나길 난 원치 않아. 불이 났을 때 셀비는 죠지 호텔이 있었지— 그 젊은이는 어디 있었는지 난 몰라—!”

“아버지!” 로이스가 소리쳤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왜 아버지는 월이 불을 지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딸의 창백하고 말없는 얼굴을 지켜보았다.

“난 월이 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로이스는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아버지는 한숨을 지었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내려놓고 불을 향해 가냘프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딸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로이스는 부엌으로 가서 하녀 루시보고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쳐다볼 것 같아 혼자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그 비극의 현장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다.

로이스와 하녀가 거리를 향해 나갔을 때 교회의 종이 여덟시 반을 알렸다. 시장에 다가가자, 가는 종아리에 거무스름한 얼굴의 남자들이 시장 쪽으로 물통을 밀며 나갔고, 집시 여자들—이마에 험한 인상을 보이고 몸에 꼭 맞는 벨벳 옷을 입은—이 우유주전자와 큰 낫쇠물병, 빵과 아침식사 문치를 들고 보도 위를 바빠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참이었다. 자갈길 위에 다 꿰인 차잇사귀를 집어 던져서 “철썉” 하는 소리가 계속 초라한 길에서 들려 왔다. 로이스 바로 뒤에 차주전자가 이층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녀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봤다. 이층 창문에서 떨어진 차주전자를 멍청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술로 눈이 침침해지고 떨고 있는—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던졌을 거라고 그녀는 상상했다. 생의 냉혹한 비극에 몸을 떨면서 그녀는 걸어갔다.

맥빠진 듯한 시월의 아침, 불탄 공장은 시커멓고 소름끼치는 모습이었다. 창틀은 모두 들쭉날쭉 했고 벽들은 온통 황량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안엔 뒤틀린 부스러기와 화편이 흩어지고 녹이 쏘여 군데 군데 붉은 쇠붙이가 열 때문에 아직도 뜨거워 보였다. 여기저기 타버

린 목재가 시커멓게 반들거렸다. 물로 흠뻑 젖은 산란한 잣더미에서 연기가 아직도 가냘프게 올라오고 있었다. 로이스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월이 이렇게 해 놓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쯤 여기에 죽어 있을 것이고, 불에 타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바라는 ‘영원’ 속에 그는 평안히 쉬고 있으리라.

로이스 곁에서 인정 깊은 예쁜 하녀가 슬픈 듯이 재잘대고 있었다. 잠깐 말이 없더니 하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니, 저기 잭크가 있잖아요?”

로이스는 얼른 돌아서서 자기의 오빠와 애인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둘다 옷매무새가 엉망이고 더러웠으며 안색은 헬썩했다. 월의 한쪽 눈은 보기 흉하게 멍들어 있었다 — 열 시간쯤 전에 얻어 맞은 듯 했고 색갈이 거무스름했다. 그들이 다가오자 로이스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둘은 공장을 우울하게 바라보았으며, 얼마 동안 로이스와 하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저기 있는 여자가 로이스 입에 틀림없군!” 하고 심술쟁이 잭크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낮은 목소리로 투덜댔다.

“저런!” 하고 또 한 남자도 정떨어진 듯이 소리쳤다.

“잭크,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로이스는 애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민에 찬 어조로 날카롭게 물었다. 고통스러운 날카로운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자 오빠는 일부러 농담하는 척하고 자기를 변명했다.

“교도소에 갔다 오지.” 그는 헬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잭크!” 하고 그의 여동생이 아주 신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실이야.”

월 셀비는 자기의 멍든 눈이 보이지 않게끔 얼굴을 돌리려 하면서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로이스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끝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꼈지만, 그는 크게 용기

를 내어 아이러닉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불행히도 그의 부어 오른 한쪽 눈 —엄숙하게 번뜩이는— 을 가리워 주지 못했다.

“내가 멋있게 보이나요?” 그는 입술을 보기 흉하게 비틀며 물었다.

“예, 아주 멋있군요!” 그녀가 대꾸했다.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는 자기 아버지의 타버린 공장을 둘러보았고 비참하고 지긋지긋한 느낌이 그를 엄습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처녀는 너무 말쑥해서 현실에서 떠난 존재인 듯 했다! 아이고 맙소사! 그는 메스꺼운 기분이 들어서 이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셋은 함께 걸어갔다. 로이스는 울화가 치밀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빠는 지치고 긴장되어 있었지만 기가 죽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척내고 계속 씨부렁거렸다.

“우리가 장난을 좀 쳤지! 가끔 시장으로 가는 뽀 오스본과 푸렛디 만셀을 도중에서 만난거야. 약간의 거위를 데리고 있는 처녀도 하나 있었지.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날카롭고 화 잘내는 여자같았어. 그녀와 거위들은 마치 동상처럼 보였지. 장난치기 시작한 것은 일이었어. 그는 처녀에게 3펜스를 주고 ‘쇼’를 보여달라고 한거야. 그녀는 그를 보고 —그를 뭐라고 나무랐어. 그러자 누군가가 거위를 약 올리려고 콧코 찔렀지 뭐야. 또 하나는 거위 눈 속에 물을 뿜어댔지. 그 거위는 갑자기 껍뻑 울기 시작했고 목을 빼고 달아나려 했어. 정말 우스워서! 물 뿜는 물총을 가지고 거위들에게 뿜어대느라고 정말 혼났었지. 참말이야! 그 거위들은 굉장한 놈들이었어. 그것들은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 몰랐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거위들은 우리를 향해 좌우로 마구 달려드는 거야 —정말 재미있었지. 아마 넌 모를거야. 그때 그 처녀가 일어나서 누군가의 턱을 한 대 쥐어박았지. 그러자 모두 싸움판에 끼어들었어. 마지막에 빌리는 그녀의 허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지—”

“야, 입닥쳐!” 월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잭크는 그를 쳐다보고 멧적게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그 거위들을 사겠다고 제의했어. 그래서 우린 거위 한 마리씩 두 손으로 잡은 거야 — 거위를 안고 있었지. 우린 거위를 안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 그 처녀와 함께 빌리가 앞장서서 말이야. 그 놈의 거위들은 꺾꺾거리고 부리로 마구 쪼아댔지. 웃음이 터져 나와서 — 난 정말 우스워서 죽을 뻔 했어. 그런 다음 우린 그 처녀 보고 거위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 그러자 그녀는 분통을 터뜨린 거야. 그녀는 다른 놈들을 불러들여 자기 편을 삼았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지.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월에게 달려든거야 — 그를 죽도록 증오한 거지. 그녀는 월의 눈을 한 대 오지게 때려 멍들게 만들었어. 제 기랄! 우리는 덤벼들었지. 마음껏 싸웠지 뭐야. 장관이었어. 우리는 완전히 싸움판에 말려들었던 거야. 난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

로이스는 두 남자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녀는 로이스 뒤에서 킬킬거리고 웃었지만 로이스의 얼굴엔 미소의 기미도 나타나지 않았다. 월은 몹시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자기의 애인과 타버린 공장을 훌쩍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는 날카롭지만 조심성 있는 어조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몹시 당황했죠. 제 생각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불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이스는 몸을 꼳꼳이 세웠다. 그녀는 월을 따끔하게 한 방 먹인 것이다. 그녀는 위엄있고 냉정한 어조로 그를 비난했고, 잠시 자기의 통쾌한 복수를 속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는 침울해졌고, 흐트러진 볼풀사나운 불결한 모습을 한 채 기가 죽어 버렸다.

“아, 그래요? 이번만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는 입을 삐죽

거리며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셋은 마치 그들이 서로 붙어 다녀야 할 사람인양 나란히 걸어갔다. 그녀는 월의 양심을 깨우쳐 주는 사람 같았다. 그를 용서할 마음이 그녀에게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고, 더더구나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무죄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벌을 받아야 할 소년처럼 그는 그녀의 곁을 걸어갔다. 그는 굴복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은 삐죽거리고 있었다 —몹시 경멸하는 듯이.

작 품 해 설

이 작품은 1970년대 후반에 발표된 것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이 시기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압박에 대한 저항이다.

작품의 구성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깊다.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운명을 맞이하며,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의 문체는 간결하고 명료하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는 매우 강렬하다. 작가는 단락을 짧게 끊어 리듬감을 주면서도, 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였다. 이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현실 사회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독자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작품의 끝까지 독자를 사로잡고 있다.

작품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는 독자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준다. 작가는 이 결말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결말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작품은 현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문학적 기교나 형식적 아름다움만을 보지 않는다. 이 작품은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고통과 저항의 정신이 바로 그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David Herbert Lawrence(1885~1930)는 Nottinghamshire의 탄광촌 Eastwood의 Victoria Street에서 1885년 9월 1일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3남2녀 중의 넷째로서 양친의 대립적인 성격이 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버지의 야성적이고 강인한 노동자 계급의 성격과, 중류 계급 출신의 교양있고 세련된 생활을 갈망하는 어머니의 성격의 대립과 갈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남편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자식들에 정성을 쏟았는데, 그 중에도 넷째인 로오렌스를 제일 사랑했다. 유년시절부터 그는 학문을 좋아했고, 고학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외과 의요기구 제작회사에 사무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곧 肺炎으로 사직하고 그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서 정규교사가 되려고 Nottingham University College에 입학했으며 학창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몇 편의 시를 *English Review*지에 실어준 Madox Ford에게 처녀작 「白孔雀」을 보낸 결과, Ford의 노력으로 1911년에 Heinemann사에서 출판되었다. 다음해에 「침입자」를 발표하고 이어서 1913년에 「아들과 연인」을 발표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지위가 문단에 확립되게 되었다.

「白孔雀」은 아름다운 전원을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남녀의 관계가 관찰자의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인공은 첫사랑에 실패하고 교양없는 관능적인 여자와 결혼하여 술에 빠져 일생을 망치는 것이다. 「침입자」는 자기의 아내와 사이가 나빠진 남자가 다른 여자와 즐기는 정사를 다루고 있다. 「아들과 연인」은 자전적 요소가 강한 작품으로 청춘기의 작가의 자화상이, 고향인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은 모친의 강한 영향으로 자기의 애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모친의 사망 후 그 영향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로오렌스가 스물 여섯 살이었던 1912년 4월,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의 은사 Ernest Weekley의 부인이고 세 자녀의 모친인, 그보다 여섯 살 연상인 Frieda von Richthofen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들은 한 달 후에 영국을 떠났으며, 둘은 1914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독일인 여자를 부인으로 둔 탓으로 첩자로 오인되어 여러번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15년에 출판된 「무지개」는 Nottinghamshire에 사는 Brangwen가 3대의 연대기로서 부부관계 또는 남성대 여성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의 남녀관계엔 육체적 만족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도 얻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 있는데 이 작품은 ‘외설하다’는 이유로 발금되고 말았다. 하지만 로오렌스는 굴하지 않고 속편 「사랑하는 연인」을 1920년에 발표했다. 그 안에서 그는 현대인은 산업사회의 압력과 知性偏重에 의해 진짜 ‘無意識의 自我’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부는 진정한 性的 個別性を 인식하고 그 위에서 남성 상호간의 우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오렌스는 이 두 편의 작품을 쓰고 있는 중에 점차 體系化된 性的 哲學을 발표하기 위해, 評論 「精神分析과 無意識」(1921), 「無意識의 幻想」(1922)을 집필했다. 「방황하는 여자」(1920)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고 Edinburgh대학에서 James Tait Black상을 수상했다. 「아아론의 지팡이」(1922)는 가정에서 아내의 지배를 두려워하여 가정을 버리는 炭鑛計量士의 이야기이다.

「캥거루」(1923)에서 주인공인 영국인 작가는 독일인 아내와의 둘만의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Kangaroo가 통솔하는 패시즘과 사회주의의 비밀결사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Kangaroo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Kangaroo의 정치적 몰락과 더불어 그의 야망도 사라지고 만다.

「날개돋힌 뱀」(1926)은 서양문명에 절망한 아일랜드의 중년여자 Kate가 멕시코에 가서, 그 곳의 원시종교에 매혹되어 인디언 장군 Cipiano와 異敎儀式에 의해 결혼함으로써 性的 힘과 美를 발견하는 이야기다.

최후의 장편 「채털리부인의 애인」(1928)은 성불구자인 Clifford의

아내 Connie가 남편을 떠나 숲에서 장원관리인 Mellors —서로 따뜻한 ‘정감’을 나누고 육체의 원만한 결합을 이룩할 수 있는— 를 만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로오렌스는 본질적으로 비극의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육체와 정신이 균형잡힌 남녀간의 성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도 ‘외설하다’는 이유로 발금처분을 받았는데, 작가는 이에 대해 「好色文學과 외설」(1929), 「채털리 부인에 관하여」(1930) 등을 집필하여 자기의 사상을 솔직히 피력하였다.

그는 1930년 3월 2일, 南佛의 Vence에서 44세로 세상을 떠났다. 44년간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전술한 장편 외에 50여편의 中·短篇을 발표했고 그 밖에 시집, 기행문, 희곡, 평론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다음에 여기에 수록된 열 편의 中·短篇은 Penguin Book의 Selected Short Stories of D.H. Lawrence(1983)에서 뽑은 것이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편 “두쌍의 결혼”은 가난한 시골 목사의 두 딸의 결혼을 다룬 것이다. 큰 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지성편중의 왜소한 목사와 사랑없는 결혼을 하고, 둘째 딸은 생명의 噴出 같은 당당한 체격의 광부와 결혼한다. 로오렌스는 이 두 결혼의 대조에서 씩씩한 남녀의 육체와 정신이 균형잡힌, 이상적인 결합을 찬양하고, 육체를 억압하고 정신생활만을 강조하는 생명없는 결혼을 비판하고 있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중, 똑같이 외로운 한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 관계도 정력이 넘치는 남녀의 육체가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융합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도 떠나고 만다. 인간들에 실망한 만년의 로오렌스의 心情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미와 절망에 빠진 여자”는 광부였던 작가의 아버지, 국민학교 교사였던 그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광부인 피네가와 그 부인 에밀리아.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남편의 이기

적인 그러나 조리있는 주장과 이에 맞서는 아내의 반박이 흥미롭고, 광부의 부인을 불행한 환경에서 구하려는 주인공 지미와, 이 부부 사이의 기묘한 三角關係가 서스펜스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에 광부의 부인에 대한 책임과 그녀와의 원만한 가정생활의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고 지미는 그녀와의 결혼을 취소하려고 하나 때는 이미 늦었다.

기계소리 요란하고 악취나는 탄광촌은 작가가 혐오하는 현대의 기계문명을 상징하고, 광부의 부인과 딸 —냉정하고 무표정하고 말이 없는—은 삶의 고통으로 비인간화된 20세기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표를 보겠어요”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에서 일하는 여차장들의 이야기다. 여차장들을 여러명 농락해 온 한 色漢이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받게 된다. 여차장들은 그 가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도, 혹시 그가 다시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미묘한 여성의 심리가 나타난다. 두들겨 맞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호색꾼의 태도는 가증스럽고 동시에 애처롭다. 이 작품에는 성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작가의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미원 속의 그림자”에서 광부의 아내는 첫사랑의 남자를 남편 몰래 장미원으로 찾아간다. 두 남녀는 장미꽃이 만발한 화원에서 수 년만에 만난다. 그러나 남자는 현재 미친 사람이 되어 과거에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가슴에 사무치는 인생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은 제철이 되면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지만,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폐인이 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슬픈 인생의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번째 신랑감”에서, 여주인공 프랜시스와 첫 애인 지미 —중류 계급의 학식 많고 잘난 체 하는—은 “두쌍의 결혼” 속의 큰 딸의 남편을 연상시키고, 두 번째 신랑감 탐은 둘째딸의 애인 알프레드를 상기시킨다. 이 작품에서도 지식은 부족하나 씩씩하고 소박하고 건전한 농촌의 젊은이가 프랜시스와 결혼하게 된다. 정신과 육체가 균

형잡힌 남녀의 완전한 결합이 로오렌스의 이상적인 결혼이기 때문이다.

“프러시아 장교”에서, 상관의 잔인한 행위와, 부하의 마음 속에 고통 중에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하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훗김에 상관을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좀 더 참지 못하는 인간의 ‘공통된 약점’에 독자는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하의 눈앞에 나타나는 산들 —멀리에 또는 가까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보이는— 은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든 광부”에서 행복한 결혼을 한 두 남녀의 단란한 가정생활은 탄광에서 남편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산산히 깨지고 만다. 오랜 고통으로 자제력을 거의 상실한 남편의 무의식적인 난폭한 행동과 이를 제지하려는 아내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독자의 눈 앞에 생생하게 전개된다. 탄광촌에서 살아가는 광부와 아내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경제적 기반이 박약한 광부 가정의 불안스러운 생활상이, 애처롭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구”는 뉴잉글랜드 출신의 젊은 이상주의적인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다. 그들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미국에서 프랑스로, 다시 이탈리아로 옮겨 간다. 그림도 그리고 불교 사상을 연구하고 명상에 잠겨 보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골동품인 가구 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불교의 교리대로 모든 욕심, 애착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물욕’에 빠져버린 셈이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 가구들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와서 뉴욕의 한 창고에 넣어둔다. 온갖 욕심을 버리는 ‘열반’의 경지도 이론상으로 좋지만 땅에 발붙인 육체를 가진 인간이 쉽사리 이를 수 없는 ‘이상적 경지’에 불과하다. 골동품 가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쉽사리 버릴 수 없는 물욕, 물질에 대한 애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위 시장”은 普佛戰爭(187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직후, 영국

Nottingham의 레이스 만드는 공장 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패패로 영국의 면제품이 수출되지 않아 불경기가 밀어닥치자 공장에 방화하여 불태우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여주인공 로이스의 애인인 윌의 아버지가 소유한 공장도 밤중에 불타버리는데, 작자는 누가 방화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번히 나타나는 “햇불”, “불” 등은 절망적인 사태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록된 열 편의 작품을 읽어 보아도 단편 작가로서 뛰어난 로오렌스의 재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많지 않고 플롯도 복잡하지 않아서 독자에게 간명한 느낌을 주지만 그 속에 심오한 사상이 빈번히 내포되어 있다. 그의 등장인물의 성격묘사와 성심리의 묘사 등은 정확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동·식물, 온갖 꽃, 광산촌, 공장 지대, 정기 시장 등의 묘사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눈 앞에 보는 듯한 迫眞感을 안겨 준다. 또렷한 명암, 상반되는 색조의 대조 등도 독자의 눈에 선하다.

그의 글은 아름답고 쉬운 편이지만 Imagism(1910년대 영미 시인들이 일으킨 新詩運動으로 이미지의 명확한 표현 등을 중요한 강령으로 한다)의 영향을 받은 詩的 表現이 많아 이해하기에 힘들 때도 있다.

이 책이 천재작가 로오렌스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면 역자는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작 가 연 보

1885년 9월 11일, 광부 John Arthur Lawrence와 그의 처 Lydia의 3남으로 영국 Nottinghamshire의 Eastwood, Victoria Street에서 태어남.

1881년, Beauvale Board School에 입학함.

1898년, 위 학교를 졸업하고 Nottingham High School에 입학함.

1901년, Nottingham High School을 졸업. 의료기구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근무하다가 폐렴에 걸려 사직함.

1904년, King's Scholarship에 응시하여 England와 Wales 지방에서 수석으로 합격함.

1906년, The White Peacock를 쓰기 시작함. Nottingham University College의 사범과정에 입학함.

1908년, 위 대학을 졸업.

1909년, 여자 친구 Jessie의 도움으로 몇 편의 시가 English Review지에 발표되고 편집장 Ford Madox Ford를 만남.

1910년 12월, 모친 사망.

1911년, The White Peacock 출판.

1912년 4월, Nottingham University College의 현대어 교수이며 은사인 Ernest Weekley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부인 Frieda를 만남. 한 달 후 Frieda와 함께 독일로 사랑의 도피를 함.

5월 The Trespasser 출판.

1913년, 최초의 시집 Love Poems and Others 출판.

1914년, 최초의 극 The Windowing of Mrs. Holroid 출판.

7월 Frieda와 정식으로 결혼. 11월 최초의 단편집 The Prussian Officer and other Stories 출판.

1917년, 시집 Look! We Have Come Through! 출판.

1920년, The Lost Girl 출판(이 작품으로 Edinburgh 대학에서 James Tait Black Memorial Prize를 받음).

1921년,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출판.

기행문 Sea and Sardinia 출판.

- 1922년, Aaron's Rod 출판. 평론 Fantasia of the Unconscious, 단편집 England, My England 출판.
- 1923년,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출판.
9월, Kangaroo, 10월 시집 Birds, Beasts and Flowers 출판.
- 1924년, M. L. Skinner와 공저인 The Boy in the Bush 출판. 9월 부친 사망.
- 1925년, Movements in European History 출판.
평론집 Reflections on the Death of a Porcupine and Other Essays 출판.
- 1926년, The Plumed Serpent 출판.
- 1927년, 기행문 Mornings in Mexico 출판.
- 1928년, 단편집 The Woman Who Rode Away and Other Stories 출판. The Collected Poem of D.H.Lawrence 출판. Lady Chatterley's Lover가 Florence에서 비공식적으로 출판됨. The Collected Poems of D. H. Lawrence 출판.
- 1929년, The Paintings of D. H. Lawrence가 출판되었으나 경찰에 의해 압수됨. Pornography and Obscenity 출판.
- 1930년 3월 2일, Vence에서 사망. 享年 44세 5개월.

역자 현 광 식(玄光植)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환교수로 미국 Georgetown University에서 연구.

문학박사(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강원대 강사.

현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편저〉

버어나드·멜러머드의 「店員」(*The Assistant*)(신아사)

윌러·캐더의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문화사)

〈역서〉

버어나드·멜러머드의 「요술통」(한신 문화사)

「새경험」 모음 短篇選(신아사)

「빨래통」 모음 短篇選(신아사)

「여자의 선택」(공역)(대학출판사)

「美國의 유대系作家」(한신문화사)

기타 미국작가에 대한 논문 다수



● 두쌍의 결혼 ●

1995年 8月 5日 初版 印刷

1995年 8月 10日 初版 發行

著 者 D.H. 로오렌스

譯 者 玄 光 植

發行人 鄭 範 謨

發 行 處 翰林大學校 出版部

江原道 春川市 玉泉洞 1

(登錄: 1983. 3. 10 第 48號)

印 刷 處 江原日報社 出版局

정가/6,500원